

국립국어원 2007-1-24 경북(3)

발간 등록 번호
11-1370252-000072-14

# 2007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 김무식

연구 보조원 : 김인규

조사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7년도 경북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연구책임자 : 김 무 식

2007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 제출문

1. 조사 과정	7
2. 전사 원칙	14
3. 전사자료	17
제1편 구술발화	19
제2편 어    휘	182
제3편 음    운	239
제4편 문    법	276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3) 조사된 질문지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5) 제보자 조사표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 1. 조사 과정

## 1.1. 조사 지점 개관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지역어조사 사업을 통해 경북지역은 예비조사로서 경주 지역어를, 본 조사로서 상주지역어, 청송지역어를 각각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경상북도에서 각각 동남, 북서, 북동쪽에 가까운 지역이므로 2007년도 경북지역어 조사지로는 경상북도의 서남쪽에 위치한 지역을 주로 검토했으며 그 결과, 고령군을 선택하게 되었다.

2007년도 경북지역어 조사지로 선정된 고령군은 북쪽으로는 성주군, 서남쪽으로는 경상남도 함창군과, 동쪽으로는 달성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경계 지역은 대개 자연 지형으로 구분되는데, 북쪽에는 큰 산인 의봉산이 있으며, 서쪽에는 미송산과 문수봉이, 남쪽에는 만대산, 시리봉, 수확산이 차례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동쪽에는 낙동강이 흘러 자연지형에 의한 경계를 이루고 있다. 고령군의 교통은 88고속도로가 동서로 관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남북으로도 연결이 비교적 쉬운 곳이다. 이밖에 남북으로 기존의 33번 국도와 동서로 26번 국도가 연결되어 비교적 교통이 발달된 곳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령군은 대가야국의 본거지였던 곳으로 그 유적이 주산성에 그대로 남아있으며 경덕왕 16년에 ‘대가야군(大伽倻郡)’을 현재의 고령군으로 바꾼 이래 현재 한 개 읍과 일곱 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의 실제 조사지인 고령군 덕곡면 원송리는 고령군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고령읍에서 약 10km 가량 떨어진 곳이다. 덕곡면은 동쪽으로는 고령군 운수면, 서쪽으로는 경상남도 함창군 가야면, 북쪽으로는 성주군 수륜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덕곡면은 지방도로가 남쪽으로 고령읍, 북쪽으로 성주군 수륜면과 가야산 자락의 백운동으로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경상남도 함창군 야로면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비교적 교통이 발달된 지역이다. 행정단위 이름인 원송리는 자연부락 이름인 ‘심어동, 아래뜸, 새뜸, 기동마을’로 구성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이 마을 사람은 대개 논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특산물로 유명하며, 최근에는 딸기 재배도 하고 있다.

오늘날 이 지역 사람들의 시장 상권은 고령읍에 있는 고령시장이지만 예전에는 고령시장 뿐만 아니라 재를 두 개 넘어서 가는 성주군 수륜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구에서 시내버스가 연결되어 대구의 시장까지 쉽게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 사람의 통혼권도 위에 제시된 시장 상권과 거의 일치하며 함창군의 일부지역에까지 미치는데 주체보자도 인근 지역에 처가를 두고 있다. 이 지역 사람은 대개 조사지점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녔으며 고등학교는 주로 고령읍이나 대구지역으로 진학을 했다. 대중교통편은 이 마을에서 고령읍까지 운행하는 관내의 대중버스와 대구에서 연결되는 시내버스가 있어서 매우 편리하며, 고령읍에서 전국의 여러 도시로 연결되는 시외버스가 운행되어 비교적 교통편이 편리한 곳이다.

## 1.2. 조사 기간

### (1) 조사 기간

- 예비조사(4일)
  - 2007년 7월 4일 ~ 7월 5일
  - 2007년 7월 9일 ~ 7월 10일
- 본조사(14일)
  - 2007년 7월 27일 ~ 8월 6일
  - 2007년 8월 13일 ~ 8월 18일
- 보완 및 확인 조사 기간(2일)
  - 2007년 12월 8일 ~ 12월 9일

## 1.3. 제보자

### (1) 주제보자(제보자#)

- 이 름 : 박
- 성 별 : 남
- 나 이 : 만 86세(1921년생 : 실제나이 82세)
- 출생지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 거주지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 선대거주지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3대째 살고 있음.)
- 직 업 : 농업
- 경 력 : 없음.
- 학 력 : 무학
- 병 역 : 육군 약 4년간 근무
- 소개 과정 : 면사무소 및 전임면장/ 이웃주민
- 특기 사항 :
  -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면 다른 곳에 거주한 경험이 없으며 무학이지만 굉장히 영리하며 한글을 해독함. 다만, 간난 아기 때에 1년 정도 창녕에 잠시 갔었음.
  - 가난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지만 지역에서 비교적 자수성가한 편이며 성격은 차분하며 사회성이 좋은 편임.
  - 군 경력을 빼면 모두 이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를 했음.
  -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비교적 이해가 빠른 편이었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음.
  - 성주풀이나 민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기억력의 감퇴로 완전하게 구술하지는 못하고 있음.
- 언어 및 음성 특징 :
  - 발음이 비교적 또렷하며 음량은 나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소 음량이 줄어드는 문제도 보였음.

- 묻는 질문에는 또박또박 잘 대답을 하는 편이었지만 질문 외에 스스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능력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술발화 조사 때는 조사자가 자주 참견하게 됨.

- 기억력이 좋고 총명하여 조사자의 설명을 잘 이해하여 조사 과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가끔 개신형과 보수적인 어형 사이에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음.

## (2) 제보자1(#1)

- 이 름 : 도
- 성 별 : 남
- 나 이 : 만 72세(1935년생)
- 출생지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 거주지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 선대거주지 : - 경상북도 덕곡면 (3대조부터 거주함.)
  - 그 전대에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거주함.
- 직 업 : 농업
- 경 력 : 없음.
- 학 력 : 고졸
- 병 역 : 육군 약 4년간 근무
- 소개 과정 : 면사무소 및 전임면장
- 특기 사항 :
  - 전임면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으며 조사에 아주 협조적이고 적극적이었음.
  - 말하기를 좋아하며 상당히 사교적이며 비교적 영리한 편임.
  - 다만, 농촌 지역에 살면서도 젊었을 때 농사관련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머슴을 들여서 한 관계로 농기구 등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주제보자를 '박만수 님'으로 교체하게 되었음.
- 언어 및 음성 특징
  - 학력이 고졸이지만 지역 내의 학교를 다닌 관계로 외부 방언의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이 지역 방언을 잘 반영하고 있었음.
  - 발음이 매우 또렷하며 음량도 풍부하고 조사에 적극적이었음.
  - 구술발화에서 파일 1, 2, 3, 4 부분을 담당했음.

## (3) 제보자2(#2)

- 이 름 : 이 (도 씨의 아내)
- 성 별 : 여
- 나 이 : 만 72세(1935년생)
- 출생지 : 경상북도 성주군
- 거주지 :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20세 때 시집을 왔음.)
  - 경상북도 성주군 (시집을 때까지 거주함.)

- 선대거주지 : 경상북도 성주군 (선산 이씨의 집성촌에 살았음.)
- 직 업 : 농업
- 경 력 : 없음.
- 학 력 : 없음.
- 병 역 : 없음.
- 소개 과정 : 제보자1의 아내
- 특기 사항 :
  - 도 씨의 아내로서 제보자의 설명을 잘 알아들었으며 상대적으로 사교적이었음.
  - 말소리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음.
  - 구술발화 파일 1과 2에 조금 참여하였음.

#### (4) 제보자3

- 이 름 : 최 (박 씨의 아내)
- 성 별 : 여
- 나 이 : 만 72세(1935년생)
- 출생지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 거주지 :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같은 면 지역에서 시집을 온 관계로 어릴 적의 언어적 배경은 차이가 없음.)
- 선대거주지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 직 업 : 농업
- 경 력 : 없음.
- 학 력 : 없음.
- 병 역 : 없음.
- 소개 과정 : 주제보자의 아내
- 특기 사항 :
  - 박 씨의 아내로서 제보자의 설명을 잘 알아들었으며 상대적으로 사교적이었음.
  - 말소리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음.
  - 음운, 어휘, 문법 조사에서 일부 여성관련 조사에 참여를 하였음.

## 1.4. 조사 현황

- (1) 조사자 : 김무식(경성대학교 교수)/ 김인규(경북대학교 조교)
- (2) 조사 일시
  - 예비조사일시 : 2007년 7월 4일 ~ 7월 5일/ 7월 9일 ~ 7월 10일
  - 본조사일시 : 2007년 7월 27일 ~ 8월 6일/ 8월 13일 ~ 8월 18일
  - 보완 및 확인 조사 일시 : 2007년 12월 8일 ~ 12월 9일
- (3) 조사 장소 : 주제보자 및 제보자1의 집

(4) 조사 장비

- 녹음기 : 마란츠 PMD660
- 마이크로폰 : 슈어 편마이크(SM11)

(5) 조사내용(합계 : 2130분 : 35시간 5분)

1)구술 발화(총 725분 : 약 12시간 5분)

번호	파일이름	조사 항목	파일 길이	제보자	조사일	기 타
1	SGB_GR_01	1.1.(10101~ 10105)	80분	도**/ 박**/ 이**	2007. 7. 27.	
2	SGB_GR_02	1.2.(10201) ~ 1.2.3(20210)	60분	도**/ 박**/ 이**	7. 28.	
3	SGB_GR_03	모심기 노래/ 1.2.4.(10211) ~ 1.2.5.(10222)	57분	도**/ 박**/ 이**	7. 28.	민요 22분( 박**)
4	SGB_GR_04	1.2.6.(10223) ~ 10233	57분	도**/ 박**/ 이**	7. 29.	
5	SGB_GR_05	1.3.논농사(1.3.1 ~ 10318)	73분	박**/ 최**	7. 30.	
6	SGB_GR_06	10319(방아종류p.39) ~ 10326	33분	박**	7. 30.	
7	SGB_GR_07	10327마을공동체 ~ 10427	97분	"	7. 31.	
8	SGB_GR_08	식생활,10501) ~ 10511	54분	"	8. 1.	
9	SGB_GR_09	10511(조과류, p39) ~ 10523, 1.4.3.(10418) -10427	34분	" / 최**	8. 1.	
10	SGB_GR_10	10601거주생활 ~ 10617	66분	"	8. 1.	
11	SGB_GR_11	10701,질병 ~ 1.8.1.세시풍속	60분	박**	8. 2.	
12	SGB_GR_12	1.8.2.(10802,전통놀이) ~ 1.9.4.(10921)	31분	"	8. 2.	
13	SGB_GR_13	박만수 씨 생장 및 군 이야기	23분	"	8. 2.	

2)어휘 파일(1012분 : 약 16시간 9분)

번호	파일이름	조사 항목	파일 길이	제보자	조사일	기 타
1	SGB_GR_14	2.1.(20101) ~ 20316	90분	박**	2007. 8. 3.	
2	SGB_GR_15	2.1.4.(20401) ~ 20613-1	37분	"	8. 3.	
3	SGB_GR_16	20614(p.139) ~ 20842	70분	" / 최**	8. 4.	
4	SGB_GR_17	2.3.(20901 ~ 20941)	30분	박**	8. 4.	



5	SGB_GR_18	2.3.2.(21001 ~ 21265-3)	85분	"	8. 4.	
6	SGB_GR_19	21301 ~ 7/ 2.5.(21501 ~ 21617)	87분	" / 최**	8. 4.	
7	SGB_GR_20	21618(p.259) ~ 2.6.(21801 ~ 21829)	96분	박**	8. 5.	
8	SGB_GR_21	21830(p.290) ~ 22136	103분	"	8. 5.	
9	SGB_GR_22	2.6.3.(22001 ~ 22315)	66분	"	8. 5..	
10	SGB_GR_23	(22316(p.356) ~ 22379	78분	" / 최**	8. 5.	
11	SGB_GR_24	2.9.(22401 ~ ) /호칭어/동물명 칭(고동각시) 보충(3/17-19)	73분	박**	8. 6.	
12	SGB_GR_25	22618(p.415) ~ 22931-1)	90분	"	8. 6.	
13	SGB_GR_26	23001 ~ 23205	50분	"	2007. 8. 13.	
14	SGB_GR_27	23206(p.478) ~ 23437	57분	"	8. 14.	

3)음운 파일(96분 : 약 1시간 36분)

번호	파일이름	조사 항목	파일 길이	제보자	조사일	기 타
1	SGB_GR_28	음운 3.1. ~ 끝	96분	박**	2007. 8. 14.	

4)문법 파일(176분 : 약 2시간 56분)

번호	파일이름	조사 항목	파일 길이	제보자	조사일	기 타
1	SGB_GR_29	4.1.대명사(40101) ~ 40342	81분	박**/ 최**	2007. 8. 15.	
2	SGB_GR_30	40313~315/ 318~320/ 40343 ~/ 41029 ~ 끝	95분	"	2007. 8. 15.	

5)보완조사 파일(121분)

번호	파일이름	조사 항목	파일 길이	제보자	조사일	기 타
1	SGB_GR_31	- 어휘항목 30614외 37항목 확인 및 보완조사. - 음운항목 31012외 16항목 확인 및 보완조사 - 문법항목 40101-0-5외 14항목 확인 및 보완조사	61분	박**	2007. 12. 9.	
2	SGB_GR_31	- 어휘20520-1 - 음운 32047~32331 보완조사	60분	박**	2007. 12. 9.	

## 1.5. 전사

(1) 1차 전사(2007년 9월) : 총 145시간 30분

구술발화 : 김무식/김인규(107시간)

어휘 : 김인규(32시간 20분)

음운 : 김인규(2시간 40분)

문법 : 김인규(5시간 40분)

(2) 1차 점검(2007년 10월) : 총 128시간

구술발화 : 김무식

어휘 : 김무식

음운 : 김무식

문법 : 김무식

(3) 2차 점검(2007년 11월) : 총 128시간

구술발화 : 김무식

어휘 : 김무식

음운 : 김무식

문법 : 김무식

(4) 3차 점검(2007년 12월) : 총 122시간

구술발화 : 김무식

어휘 : 김무식

음운 : 김무식

문법 : 김무식

## 2. 전사 원칙

###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전체 조사한 내용에서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 )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친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 노), (+ 유)로 표시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에(e)’와 ‘애(ɛ)’, 그리고 ‘으(i)’와 ‘어(ə)’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각 ‘케’와 ‘니’로 통일시켜 적고 필요한 경우에는 (+ ) 안에 그 사실을 표시하였다.
-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으로 고음(높은 소리)은 해당 음절 오른쪽 어깨에 '표시를 했다. 상승조는 모음자를 중복해서 적고 뒷모음의 오른쪽 위에 '표시를 하며, 하강조는 모음자를 중복해서 적고 앞 모음의 오른쪽 위에 '표시를 했다. 고장조는 모음자를 중복해서 적고 두 모음의 각각의 해당 음절 오른쪽에 '표시했다.



2007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 3. 전사 자료

# 제1편 구술발화

## 1.2. 일생 의례

### 1.2.1.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어르신 그 음 아까 쪼'구믄 이야기 하셔썸니다마네 어디서 출생을 하셔꼬, 그 다음에 사라오신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하고 이런데 대해서 어 함분 쪽:, 함분 이야기 썸 해주십씨요, 예? {어르신 그 음, 아까 조금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출생을 하였고, 그 다음에 살아오셨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음, 한 번 쪽, 한 번 이야기를 썸 해주십씨요, 예?}

10201 #1 여'기선 지, 지가 참 나'썸니다. {여기서 제, 제가 참 태어났습니다.}

10201 #1 여'선 나가'조서 여'서 크고, 여섬 머 해썸니다.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서 여기서 컸고, 여기서 뭐 했습니다.}

10201 #1 나는 지금 현재 이 이'른 스 서이'미'다. {나이는 지금 현재 일, 일흔셋입니다.}

10201 #1 어 이른 서이고. {어, 일흔셋이고.}

10201 @ 열신거머는 띠'는' 어'뜨게 템미까? {어르신 그러면은 띠는 어떻게 됩니까?}

10201 #1 띠'는' 내내겐 으 데'지땀미다. {띠는 또한 음, 돼지띠입니다.}

10201 #1 네, 을'래생. {네, 을해(乙亥)생.}

10201 @ 그럼 여기 그 동네 이름하고 그거 어 함 번 군, 면, 동까지 썸 함 이야기해 주십씨요. {그럼 여기 그 동네 이름하고 그것 음, 한 번 군, 면, 동까지 썸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씨요.}

10201 #1 네:, 여 구는 고령구~'이고예, 은자 머는 덕썰며~이고, 그 다음머 동은 예, 그 원송동 내에서 다니부라기 이썸니다. {네, 여기 군은 고령군이고요, 인제 면은 덕곡면이고, 그 다음에 동은 그 원송동 내에서 단위부락이 있습니다.}

10201 #1 다니부라근 심:무동', 그 다음머 중땀, 세:땀', 기동, 응 네, 그래 네 부라기 함, 합쳐가조서 우 원송이라고 함미더. {단위부락은 심무동, 그 다음에 중땀, 세땀(+ "세땀"으로 추정되지만 고유명사라서 그냥 기록함.), 기동, 음 네, 그래 네 부락이 함, 합쳐 가지고서 원송이라고 합니다.}

10201 #1 위 원송은 위뚜 원짜, 솔 송짜, 함무느로 하머는. {원, 원송은 으땀 원자, 솔 송자, 한문으로 하머는.}

10201 @ 그 다음머 어르신 그 부몬님 고'향하고 부모니미 예저네 생'어블 어떻 걸 하셴는지 썸 이야기해 주십씨요. {그 다음머 어르신 그 부모님 고향하고 부모님이 예전에 생업을 어떤 것을 하셴는지 썸 이야기를 해 주십씨요.}

10201 #1 네. {네.}

10201 #1 우리 예 응 참 조'본님부텅 이 여이 여기 인자 오시가조서 곱 모:실 때'에는 참

거 저 소:니 업씨가조서 그래 고향을 떠나따 이'갑띠더. {우리 예, 음, 참 조부님부터 이 여기, 여기 인제 오서 가지고서 그 모실 때에는 참, 거 저 자손이 없어 가지고서 그래서 고향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합디다.}

10201 #1 소 소니 인자 머 참 업승기 여 소~이 켜, 고향을 떠나며는 소니 하나다::, 이른 음 응 거스로 해가조서 이여 고향을 떠나가조서 여서 참 미'테'까'지 이에 거 살고 아주 이 씽'미다. {손, 자손이 인제 뭐 참 없으니까 여 손이 저, 고향을 떠나면 손이 하나다, 음 이른 것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 가지고서 여기에서 이해까지 여기에 거, 아주 살고 있습니다.}

10201 #1 머 여소 해바편 머 참 실찌 살기거 그 당시머 해도 골란해가지어 나룬'농'사하고 머 고'래 지논예 여 머 참 억'찐'로 아주 살고 아주 그렇갑쎄'띠더. {뭘, 여기서 해 보았던, 뭘 참 실제로 살기가 그 당시만 해도 곤란해 가지고 벼농사하고 뭘 그래 지어 놓으니까 여기 뭘 참 억지로 아주 살고 아주 그런가 싶습디다.}

10201 @ 그라므 주로 어 나랑'농'사를 으 예정네도 부모님께서도 나랑'농'사를 주로 하셔쎄 미까? {그러면 주로 음 벼농사를 음 예전에도 부모님께서도 벼농사를 주로 하셨습니까?}

10201 #1 네예. {네.}

10201 #1 땅 건 아나고, 나랑'농'사마. {다른 것은 안 하고, 벼농사만.}

10201 @ 그 다음메 그 부모님 그 또 그럼머는 여기서 태어나셔쎄? {그 다음에 그 부모님 그, 또 그러면은 여기에서 태어났셔고?}

10201 #1 야, 음 그래. {예, 음 그래요.}

10201 @ 증조부 붙? {증조부 부도?}

10201 #1 아버'지는 모리게'씨예, 거션 태'어난능강, 여'서 태'어난네 거늬 모리게'씨여, 실 켜, 뻔. {아버지는 모르겠네요, 거기에서 태어났는지, 여기에서 태어났는 것은 모르겠어요, 실제, 네.}

10201 #1 멈 도'라가시따 봉게네 굶 무 굶 무 무'를 쭈도 어꼬이, 여서 태어난느가 어때 저 어뜬. {뭘 돌아가셨다 보니까 그 물, 그 물, 물을 수도 없고, 여기서 태어났는가 어떻게 되었든.}

10201 # 그 어르니 저게션 조'보뻔 태'어나가주고 일로 오시쎄 시폰데. {그 어른이 저기에서 조부 때 태어나 가지고 여기로 오셨지 싶은데.}

10201 #1 네. {네.}

10201 #1 조보 때. {조부 때.}

10201 # 태어나기는. {태어 나기는.}

10201 #1 네, 고향에서. {네, 고향에서.}

10201 # \*\*, 응, 고향에서. {\*\*, 응, 고향에서.}

10201 #1 네. {네.}

10201 @ 고 다투메 어르니른 고향이 어디십미까? {그 다음에 어머니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10201 #1 그 어머니는 고'양은 저어 성주군 수륜면 윤'동이라 카는 또 동네 거'는 순 멈 거 김'씨드리, 이승김'씨들만 대'성'바'진 짜고삼미다. {그 어머니는 고향이 저기 성주군 수륜면 윤동이라고 하는, 또 동네 거기는 순전히 뭘 그 김씨들이, 의성김씨들만 대성(大姓)바지들로 무리지어 삽니다.}

10201 @ 그 다투메 어 어르신 형제넌 그에 대해서 쫘 이야기 해주십쎄요, 예? {그 다음에

어, 어르신 형네는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10201 #1 네. {네.}

10201 #1 형'제는 삼'형'젠' 두'온'는데 지금 형'어이 짐 머 그 형제뿐'임미다. {형제는 세 형제를 두었는데 지금 형이 지금 뭐 그 형제뿐입니다.}

10201 #1 우리형'이 이'서'은데 형은 그 당'시에 유변사변머리 참 거 어 주'구'씀미다. {우리 형이 있었는데 형은 그 당시에 6.25사변때문에 참 거 음, 죽었습니다.}

10201 @ 건 동생부는? {그럼 동생분은?}

10201 #1 동생'은 지'끔 그래 요 이따감 머 참 서울서 상고 공부하'고, 그래 서울서 또 직장 생활하'고 하다가 지'끄'름 미웁 가아주오 참 머 찌 잘 살'고 이'씀미다. {동생은 지금 그래 여기에 있다가 뭐 참 서울에서 늘 공부하고, 그래 서울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가 지금은 미국에 가 가지고 참 멋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10201 #1 참 나 나'는 이'래 몬'사'르도. {참, 나, 나는 이렇게 못 살아도.}

10201 @ 혹시 여형제느너 며치나 댜미까? {혹시 여형제는 몇이나 됩니까?}

10201 #1 여'형'제는 참 씨 매 처메'느 마'는'데, 올 엄무'이가 열두를 가따가 나'안'는데, 밤'빼'끼 아즈 어'침 몽' 키'아'씨여. {여형제는 참 맨 처음에는 많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열두를 가져다가 낳았는데, 반밖에 아주 엄청 못 키웠어요.}

10201 #1 현재는 눈'님' 두'둘'하'곤, 동생 하나뿐'~'이라여. {현재는 누님 두, 둘하고 동생 하나뿐이에요.}

10201 #1 니, 이 여'행'제'는. {이, 여형제는.}

10201 @ 어르신 그어 향'녀'근 어'트'게 테'은지 함 이야기? {어르신 그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이야기를?}

10201 #1 그어 향'녀'근 참 씨 먹 좀 머'웁 거 참 거 고'등'하'교'꺼지 해'씀미다. {거기 학력은 참, 뭐 좀 뭐 거 참, 그 고등학교까지 했습니다.}

10201 #1 그어 우 고 크 헤'따 케'도 그 그날'쫘'에 유변사변'또 지나고 머 허'딩'거'딩' 피'느 머리 올키 참 공부'도 하'도 몬'몸'몸'모'데'꼬 머 기'~'양 허'둥'고'도'~'이 그래'고 먼 참 녀'가'찌여. {그 우리 고등까지 했다고 해도 그, 그날 중에 6.25사변도 지났고 뭐 허둥지둥 (+ 게으름을)피우는 바람에 옳게 참 공부도 하지도 못, 못했고 뭐 그냥 허둥지둥 그리고 뭐 참말로 넘겼지요.}

##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2 @ 그 다'옴'에 어'르'신 그 어 부'인'계'서'는 아'까 어'머'님, 그 부'인'계'서'는 어'뜨'게 어'디 출'시'니'고? {그 다'옴'에 어'르'신, 그 음 부'인'계'서'는 아'까 어'머'님, 그 부'인'계'서'는 어'떻'게 어'디 출'신'이'시'고?}

10202 #1 메, 네, 거'는 전, 네. {뭐, 예, 거'기는 저, 네.}

10202 #1 성'주'군 수'륜'면 세'별'카'는데, 거'더'느 거'느 그 동'네'는 또 선'산'니'아'가'들'마 손'자'살'고 이, 거'이 짜'이, 자'이 거'서 참 제'실'지'키, 지'키'노'코 참 그'래 몸 문'중'을 지'키'감'미'느 그'래 삼'스, 사'는, 사'는 동'넌'미'다. {성'주'군 수'륜'면 새'별'이'라'고 하'는데, 그 동'네'는 그'는, 그 동'네'는 또 선'산'이'가'들'만 혼'자'살'고 있'고, 그 이 적'에, 자'기'들'이 거'기'서 참 제'실'을 지'키'고, 지'켜'놓



고 참 그렇게 문, 문중을 지켜가면서 그래 살면서 사는, 사는 동네입니다.}

10203 @ 그러며느 거이스 어 수룬 그 새별마으런데, 그 어뜨케 스 만나서썰미까? {그러면은 거기서 음 수룬 그 새별마을인데, 그 어떻게 해서 만나셨습니까?}

10203 #1 아:, 만'넬 때'느 실'썰' 보'며는 우리 히, 우리 형'이 참' 잘나'썰요. {아, 만날 때는 실제 보면은 우리 형, 우리 형이 참 잘났어요.}

10203 #1 우리 형' 중매'자가 우리 형'보고 그 당시에 인자 참 유변사변내 인자 주'군 줄 모르고, 그 째 고, 고인텐' 지는 모르고 거'서 그 세빌레에 대해서 우리가 농'사를 가따가 우'리가 서'마지리가 저 우리가 이저 거서 그 동네 사람들 가따가 그'기' 바론 자연지'비라. {우리 형 주매자가 우리 형을 보고, 그 당시에 인제 참 6.25사변에 인제 죽은 줄을 모르고, 그 참 고인, 고인인데 자기는 모르고 거기서, 그 새별에 대해서 우리가 농사를 가져다가 우리가 세 마지기가, 저 우리가 이제 거기서 그 동네 사람이 그 곳이 바로 작은집이라.}

10203 #1 우리가 부'쳐썰여. {우리가 (+ 세 마지기의 논을)부쳤어요.}

10203 #1 그'업' 자은지'베서 아: 우리가 거 김 마 씨 약사'하고 참 그 수 곡, 그 예전 요'라함며는 수:매'르 텡'기썰요. {그럼 작은집에서 아, 우리가 그 약속하고, 참 그 수(收: 소작농에 대해 소작료를 매기는 것), 곡식, 그 예전 요령으로 말하면 소작료를 매기러 다녔어요.}

10203 #1 수, 수매로 함멘 일'러'넬 제 가을' 때' 데가진 데'며는 인자 은 나랑농'사가 잘: 텐'나, 몬 텐나 거석 와가'조서 그래 수 부, 수를 보고 한테, 우리 형'이 그 당시에 참 잘라'썰여. {수, 수를 매기려고 하면 일년에 저기 가을 때 되어 가지고, 되면은 인제 음 벼농사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거기서 와 가지고 그래서 수(收)를 보고, 수를 보고 하는데, 우리 형이 그 당시에 참 잘 생겼어요.}

10203 #1 잘랑 경 앵게네, 잘'라'고 그도 무 장사도 하고 사람 몸 그래 항게네 데'따 시퍼서 그래 거 참 자은지'비다 봉게네 큰지'반테 약싸'고 거래 지 입, 그랜 이 야간 머식 그른 니리 이싱'게네 곱마 지나거뚝뚝 그래 하마 안테젠나:' 카미성, 그래 이야기 헐는 거시 예저네는 성또뿌맘 중매자마 시'라다끼 멈머 조타캅'마 이 성, 선도 보도 아나고, 그'래 가'주오 섬 그래 즈썰 머 으 참 은 난, 나도 그대으 수물 스, 수'무' 살 텐는데 앙 갈리 케사'도 부모 니미 고 톱 이우동네고 그러다 봉께 감문도 조코 황게네 곱맘 그래 머 먹'썰로 몸 모 으 참'가'썰에. {잘난 것을 아니까, 잘났고 뭐 장사도 하고 사람의 몸이 그렇게 되니까 되었다고 싶어서, 그래 그 마침 작은집이다 보니까 큰집한테 약속하고 그랬지, 이 그래 이 여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만 작은 아이같으면 그래 하면 안 되겠나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했는 것이 예전에는 선도 중매자만 "실하다"고 뭐 좋다고 하면 이 선, 선도 보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서 그래 저, 뭐 참 나는, 나도 그 때는 스물, 스물, 스무 살이 되었는데 안 가려고 해도 부모님이 그 또 이웃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가문도 좋고 하니까 그만 그래 뭐, 억지로 뭐 그냥 갔지요.}

10203 #1 그'리' 가'썰에. {그렇게 갔어요.}

10203 #1 저'어는 순: 그래 우리 형이 그래 그너여 막 그래 음 머 은저 나안주곰 바'까'가 주고 웅'게네 곱머 저'서도 감썰 놀'래뽕능 기래여. {저기는 순 그래 우리 형이 그래 그래서, 막 그래 음 뭐 인제 나중에는 바꾸어 가지고 오니까 그만 저기서도 감썰 놀라 버렸는 것이지요.}

10203 #1 굽 그거저넬 보'는 사래미 아 와오고 웅뜨한 사름 타카 웅'게네. {그 그전에 본 사람이 안 오고 엉뚱한 사람이 타서 오니까.}

10203 #1 그리스 해쓰어. {그렇게 했어.}

10203 #1 실찌, 실찌 그래 텐능 기래. {실제, 실제 그래 되었는데 것이라.}

10203 @ 머 어르신 형님께서도 어 잘생겨꼬 그러시니까? {뭐 어르신 형님께서도 음 잘 생겼고 그러시니까?}

10203 #1 예, 네, 네홍 그 예, 그 그 당시에는 히, 우린 나는 내, 내 형 음 그으'마 보고 그 레케 저'서느 음 크은 디빠까'서 헨 테이지, 디바까서. {예, 네 그 예, 그 당시에는 우리는 나는 내, 내 형 음 그것만 보고 그렇게 저기서는 음 그 뒤바꾸어서 했는 턱이지, 뒤바꾸어서.}

10203 @ 브 어르신도 잘생기? {뭐, 어르신도 잘 생겼는데요?}

10203 #1 어이구 내' 머 내'야 몬내~'이라고 머 머 우리 형제 중에선 제일 몬내~'이라고 짱 모이카능긴데 뭐. {아이고, 내 뭐, 내야 못난이라고 뭐, 우리 형제 중에서는 제일 못난이라고 짱 모여가지고 하는데 뭐.}

10203 @ 아, 그래서 중매:: 결'호늘 하셔따, 그지예? {아, 그래서 중매 결혼을 하셨다, 그렇지요?}

10203 #1 여, 중미~, 중매' 결혼해써여. {여기, 중매, 중매 결혼했어요.}

10203 @ 그러면 그때 중매 결혼하시고 중매하신 부니 그 자근 처 저 처가찌벤 찌 그거 자근때기지예? {그러면, 그 때 중매 결혼을 하시고 중매하신 분이 그 작은 처, 처갑집에 저 그것, 작은댁이지요?}

10203 #1 그리, 크르치. {그래, 그렇지요.}

10203 @ 흑씨 그기 췌별:마으 그 부부느 대헤선 췌 함 부 이야기해 주실 수 이췌미까, 아시는 데로, 호호씨? {흑씨 거기 새별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췌 한 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흑씨?}

10203 #1 세빌:: 동네는 지뤄이 우린: 여'서는 그 당시엠마 해도 참' 안:냥바~이 참 드레 가고 아'네'심네까. {새별 동네는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정말 안양반 (아녀자)이 참 들에 나고 안 했습니까?}

10203 #1 저 드레 가고 해'찌만도 세빌 똥네느 아'네서 드레 가능 기 업써요. {저기 들에 가고 했지만도 새별 동네는 안에서 들에 나가는 것이 없어요.}

10203 #1 응, 그 당시엠메도 드리 가닝기 거꼬, 바'꼬로 나 나안 니리 업능기라. {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들에 가는 것이 없고, 밖으로 나, 나간 일이 없는 것이라.}

10203 #1 으음 벽 거 거거 이인자 왜 그리 양반 똥네라꼬. {음, 뭐 그, 그것 인제 왜, 그렇게 양반 동네라고.}

10203 #1 그'래아 여' 와가주소 여어는 풍'스비 틀대'그당.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풍습이 틀리거던.}

10203 #1 여느 여느 아:느로 머 주'롭 똥 모두 송꼬 항게네 먼 저'서 보마 야단난 난 난 나'찌, 머 머 영 머 참 시지브 잘 몸 몸보네따꼬 맘 다부 두 들고 오라카고 머머 췌자~이해 췌. {여기는, 여기는 안으로 뭐 주로 또 모도 심고 하니까 뭐 여기를 저기에서 보면 야단났, 났, 났지, 뭐 그냥 뭐 참말로 시집을 잘 못, 못 보냈다고, 그냥 도로 데려 오라고 하고, 뭐 평장했어.}

10203 @ 아주 고께 자라셔 가주고. {아주 곱게 자라 가지고.}

10203 #1 네, 저 참 그 사:남매에서 딸 하나 아들 서:이 그런데, 그 부자찌베서 그림 무췌. {네, 저 참 그 사남매 중에서 딸 하나, 아들 셋이 그런데, 그 부자 집에서 그러면 뭐

춤.}

10203 #1 또 재인:어른도 끔머 참 맨장끈장 하고 먼 푹푹해써. {또 장인 어른도 그 뭐 참 맨장까지 하고 뭐 푹푹했어.}

10203 #1 또'스'한 데다가 이리 머 참 그래 보내놓게네 머 머 참 쩌 아이'라 참. {그러한 데다가 일이 뭐 참 그래 보내 놓으니까 뭐 뭐, 참 저 아니라 참.}

10203 #1 그 사'우 잘 몸 바서 그래가주옵 머 어히 이 시'상베리따 케도 과현 아이라. {그 사위 잘 못 봐서 그래가지고 뭐 어 이 세상을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10203 #1 쪽골'병히 드러가, 드러가주오. {속골병이 들어가, 들어 가지고.}

\$ 보조제보자에게 협조 요청

10203 @ 어머님은 거면 어르신 뱀:찌도 모하고 말씀만 드꼬 그렇게 호년하셧네예? {어머님은 그러면 어르신 뱀지도 못하고 말씀만 듣고 그렇게 혼인을 하셧네요?}

10203 #2 예, 무, 호, 예, 예, 이부찌 올 자은지우 하라버지가 그래 조타 카능기라요. {예, 뭐 혼, 예, 이웃집 우리 작은집의 할아버지가 그래 좋다고 하는 것이라요.}

10203 #2 그래 머 내 말만 드꼬 해라', 안 쏘'이께네. {그래, 뭐 내 말만 듣고 해라, 안 속으니까.}

10203 #2 예, 그래'도 선도 보도 아나고, 옴'나'레 바썸미까. {예, 그래도 선도 보지도 않고, 옛날에 (+ 어디 선이나)봤습니까?}

10203 #2 보'다 아나구 그르 무 시집 와찌 머. {보지도 않고 그런 뭐 시집을 왔지 뭐.}

10203 @ 그 어 어머님 그 동네는 어떤 동네지 함 분 쫘 이야기 해주이소? {그 어, 어머님 그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 한 번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10203 @ 그 애'저네 자라셔면 친정 동네 함 부 거 자랑 쫘 해주십시오, 그 어떤 동네인가? {그 예전에 자라셨던 친정 동네 한 번 그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그 어떤 동네인가?}

10203 #2 으으, 고 특'빠'란 자랑도 어꼬예, 저 친정을 그 옴나레 잘 사라썸미다. {음, 그 특별한 자랑도 없고요, 저 친정을 그 옛날에는 잘 살았습니다.}

10203 #2 참 머 머 머 중: 디'러 노코 예 머슴 먼 큼'머슴, 자'근'머슴, 중'강'마썸 켈'띠리 노코, 그래 잘: 사'라썸디, 옴나레. {참, 뭐 뭐, 중을 데려다 놓고 예, 머슴 뭐, 큰머슴, 작은머슴, 중간머슴을 제일 데려 놓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예날에는.}

10203 #2 그 마'으레서는 제일 잘 잘 사라찌, 머. {그 마을에서는 제일 잘, 잘 살았지, 뭐.}

10203 @ 어 그 어머님께서는 아주 그으기 자근 삼촌, 자근아부지 말씀만 드꼬 일로 오셔가주고 완전히 마, 아 지그미야 조치마는 처음 오셔썸 때는 마니 저 어굴또, 어'굴하고 하셔썸미다? {음, 그 어머님께서는 아주 거기 작은 삼촌, 작은아버지 말씀만 듣고 이리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 지금이야 좋지마는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저 억울도 억울하고 하셧겠습니까?}

10203 #1 쏘가찌 머. {속았지 뭐.}

10203 #2 그키 시집 오'이'께네 사'러보'이께네 머 이럼 마음 저런 맘더 어꺼 머 개안습디'더. {그렇게 시집을 오니까 살아보니까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도 없고 뭐 괜찮습디다.}

10203 @ 그럼머는 그때 중매를 하고 머 결혼을 어떤 시그로 하셧는지 함 머 어르신께서 함 이야기해 주이소. {그러면은 그때 중매를 하고 뭐 결혼을 어떤 식으로 하셧는지 한 번 뭐 어르신께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03 @ 중매 그르가 어르신 형님 보고 중매를 하셧는데, 그래가 결혼까지 어뜨케 헨는가 함 분 이야기해 주이소. {중매를 그래 가지고 어르신 의 형님을 보고 중매를 하셧는데, 그래

가지고 결혼까지 어떻게 했는가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03 #1 예, 그래가주고. {예, 그래 가지고.}

10203 #1 그 그어 그 당시에 인자 그 나를 자꼬 그래으 노마 인자 그 인잔 저 장계갈 때는 기양 거러서 인자 거 거러서 가테 여'서 인자 관'대'하고 그글' 가'따'아 열 한 사람 그을 질'미 지' 가주고 가'찌여. {그, 그, 그 당시에 인제 그 날을 잡고 그래 놓으면 인제 그 인제 저기 장가를 갈 때는 그냥 걸어서 인제 걸, 걸어서 가돼 여기서 인제 관대(冠帶)하고 그것을 가져다 여기서 한 사람이 그것을 짊어져 가지고 갔지요.}

10203 #1 그 디에 그 서'이'가 가'능기라. {그 뒤에 그 셋이 가는 것이라.}

10203 #1 서'이'가 가능 그, 가능 거스 은자 우리느 그때 잔 저 어르~이 웨거요고흔 저거 편'찬해 가주오 뚜 으 삼'초~이 인잔 따르가씨어. {셋이 가는 그, 가는 것은 인제 우리는 그 때 인제 저 어른이 왜 그런고 하면 저기 편찬해 가지고 또 음 삼촌이 인제 따라갔으니까.}

10203 #1 따라 가가주오석 그 따라가고 인제 한 사람 또 그글 지'물 지 가주오서 그래 가 조 서이가 인자. {따라 가가지고 그 따라가고 인제 한 사람은 또 그것을 짐을 저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셋이 인제.}

10203 # 고 따라가는 사러믄 생:변, 생:변, \*\*\* 짐 지가는 사래믄 함:제비, 그래고 인자 실량', 고래 구부~이 데가주고 서이가 감미다. {그 따라가는 사람은 생변, 생변, \*\*\*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함진아비, 그리고 인제 신량, 그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셋이 갑니다.}

10203 #1 네, 생변나고, 또 실량하고, 네, 그래, 네, 그래 인저 서이 가능기래에. {네, 생변하고 또 신량하고 네, 그래 네, 인제 셋이 가는 것이라요.}

10203 #1 거 서'이'가 가가주오서 그래 가 가능게네 매쳐메느 인저 그래 음 말 말 드'릉 거 하고, 내가 곱 머 찌메'해 가주 글향곤 트 텨테'그등. {그 셋이 가 가지고 그래서 가니까 맨 처음에는 인제 그래 음 말을 들은 것하고, 내가 그 뭐 작아 가지고 말한 것하고는 틀리거던.}

10203 #1 응 머머 구고이 영판꺼리 그르 텨텔' 꺼 아'임'니꺼 고. {응, 뭐뭐 그것이 영판 그것이 그렇게 틀릴 것 아닙니까 그.}

10203 #1 금 머 그어 그어 귀'서놈 머 머 무 영 머 디비저'뿌찌 몸 모. {그 뭐, 그, 그 거기서는 뭐, 뭐 영 뭐 뒤집어져 버렸지 뭐.}

10203 #1 그케가즈 기걸 그래아 머 그래 인저 글:상거이 양반 동네는 그를 수도 어꼴, 형제를 저 정심마 다 치라고 다해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그래서 뭐 그래 인제 천생 양반 동네는 그럴 수도 없고, 형지(形止)를 저, 정식으로 다 치루고 다 했지.}

10203 # 엔나레느 호닌해노마 인제 여어도 물'릴 쭈도 업는 \*\*이지. {옛날에는 혼인을 해 놓으면 인제 여기서도 바꿀 수도 업는 \*\*이지.}

10203 #1 네, 음 그름 무르 쭈도 어꼬 곱 마 흥 쾌히 해따카머, 네. {네, 음 그것은 바꿀 수도 없고 그만 음 쾌히 했다고 하면, 네.}

10203 # 지꾸믄 이래 이 무이게찌마느 그때는 이론도 몰하고 하'알' 수 업시 \*\*\*\*\*. {지금은 이렇게 파혼을 했겠지만 그때는 의논도 못 하고 할 수 없이 \*\*\*\*\*.}

10203 #1 여 그래아 할스 사능기르. {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는 것이라.}

10203 #1 그'래가주 구으 결 결호느 하고 일련 모콰'고, 일련 무칼' 때 우리에: 생활하능거 하고 저'어하고 틀리지염. {그래 가지고 결혼을 하고 일년을 묵히고, 일년을 묵힐 때 우리가 생활하는 것하고 저기하고 틀렸지, 영.}

10203 #1 응 틀디능게 거어는, {응, 틀리는 것이 거기는,}

10203 #1 아느로 머 내'보내능기 업쓰여, 천지 마 내보내능기 어꼬. {안으로 뭐 (+ 들에)내어 보내는 것이 없어, 천지에 그냥 내어 보내는 것이 없고.}

10203 #1 여는 머 머 머 결혼해'따카맘 머흑 들'로' 사'느로 머 내보내느 성씨 기'고. {여기는 뭐 뭐, 결혼을 했다고 하면 뭐 들로 산으로 뭐 내보내는 형식이고.}

10203 #1 그'렇게네 차'이가 그마치 차이가 인능기'라여. {그렇니까 차이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라.}

10203 @ 그 일련 무쿤'다라능거늬 모습 이야김미까? {그 일련을 묵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0203 #1 일련 무칸다가이, 일련 또'아네 인자 결혼 해가주오서 자기 지벤 그 이:리 안들'고 오'고, 실랑 지베 안'노고 일련 또아니 이썸'며성 실라~'이 인자 인자 그거 인자 음 머 봄 봄그트엄 봄, 여름거름 여름 인자 가'능기라. {그 일련을 묵힌다는 것은 일련 동안에 인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그 곳으로 안 데리고 오고, 신랑 집에 안 오고 일련 동안에 있으면서 신랑이 인제, 인제 그것 인제 음 뭐 봄, 봄 같으면 봄, 여름 같으면 여름에 인제 가는 것이라.}

10203 @ 겨론 해가주고서. {결혼을 해가지고서.}

10203 #1 가가주오서 그 은자 그르이까 가 가가주 거서 인자 사기능기래이. {가 가지고, 그 인제 그러니까 가 가지고 거기서 인제 사기는 것이라.}

10203 #1 요오느 뜨 킬련 또~'아네 사긴다 카능기 이이' 뜨 뜨시지 시빠. {요점은 또 일련 동안에 사긴다고 하는 것이 이 뜻, 뜻이지 싶어.}

10203 # 고르치. {그렇지.}

10203 #1 네, 그'래 이따가 고오스 인자 일련 이따가 그래 인잔 난주이 일련 지내며는데 가을해 가'주오서 또 그걸가따 그레이 식 또 그래 여 여 제불'로 일련세 여느 여드르 인자 오는날 인자음 또 은자 드 그 잔치를 하지. {네, 그렇게 있다가 거기서 인제 일련 있다가 그래 인제, 나중에 일련을 지내면 가을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갖다 그런 식을 또 그렇게 여, 여기는 두 번 째로 일련 사이에 여기는 여기대로 인제 오는 날에 인제 또 인제 또 그 잔치를 하지.}

10203 #1 심부 온 날 은젠 잔치르 하능기라여. {신부 온 날 인제 잔치를 하는 것이라요.}

10203 @ 그라무 어르신 인제 처음 가가주고 아 처가찌베 처음 가선 초례를 거기서 하고? {그러면 어르신 인제 처음 가 가지고 아 처가집에 처음 가서 초례를 거기서 하고?}

10203 #1 네, 어, 그르치. {네, 어, 그렇지.}

10203 @ 초례지내고 그 다오메? {초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10203 #1 그 사밀마네 오고. {그 삼일만에 오고.}

10203 @ 사밀 또~아 사밀마네 오셔가'주고 그 다오메 여기서 계속 생활하시다 함 분씩 가 셔썸미까? {삼일 동안, 삼일만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생활하시다가 한 번씩 가셨습니까?}

10203 #1 네. {네.}

10203 @ 일러네 함 며빠? {일련에 한 몇 번?}

10203 #1 사밀마네 오 오며는 톡 또머 산 또 사미리따으 또 가이. {삼일만에 오, 오면 또 뭐 삼, 또 삼일 있다가 또 가요.}

10203 #1 기기. {그것이.}

10203 #2 기기 재이, 재임:거'리미라꼬 \*. {그것이 재행, 재행 걸음이라고 \*.}

10203 #1 예, 인사하로. {예, 인사를 하러.}

10203 #1 재불로 {두 번 켜로.}

10203 #1 제비러크, 제빌'로 카느어 가눔머 그때눔 머 동상제하라이 머 하라이 멈 멍 몸 모음 몸 브 그래익 허더꺼리능기'라. {두벌로, 두벌로 하는 것, 가 놓으면 그때는 뭐 동상례(東床禮)를 하라고, 뭐 하라고 뭐, 뭐, 뭐 그렇게 험뻑거렸는 것이라.}

10203 #1 몸 먹끔 머 머시든지 인자 그 동네사람 다 모아노코 멈 마우 동상제하라 카고 멈. {뭐 뭐 무엇이든지 인제 그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뭐 마구 동상례하고 하고 뭐.}

10203 @ 동상제는 멈미까? {동상례는 무엇입니까?}

10203 #1 동상네라카며는. {동상례라고 하면은.}

10203 # 도상애라꼬 엔나레 이서썸미다. {동상례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10203 #1 헤 이써, 여어 열. {허, 있어, 여기 여기.}

10203 #1 겨룬하'며는 그어 동운 동상애라 캄며는 이기란. {결혼하며는 그 동, 동상례라고 하면은 이것이라.}

10203 #1 동도우 똥짜, 상짜 이에 이 상잔데, 상짜, 예, 예히 이 예두 레젠데, 동상예라꼬 그런 명칭을 딱 서노며는 거서 인자 또 예를 드어 소구똥마 소 소 우짜 이거 해가주오서 함 마리거툼 함, 함 마리, 테지 그 테지그트머 테지, 또 함 마리, 인자 세물거트머 해물 그여 일쩔, 그래 막 구지버레 썬니거느 근나 그래 해가조서 난조 와시는 그 동 그어 그어 그어서는 또 멀 랐하며는 안주, 안주는 내가 부담하고, 수른 똥 뜨 그 처채찌브섭 부담하능기라이. {"동녝 동(東)자", 상자 위에 이 "상(牀)자"인데, 상자, 예, 예의, 이 "예도 레(禮)자"인데, "동상례"라고 그런 명칭을 딱 써 놓으면 거기서 인제 또 예를 들어 소같으면 소, "소 우(牛)자", 이것을 해 가지고서 한 마리같으면 한, 한 마리, 돼지, 그 돼지같으면 돼지, 또 한 마리, 인제 해물같으면 해물 거기 일체, 그렇게 그냥 자질구래하게 썬는거레, 그래 놓아 그래 해가지고서 나중에 와서는 그 동네 거기, 거기서는 또 무엇을 내느냐 하면은 안주, 안주는 내가 부담하고, 술은 또 그 처자집에서 부담하는 것이라.}

10203 #1 어 밤바는 부다네지. {응, 반반을 부담하여 내지.}

10203 #1 그래 인자 동상예라꼬 하능 기기' 이눔 이'써여. {그래 인제 동상례라고 하는 것이 있, 있어요.}

10203 # 예뿌터 니르와찌. {옛부터 내려왔지.}

10203 #1 네, 예뿌터 니르오능기라. {네, 옛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10203 #1 가맘 맘 머 동상네로 고맘 머 막스 봄 그 머'글' 가르 가르노코, 응 보이미 썬라 이기라 머. {가면 그냥 뭐 그만 뭐 그냥 썬, 그 먹을 갈아 놓고, 음 보이며 썬라 이것이라 뭐.}

10203 # 지그른 업찌마는. {지금은 없지만은.}

10203 @ 아, 안주 그 네이쩔레? {아, 안주 그 낼 것어요?}

10203 #1 으. {응.}

10203 #1 그걸' 인쳐 글 그골 썬'라 카니 그으눔 멈 머 안 떼'이, 안 썬'리곤 안테 마. {그것을 인제 글, 그것을 썬라고 하니 그것은 뭐 안 떼, 안 썬고는 안 떼 그냥.}

10203 # 테지 함 바리 내고. {돼재 한 마리 내고.}

10203 #1 네, 멈 막' 떼'리사썬 멈 무 강제르 업썬느 무서느 꼬으눔 막 패내잉기라, 음 몸. {네, 뭐 막 떼려서 머 강제르 없으면 무슨 그것은 막 패는 것이라, 음, 뭐.}

10203 # 안지마 강제저그로 막 다리로 당그러 매노코 그은 명태이짜나요. {얏으면 강제로

막 다리를 높은 곳에 매어 놓고 그 명태있잖아요.}

10203 # 명태로 가주고 그놈 바를 가따가 머 사정업씨 뚜'디리 꽤능기라. {명태로 가지고 그 발을 갖다가 뭐 사정없이 두드려 꽤는 것이라.}

10203 #1 그 내 몬 이서숨 머 씨'에테' 그얼 몸 모. {그 내가 못 견딜 것 같으면 뭐 씨야 돼, 그걸 뭐.}

10203 # 할 수 업써서 인자 씨가 데지 함 바리 내게따. {할 수 없어서 인제 씨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내줬다.}

10203 #1 금 마저. {그래, 맞아.}

10203 #1 거는 자기가 몬 낼 꺼 거트머는 크기 헤'뿌'느기아, 함'버레. {그것은 자기가 못 낼 것 같으면은 크게 해버리는 것이야, 한 번에.}

10203 #1 소 함 마리, 소 함 마리, 이거 소 함 마리 누가 뜨 낼 사람 어딘'노.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것 소 한 마리를 누가 또 낼 사람이 어디 있나?}

10203 #1 또 그 다음에 머 해물 일'쩔' 커뿌미 해물 거느 여 바다 해물 그으눔 먼 일쩔 히 해나'뿌고, 또 데지 머 머 머 함' 마'리, 머 그르케 이래 해뿌~이 그르치 크기 거차'게 해뿌 언데, 이거눔 마 안 낼 사'라미다, 이래가주 난주 포기하고 멈 마능기라이. {또 그 다음에 뭐 해물 일체라고 해버리면 해물 그것은 여기 바다의 해물 그것을 뭐 일체로 해놓아 버리고, 또 돼지 뭐 뭐 뭐 한 마리, 뭐 그렇게 이래 해 버리면 그렇지, 크게 걸차게 해 버렸는데, 이것은 그냥 안 낼 사람이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포기하고 뭐 마는 것이라.}

10203 #1 이룸 무 도'둥'누 복짱텐데 이르게 가주고 디'나, 이 이래 가주고 포기하고, 그 자기가 낼 꺼 거트머 저깅:하~'이 그래 카능기고. {이 놈 뭐 도둑놈 복장처럼 이렇게 가지고 되나, 이렇게 해 가지고 포기하고, 그 자기가 낼 것 같으면 적함하게 그래 하는 것이고.}

10203 @ 그으가 동상네르 하고 그으기서 어르신의 계속 계심미까, 양가므 도러오셔슴미까? {그래 가지고 동상례를 하고 거기서 어르신은 계속 계심니까, 안 그러면 돌아오셨습니까?}

10203 #1 동상네 그어 그어 우리는 모데'찌, 모 그리갈. {동상례 그것, 그것 우리는 못 했지, 못 그래서.}

10203 #1 거느 인자 동네 사'라미 동상네시게라고 해'따카머는 동네 사람 다: 청'하능기라, 뜨 뜨. {그것은 인제 동네 사람은 동상 예식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동네 사람을 다 청하는 것이라, 또, 또.}

10203 #1 그은 동네 사람 이 사라미 이리 추립해'썩게네, 장가 와싱게네 동상네해'따' 이그 하'미성 이으 동사제 어구를 네: 밀'고 거떼 그룽기 그여 참 인는 사라미 그래 해이, 해이. {그것은 동네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리로 출입했으니까, 장가를 왔으니까 동상례를 했다고 이것을 하면서 이것은 동상례에 얼굴을 내밀고 그 때 그런 것은 그 참말로 있는 사람이 그 래하지, 해.}

10203 @ 어르신 그암 인제 그래 가셔따가 그암머는 아까 머 봄메도 가시고 머 일런 똥아느 계속 와따 가따 하셔썩미까? {어르신 그러면 인제 그래 가셨다가 그러면은 아까 뭐 봄메도 가시고, 뭐 일년 동안은 계속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10203 #1 구루치, 가이데지, 너 여여 여를 그래 암보'내머 안테'는데 몸. {그렇지, 가야 되지, 여기 여기, 여기를 그렇게 안 보내면 안 되는데 뭐.}

10203 #1 모 여음 므 가'르카나 마나 부모가 가르카느 머레 암 버, 양가므 안테능기'라 허. {뭐 여기서서는 뭐 가라고 하나 마나 부모가 가라고 하는 때문에 안, 안 가면 안 되는 것이

라, 허.}

10203 #1 부모이 중 그르 장 마주 그레이 가'라캄마 가고 모 머 그래 거서 또 한 사날 이따 머 또 오고 그 그래이. {부모님이 그래 늘 그렇게 가라고 하면 가고 뭐 그래 거기서 또 한 사나흘 있다가 뭐 또 오고 그, 그랬지.}

10203 @ 그암며느 그르 일런 또안 계속 와따 가따 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일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

10203 #1 그르치 영. {그렇지, 늘.}

10203 # 인자 일러~이 너머가며느 인자 신행'이라꼬 처저쫓게서 인자 이쫓게으 감미다. {인제 일년이 넘어가면은 인제 신행이라고 처자 쪽에서 인제 이쪽에 갑니다.}

10203 # 고기 인자. {거기 인제.}

10203 @ 어 그 인제 그엄며느. {음, 그 인제 그러면은.}

10203 # 그 신행한'다 양카나, 그는. {그 신행한고 안 하나, 그것은?}

10203 @ 신행 오실 때는 어떠 누구하고 오서썸미까? {신행을 오실 때는 어떤, 누구하고 오셨습니까?}

10203 #1 여 고서 신행 올 때'는 거도 은자 으 서'이'가 오지. {음, 거기서 신행 올 때는 거기도 인제 음 셋이 왔지.}

10203 #1 서 인자 자기 인자 아버지'지하고, 자기하고, 또 한 한 사람 걸 또 시에이. {셋, 인제 자기 인제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또 한, 산 사람이 거기도 셋이.}

10203 #2 너이 아니고, 너이 와썸. {넷이 아니고, 넷이 왔어.}

10203 # 세빌떠~이느 그름 네이 올쁘게 가마타'고 와썸미꺼? {새별덱은 그럼 넷이 올 적에 가마를 타고 왔습니까?}

10203 #2 거'러와쓰예. {걸어 왔어요.}

10203 #2 그때가. {그때가.}

10203 # 거'러완나? {걸어왔나?}

10203 #2 예, 가마도 어꼬 차도 업꼬. {예, 가마도 없고 차도 없고.}

10203 # 그때, 그때 고 잘사는 지'베서 좀 가마 태'우, 태'우지. {그때, 그때 거기 잘 사는 집에서 좀 가마를 태우, 태우지.}

10203 #1 우리 지'베섬 마자케'썸. {우리 집에서 말자고 했어.}

10203 #1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10203 #1 우리는 마:이 따'라오며느 그 우리가 인자 또 부담하그드. {우리는 (+ 사람이) 많이 따라오면은 그 우리가 인제 또 부담을 하거던.}

10203 #1 가마. {가마.}

10203 # \*\*\* 또 모해준다. {\*\*\* 또 못 해준다.}

10203 #1 네, 가마 타고 서룽, 그 사암들 그 일꾼 전신 므 노비꺼즌 다 조에텔 모이네. {네, 가마를 타고서는, 그 사람들 그 일꾼을 전신을, 뭐 노자돈까지 다 주어야 될 모양이네.}

10203 # 어, 이썸 움소로이, 그름시. {어, 이 쪽이 없서니까, 그렇지.}

10203 #1 네, 노비꺼지 조에테'능기라. {네, 노자돈까지 주어야 되는 것이라.}

10203 #1 아안주'마 그 사람드르 요가능거 데이. {안 주면 그 사람들은 욕을 하거던.}

10203 #2 반님하고 너시 와썸. {하님하고 넷이 왔지.}

10203 #1 예, 그래. {예, 그래.}



10203 #1 요'가는 머리 그그를 부다물란 업세이 아버지감 머 어무이 워'씨여 그릉 거 아  
 안다, 우리는 아 한다, 기'양 온드'라 이래 데능기야, 예. {욕하는 바람에 그것을 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뭐, 어머니도 "무엇이요?", 그런 것은 안 한다, 우리는 안 한다, 그냥  
 오너라 이래 되는 것이야, 예.}

10203 #1 그랭거능 몸 무 그어즘 기양 오러카이 이'쭈에서 켈'리가 인능기람 머. {그런 것  
 은 뭐 거기 그냥 오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권리가 있는 것이라, 뭐.}

10203 # 그리치. {그렇지.}

10203 #1 으어 이 이 이쭈 인자 켈리가 인능기라. {응, 이 이 쪽에서 인제 권리가 있는 것  
 이라.}

10203 @ 아, 그람며는 은제 그 네 부, 념 부니스 그르 가찌예? {아, 그러면은 인제 그 네  
 분, 네 분이서 그렇게 갔지요?}

10203 #1 씨 몸 시으 시르도 할 수 엄능기래. {썰어, 뭐 썰어, 썰어도 할 수 없는 것이라.}

10203 #2 예, 네 부니 와쓰예. {예, 네 분이 왔습니까?}

10203 @ 겹 얻 어느 어느 부니 오서썰미까? {그럼, 어, 어느, 어느 분이 오셨습니까?}

10203 #2 께 우리 아부'지하고 그 은자 시지봄 머 실꼬오는 그 물거이 이꺼'등네. {그 우리  
 아버지하고 그 인제 시집을 오면 무엇을 싣고 오는 그 물건이 있거던요.}

10203 #2 고 실꼬 오는 사람 한 사람하고, 그래 내하고 고 또 절 썬'다꼬 하님 이'쓰예.  
 {그 싣고 오는 사람, 한 사람하고 그렇게 내하고 그 또 절을 시킨다고 하님 있어요.}

10203 #2 새애씨 달'고 오며 절 씨'기고 머 그 한 그 하님마고 너이. {색시를 데리고 오면  
 절을 시키고 뭐 그 하는 그 하님하고 넷이.}

10203 @ 아유 그럼며는 거기 거러서느 여기 한 먼니 정도 땀미까? {아유 그러면은 거기에  
 서 걸어서는 여기까지 한 몇 리 정도가 됩니까?}

10203 #1 요서 거 그럼며는 함. {여기서 거기 그러면은 한.}

10203 #2 삼'십니 델 켄'. {삼십리 될 겹.}

10203 #1 이이 아이 아이라. {이, 아니, 아니라.}

10203 #1 키로수는 하나 사식키로이 심닝게네, 한 뜨어 찌이시 데시 육식키를 틀깸'미다,  
 육식키로, 키로수네. {킬로수는 인제 사십킬로가 십리니까(+ 체보자가 잠시 착각을 하여 착  
 오를 일으켰음.), 한 대강 육십킬로미터 될 것입니다, 육십킬로미터, 킬로수는.}

10203 #1 잠 그'어느 차도 어꼬 장마'중 므 재를 두 개르 념꼬 장: 거'르 땡기. {참, 거기는  
 차도 없고 장마다 뭐 재를 두 개를 념고 늘 걸어 다녔어.}

10203 # 수름며는 시보리. {수륜면은 십오리.}

10203 #1 이 시보리. {이, 십오리.}

10203 #2 아아, 흠. {아, 음.}

10203 #1 예. {예.}

10203 # 시보리. {십오리.}

10203 #2 우리말로 지꿔 여예. {우리 말로 지금 여기말로요.}

10203 #1 네, 초온네. {네, 춘예.}

10203 # 시보리가 안 \*\*\* \*\*\*\*. {십오리가 안 \*\*\* \*\*\*\*.}

10203 #1 예, 한 한 네 한 니십니기 데끼'라. {예, 한, 한 네, 한 이십리가 될 것이라.}

10203 @ 이십니 정도 대네예? {이십리 정도 되네요.}

10203 #1 네, 이십니 그트며는 거 금 팔시키로 델끼라이. {네, 이십리 같으면은 거기 지금

팔십킬로미터 될 것이라(+ 제보자가 도량형의 환산에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임.).

10203 #1 으 팔키로. {음, 팔킬로미터.}

10203 @ 예예예, 한 팔키로? {예, 예, 한 팔킬로미터?}

10203 #1 키로. {킬로미터.}

10203 @ 한 이십니 정도 뎀미까? {한 이십리 정도 됩니까?}

10203 @ 그염 머 거르서느? {그럼 뭐 걸어서는?}

10203 #1 장아지 거르 뎅기지 머. {장마다 걸어 다니지 뭐.}

10203 @ 함 반나절 정도? {한 반나절 정도?}

10203 #1 네. {네.}

10203 #2 반나절 버 머추 걸리지. {반나절 뭐 얼추 걸리지.}

10203 #1 네, 장무 거꼬 장마중~을예. {네, 늘 걷고 장마다요.}

10203 #1 거 상길로 상길 장머이 거 꺼 건능기라이. {그 산길로 산길을 장마다 거기 걷는 것이라.}

10203 #1 예저네음 뎀 차가 이십느까 머 이십니꺼, 장마중 머 거러 뎅기쨌. {예전에는 음 뭐 차가 있습니까, 장마다 뭐 걸어 다녔지.}

10203 @ 그아무 그때 머 그웁 궁합하고 이렇거느 보셔썸미까? {그러면 그때 뭐 거기 궁합하고 이런 것은 보셨습니까?}

10203 #2 인저 으 똥'가베능 구~'압또 암바아 텐다 카'미쨌, 모르지 반능가 암반능가 모르 게썸'미더 우이는 머. {인제 음 동갑에는 궁합도 안 봐도 된다고 하면서, 모르지, 봤는가 안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10203 #2 그때 머두 어리아주고. {끄때 모두 어려가지고.}

10203 @ 검머 신행 오시 가주고눔 머 여 어떻게 하셔썸미까? {그러면 신행 오셔 가지고는 뭐 여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10203 #1 시능 와 여서똥 또 절'하지여. {신행을 와서 여기서도 또 절을 하지요.}

10203 #1 여서이 시어른. {여기서 시어른께.}

10203 @ 예, 함 분 그래 시내 어떻게 신행 인지 은지 아까 네부니서 이래 오 도로심며느 아 여기까지 도착할 브터 그 다오메 함 부 이야기해 주이소. {예, 한 번 그래 신행을 어떻게 신행을, 인제 인제 아까 네분이 이렇게 음 들어오시면은 아, 여기까지 도착할 때부터 그 다음에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0203 #1 네, 두름 머 이 일판 여'서도 또 은자 그글 가따가 이자 저 새액씨에 또 열 대: 바'니 이꼬 고다메 어르네 대바'니 이쓰이. {네, 들어오면 뭐 일단 여기서도 또 인제 그것을 갖다가 인제 저 색시에게 또 여기에 대반(對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의 대반이 있었어요.}

10203 #1 어른 그 덩메 자기 어른 데반, 어른 데방 그르른머는 인자 시 새액씨 아'바시 안 드롭니까? {어른 그 다음에 자기 어른 데반, 어른 데반 그러면 인제 색시 아버지가 안 들어 옵니까?}

10203 #1 아'바시에 데반 도라와 그거 그' 부'니 모시 가조 바~아로 모시고, 또 바'께서는 또 아느로 하머는 안 아누로 똥 데바늘 모시가조 거서 하능기요. {아버지의 대반이 들어와 그것, 그 분이 모셔 가지고 방으로 모시고, 또 밖에서는 또 안으로 하머는 안, 안으로 또 대반이 모셔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이고.}

10203 #1 우리는 또 웨 그러면 예예 차디~'이, 차도~'이 그 안 안냥마 걸 데반 안처 가조

그래음 드가고 거'서 인자 절 씨'이고 다 하능기라, 인제. {우리는 또 왜 그런가 하면, 예 차동이(+사람 이름임.), 차동이의 그 안, 안양반, 거기를 대반을 앓혀 가지고 그래 들어가고 거기서 인제 절을 시키고 다 하는 것이라, 인제.}

10203 #1 인자 그 여음 열 사랑빠~'에는 그 인잔 데방 칸 사암 그 사'암'드리 소개하능기라. {인제 그럼 여기 사랑방에는 그 인제 대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소개를 하는 것이라.}

10203 #1 사라~ 여 이여 이 부는 누구도고 이근 누부다. {사랑에서 여기 이, 여기 이분은 누구가 되고 이 분은 누구다.}

10203 #1 이래 소개씨 씨이느 사암미래. {이렇게 소개를 시, 시키는 사람이라.}

10203 @ 그람 너 신행 오시 가주고도 여기 잔치를 함미까? {그러면 여기서 신행을 오서 가지고도 여기서 잔치를 합니까?}

10203 #1 이 잔치하지여. {이 잔치를 하지요.}

10203 # 잔치하지. {잔치하지.}

10203 @ 신행와서 그람 어떠케 헐는지 쯔 이야기해 주이소. {신행을 와서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0203 @ 예기 어 잔치 보통하고 어뜨케? {여기 음, 잔치를 보통 어떻게 하고?}

10203 #1 잔치하마 여서 은자 그 은접 그어 시:아'바시하고 이 시'오'마시아 인사하지예. {잔치를 하면 여기서 인제 그 인제 거기 시아버지하고 이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하지요.}

10203 #1 그레야 근 저 구걸 가따 은접 시'아'바시라꾸 그레 오마 시아바시한테 인사하고 나서느 그 이튼날부통 창'마'중 몸 몸 푸 한 스 석딸꺼'정은 창'마'중 식스, 식사 저네 일'쩍 일라 가조서 와저 시아바시한테 절하고, 이나 기기 바름 바로 인남 어 무난드리지요. {그레야, 그 저기 그걸 갖다 인제 시아버지라고 그레 오면 시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나서느 그 이튼날부터 새벽마다 뭐 뭐 한 세, 세달까지는 새벽마다 식사, 식사 전에 일쩍 일어나 가지고 와서 시아바시한테 절을 하고, 인제 그것이 바로 바로 인제 음, 문안을 드리는 것이지요.}

10203 @ 한 그람 무란 인사느 보통 한 석딸 정도예? {음, 그럼 문안 인사는 보통 한 석달 정도는 합니까요?}

10203 # 예, 저 석딸 정도 해이. {예, 저 석달 정도 해요.}

10203 @ 어르니 하지마라 그릴 때까지 함미까? {어른이 하지 마라고 그릴 때까지 합니까?}

10203 #2 네, 그르치예. {네, 그렇지요.}

10203 #2 하지마라 그래지. {하지 마라고 그랬지.}

10203 # 기'차네가주 마 어데 엄 마 험마 하지마라이. {귀찮아 가지고 그냥 어디 뭐 하면 하지 마라고 하지.}

10203 #2 절반능 거또 귀찬타 그이 \*\*\*. {절을 받는 것도 귀찮다고 하니까, \*\*\*.}

10203 #1 하지마라 칼 때까지 자꾸 머 암 두절 머 금 머담 부니야, 어그러므 저 그 저를 가따압 음 그어 바끼 이 조아한 사라문 먼 자꾸여 하능기라이. {하지 마라고 할 때까지 자꾸 뭐 음 두고, 무엇한 분이야 어 그러면 절, 그 저를 가지고 음 그 받기를 좋아한 사람은 뭐 자꾸 하는 것이라.}

10203 #1 바끼 시른 사라문 고머 이내 머 머 고맘 마 마라 이카고. {절 받기가 싫은 사람은 그 뭐 이내 뭐 그만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10203 @ 씨넵 오며느 프아 어트게 여 여기서 대접하느 상'가통 거 이즘미까? {신행을 오

면은 뭐 어떻게 여, 여기서 대접하는 상같은 것은 있습니까?)

10203 @ 새 \*\*\*\*? {새 \*\*\*\*?}

10203 # 그어 오며는 애 신냉 와따 카마 자기가 또 해가주오 완 완능 거 어뜨케 해가주 완능공 시퍼서 그을찌여, 결혼한 사르미나 안한 사르므와 그 지벤 보'로 오능기라이. {거기 오면은 음, 신행 왔다고 하면 자기가 또 해가지고 왔, 왔는 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왔는가 싶어서 그렇지요, 결혼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 와서 그 집에 보러 오는 것이라요.}

10203 #1 은 보러 와아주 이 지베는 시집 와가져 어뜨케 해가주 완능공 시퍼서 머 그 그 보로 와가조서 마~이 해가주 와 와씨마 그 지베 마이 해가조 와'따, 저끼 해가조 와씨머 그 지베 머 머 쓰 그래 머 저이 머 볼 멍'이가 업'뜨'라 이래 카능기라이. {음, 보러 와가지고 이 집에는 시집을 와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왔는가 싶어서, 뭐 그, 그것 보러 와 가지고 서 많이 해가지고 왔, 왔으면 그 집에 많이 해 가지고 왔다, 적게 해 가지고 왔으면 그 집에 뭐 뭐 쓸 것이, 그래 뭐 적이 볼 낮이 없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요.}

10203 #1 그래 막 거 한 동네 살:민섬 막 거뜨 그 지베 머 지다보고 머 머 환 사날꺼정 먹 쓰 디다보고 그래 그 그르능 기라이. {그래 막 거기 한 동네에 살면서 막 그 또 그 집에 뭐 들여다 보고 뭐, 뭐 한 사나흘까지 뭐 들여다 보고 그렇게 그, 그르는 것이라.}

10203 @ 가며 신행을 때도 이 마으레는 잔치느 그 아까 이야기한 테읍 서로 부조해 가면 선 \*\*\*\* 그럼 잔치를 함미까? {그러면 신행을 올 때도 이 마을에는 잔치는 그 아까 이야기를 한 대로 부조해 가면서 \*\*\*\* 그럼 잔치를 함미까?}

10203 #2 네. {네.}

10203 #1 그르치예. {그렇지요.}

10203 # 그르치. {그렇지.}

10203 #1 예, 네예. {예, 네.}

10203 # 그 네나 머가치 인자 술'도 가'지오고 목'또 가'즈오고 \*\*\* 해가 가 오고. {거기 마 찬가지로 많이 인제 술도 가져오고 목도 가져오고 \*\*\* 해가지고 가져 오고.}

10203 #2 네, \*\*\*\*. {네, \*\*\*\*.}

10203 #1 네, 점심메 지쑤 지지무 풀 마 서~이쓰. {네, 점심메 자기껏, 자기껏이 대개 써 있어.}

10203 # 이래 연날레느 인자 상거사~'이 밥쌍'이라 카능기 이써, 밥쌍', 이래. {이래 옛날에는 인제 상객상(上客床), 밥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밥상, 이렇게.}

10203 # 밥쌍을 가따가 채'리가 오는 사람도 이꼬, 이래 여러 가지두 이래 마임 채리가 옴 미더. {밥상을 갖다가 차려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차려 가지고 옵니다.}

10203 # 협조를 인제 해가이고 그래 잔치르 침니다. {협조를 인제 해 가지고 그래 잔치를 침니다.}

10203 @ 어르시는 그암며너 혹씨 저기 장가가실 때, 예 그르이까 일런 저네, 신행오시기 일런 저네 어 가실 때느 어뜨케, 그저네 사주하고 이런, 사주단자하고 먼저 보내미까, 그렇 거 어뜨케? {어르신은 그러면은 혹씨 저기 장가 가실 때, 음 그러니까 일년 전에, 신행을 오시기 일년 전에 음 가실 때느 어떻게, 그 전에 사주하고 이런, 사주단자하고 먼저 보내넉 까, 그런 것을 어떻게?}

10203 #1 사성? {사성?}

10203 #1 사성이러 보내지여 인저 항상. {사성이라고 보내지요, 인제 항상.}

10203 #1 사 상 사 사성 그으는 자 사성 카능 거 빌거드 아이 아이데이. {사 성, 사, 사성 그것은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 것도 아니, 아니되지.}

10203 #1 자기가 실랑 세년워털, 그 인자 머'신 도가 거름 머신 도가에 생네니를 그음 마 또 보내 기이: 인자 사서~이야 캄, 너 삭짜에다각 봉투에서는 별 성짜루 딱 써뿌고 아래다가 인자 음 성조 도가 거듬머 성주 도가로 고 딱 써뿌고 거다가 인자 이 생니노틸 딱 저언 능기 기에 빠로 사서~이데이. {자기가 신랑 생년월일, 그 인제 "무슨 도가"같은 무슨 도가에 생년월일을 그림 그냥 또 보내니까 인제 사성이라고 하면, 너 사자에다가 봉투에는 각 봉투에서는 별 성자로 따 써버리고 안에다가 인제 음 성주 도가 같으면 성주 도가로 딱 써 버리고 거기다가 인제 이 생년월일을 딱 적었는 것이 바로 사성이지.}

10203 #1 사성 기이 간단해에 금 머. {사성 그것은 간단해, 그 뭐.}

10203 @ 무 다릉거느 드르가능 거 업씀미껴? {뭐 다른 것은 들어가는 것은 업습니까?}

10203 #1 업써예, 그. {없어요, 그것.}

10203 @ 감 그어 보낼 때느 그검만 보냄미까? {그림, 그것 보낼 때는 그것만 보냅니까?}

10203 #1 그음마 보내지여, 사성 카능 고누. {그림 보내지요, 사성이라고 하는 것만.}

10203 # 하메 여가주고 그래 보내나. {함에 넣어 가지고 그래 보내나.}

10203 @ 하메 누가 누가 가주감미까, 그어느, 가주갈 때? {함은 누가 누가 가지고 갑니까, 그 어느 것, 가지고 갈 때?}

10203 #1 하 하른 그 그러며느이 중신한 사래미 가주아지, 중신. {하, 함은 그 그러면 중신을 한 사람이 가져 가지, 중신한 사람이.}

10203 #1 중신하는 사래미 꼬 에'저'네는 중신한'다 케'바선 고무신 항 크리 그이 줄 주능 기라. {중신하는 사람이 그 예저에는 중신하다고 하더라도 고무신 한 켤레 그것을 주는 것이라.}

10203 #1 땅' 근 어꼬. {다른 것은 없고.}

10203 #1 고무신 네나 고무신 항 크리 그그 바꼬. {고무신 마찬가지로 고무신 한 켤레 그것밖에.}

10203 @ 중신갑쓰로? {중신값으로?}

10203 #1 넌 중 머 그으 머 인잔 텅긴다꼬 은자 그'뽕만 해도 고무신 그이 비싸씨어. {네, 중신 뭐 그 뭐 인제 다닌다고 인제 그때만 해도 고무신 그것이 비쌌어.}

10203 #1 네, 그 어 상 크리 주마 조:타꼬 맘 머, 앙그듬뽕 모읍 구여 또 으는 사라느 꺾느 꺾느 꺾느 고무 고무신. {네, 그 음 한 켤레를 주면 좋다고 그냥 뭐, 안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검은, 검은 고무, 고무신을 주었고.}

10203 # \* 머 그때느 세빌떠기른 미신 싱꼬 와심미껴, 고무신 싱꼬 \*\*\*? {\* 뭐 그때는 새 별택은 짚신 신고 왔습니까, 고무신을 신고 \*\*\*?}

10203 #2 고무신 싱꼬 와찌여, 그때. {고무신, 신고 왔지여, 그때.}

10203 # 고무신 싱꼬 와썸미껴? {고무신을 신고 왔습니까?}

10203 #2 예. {예.}

10203 # 그르또 그때는 그 여유가 고마 조안네이. {그래도 그때는 그 여유가 그만큼 좋았네요.}

10203 #2 예, 고무신 시테. {예, 고무신 신어.}

10203 @ 그림며느 그어 함을 그아면 그 중매하는 부니 인제 들고 가서 그 래해따, 그지예? {그러면은 그 함을 그러면 그 중매를 하는 분이 인제 들고 가서 그랬다, 그렇지요?}

10203 #1 그치에. {그렇지요.}

10203 #1 네, 예저네 주추 중 쭈. {네, 예전에 중, 중매.}

10203 @ 요즘 그거 그러며 저기 장가가실 때너 아 여기섬 물모기나 이렇 거 쫘 들고 감미  
까, 앙그아면 그냥? {요즘 그건 그러면 저기 장가를 가실 때는 아, 여기서 물목이나 이런  
것을 쫘 들고 갑니까, 안 그러면 그냥?}

10203 #1 장계갈 때는 암망 꺼 암무 꼬또 가다나아 아나고. {장가를 갈 때는 아무 것, 아  
무 것도 가져가지 않고.}

10203 #2 상답. {상답.}

10203 #2 상'다 가'가'잔나. {상답이 가, 가잖아.}

10203 #1 어 하메 거 연나? {음 함에 그것을 넣나?}

10203 #2 예, 오꺼통 거 잉게 여 가주고 상다비라꼬. {예, 옷같은 것을 인제 넣어 가지고  
상답이라고.}

10203 @ 그엄 거늬 멈 머? {그런 것은 뭐, 뭐?}

10203 # 썬역씨 처매저구'리. {색시 치마저고리.}

10203 # 예, 주로 인자 색시 처매저구르 인자 고평 여가꼬 이래. {예, 주로 인제 색시 치마  
저고리를 인제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10203 #2 시집올 때 입는 처마 저구리 칸테, 예. {시집올 때 입는 치마와 저고리를 말하는  
데, 예.}

10203 @ 시집올 때 예? {시집올 때, 예?}

10203 #2 \* \*, 예. {\* \*, 예.}

10203 #2 예, \*\*\*\* \*\*라꼬 이쓰예. {예, \*\*\*\* \*\*라고 있어요.}

10203 #2 고구 하'메 여가 \*\*\*, {그것을 함에 넣어 가 \*\*\*.}

10203 @ 그 고골 머라 부른다고예? {그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10203 @ 상, 상답? {상, 상답?}

10203 #2 우리예? {우리예?}

10203 @ 예. {예.}

10203 # 으으응, 고소 인냐 처매 저구리 인자, \*\*\* \*\*. {아니, 그것은 인제 치마와 저고리  
를 인제, \*\*\* \*\*}.}

10203 # 상'으로. {상으로.}

10203 # 이래. {이렇게.}

10203 #2 고 시집올 때 입는 거는 상다비고, 고 다으메 탐 블 거이 중:다비라꼬 고래 인자  
여가주오 그 질'머지 오데. {그 시집올 올 때, 입는 것은 상답이고, 그 다음에 한 벌 것이  
중답이라고 그래 인제 넣어 가지고 그것을 짚어지고 오던데.}

10203 @ 그름 그르며 한 일련 똥아네는 인제 어머니면 시어른으넌 보시고, 시어른는 보셔  
썰미까? {그럼 그러면 한 일련 동안에는 인제 어머니는 시어른은 보시고, 시어른은 보셨습  
니까?}

10203 #2 시른 몸'보지예. {시어른 못 보지요.}

10203 @ 가 그리이까 일르 일련 똥안 가며 시어른도 모뻘시고 모른다 아임미까, 그지예?  
{그래, 그러니까 일련, 일련 동안 그러면 시어른도 못 보시고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10203 #2 예, 모르지. {예, 모르지.}

10203 @ 실랑반 인제 알고, 그암 글 그때 머 여 철 바깥 때 가늑 인사도 일로 머 어뜨엿

머 함미까, 저 처? {신랑만 인제 알고, 그럼 그 그때 뭐, 여기 철이 바뀔 때 간혹 인사도 여기는 뭐 어떻게 뭐 함니까, 저 철이 바뀔 때?}

10203 #1 철 바뀔 때는 저서 인자 어 오꺼통 거 해 해가주오 이리 이리 가주 옥 가따 주고, 또 그 다오메 장', 인제 제사짱 그렇 거릅, 그어 그어 거너'물 바가조서 거 명절 때 디'며느 그 가'주 쓰'라꼬 머 이제 가따조이. {철이 바뀔 때는 저기서 인제 어 오거던, 거기 해, 해 가지고 이렇게 이리 가지고 오고, 갖다 주고, 또 그 다음에 장, 인제 제사장 그런 것을, 거기 건어, 건어물을 봐 가지고 그 명절 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쓰라고 뭐 이제 갖다 주었지.}

10203 @ 그 안 저쭈우게서? {그럼, 저쪽에서?}

10203 #1 네, 예. {네, 예.}

10203 @ 처자찌베서? {처녀집에서?}

10203 #2 \*\*\*\*\*. {\*\*\*\*\*.}

10203 #1 세액씨 지베서 이리 가따 주능기라이. {색시 집에서 이리로 갖다 주는 것이랴.}

10203 @ 그암 보통 그어 누가 들고 옵니까? {그럼 보통 그건 누가 들고 옵니까?}

10203 @ 하인드리 믿 이르크? {하인들이 뭐 이렇게?}

10203 #2 꺼 심부름꾸 미썸 심부름 덜고 오고, 그 저네는 어 머 동생 이쓰마 동생 가올 수도 이스꼬. {그 심부름꾼이 있으면 심부름꾼이 가져 오고, 그 전에는 음 뭐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가져 올 수 도 있었고.}

10203 #2 따르 어 동세~이 업쓰마 따은 사암메 가올 수도 이꼬 이래께테. {따로 음 동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랬지.}

10203 @ 그엄며느 그르케 머 물모글 이래 가주오며느 여기서도 보냄미까? {그러면은 그렇게 뭐 물목을 이렇게 가져 오면은 여기서도 보냅니까?}

10203 @ 양 가음 빙 결로 보냄미까, 보통? {안 그럼 빈 것으로 보냅니까, 보통?}

10203 # \*\* \*\* 그그 예이를 가따 지키야 데거던너. {\*\* \*\* 그그 예이를 갖다 지켜야 되거던요.}

10203 # 그르키 때미네 쯔 이쭈으셔도 쯔썸 보내지. {그렇기 때문에 쯔 이쭈고에서도 쯔썸 보내지.}

10203 #1 쓰 우리느 보낸느 암보내 그글 모르게따, 나는. {우리는 보낸나, 안 보내나 그것을 모르겠다, 나는.}

10203 # 음'스뎜 몸'뽕'내지마느 인는 사라브 가따가 이래 쯔썸 이래 보내능기 예이라 \*\*\*, {없으면 못 보내지마느 있는 살마은 가져다가 이래 쯔썸 이래 보내는 것이 예이라, \*\*\*.}

10203 @ 그 다오묘 혹씨 인제 어르시니 장가가실 때, 그어 아까 심부: 은제 그릉꺼 어머님 이불 그어 신행오실 때 이불 온하고, 치마 저고리, 또 그 다오메 아가 중다미라 해썸미까? {그 다음은 혹씨 인제 어르신이 장가를 가실 때, 그 아까 심부 인제 그런 것, 어머님이 입을 그런 신행 오실 때 입을 옷하고, 치마와 저고리, 또 그 다음에 아가 중답이라 했습니까?}

10203 #2 예. {예.}

10204 @ 거 하오 두 가짐마 해가 가시어꼬 혹씨 또 다른 예무른 해가 가싱 거 업썸미까? {그것 하고 두 가지만 해가지고 가셨고 혹씨 또 다른 예물은 해가지고 가신 것은 업습니까?}

10204 #1 그릉 거 업찌 몸 모. {그런 것은 없지, 뭐.}

10204 #2 예저네 패물도 업찌. {예전에 패물도 없었어.}

10204 #1 예저네에 으음 여 업찌 예기. {예전에는 음 여기 없어 여기.}

10204 @ 패물? {패물?}

10204 #1 네, 예저네야 머 이썸니까, 머 네. {네, 예전에야 뭐 있습니까, 뭐 네.}

10204 #2 예, 그른 꺼또 온니 \*\*\*\*. {예, 그런 것도 오니 \*\*\*\*.}

10204 @ 감 혹씨 처갓찌벤 장인어르니나 어른들한테 해가주 간 패물도 업썸니까? {그럼 혹씨 처갓집에 장인 어른이나 어른들한테 해가지고 간 패물도 없습니까?}

10204 #2 업씨여. {없어요.}

10204 #1 네, 업쓰이, 그릉 거. {네, 없어, 그런 것.}

10204 #2 업씨여. {없어요.}

10204 @ 그 어머니므 신행오실 때 시집오실 때 예 머 패물 해가주 오셔썸니까? {그 어머니님은 신행을 오실 때, 시집을 오실 때 음 뭐 패물을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10204 @ 예물 해가 오셔썸니까? {예물을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10204 #2 요' 요'도 안'해'완테 여 마라 내 해고오심니까. {여, 여기도 안해 왔는데 여기 뭐 하려고 내가 해가지고 오겠습니까?}

10204 #2 안해야지. {안 해야지.}

10204 #2 실랑 쪼게서 하'저네예. {신랑 쪽에서 하잖아요.}

10204 #2 응, 그래 아해'쓰이. {응, 그렇게 안 했으니까.}

10204 @ 요즘은 어 그 어떠썸니까? {요즘은 어 그 어떻습니까?}

10204 @ 그어 아드님 장가 보내고 또는 딸분 시집보낼 때? {거기 아드님 장가 보내고 또는 딸분 시집을 보낼 때?}

10204 #1 지끄미 시 시끔 세월 따라 가조이 지끔 마이 예주지 머이. {지금이야 지, 지금 세월에 따라 가지고 지금이야 많이 해주지 뭐.}

10204 #1 지꾸물 마 해 주능기라. {지금은 그냥 해 주는 것이라.}

10204 #1 지꿈멈. {지금은.}

10204 @ 요즘 마니 해썸니까? {요즘 많이 해썸니까?}

10204 #1 네, 반지도 해주고 머 시계도 해주고 전심 마 다 해주이, 세워리 크:만쥘 변해서. {네, 반지도 해주고, 뭐 시계도 해주고 모든 것을 그냥 다 해주지, 세월이 그만큼 변했어.}

10204 #2 우리 아은 서이라도 마이 해조썸미더. {우리 아이들은 셋이라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10204 #1 벨 변해쓰예. {네, 변했어요.}

10204 #1 참 버네씨. {참 변했어.}

10204 @ 검머느 해주는 버미가 보통 처거 그니까 사위 이 한테도 해주지마너 사이 아버지하고 어머님한테 다 해주고? {그러면은 해주는 범위가 보통 처가 그러니까 사위한테도 해주지만은 사위 아버지하고 어머님한테도 다 해주고?}

10204 #1 글치, 이단. {그렇지, 예단.}

10204 #2 예, 다 온 한 벌 써예. {예, 다 옷 한 벌씩요.}

10204 #1 이단 다 해준네, 지끔. {예단을 다 해주었네, 지금은.}

10204 #2 예, 오 탄 벌 쓰또 마차디리꼬, 웨당감 별또로 디리씨예. {예, 옷 한 벌씩도 맞추어 드리고, 예단감을 별도로 드렸어요.}



10204 @ 그암며느 딸 그러케 시집 보내셔쉴 때, 어 또 그조게 사위 쪼게서도 예무를 해가  
 움미까, 요즘 어떠쉴미까? {그러면은 딸을 그렇게 시집을 보내셨을 때, 어 또 그 쪽에 사위  
 쪽에서도 예물을 해가 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10204 #1 여 지쑤 해가주 와이. {여기 지금은 해 가지고 와요.}

10204 @ 요즘하고 예전하고는 쯤 말 달라져쪼예? {요즘하고 예전하고는 쯤 많이 달라졌지  
 요?}

10204 #1 기여 마이 달라져쪼여. {그것이야 많이 달라졌지요.}

10204 #2 예, 마이. {예, 많이.}

10204 #1 마이 달라지지. {많이 달라졌지.}

10204 #1 살기야 그마지 수지니 노풍기라. {살기야 그만튼 수준이 높은 것이라.}

10204 # 엔나레션 바불 몸무췌. {옛날에서는 밥을 못 먹었어.}

10204 #1 네. {네.}

10204 # 네 바불 몸무췌. {네, 밥을 못 먹었어.}

10204 # 해줄 여유'가 업'짜너여. {해줄 여유가 없잖아요.}

10204 # 예 그래성 바 기그 몽능 기 제::일 주로 인자 큰 목췌거 상거췌. {예, 그래서 밥  
 그것을 먹는 게 제일 주로 인제 큰 목적으로 산 것이지.}

10204 @ 요즈음 머 예저에어 보리꼬개가 머 워낙 심하니까. {요즘 뭘, 예전에는 보릿고개  
 가 뭘 워낙 심하니까.}

10204 #1 하 예, 하 원체 뭘 무얼 끼 업따 봉게네 마. {하, 예, 하 원래 뭘 먹을 것이 업다  
 가 보니까 그냥.}

10204 #1 구우뚜 우리 여게 유변니 거 체방텔 때는 사'네 저' 나무가, 솔라무가 음 기'양  
 성'항 기 업췌췌. {그것도 우리 여기 6.25사변이, 그 해방될 때는 산에 저 나무가, 소나무가  
 음 그냥 성한 것이 없었어.}

10204 #1 그그를 빼'끼가즈어 스 그 송기를 가따가 건뚜 명는다꼬예. {그것을 벗겨 가지고  
 서 그 송기를 갖다가 그것도 먹는다고요.}

10204 #1 저아 큰' 나무는 전시~'이 송기 빼'끼가주오서 그그 가이조. {저기 큰 나무는 곳  
 곳에 송기를 벗겨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10204 #1 봄 디'마 쑥 뜨더 가주고 그에 그그'르 가따 반튼하고 버리 저릉 건 쫓 맘 머 썰  
 르 가주오 그으캥 가치 머무리지. {봄이 되면 쑥을 뜯어 가지고 그에 그것을 갖다 반쫘하고  
 보리 저런 것, 저 뭘 삶아 가지고 그것이랑 같이 버무렸지.}

10204 #1 크 지끄몽 그으 요라만 제옴 그은 짐승도 암머거예, 그래 주마. {그 지금은 그래  
 이러면 저기 그 짐승도 안 먹어요, 그래 주면.}

10204 #1 어, 짐승도 암몽는다 가이. {음, 짐승도 안 먹는다고 하니까.}

10204 # 짐승 암목췌. [짐승도 안 먹었지.}

10204 #1 예, 큼'만치 고생시러버. {예, 그만큼 고생스러웠지.}

10204 # 짐스~'이 고기 암머여마 지쑤 몽나? {짐승이 고기 안 먹이면 지금 먹나?}

10204 #1 그르치. {그렇지.}

10204 #1 곶 ㄱ 예저네는 참: 그만치. {그럼 그 예전에는 참 그만큼.}

10204 @ 머꼬 싸알게 텐지가 그르케 오래 데지가 아나췌미다. {먹고 살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았앗습니다.}

10204 #1 으, 참말로 저 예저네. {음, 참말로 저 예전에.}

10204 # 예, 너무 달라\*\*\*. {예, 너무 달라\*\*\*.}

10204 # 뭉능 거시, 제:일 가따 뭉능게 여서는 이 예. {먹는 것이, 제일 가져다 먹는 것이 여기서 이 예.}

10205 @ 그으 어머님께서 인제 여기 시집오시니까' 처음 은제 시집 오셔쓸 때 어 어뎜 분들 계신편까? {그 어머님께서 인제 여기 시집을 오시니까, 처음 인제 시집 오셨을 때 어, 어떤 분들이 계시던가요?}

10205 @ 시가찌베 오시니까? {시가집에 오시니까?}

10205 #2 머 이 어른 네 분 계시고인자 시누인 두리꼬, 네 시동상 안주 꼬금 궁미나고 텅 기고예. {뭐 이 어른 네 분 계시고 이제, 시누이 둘 있고, 음 시동생 아직 그때 국민학교 다니고예.}

10205 #2 네, 고래빠'더. {네, 그래뿐이었습시다.}

10205 @ 그엄며 시동, 그라며 씨누우 두 분 다 아직 호레늘 아하셔꼬, 예? {그러면 시동생, 그러면 시누이 두 분 다 아직 혼례를 안 하섯고, 예?}

10205 #2 예예, 결혼 저네서. {예, 결혼 전이어서.}

10205 #2 오고 나서 결혼식 해쓰여. {오고 나서 결혼식을 했어요.}

10205 @ 아, 아이고 그러마 고생이 만아께습니다. {아, 아이고 그러면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10205 @ 그엄메 미테 그어 시동생뿐넌 처음 오시쓸 때 궁민하꼬 다녀쓰니까 어려께따, 그 지예? {그러면 밑의 그 시동생분은 처음 오셨을 때는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어렸겠다 그렇지요?}

10205 #2 예, 어려. {예, 어려.}

10205 #1 그르치, 어리지오. {그렇지, 어리지요.}

10205 #2 켈 망내~이. {제일 막내.}

10205 #1 예, 꺼르지. {예, 그렇지.}

10205 @ 머라고 불러썰미까, 그때? {무리라고 불렀습니까, 그때?}

10205 #2 그때눔 머 입 디'르미라꼬 이래 불러썰요. {그때는 뭐 이 도련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지요.}

10205 @ 그 그라며 곧 디련님 인제 스 그어 장가가시고 할 때너 머 다아 해드리께따, 그 지요? {그, 그러면 그 도련님은 인제 그 장가를 가시고 할 때는 뭐 다 해드렸겠다, 그렇지요?}

10205 @ 그어기 그라며 그 어르신니 시집 오셔, 아이 시집 오시고 나서 어르신니 구네 가셔썰미까? {거기 그러면 그 어르신이 시집을 오셔서, 아니 시집을 오시고 나서 어르신이 군에 가셨습니까?}

10205 #2 예, 구네 가쓰예. {예, 군에 갔어요.}

10205 #1 네, 구 군대 가쓰이. {네, 군, 군대 갔으니까.}

10205 @ 감 구데열 가셔쓸 때느 여기 혼자 게셔썰미가, 어떠썰? {그럼 군데에 가셨을 때는 여기 혼자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10205 #2 예으, 즈 은저 읍 시어른하고 가치 이썰썰요, 시누이하고. {예, 음 저 인제 음 시어른하고 같이 있었지요, 시누이하고.}

10205 @ 그 그읍 혼자 한 그르도 삼넌 게셔썰며느 그때는 더 머 힘드셔썰미다? {그, 그럼 혼자 한 그래도 삼넌 계셨으면은 그때는 더 뭐 힘드셨겠습니까?}

10205 #2 예, 머 이 만날 일하은 사암 맹꺼 어른들 일 잘 하시기주고 머 가치 일하고 그 쯤. {예, 뭐 이 만날 일하는 사람이니까 어른들께서 일을 잘 하셔가지고, 뭐 같이 일하고 그렇지.}

10206 #2 요즈믄 지금 머 그럼머는 머 요기 두 분 내외분 두 두 분하고 할머니만 하고 세 분 그릇 계신다, 그지예? {요즘은 지금 뭐 그러면은, 뭐 여기 두 분 내외분 두, 두 분하고 할머니만 하고 세 분이 그렇게 계신다, 그렇지요?}

10206 #2 예, 세 분. {예, 세 분.}

### 1.2.3. 전통적 혼례식

10207 @ 그 어르신, 그 어 보니까서 장가가지고 그 다오메 어머님또 시집 오신 이야기 쪽 해주셨는데, 아까 대강 이야기는 하셔썸니다마님 그오 우리가오 혼례치를 때, 예 그 초례치를 때, 그 초례치를 때넌 보통 어떤 시그로 하는지 함 분 이야기해 주이십시오. {그 어르신, 그 음 본인께서 장가를 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도 시집을 오신 이야기를 쪽 해주셨는데, 아까 대강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그 우리가 혼례를 치를 때, 음 그 초례를 치를 때, 그 초례를 치를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0207 #1 그 당시에 혼례 치르 치를 때는 맨 처음에 저:: 강계네 큰 네네께 대바~이라 칸이 이씨여. {그 당시에 혼례를 치를, 치를 때는 맨 처음에 저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대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0207 #1 대바니 거서. {대반이 거기서.}

10207 # 실랑 대바. {신랑 대반.}

10207 #1 아, 이 실랑 대바~이 전심 마 인자 메쳐메 드강계네 술상도 가조오고 전시메 다 그 다가주 와가주오서 그그을 가따가 그래 수를 가따암 머꼬 나서, 그래 난주 저는 또 글항계네 인자 어 ,실랑 네네께 거 그오 혼례씨이는 그 오슬 가주와, 가주와아지 그거 다 이피여. {아, 이 신랑 대반이 모든 것이 그냥 인제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술상도 가져오고 모든 걸 다 가져, 다 가져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래 술을 갖다가 먹고 나서, 그래 나중에 저는 또 그러니까 인제 음, 신랑에게 마찬가지로 그 혼례를 시키는 그 옷을 가져와, 가져와서 그것을 다 입혀요.}

10207 #1 다 이피 가조서 그래 가조 저 인자 다 이피거 가조 노 노며는 자, 바께서느 은자 달 달 모등 줌비를 가따 다 채리노며느 인자 인자 저 실라~이 인자 아페 아프로 인자 나오라 카며는 그 대바~이 인자 들고 나가 인자. {다 입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 인제 다 입혀 가지고 놓, 놓으면 인제 밖에서는 인제 다 모든 준비를 갖다 다 차려놓으면은 인제 인제 저 신랑이 인제 앞에 앞으로, 인제 나오라고 하면은 그 대반이 인제 데리고 나가지 인제.}

10207 #1 둘 나가 이시며는 거서 은제 이 실라~이 아페 나오 이시며는 심불'를 가따 나 난주 인자 거서 인잔 큰바~아선 다보 인잔, 또 심부도 네네께 대바~이 이씨 가조 심부를 가따 은자 들고 나오지여. {데리고 나가 있으면 거기서 인제 이 신랑이 앞에 나와 있으면 심부를 데려다 놓고 나중에 인제 거기서 큰방에서는 도로 인제, 또 심부도 마찬가지로 대반이 있어 가지고 심부를 가져다 인제 데리고 나오지요.}

10207 #1 두르 나가저 은저 그 은자 혼례 시난데, 머 학짜 데는 사라미 그 인자 혼'례 방'

시기 이써. {데리고 나가지고 인제 그 인제 혼례를 치르는데, 뭐 학자 되는 사람이 그 인제 혼례 방식이 있어.}

10207 #1 홀레 바, 방'시기 인는데, 홀레 방어 방시글 가따가 그램 머 메처메 머 부칸 치제 제배라 카등가 머 머 저어 쯔쯔 쯔어. {혼례 방, 방식이 있는데, 혼례 방, 방식을 갖다가 그래 뭐 맨 처음에 뭐 "북향재배"라고 하든가 뭐, 뭐 저기 저.}

10207 # 부칸재배. {북향재배.}

10207 #1 네, 부칸재배 그으는 내 거 부칸재배야 캉 거느 인자 임금님 아 안페 인자 알린다 쟁이. {네, 북향재배 그것은, 내 그것 북향재배라고 하는 것은 인제 임금님 아, 앞에 인제 알린다고 하니까.}

10207 #1 우리가 두 사람미 인자 부카네 저 임금히 마 임금니미 계성게네 뿌가 머. {우리가 두 사람이 인제 북향에 저 임금이 그냥 임금님이 계시니까 뭐.}

10207 # 부칸재배, 구래 마. {북향재배, 그래 그냥.}

10207 #1 네, 그래가즈업 임금니만테 알린다 카미서 그래 인자 거 인자 저를 하라 카마 절인잔 두 분 하능기라이. {네, 그래가지고 임금님한테 알린다고 하면서 그래 인제 절을 하라고 하면 절을 인제 두 번 하는 것이라고.}

10207 #1 두 분하고 나머느 난:주 가셔느 또 인자 심분찌'베서부텅 아페 씨 그 인자 네 넌 네 네키야 심부가 인잔 두 분 하며는 실랑은 함 분 하능 기라이. {두 번하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는 또 인제 신부 측에서부터 앞에 서 그 인제 마, 마찬가지로 신부가 인제 두 번 하면은 실랑은 한 번 하는 것이라.}

10207 #1 어이씨 거 인자 시 그 이 베'를 심, 심부가 항상 베'를 반 베를 내주고 실라~은 함 분 하고, 그래하고 난조 어시는 꼬테 가져서 은자 수 술 술'쌍을 가따가 교'환하능기라이. {어이, 그 인제 그 이 배를 신, 신부가 항상 배를 반 배를 내어 주고 실랑은 한 번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대개는 끝에 가서는 인제 술, 술상을 갖다가 교환하는 것이라.}

10207 #1 여 은저 실랑 수웁 심부로 가따 주고, 심부 술'쌍은 심부 읍치 실라~을 가따 주고, 그래 서로 게 인제 저 인자 엄 쪽쪽 쪽 딱 이래 감'면 자 마시라 이게러. {여기 인제 실랑 술은 신부에게로 갖다 주고, 신부 술상은 신부 읍지 실랑을 갖다 주고, 그래 서로 거기 인제 저 인제, "음 쪽쪽 쪽 딱" 이렇게 가면 자 마시라 이것이라.}

10207 #1 어 음. {어, 음.}

10207 #1 그래가주우 찌메치 인저 읍 마'신다 카능기 임마 데, 데다가 인자 마느기'지. {그래가지고 조금 인제 음, 마신다고 하는 것이 입만 대, 대다가 인제 마는 것이지.}

10207 #1 그그르 가따으 올'케 할'라 카므 다 무어수 머 다 무'여도 무방하지만도 그 여러 사람 아페서 뭐 뭐 물 쭈 이썸'니까. {그것을 갖다가 올게 할려고 하면 다 먹어서 뭐 다 먹어도 무방하지만도 그 여러 살마 앞에서 뭐, 뭐 먹을 수가 있습니까?}

10207 #1 금 머 인 데다 고만 노코, 그래가 난주 딱 끈, 끈나고나마 인자 암 음 암'빠~'이렇게 이써 인자. {그럼 뭐 입을 대다 그만 놓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딱 끝, 끝나고 나면 인제 안, 음 안방이라는 것이 있어, 인제.}

10207 # 컴 컴, 컴방우론. {큰, 큰 큰방을.}

10207 #1 그르 콤바~'우로 인자 그 매처메는 할 때느 사랑으론 그이 헨는데 인자 인자 으 결혼식 다 하고 나며 콤바~'으론 남 인자 드가지. {그렇게 큰방으로 인제 그 맨 처음에 할 때는 사랑방으로 그렇게 했는데, 인제 인제 음 결혼식을 다 하고 나면 큰방으로 음 인제 들어가지.}

10207 #1 콤바~'으로 드가노'마 인자 대'방'캉' 가치 인는데, 고'만 그어시 그어 심부지뻔  
신'쨌'이나 모등 거시 달 다 드로'능 기'라 마. {큰방으로 들어가 놓으면 인제 대방이랑 같이  
있는데, 그만 거기 거기 신부집의 친척이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것이라, 그냥.}

10207 #1 썩: 도라 가조서 그'때'부'텅 에 애:를 미이능 기라. {썩 둘러앉아 가지고서 그때  
부터 애, 애를 먹이는 것이라.}

10207 #1 어뜨케 여' 완'노.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

10207 #1 너 어뜨케 완노 이래 이래 해찌. {너는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이렇게 했지.}

10207 #1 이이여 이 오슨 누'가' 난'노 이리능건. {이, 여기 이 옷은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이르는 것이.}

10207 #1 누가 난느 이개뻘면 말: 함마'디에, 무 우리 어무이가 나따 이캉'마, 느거 느거  
옴마가 이 오'또' 논'나, 이랑기에. {"너는 누가 났느냐" 이렇게 말해 버리면 말 한 마디에  
뭐 우리 어머니가 낳았다고 이렇게 하면 너희 너희 엄마가 이 옷도 낳았나, 이리기에.}

10207 #1 그 으 말 함마디 함마디 잘: 해'에데. {그 음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잘 해야 되  
지.}

10207 #1 이거는 참 머 어머니가 저 손수 지 맨드'러따, 이래 하, 이래 하고, 손수 지'이따  
카'고 이'래' 해'야 자기가 채'글러 안 차'필 정도로 머심 한, 한 사라뭇 말하이 디'며는 자기  
가 그을 함부스로 말하능기 아이고이, 저 마를 바드며는 내갑 어뜨케 말하느 겨우, 그글 다  
빠니 머 캉'상 소'킵 말하며 안데에. {이것은 참 뭐 어머니가 저에게 주시기 위해 손수 지어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손수 지었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자기가 책을 안 잡힐  
정도로, 무슨 한, 한 사람이 말하게 되며는 자기가 그것을 한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말을 받으면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을 답변이 뭐 항상 빨리 말하면 안되지  
요.}

10207 #1 튼 쟁가케 가주서 그'래' 가주 멈 밈 멍 썩'꼬 허드꺼려도 심:중'이 쟁각해 가주  
오서 말해 해야데능기래. {하여튼 쟁각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뭐, 뭐 말을 씹고 히득꺼려  
도 신중히 쟁각해 가지고서 말해야 되는 것이라.}

10207 # 앙그르든 머, 마르 여러 사래미 말 당하다 봉게네, 머'시든지 멈 머 마구 머 인자  
말 어뜨케 말 나오능가 시퍼서, 크'래 머 다라'능'기'라이. 그래가주오 멈 무 뚜디'리고 달'코  
막. {안 그러면 뭐, 말을 여러 사람의 말을 당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뭐 마구 뭐 인제 말  
을 어떻게 말이 나오능가 싶어서, 그렇게 뭐 가루니까, 그래 가지고 뭐 두드리고 가루고  
막.}

10207 # \*\* \*\* \*\* 말 하다보여 혼쳐 가서 딱 따무 실수하기가 심찌. {\*\* \*\* \*\* 말을 하다  
보면 혼자 가서 딱 다만 실수하기가 싶지.}

10207 #1 네. {네.}

10207 # \*\*\* \* \*\*\*, {\*\*\* \* \*\*\*,}

10207 #2 아 보꾸'루'운데'예. {아, 복장을 꿇게 하는데요.}

10207 #1 네. {네.}

10207 #2 여'러 명'어 말 몬함미더 오세도. {여러 명의 말말을 못 당합니다, 요새도.}

10207 #1 예. {예.}

10207 # 그르치람 \*\*\*가 데에 데고. {그러면 \*\*\*가 되어야 되고.}

10207 #1 과 그 과 관행이 멈 머 어드로 썩'노', 이랴움 멤 메 머 모르느 사라뭇 관넝 카며  
느 인자 성, 성씨를 두고 말해야텐느, 안 앙그르면 무시카며는 마네쓰 찌라른느 녁 빼'가'가'

피'가'가' 머 성으느 머시고 이리 나오능기라 인자. {관, 그 관, 관향이 뭐 어떻게 써니, 이렇게 말하면, 뭐 무엇을 모르는 사람은 관향 하면은 인제 성, 성씨를 두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무식하면 말하기를, "지랄할 놈, 너가 빼가가, 피가가 뭐 성은 무엇이니?"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 인제.}

10207 #1 먹 그래 쿡 지바'으면서 머 허드끄리고 머. {뭐 그래, 쿡 쥐어 박으면서 뭐 혈떡 거리고 뭐.}

10207 @ 그엄 그르케 계소으 머 그르케 함미까? {그럼 그렇게 계속 뭐 그렇게 함니까?}

10207 #1 예'에', 머, 머'시든지요. {예, 뭐 무엇이든지.}

10207 #1 머 그래 시:기 다라능기라이. {뭐, 그렇게 세게 다루는 것이라.}

10207 #1 시기 몸 모 곶 머 므오 머 무, 그 올' 때까지 텔 데 올' 때까지 거뜨 그. {시게 뭐 그 뭐, 그 올 때까지 뭐 올 때까지 거기도.}

10207 # 사밀 또아 인는데 사밀 또안 계:숙 인자 그르이 마을 사람한테 달'기능기라. {삼일 동안 있는데 삼일 동안 계속 인제 마을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이라.}

10207 #1 달리능 기라. {시달리는 것이라.}

10207 #2 사이 바람 게 다루능 경가. {사위를 보아 놓으니까 다루는 것인가?}

10207 #1 주'굴 곧 고'초르 다하능기라. {죽을 고, 고초를 다 겪는 것이라.}

10207 #1 이 말루 그르치. {이것이 말로 그렇지.}

10207 # \*\* \*\* 가 노머 치 큰 고초 당한다 그기. {\*\* \*\* 가 놓으면 큰 고초를 당한다, 거기.}

10207 #1 네. {네.}

10207 @ 장에' 가능 그도 시운 니르 아이네. {장가를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네.}

10207 #1 예, 아 예. {예, 아, 예.}

10207 # 시운 닐 아이라. {수운 일이 아니라.}

10207 #1 여기 여 그 씨앙그튼 데는 곶 머 배'기다갑 보기도 머 모테가 다분 끈데 여 머 머 그레은템 지히 가'뻘다 양게 머. {여기 여 그 "시암(+지명의 하나)"같은 곳은 그 뭐 견디다가 보기도 못해서 도로 그런데 여기 뭐, 그런데 집에 가버린다고 안 했나 뭐.}

10207 #1 내 무, 염무 여 문살게따 캄. {나는 뭐 여기 여기에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10207 @ 어르신 글 아까 으 초레 으에 지낼 때, 초레상에너 주로 머 차림미까, 그러며 그 게너? {어르신, 그 아까 음 초레를 지낼 때, 초레상에는 주로 무엇을 라립니까, 그러면 그기 에는?}

10207 #1 초'레상은 어뜨해 텅게네 천 처제는 소나무, 대나무, 근 참: 대나무, 소나무는 그 그래도 암'무리 겨'우리 데도 그기 웨그'넵 벼'나미 어끄덩여. {초레상은 어떻게 되느냐 첫, 첫째는 소나무, 대나무, 그 참 대나무, 소나무는 그, 그래도 아무리 겨울이 되어도 거기 웬 만하면 변함이 없거던요.}

10207 #1 원'칸 느그 두리 인자 벤'치' 말고 그래 인자 사:라 카능 그이, 크 사느 그이이 그르이 머어 똑 실 그통 그릉 거이 인잡 주룽실 기에서 걸치논능기. {원래 너희 둘이 인제 변치 말고 그렇게 인제 살라고 하는 것이이고, 그 상은 그, 그러니까 뭐 또 실같은 것은 거의 인제 꾸리실을 상의 귀에 걸쳐 놓는 것이라.}

10207 #1 이그 은자 명'도 두리 마 마, 먹 꼬'쁜'네 사라꼬이, 이음 막 거'다가 머 그래 걸 치가주오서 그른 노코, 그 담'메 달'도 암막, 쭉막, 양쭈우를 음 마주보고 그 그랜 노코. {이그 인제 사람의 목숨도 그냥 뭐 끝끝내 살으라고, 음 막 거기다가 뭐 그렇게 걸쳐 가지고서

걸어 놓고, 그 다음에 닭도 암닭, 수닭을 양 쪽으로 음 마주 보고 그, 그래 놓고.}

10207 #1 그그 그으느느. {그, 그, 그것은.}

10207 #1 네? {네?}

10207 # 쌀'두 나. {쌀도 놓아.}

10207 #1 쌀 쌀더 너이, 그래. {쌀, 쌀도 놓고 그래.}

10207 # 쌀 라 가'주고, 그 우'에다가 초뿔 썬'는데, 구게 어이 두 개, 두 래 다머가꼬 머 쪽뚜리 썬는 데에다가. {쌀을 놓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초불을 켜는데, 그게 어 두 개, 두 개에 담아 가지고 뭐 족두리를 썬는 데에다가.}

10207 #2 \*\* \*\*\*\*. {\*\* \*\*\*\*.}

10207 #1 그 다오메 인자 아'페다 나는, 아페 요'느 은자 그 다메 술'쌍은 노코 미테 이거는 술'쌍을 노'코 수란쥐 고기 넓:떡'하의 끼'은데 머 찐'짜'이 끼어가따가 막 큼'지'큼'지' 해가'주오서 이거 해가지 미'테다안 여'꼬통 걸 가따가 발라가조 이그를 몬'띠두루 한 등으리 멘'더뿌리. {그 다음에 인제 앞에다 놓는, 앞에 여기는 인제 그 다음에 술상을 놓고 밑에 이것은 술상을 놓고, 술 안주로 고기를 넓적하게 썬 곳에 뭐 촌촌히 꿰어 가져다가 막 큼직큼직하게 해 가지고서, 이것을 해가지고는 밑에다가 엇같은 것을 가져다가 발라 가지고 이것을 못 떼도록 한 덩어리를 만들어 버려.}

10207 #1 막 그래엄 수란주 아 썬 안'주 썬'버라꼐, 안주 쭈울따' 이함머 이그 인제 안주르 가따 이 디비'라 카능기. {막 그래서 술 안주를, 저 안주를 집으라고 "안주 쭈울따" 이렇게 하면 이 인제 안주를 갖다가 뒤집어라고 하는 것이라.}

10207 #1 이거 요 은자 저'분 이 해가존 이글 이글 암머'그며는 이 디비'라꼬 카거드이. {이것 여기 인제 젓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이것을 안 먹으면 이것을 뒤집어라고 말하거던.}

10207 #1 디비'노마 이어 한 등으르 데'가조 몬디베, 한 등그르 데가접 따~아 부'트가조이 가치 인는데, 몬디베에 크득꺼리맘 막' 우'습따꼬 머 저어르 썬 안'죽꺼치 지꺼 저'분질도 몬하능기 장'게'와따, 저'르 저'룽기 지 장게왈, 이름 막 수까'랑기, 저이 저기 으예 저기드리 저 저게 가주구 머신 썬 썬 머 이 시 씨 여 지'랄한다꼬 요 완나 이그 이래 맘 시달리능기 라. {뒤집어 놓으려고 하면 이것이 한 덩어리로 되어 가지고 못 뒤집어, 한 덩어리로 되어 가지고 딱 붙어 가지고 (접시와)같이 붙어있는데, 못 뒤집으면 키득거리면서 막 우습다고 뭐 자기들은 저 아직까지 젓가락질도 못 하는 것이 장가를 왔다고, 저, 저런 것이 장가를 왔다고, 이렇게 막 애당게 하면서, 저기 저기 어떻게 자기들이 저, 저것을 가지고 뭐가 있어서 "여기에 지랄한다고 여기 왔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시달리는 것이라.}

10207 #1 그기 장난칠라꼬 머 한 등그리 그 시 새'액'씨드리 그리 게리 그름 고로 멘드'르 뿌'리어. {거기 장난을 치려고 뭐 한 덩어리로 그 색시들이 그리 그렇게 만들어 버려.}

10207 #1 빼'저가주고 마 한 등그리 데뿌. {빚어 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가 되어 버려.}

10207 @ 그르가 인제 초례 지내고 아까 은제 드르가스 또 아 친저, 아 거 처간뻑 시꾸들한테도 이러케 저러케 시달리고, 그 천날빠문 어뜨게 그 함미까? {그래서, 인제 초례를 지내고 아까 인제 들어가서 또, 아 친정, 아 그 처가댁 식구들한테 또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고, 그 첫날밤은 어떻게 그렇게 함니까?}

10207 #1 천날빠문 기~여고 나서 인자 으 그어 저이 지 인 두:리 무'우라꼬 야:물'상(+ 혼례 때, 첫날 밤에 저녁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밤참을 먹으라고 차린 상의 이름.)을 가뜰 들랄, 들라누치여. {첫날밤은 그리고 나서 인제 음 그어 저기 자기 둘이서 먹으라고 야물상을

가져다 들어 놓고, 들어 놓았지요.}

10207 #1 이엔 더 더더 달라노코 나머느, 이 야물'상 드로기 저네 이글 가따격 쪽뚜'리'께' 이 이씨어. {여기에 들, 들어 놓고 나머느, 이 야물상이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갖다가 족두리가 있, 있었어.}

10207 #1 쪽뚜리르 인쩍 빙 비'끼야 그이 그 야물상을 무끄덩예. {족두리를 인제 벗, 벗겨야 그, 이 야물상을 먹거던요.}

10207 #1 쪽 쪽뚜리르 가따가 안빠끼며 야물사~은 겹 거 음 머'을 수 업'씨어. {족, 족두리를 갖다가 못 벗기면 야물상은 그, 음 먹을 수가 없었어.}

10207 #1 그이 쪼뜨랑에 드끼 겹 겨룬할 때 쓰누 쭈 쪼뜨리 인잔 다: 비'끼노코, 기래 야: 물'상을 가따가 인 달라노코, 그래 임 뉘 세엑씨가 술 한 잔 주만 자기연 머꼬, 자 자기가또 세에시안 조 술 한 잔 주고, 그르노마 몽경'으론 디다보미섬 막 여페 사암드 느그 두리맘 명나, 마 그 달라케'사코 머 야단 지'이고 그르능 기'라이. {그 이 쪽다락에 특히 그 결혼할 때 쓴 그 족두리를 인제 다 벗겨놓고, 그래 야물상을 갖다가 이제 들어놓고, 그래 이 뉘 색시가 술을 한 잔을 주면 자기가 먹고 자, 자기가 또 색시한테 그 술을 한 잔을 주고, 그렇게 해 놓으면 문 구멍으로 들여다 보면서 막 옆에 사람들이 너희 둘만 먹나, 그냥 그렇게 달라고 하고, 뉘 야단을 떨고 그르는 것이라.}

10207 # 그기가이 상:방'지킬라 카능긴데, 상방지킨다, 예. {그것이 그 상방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상방지킨다"라고 하지.}

10207 @ 그 그러머느 그때 으 거 사, 상방 거 지키기할 때, 근냥 어두우집머느 그냥 나감미까, 사암드리? {그, 그러머느 그때 음 거기 상, 상방 그것 지키기를 할 때, 그냥 어두워지면 그냥 나감니까, 사람들이?}

10207 @ 그냥 두 사암 자게 그냥 두? {그냥 두 사람이 자게 그냥 두고?}

10207 #1 예'이, 안' 데지. {예이,안 되지.}

10207 @ 그머 그 어짬미까? {그 뉘, 그 어떻게 합니까?}

10207 #1 저'업 저'어다가 품'핑'을 처나'도 저거러 확' 제'끼부곤 저거 몽끼'웅을 똥버 가조서 마 저 그 멍 먼 막 불라꼬 멍 먼 전심맘 무 몸마정 다 쟈 쟈노코 멍 멍 겐'자 하으 한테 멍. {저어, 저기다가 병풍을 쳐 놓아도 저것을 확 제껴버리고 저기 문구멍을 뚫어 가지고서 그냥 저기 그 뉘 막 보려고 뉘 모든 문짝마다 다 찢, 찢어놓고 뉘, 뉘 굉장한데, 뉘.}

10207 #1 자구러 합니까, 먼. {자게 합니까, 뉘.}

10207 #1 음 머 꼬'자브 네는데. {음, 뉘 꺼집어 내는데.}

10207 @ 그래가 어르신도 모쭈무셔썸미까? {그래서 어르신도 못 주무셨습니까?}

10207 #1 그르치예, 응 몽 몽 몽 몽. {그렇지요, 음 못 잤지요.}

10207 #1 문자구로 한테 머, 웨:를 미'이는데 머, 그래 머. {못 자게 하는데 뉘, 애를 먹이는데 뉘, 그래 뉘.}

10207 @ 그야머 한 그래 한 사밀 똥야는 머 게소그? {그야 뉘, 한 그렇게, 한 삼일 동안은 뉘 계속을 하나요?}

10207 #1 그 이튼날 디머느 어뜨게 텐능게 아이라 인잠, 뚜디'리능기'라. {그 이튼날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제, 두드리는 것이라.}

10207 #1 뚜디리느 때에느 인자 인저 모르거'드 맨침메 어'리다 봉게네 장모 소리를 가따 감 안나오거'등예. {두드리는 때는 인제, 인제 모르거든, 맨 처음에 아직 어리다 보니까, 장모 소리가 안 나오거던요.}



10207 #1 그 장모 소르를 가따간 하기 이에선, 뚜'드리야 매'안'테 모니기 가조서 나 뚜디런 사لامي 인자 말해이. {그 장모 소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두드려야 매한테 못이겨 가지고서 인제 두드리는 사람이 인제 말을 해요.}

10207 #1 여 장모 불러라, 이래 향기라. {여기, 장모를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

10207 #1 으 암부르고 모 그 이시맘, 와' 암부'리노, 만 뚜드리라이, 막 패'테니으, 패테맘'머 아 모니'이'가조 고마 장모니::함 고향 콧흔들지브, 지르며는 인자 장모가 인자 두루와'가, 드로고 조, 드로고, 그 다음메 그을 거서 인자 소개 다 씨'이능 기라. {음, 안 부르고 뭐 그렇게 있으면 왜 안 부르느냐, 마구 두드려라, 막 패니까, 패면 뭐 아 매에 못 이겨가지고 그만 장모님하면, 고향을, 고향을 치면, 지르면은 인제 장모가 인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고 그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제 소개를 모두 시키는 것이라.}

10207 #1 그 다음메 인자 또 그 도움메 처남대기라꺼 여스 처나메 마:느'리를 가따아 처남대기거든. {그 다음에 인제 또 그 다음에 처남택이라고 여기서 처남의 부인을 갖다가 처남택이라고 하거든.}

10207 #1 그르 처남대~이락, 큰처남 그 처 큰처남대기라꼬 카암물 지르며는 그래 와아주 움 머 머 은저 머 업'썸며는 그 노는 사لامي 업씨며는 머 가조 오래코 억 가물 지래 이르웅기. {그렇게 처남택이랑, 큰처남, 그 처, 큰처남택이라고 고향을 지르면은 그래 와가지고 뭐 인제 뭐 음식이 없으면 거기서 노는 사람이 음식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음, 고향을 지르라고 말하는 것이라.}

10207 #1 머 머 안주이시머 안죽 가조 오라꼬 가물 질러라, 앙그트임 멀 가주오라꼬 가물 지르이, 이그르 인자 머'끼 이에 서능기래. {뭐, 뭐 안주가 있으면 안주를 가지고 오라고 고향을 질러라, 안 그러면 무엇을 가져 오라고 고향을 지르면, 이것은 인제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

10207 #1 그어 그기 예저네는 몽는 사لامي 업따 봉게넴 무끼 이'에섬 패'능기라. {그, 거기 예전에는 먹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먹기 위해서 패는 것이라.}

10207 #1 패맘 머 머 나오이 머 머드이. {패면 뭐, 뭐 나오니까 뭐, 뭐든지.}

10207 # 장모르 부를 때도 그거 무'끼 위에서 장물 불'러 \*\*\*, 그러면 장모아 가조 온다, 그에서 강 탕 머그마 감:: \*\*\* \*\*\*. {장모를 부를 때도 그것으로 먹기 위해서 장모를 불러 \*\*\*, 그러면 장모가 가져 온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고향 \*\*\* \*\*\*.}

10207 #1 네, 어에, 마자. {네, 음, 맞아.}

10207 #2 가이 여 비까 매가주구 온 데 끌꼬 멩긴데, 움 마\*\* 매 나도 그래. {그러니 여기 베를 가지고 매어 가지고 온 곳에 끌고 다니는데, 음 마\*\* 매 나도 그래.}

10207 #1 네, 이거는 이거를 가따가 메능 거는 그 인자 네 네까악 거 저 장게갈 때 인자 이그 지르지며 함 지느 가는 극 끈' 아니'심네꺼? {네, 이것은 이것을 갖다가 매는 것은 그 인제 내, 내가 거기 저 장가 갈 때 인제 이것, 짚어지며 함을 지고 가는 그 끈이 안 있습니까?}

10207 #1 꿇 그'그'르 가따감 드라'노코 그 메능'기라여. {끈, 그것으로 갖다가 달아놓고 그렇게 매는 것이라요.}

10207 #1 매가주오섬 머 무끄꼬 멩기미섬 맘 몸 무 그름 머 메능게. {매어 가지고서는 뭐, 묶어서 다니면서 그냥 뭐 그렇게 뭐 매니까.}

10207 #2 \*\*\* 할버이 뚜디리뿌 \*\* \*\*\* 머 그 참 머 \*\*\*\*\* \*\*\*. {\*\*\* 할아버지 두드려 버리면 \*\* \*\*\* 뭐 그 참, 뭐 \*\*\*\*\* \*\*\*.}

10207 #1 이그또 은자 에 나는 처나미 소누처나미 이썸섬금 뎡 뎡 뎡 당'해찌여. {이것도 인제 음 나는 처남이 손위 처남이 있어서 그 뎡 뎡 당했지요.}

10207 #1 어언뜨 그 그 지베 두:루 사'머는 장난도 울키 몬치'고, 참 그 지베 안 두루 사가 하고 하마 장나르 가따 맘테르 치고, 저거 마음테러 함미다. {어떤 그, 그 집에 두루 잘 살면 장난도 옹게 못 치고, 참 그 집이 두루 잘 살지 못 하면 장난을 갖다 맘대로 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10207 #1 처가찌비 두루 담머는 조 골키 모데이. {처가집이 두루 살면 저 옹게 못 해요.}

10207 #1 네, 그 처남 보 바서, 곧 자이, 재이너른 바서도. {네, 그 처남을 보아, 봐서, 곧 장인, 장인 어른을 봐서도.}

10207 #1 우리 처아찌비 그 당시에 맘 머 처남도 잘라'찌, 재이너르 잘'라'찌, 그래 농게네 지 꼬 어 동네에서 머 주인 테'농게네 오 울키 모 모테쓰에. {우리 처가집이 그 당시에 그 냥 뎡 처남도 잘 생겼지, 장인어른도 잘 생겼지, 그래 농으니까 자기 그 동네에서 뎡 주인 이 되었으니까 옹게 못, 못 했어요.}

10207 @ 그렇 거는 여폐서 어멈니르 그어, 그러셔도 머 꿈썸 안하나고 가마 이쓰야 데미 까? {그런 것은 옆에서 어머님은 거기 그렇게 하셔도 뎡 꿈썸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10207 #2 가마 이찌 머 우'야게썸미꺼. {가만히 있지 뎡 어떻게 하겠습니까?}

10207 #1 그르타 카능 그글 곱 몸 무 상'식'찌그로 저래 만는다커 그기'라 맘 마이 그언. {그렇다고 하는 그것을 그 뎡 상식으로 저렇게 맞는다는 것, 그것이라 그냥 그것.}

10207 #1 예저네는 저기어 볼래 오'만 장가오'마 저래 씨'달리고 볼래 저래 뚜드리 만능기 러, 이르 생가하능기라이, 다. {예전에는 저기 본래 장가를 오면 저렇게 시달리고 본래 절러 핵 두드려 맞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모두.}

10207 @ 하이튼 장가가머눔 마 그르케 고생을? {하이튼 장가를 가면은 그냥 그렇게 고생을?}

10207 #1 초'주'움 지'이능기에, 초'주'움. {초죽음, 죽이는 것이라, 초죽음을 만드는 것이라.}

10207 #1 초주우미 그리 머 한 사나루 가따 오마 세'카'만'능 기라요. {초죽음이 그렇게 뎡 한 사나흘을 갖다 오면 얼굴색이 새까맣는 것이라요.}

10207 #1 몸:묵'찌, 마꾸 뎡 머 씨'버 데지, 그람마 울키 몽'나 그아. {못 먹지, 마구 뎡 애를 먹이지, 그러면 옹게 먹나 그러면.}

10207 #1 지금 사람거트며 썸 그래 아이다~'이. {지금 사람 같으면 그래 안 했을 거이다.}

10207 # 지끄무 그래 달문 \*\*\*\*. {지금은 그래 매달면 \*\*\*\*.}

10207 @ 그 다오메 어르신 그으기 인제 도'로 오셔가주고, 시집 오셔 가주고느 폐배근 어느 봉까지 봄미까? {그 다음에 어르신 거기 인제 돌아 오셔가지고, 시집을 오셔 가지고는 폐백은 어느 분까지 보았습니까?}

10207 @ 여기 오셔썸 때? {여기에 오셨을 때?}

10207 #2 고'오'느 가차'운 지바느 다 바예. {그것은 가까운 집안은 다 보지요.}

10207 @ 그영 그너 머 이 동네 친척 일가찌, 일가는 뎡 다 보네? {그럼 그것은 뎡 이 동네 친척, 일가집, 일가는 뎡 다보네요.}

10207 #2 예, 일가면 보지. {예, 일가면 보지.}

10208 @ 그 담메 보통 이으 흘레할 때 머 여기서 시집오썸을 때나 또눔 장가가셔썸 때나

잔치 아남미까, 그지예? {그 다음에 보통 여기 혼례를 할 때 뭐 여기서 시집을 오셨을 때나 장가를 가셨을 때나 잔치를 안 합니까, 그렇지요.~}

10208 #1 네. {네.}

10208 @ 잔치 때 보통~은 음식은 보통 어떻 거 준비해가주 데접함미까, 사람들한테? {잔치를 할 때, 보통 음식은, 보통 어떤 것을 준비해 가지고 대접을 합니까, 손님들한테?}

10208 #1 주로 모운 그 예저네는 떡꾸기지 머. {주로 뭐 그 예전에는 떡국이지 뭐.}

10208 #1 떡꾸. {떡국.}

10208 #1 또 장게읍 가따 오'머는 동네어 사람한테 다: 인'사 다 해이. {또 장가를 갖다 오면 동네 사람한테 다 인사를 다 해요.}

10208 #1 동 텡기미성. {동네를 다니면서.}

10208 #1 둘마기 이꼬 모차림 그디'루 해가주오서 인사 다 하능기라. {두루마기를 입고 옷차림 그대로 해가지고서 인사를 모두 하는 것이라.}

10208 #1 동네마적 어른들 타 차자 뵈어이 데이, 고 은자. {동네마다 어른들을 다 찾아 뵈어야 되지, 그 인제.}

10208 #1 조고이 방시이라 근냐 예. {그것이 여기 방식이라, 예.}

10208 @ 김 여기는 주로 떡꾸글 준비\*\*\*? {그럼 여기는 주로 떡국을 준비\*\*\*?}

10208 #1 네예. {네.}

10208 #2 \*\*\*\*. {\*\*\*\*>}

10208 # 예, 옰나레는 싸리 기에 가주고 농'사르 지'이도 그때는 수와글 몬내기떼미네 싸'리 아'주 기'해'쌌니다. {옛, 옛날에는 쌀이 귀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그때는 수확을 많이 못 했기때문에 쌀이 아주 귀했습니다.}

10208 # 그르가주오 떡꾸 끼'리주마 그 집 잔치 잘'한다. {그래 가지고 떡국을 끓여 주면 그 집은 잔치를 잘 한다.}

10208 #2 누러이 깨가지 머 그래. {누렇게 끓여가지고 뭐 그래.}

10208 @ 엄 보통 그암 떡꾸 모타는 지바네는 머 대접? {음, 보통 그럼 떡국을 못 하는 집안에는 무엇을 대접합니까?}

10208 # 머 국쓰, 국쓰나, 예, 근니다. {뭐 국수, 국수나, 예 그렇습니다.}

10208 #1 경상도는 국쭈 업'쌌'쌌이. {경상도는 국수가 없었어요.}

10208 #1 주'루 떠'꾸기지. {주로 떡국이지.}

10208 @ 어 어째든 모사라도 떡꾸? {어, 어째든 못 살아도 떡국?}

10208 #1 네. {네.}

10208 # 떡꾸근. {떡국은.}

10208 @ 주미껴? {줍니까?}

10208 #1 예, 그으느 필'수'라. {예, 그것은 필수라.}

10208 # \*\* 여그더러 다 \*\*\*\* 모해이. {\*\* 여기는 더러 다 \*\*\*\* 못 했어요.}

10208 #1 예, 필수라이. {예, 필수예요.}

10208 @ 그야고 머 떡꾸 말고는 또 머 어떻 거 준비함미까, 음식? {그리고, 뭐 떡국 말고는 또 뭐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음식은?}

10208 #1 주거 주룬 참 데지 자바 가조서 그 수란주하고. {저기, 주로 참 돼지를 잡아 가지고서 그 술 안주하고.}

10208 # 단술, 묵. {단술, 묵.}

10208 #1 무 단술, 묵 고령 거 모아가조 채'려가조 그래이. {묵, 단술, 묵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차려 가지고 그랬어.}

10208 @ 머 흑썸 머 찌지미나 그럴 거또 함미까? {뭐, 혹시 뭐 부침개나 그런 것도 합니까?}

10208 @ 부침? {부침개?}

10208 #1 글, 글치웁, 부침도 하지여. {그, 그렇지요, 부침개도 하지요.}

10208 # 그또 나물찌지미지. {그것도 나물부침개지.}

10208 # 부로 고기찌짐 이렇 건 어'꼬, 여 머 저 이 머 찌짐, 뽕차찌짐, 정구지, 이렇 거 머 \*\*\*\* 카능거 그래 하고, 예. {일부로 고기부침개 이런 것은 없고, 여 뭐 저 부침개, 배추 부침개, 부추, 이런 것 뭐 \*\*\*\* 하는 것, 그래 하고, 예.}

10208 #2 점부 바테. {모두 밭에서}

10208 @ 그 다으메 그 찌짐 아까 그런 채소찌짐들 주로 하고 그 다으메 돼지고기느 돼지 능 보통 어떻게 잡썸미까? {그 다음에 그 부침개, 아까 그런 채소 부침개들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돼지고기는 돼지는 보통 어떻게 잡습니까?}

10208 @ 감며? {그럼ㄴ?}

10208 #1 돼지 여 열 동네서 다 잡'찌예. {돼지, 여, 여기 동네에서 다 잡지요.}

10208 #1 자'버' 주'지예, 동 동네서이. {잡어 주지요, 동, 동네에서.}

10208 #1 예, 큰닐한다 카마 동네 사라미 참 돼지 불'론 먼 다 잡능기 아이고, 저 잘란 산 잘 잘 잘 저 잘 자음 사라미 이꺼등예. {예, 큰 일을 한다고 하면 동네 사람이 참 돼지를 별로 다 잡는 것이 아니고, 저 잘 잡는 잘, 잡는 사람이 있거던요.}

10208 @ 아 잘사는 지베느? {아 잘 사는 집에는?}

10208 #1 찌 어데. {저, 아뇨.}

10208 #1 잘 지꼬 잘 돼지를 잘 잘 저거 모꼬 지기느 사라미 이따썸. {잘, 지금 잘 돼지를 잘, 잘 저거 무엇인가 하면 잘 죽이는 사람이 있다고.}

10208 @ 아, 잡는 사라미? {아, 잡는 사람이?}

10208 #1 예. {예.}

10208 #1 몬'사는 사람, 썸 모, 모'단 사람 잘 모다지여. {못 하는 사람, 썸 못, 못한 사람은 잘 못하지요.}

10208 @ 돼지으 고또 즈 저 점문찌그로 잘 잡는 사라미예? {돼지는 그것도 저, 전, 전문적으로 잘 잡는 사람이요?}

10208 #1 예, 하는 사암, 예. {예, 하는 사람, 예.}

10208 #1 그 사라미 언제 머, 인제든 시 자꼬 달코 하지. {그 사람이 언제든지, 뭐 언제든지 잡고 달아매고 하지.}

10208 @ 그엄브너 그'르고 흑씨 그 돼지으는 자브가주오 머 수용 가곤 살머 가주고 안주 함미까? {그러면은 그리고 혹시 그 돼지를 잡아 가지고 뭐 수육 그것만 삶아 가지고 안주를 합니까?}

10208 #1 그르치, 쌀마 가주오썸 머 주로 인자 참 빠져 가조 그래 안주하지. {그렇지, 삶아 가지고서 뭐 주로 인제 참 얇게 썰어 가지고 그래 안주를 하지.}

10208 @ 머 그엄 스 쌀코김마 쓰미까, 양그암 머 다룽 거똥 순대나 이렇거또 다 함미까? {뭐, 그럼 살, 살고기만 씹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것도, 순대나 이런 것도 다 합니까?}

10208 @ 내장가통? {내장같은 것도?}

10208 #1 그 내장도 그저네놈 똬 피여 가주오서 그래 하며는 그으는 여 시가주이 언젠지  
어스 큰'상에 그어즈 그어즈 찌즈 손님들 그 그어 드큰 드가여, 드가지. {그 내장도 그 전에는  
똬 피를 넣어 가지고서 그래 하면은 그것은 여기 써가지고 언젠든지 큰상에 거기에, 거  
기 저 손님들 그, 그 곳에 들어가요, 들어가지.}

10208 #1 허:파'나 머 장 간거통 거 그롱 거는. {허파나 똬 내장, 간같은 것, 그런 것은.}

10208 # 내장으러 또 고'그부로 해. {내장은 또 고급으로 치지.}

10208 #1 우, 고구브리 해써, 그저네는. {음, 고급으로 쳤어, 그전에는.}

10208 @ 아, 그웁까 그렁거느 인자 일반 사암들한테 잘 안주고어 손님 오션 머? {아, 그  
러니까 그런 것은 인제 일반 사암들한테 잘 안주고 음 손님이 오시면은 똬?}

10208 #1 예, 아안주고, 안주고, 예, 손님. {예, 안 주고 안 주고, 예 손님상에만.}

10208 # 상각소님드. {상답손님들.}

10208 #1 네. {네.}

10208 # 상낙소니 오마 인자 그 사~'아' 가따 올리고. {상답손님이 오면 인제 그 사암들에  
게 갖다 올리고.}

10208 #1 머 매누 피를 여 가조서 그래 여 가조서 매누' 올린느 그 임자. {똬, 맨 위에 피  
를 넣어 가지고서 그래 넣어 가지고서, 맨 위에 올리는 그것인자.}

10208 #1 똬들똬글똬구바~하이스 싸리 가주. {똬글똬글 똬그스럼하게 썰어 가지고.}

10208 #1 그 담메 강그통 고르 그 다음 미테 그래 똬 그 하고 그림 머그 허파거통 건넵  
그래 차례가 이썸. {그 다음에 간같은 그런 것, 그 다음 밑에 그렇게 또 그것하고 그러면  
똬 허파같은 것은 그래 차례가 있어.}

10208 #1 메지 똬 미테가 인잔 살꼬기어 드가고 그 다으똬 간, 허파거통 걸 드가이고 매  
누는 맨: 우'에느 은작 가 어 그은잔 저 피 여'가조서 그 여가조 그래 인잔 공게 가조 그래  
인냐 짜전 참 주지 인네. {맨, 맨 밑에 인제 살고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 허파같은 것  
이 들어가고, 맨 위에는, 맨 위에는 인제, 그 인제 저 피를 넣어 가지고서 그것을 넣어 가  
지고서 그래 인제 잘 포개어 가지고서 그래 인제 참말로 주지 인제.}

10208 @ 그라며 큰 상이나 이른'데'마 올린다, 그지예? {그러면 큰 상이나 이런 곳에만 올  
린다, 그렇지요?}

10208 #1 그르치예. {그렇지요.}

10208 @ 그 다머 혹씨 머 아까 어 이야기하셧는데, 아 찌짐도 하고 그래 하, 하고 떡'가통  
건 안 함미까? {그 다음에 혹씨 머 아까 음, 이야기를 하셧는데, 아 부침개도 하고 그래 하  
고 떡같은 것은 안 함미까?}

10208 @ 떠근 머 잔치 똬 안 함미까, 그때느? {떡은 똬 잔치 때는 안 함미까, 그때는?}

10208 @ 기에서? {귀해서?}

10208 # 잔चे 이랴 떠그 가떠 빌로 아내찌야. {잔치는 이랴 떡같은 것은 별로 안 했지요.}

10208 # 떠근 머 빌라 아나고, 예 주로 인잔 떠꼭 끼리가주고 이랴 죽: 돌리고 이랴찌. {떡  
은 똬 별로 안 하고, 예 주로 인제 떡국을 끓여 가지고 이렇게 쭉 돌리고 이렇게 했지.}

10208 #1 떠꼭 끼르 가주 해찌. {떡국을 끓여 가지고 했지.}

10208 @ 혹씨 머 떠꾸게 근냥 끄림미까, 앙그암 떠꾸게 머웁 고명이나 머 머 언? {혹씨  
똬 떡국에 근냥 끓입니다, 안그러면 떡국에 똬 고명이나 똬 음?}

10208 #1 시 그 저네으 두부'지, 준, 다. {그 전에는 두부지, 순 모두.}

10208 # 두부 여'코, 혹 요래 이큰 사암 거눔 달, 달 자바 가주고 은자 그 누를 인자 고기

르 맹그러 가지고 이에 여코 이래지. {두부를 넣고, 혹 이렇게 이 큰 사람 것은 닭, 닭을 잡아 가지고 인제 그 놈을 인제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넣고 이랬지.}

10209 @ 그 다메 그 홀레 치를 때 그 머 음식근 머 주로 누가, 어뜨게 장만함미까? 그어 일손 가통 겨우느? {그 다음에 그 혼례를 치를 때, 그 뭐 음식은 뭐 주로 누가, 어떻게 장만을 합니까?}

10209 #1 그르 동네서 하시. {그래 동네서 하지.}

10209 #1 순: 동:네'서 하능기'래. {순 동네에서 하는 것이라.}

10209 # 여어서 인제 여기서 마이, 마이 해찌 \*\*\*\*. {여기서 인제, 여기서 많이, 많이 했지, \*\*\*\*.}

10209 #1 아이와 동:네'서 주'로 다 해'조. {아니야 동네에서 주로 다 해주지.}

10209 # 이기서 마이 도와 주고. {여기서 많이 도와주고.}

10209 #1 네. {네.}

10209 # 그래해. {그렇게 해.}

10209 #1 해따 카마 동네에서 전심만시 다 해조 그지 그저네눔 머. {했다고 하면 동네에서 모든 일을 다 해주지, 그저 그 전에는 뭐.}

10209 @ 거 지반 사암드른 쫘 마 더 열시미 하고 그 다으메 지바 사람 아니드라도 동네 사암 다 네서? {그 집안 사람들은 좀 그냥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집안 사람이 아니더라도 동네 사람 다 나와서?}

10209 #1 네, 네, 동네서. {네, 네, 동네에서.}

10209 # 여 오시머 걸. {여기 오시면 그.}

10209 #1 동네서, 저 예립따 카며는 동네 사람 다 오고 지반 마는 사라미 저거 지바네쓰 해도 무바'이지만또 예'로운 사라미 예'로운 사람끼'리 또 도와주능기'라. {동네에서, 저기 외롭다고 하면은 동네 사람이 다 오고, 집안 많은 사람이 자기 집안에서 해도 무방하지만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 끼리 또 도와주는 것이라.}

10209 #1 그래얏 내가 예롭'따 봉에 내가 저 지베 데아 도와 조'야 나'도 쯔 머 큰'질 치'며는 저 지블 도우물 바'따 뽕게네, 기기 서로 모 모 상보 상써 상조기라. {그래야 내가 외롭다 보니까 내가 저 집에다가 도와 주어야 나도 뭐 큰일을 치면은 저 집의 도움을 받아야 보니까, 그것이 서로 뭐 상부상조이지.}

10209 @ 그엄며느 인제 머 주로 아까 이야기해따 시핍 부조가통 경우는 부조데로 하고 또 이 \*\* 몸 \*\*\*\* \*\* \*\*, 예예예. {그러면 인제 뭐 주로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부조같은 경우는 부조대로 하고, 또 이 \*\* 몸 \*\*\*\* \*\* \*\*, 예.}

10209 #1 떠 이 몸도 몸 모 모른 몸더러 떼 테'주고. {또, 이 몸도, 뭐 몸은 몸대로 또 해주고.}

10209 @ 그암 머 거이 한, 한 며칠 썩일 하시게따, 그지예, 그럼며느? {그러면 뭐 거의 한, 한 며칠씩 하시겠다, 그러지요, 그러면은?}

10209 #1 그르치, 끈날 때까지 해찌, 머 머 과이나 할 카지여. {그렇지, 끝날 때까지 했지, 뭐 다할 때까지 하지요.}

10209 #1 끈날 때까지 하능기라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라.}

10209 @ 머 그암 거이 머 동네가 친척기 아니라도, 일가 친척 아니라도 머 거이 아주 치나게? {뭐 그럼, 거의 뭐 동네가 친척이 아니더라도, 일가 친척이 아니더라도 뭐 거의 아주 친하게 지내겠네요?}

10209 #1 네예, 네예. {네, 네.}

10209 # 도와줍니, 마니 그 도와줍미더. {도와줍니다, 많이 그 도와줍니다.}

10209 #1 참 도'와'조'이. {참말로 도와주지요.}

10209 #1 앙그'러'맘 그 모함, 모함미다. {안 그러면 그것을 못 합니다.}

10209 # 그르이 초'닌시미 인자 조타 카'능기 그 인제. {그러니까 존인심이 인제 좋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 인제.}

10209 #1 예. {예.}

10210 @ 그어 아까 어, 어르신 곧 발빠닥 그 때리고 할 때너 에 머 주로으 꿈 머 까주오 때린다 해썌미까? {그, 아까 어, 어르신이 거기 발바닥 거기를 때리고 할 때는 뭐 주로 무엇을 가지고 때린다고 했습니까?}

10210 #1 명태. {명태.}

10210 @ 명'태'예? {명태요?}

10210 네, 명태 그글 마 마 명태 그기 야'물거등. {네, 명태 그것을 그냥, 명태 그것이 아주 단단하거던.}

10210 #1 야'물게네 명태 그금 명 활활 피'두룽 멈 무 때'링기라, 그 명태 그어. {단단하기 때문에 명태 그것이 뭐 활활 피어 나도록 뭐 때리는 것이라, 그 명태 그것으로.}

10210 #1 야명 명태 그으 팔활 피'두루 때'리. {단단한 명태 그것으로 활활 피어나도록 때리는 것이지.}

10210 # 난주게 저거 다 피'뿌리. {나중에 저것이 다 피어나 버리지.}

10210 #1 예. {예.}

10210 @ 아. {아.}

10210 # 삼 사악 꼬 시삼지 \*\*\* \*\* 그 그래 띠노이. {삼, 사일 그 새삼스레 \*\*\* \*\* 그, 그렇게 때려 놓으니까.}

10210 #1 네, 이 사'암돈 뚜'디리고 저 삼도 뚜'디리고 모 혼자가 뚜디능게 아이'고, 신'시: 허'마 그 금 멈 머 그 호:기시미라 카'까 몸 몸 무 그 항게는 몸 무 그 미:뻘' 그 뿔마 더 하 곱, 그 머 여러 사이 여페 서람만디 미뻘'뿌마 그럼멈 그엄 마 쥐지 자간 은 주구나이. {네, 이 사람도 두드리고 저 사람도 두드리고 뭐 혼자가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심심하면 그 뭐 그 호기심이라고 할까 뭐, 뭐 그러니까, 뭐 그 밍게 보여 버리면 더 심하고, 그 뭐 여러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밍게 보이면 그러면 그러면 뭐 죽지, 좌우간은 죽게 되지.}

10210 #1 안 미뻘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참 잘하'도록 해'조'에테. {안 밍게 보이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참 잘 하도록 해줘야 돼.}

10210 #1 예, 이그예. {예, 이렇게요.}

10210 @ 그르가 잘 마쳐 주고 아까 어르신 말씀하신 데로 머 이야기를 잘해야 텐다, 그 쳐? {그래 가지고 잘 맞추어 주고 아까 어르신 말씀을 하신 대로 뭐 이야기를 잘 해야 된다, 그렇죠?}

10210 #1 네, 그래야 데지. {네, 그렇게 해야 되지.}

10210 @ 꼬트리 안 자피? {꼬투리를 안 잡혀야 되네요.}

10210 #1 거 이걸 가따가 머당 거는 맘 맘 막 그걸 왜 그럼머는 밍파꼬 멈 먹 그나이 엉 그리 그를 가따 마~'이 씨'이는 사람 이꼬 저기 시인 사람이씨. {그 이것을 가져다가 뭐한 것은 뭐 그냥 그것을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밍다고 뭐, 그러니까 엄살을 갖다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

10210 #1 엉그리러 마이 씨'인 사라븐 드'얼' 마'꼬 실찌어 덜 마저. {엄살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덜 맞고 실제로 덜 맞아.}

10210 #1 언그'리러 가'따감 안 씨'고 미런데느 사라브 마이 마꼬이. {엄살을 갖다가 안 하고 미련을 떠는 사람은 많이 맞고.}

10210 #1 그 마이 만능기'라, 미런텐느 사라븐. {그러면 많이 맞는 것이라, 미련을 떠는 사람은.}

10210 #1 나는 땀, 매 이거 암마저서랑게네 으영거리 마 흐해 가주고 머 중는다 망 중는, 주구 마고 아:아:아 카면서, 저호는 지를 저어는 와 그이 지러 응그'리기 그그 참 만노 이카. {나는 뭐 매, 이것을 안 맞아서 엄살을 그냥 해 가지고, 뭐 죽는다고 그냥 죽는, 죽고 말고 "아, 아!"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저를 저기는 왜 그렇게 엄살이 그렇게 참말로 많나라고 이르면서.}

10210 # 이 짜스검 이 누무 \*\*\* 커미서 마. {이 자식은 이 높은 \*\*\* 하면서 그냥.}

10210 #1 그랭 누데 후이 응그와가 저 살라카넵 이. {그래 누군데 여기 엄살을 해서 저기 살려고 하네.}

10210 # 그래가 한 찰 더 마'저여, 으으름. {그래서 한 찰을 더 맞아요, 음.}

10210 #1 그림. {그림.}

10210 # 우리가 덜때'리 가주고 이 짜시기 엉구'루'마마 저거 씨 카민성. {우리가 덜 때려 가지고 이 자식이 엄살을 부리네, 그냥 저렇게 하면서.}

10210 # 자:꾸 이 뚜'드리 패'능기라이. {자꾸 이렇게 두드려 패는 것이라.}

10210 # 만능 기 목찌기라 그러이께네, 그때 장계가마, 그 옌나레느 그래썸미더. {맞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니까, 그때 장가를 가면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10210 @ 그어기 흑씨 머 쫘 머글 껌 가통 거 마이 내 노으며너 쫘 덜 그함미까? {그거 흑시 뭐 좀 먹을 것 같은 것을 많이 내어 놓으면 좀 덜 그렇게 합니까?}

10210 #1 구루치. {그렇지.}

10210 #1 이쭈 무얼거느. {이 쪽 먹을 것은.}

10210 # 무을 껌 마:니 주마 인자 그 무을 따'네느 인자, 인자 안 뚜'드리 패지. {먹을 것 많이 주면 인제 그것을 먹을 동안에는 인제, 인제 안 두드려 패지.}

10210 # 안 뚜드리 패고, 그거 무꼬 나가 또 심시아, 한' 너미 또 심시'브마 또 들러미. {안 두드려 패고,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심심하면 한 놈이 또 심심하면 매를 또 둘러매고.}

10210 # 작따: 시'푸마 또 돌리지어 뚜드리 패고 뚜드르 패고 하으튼 머 실랑들 그날 가마 머 무 중능 가\*\*. {작다고 싶으면 또 매를 돌리고 두드려 패고, 두드려 패고 하여튼 뭐 신랑들은 그날은 가만히 뭐 죽는 것이라.}

10210 #1 내 나는 어뜨에 된냐 한' 녀미 결혼해 가주어 호언:청 거 머 그 사라미 애:문'는 모'애란. {내, 나는 어떻게 되었냐, 한 놈이 결혼을 해 가지고 엄청 그 뭐 그 사람이 애를 먹었는 모양이라.}

10210 #1 결혼해 가주오서 예문데 그 그' 부니 요고 요 고 맘 나도 요고 요 함녀 이 힘 마 예미'인다 구래 씨 작'쫘'해'쏘. {결혼을 해 가지고서 애를 먹었는데 그, 그 분이 여기 여기 그 뭐 나도 여기 여기서 한 번 애를 먹인다고 그렇게 작심을 했어.}

10210 # 이마치, 이만치 복쭈한'다. {이만큼, 이만큼 복수를 한다.}

10210 #1 양애 {아, 예.}

10210 #1 하따, 그 너므 어찌 달뜨르 가주 머 허뜨거르든지 머. {아, 그 놈은 어찌나 달려



들어 가지고 뭐 헐떡거리던지 뭐.}

10210 #1 그름맘 보'맘 마' 거'비 살'살'나고 머. {그놈만 보면 그냥 겁이 설설 나고 뭐.}

10210 #1 그 알코래~'이 가조 달'러드는데 멈머 참 그어 머. {그 암고양이 같이 달려드는 데 뭐 참, 거기 뭐.}

10210 #1 그저: 이샤~이. {그저 있었어.}

10210 # 그를 켜는 \*\*저어 머 머어시고 도라마 예 케에테. {그럴 적에는 \*\* 저기 뭐, 무엇이든지 들어오면 "예"라고 대답해야 되지.}

10210 #1 참 어. {참, 음.}

10210 # 이머 쪼끔 예 케에테지 거 머 쪼매 말 로타가눔 머. {이 뭐 조금 "예"라고 해야되지, 그 뭐 조금 말을 놓다가는 뭐.}

### 1.3. 생업 활동

####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0319 @ 어르신 그러며 또 어 이거 예예, 어저께는 농사진은 거에 대에섬 여쭙우꼬, 그 오늘 또 조금 더 여쭙께씀미다. {어르신 그러면 또 어 이거 예, 어저께는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여쭙었고, 그 오늘도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10319 @ 쯔 아시는 대로, 쯔 잘 설명해 주이소. {쯔 아시는 대로, 쯔 잘 설명해 주십시오.}

10319 @ 그 어 방아 종뉴 으입 그 업 알고 계십니까? {그 어 방아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10319 # 그르치. {그렇지.}

10319 @ 그 바~아 종뉴::에 대해서 쯔 이야기해 주시고, 그 여이, 이 동네에 사용하던 바~아 아니씀미까. {그 방아 종류에 대해서 쯔 이야기해 주시고, 그 여이, 이 동네에서 사용하던 방아가 안 있습니까.}}

10319 @ 그런 바~아, 또 그렇 거느 어떻게 이꼬, 어 어떤 데 사용하는지 쯔 이야기해 주이소. {그런 방아, 또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고, 어, 어떤 데 사용하는지 쯔 이야기해 주십시오.}

10319 # 물레방아가 이꼬. {물레방아가 있고.}

10319 # 물로 가주고 도는 물레방아가 이꼬. {물을 가지고 도는 물레방아가 있고.}

10319 # 또 그 다으메, 예:: 화통바~아라꼬, 그저네 저건 인자 이래 막 돌리가주고 은잔, 불 일키 가주고, 이 돌리는 방아가 이꼬. {또 그 다음에, 예, 화통방아라고, 그전에 저것 인제 이래 막 돌려가지고 인제, 불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방아가 있고.}

10319 # 또 디들빠아가 이꼬. {또 디딜방아가 있고.}

10319 # 절구방아가 이꼬. {절구가 있고.}

10319 # 방아 종뉴가 인자 그래 이제, 여거서는. {방아 종류는 인제 그렇게 있지, 여기서 는.}

10319 @ 머 이 동네에선 그르게 서썸미까? {뭘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썼습니까?}

10319 # 볼치에. {옳지.}

10319 @ 그엄 므. {그럼 뭘.}

10319 # 지꼬므 인자 저거 머 정기루 가주고돈 스이찌 여가 씨지마느, 그저네는 자 그래, 종류가 그래 다 이서찌. {지금은 인제 저기 뭘 전기를 가지고도 스위치를 넣어서 쓰지만은, 그 전에는 인제 그래, 종류가 그렇게 다 있었지.}

10319 @ 그엄 예저네는 가장 마니 쓰든 바~아는, 어떤 거 마이 써썸미까? {그럼 예전에는 가장 많이 썼던 방아는, 어떤 것을 많이 썼습니까?}

10319 # 물레방아 마이 써찌. {물레방아를 많이 썼지.}

10319 @ 물레바~아예? {물레방아요?}

10319 # 올치. {옳지.}

10319 # 물레바~아돈 덜 써꼬, 예저네는 디들빠~아라꼬, 디딜빠~아넌 쭈장 마이 써찌. {물레방아도 덜 썼고, 예전에는 디딜방아라고, 디딜방아를 가장 많이 썼지.}

10319 @ 디들빠아는 주로 어뜨케? {디딜방아는 주로 어떻게?}

10319 # 두 가래 사래미 올라 서 가주고 인자 디드마 인잔 올라와따가 나뭇머 쿵 찌고, 디드마 니르가따가, 오라아따가 나뭇머 쿵 찌키고, 이그 이 뜰빠~아지. {두 갈래에 사람이 올라서 가지고 인제 디디면 인제 올라왔다가 놓아 버리면 쿵 찌고, 디디면 내려갔다, 올라왔다가 놓아 버리면 쿵 찌히고, 이게 이 디딜방아지.}

10319 @ 예예. {예예.}

10319 @ 그엄 디딜빠~안 두 사람마 하든 템미까? {그럼 디딜방아는 두 사람만 하면 됩니까?}

10319 # 씨련는 사람 하나, 세 사람 해애데. {썰어 넣는 사람 하나, 세 사람이 해야돼.}

10319 # 바~아 저거 인자 또 고에 씨련는 사람 이끄덩. {방아 저거 인제 또 방아확에 썰어 넣는 사람이 있거든.}

10319 # 그 사람하고 씨 사래미 이따커이. {그 사람하고 세 사람이 있다니까.}

10319 @ 바~아, 바~아 고에 가가주, 방아꼬예? {방아, 방아확에 가가지고, 방아확에?}

10319 # 음치, 이 지 고 씨르, 씨르련는 사람. {옳지, 이 저 거기 썰어, 썰어 넣는 사람.}

10319 @ 그어며느 어르신 으 예저네 지베도 그렁 게 이서썸미까? {그러면은 어르신 예전에 집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10319 # 이서찌, 그래. {있었지, 그래.}

10319 @ 어디에 해나노코 아 이슴미까? {어디에 해놓고 하셨습니까?}

10319 # 뜨드 내빠리뿌고 업::씨, 인자. {뜯어내 버리고 없지, 인제.}

10319 @ 그렁 거느 어디 바까테 해노썸미까? {그런 것은 어디 바깥에 해놓습니까?}

10319 # 그래 이저네 저 인자 허까래 저런데 가따 거러노코. {그래 예전에 저기 인제 헛간에 저런 데 갖다 걸어놓고.}

10319 @ 비는 아노는 데라야 템미까? {비는 안 오는 데라야 됩니까?}

10319 # 그르치. {그렇지.}

10319 # 비가 암마즈야 데지. {비를 안 맞아야 되지.}

10319 @ 거 어 그 다으메 그. {그 어 그 다음에 그.}

10319 # 절구바~아나 카능 거느 인자 이, 절구바~아는 지끔도 인 쪼꼬 인는데, 요래가 요코코 요래 인자, 한쭈 소는 방메~이로 가조 코코 찌꼬, 고기 인자 절구바~아고. {절구방아

라고 하는 것은 인제 이, 절구방아는 지금도 찼고 있는데, 요래 가지고 요 콧콧 요래 인제, 한 쪽 손으로는 방망이를 가지고 콧콧 찼고, 그게 인제 절구방아고.}

10319 @ 그아르 이 절구바아는 주로 머 어떻 거 찼습니까? {그러면 이 절구방아는 주로 뭐, 어떤 것을 찼습니까?}

10319 # 절구바~아는 찼끔 자웅 거 찼치, 인제. {절구방아는 조금 작은 것을 찼지, 인제.}

10319 # 꼬추뚝 찼코, 마늘도 찼꼬, 여어는 찼매창 은자 깨도 찼코, 그그는 머 저. {고추도 찼고, 마늘도 찼고, 이것은 조그마한 인제 깨도 찼고, 그것은 뭐 저.}

10319 @ 주로 그릉 근만 찼는. {주로 그런 것만 찼는.}

10319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19 # 고릉 거 사용하고. {그런 걸 사용하고.}

10319 @ 그 다투메 그 어 큰 디덜빠~아는 머? {그 다음에 그 어, 그 디덜방아는 뭐?}

10319 # 드들빠~아는 인자 머 오맘 겹, 나락또 찼꼬, 보리도 찼코, 머 수시도 찼꼬, 호박, 꾸 머 여:가지로 온 다 찼찌. {디덜방아는 인제 뭐 오만 것, 벼도 찼고, 보리도 찼고, 뭐 수수도 찼고, 호박, 그 뭐 여러 가지를 다 찼지.}

10319 @ 그엄 찼찌 찼는 거는 점부 다 디덜빠아로 다 하고예? {그럼 찼, 찼는 것은 전부 다 디덜방아로 다 하고요?}

10319 # 마 디덜빠로 마~이 찼찌. {뭐 디덜방아로 많이 찼지.}

10319 # 우리도 사::무 클 따는 까지 디덜빠~아로 다 찼가 해 무따고. {우리도 사뭇 클 때 까지는 디덜방아로 다 찼어서 해 먹었다고.}

10319 @ 그엄 물레방아는 머. {그럼 물레방아는 뭐.}

10319 # 물레바~아는 인자, 죽: 보에서 무를 마가 여 가주고, 물레르 인잔 짜가주오, 돌리 가지고, 무리 인잔 떠러지며는 물레가 도능 기라고. {물레방아는 인제, 쪽 보에서 물을 막아 넣어 가지고, 물레를 인제 짜 가지고, 돌려 가지고, 물이 인제 떨어지면은 물레가 도는 것이라고.}

10319 # 물레가 돌마 인자, 물레에다 이렇 걸 해가주고 이레 하마, 이느미, 바~아가 쿵 올라가고, 이느미 쿵 하마 이느미 쿵 니르가고, 쿵 하마 쿵 니르가고, 쿵 니르가마 이애, 그기 인자 물레바. {물레가 돌면 인제, 물레에다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레 하면, 이 놈이, 방아가 쿵 올라가고, 이 놈이 쿵 하면 이 놈이 내려가고, 쿵 하면 쿵 내려가고, 쿵 내려가면 이레, 그것이 인제 물레방아.}

10319 @ 그 찼 거 거도 매 방아꼬가 이따이, 그지예? {그 저, 그것도 마찬가지로 방아확이 있다, 그렇지요?}

10319 # 을치. {옳지.}

10319 # 여어 일 여언 딴바~아깁 또까테, 그 시기. {여기, 이 여기 디덜방아의 것과 똑같아, 그 방식이.}

10319 @ 머 거는. {뭐 그것은.}

10319 # 물로 가주 해서 그르치. {물을 가지고 해서 그렇지.}

10319 @ 물로 하고예. {물로 하고요.}

10319 @ 겹 여기도 예저네 이 마레 물리바아가 이서썸니까? {그럼 여기도 예전에, 이 마을에 물레방아가 있었습니까?}

10319 # 이서찌, 그래. {있었지, 그래.}

10319 # 바루 요 요그 이쓰썸. {바로 요, 요기 있었어.}

10319 @ 그어브 그릉 경우는 동네에 며 개 텀미까, 앙 그암며느 그런 물레방아도? {그러면 그런 경우는 동네에 몇 개가 됩니까, 안 그러면은 그런 물레방아도?}

10319 # 며 두 동네 항 개숙또 이꼬, 한 동네 항 개쓰또 이꼬, 그래써. {뭐 두 동네에 한 개씩도 있고, 한 동네 한 개씩도 있고, 그랬어.}

10319 @ 검 물레바~아느 공동으로 쓴다, 그지예? {그럼 물레방아는 공동으로 쓴다, 그렇지요?}

10319 # 그거또 은잔 물리바~아 임자가 이서가주고 인제 싹 주고 그래 하지. {그것도 인제 물레방아 임자가 있어 가지고 인제 샅을 주고 그래 하지.}

10319 @ 아: 아, 그으또, 물레방아도 임자가 인능 거네, 그지예? {아아, 그것도, 물레방아도 임자가 있는 거네, 그렇지요?}

10319 # 그르치.

10319 # 물레방아 곶 보 마아가주고, 물레 찌가주고 그래 하야면 임자가 다 이찌. {물레방아 그 보를 막아 가지고, 물레를 찌 가지고 그래 하려면 임자가 다 있지.}

10319 # 싸글 가따 인자 보리로 인자 미 때쓰 주고 그래케짜나. {샅을 갖다가 인제 보리를 인제 몇 되씩 주고 그랬잖아.}

10319 @ 그 다으메 어르신 그 혹시 예저네는 그람며느 물리바~아, 디딜빵아 하고, 절구바~아하고, 이그 말고 호씨 여는 마리카 소까주 이래 돌리는 그른 바~는 업서씀니까? {그다음에 어르신 그 혹시 예전에는 그러면은 물레방아, 디딜방아하고, 절구방아하고, 이것 말고 혹시 여기는 말이나 소 가지고 이래 돌리는 그런 방아는 없었습니까?}

10319 # 연자방애. {연자방아.}

10319 @ 이서씀니까? {있었습니까?}

10319 # 으, 돌빠~애. {어, 연자방아.}

10319 @ 그 돌빠~아. {그 연자방아.}

10319 # 돌빠~애 이그는 빌로 업써썬. {연자방아 이거는 별로 없었어.}

10319 @ 아, 이 동네느 업서씀니까? {아, 이 동네는 없었습니까?}

10319 # 으. {어.}

10319 @ 요즘 아까 그거 새로 그 며 이 기름 까 이래 돌리가 하는 그으는, 그느 화통바~? {요즘 아까 그것은 새로 그 뭐 이 기름을 가지고 이래 돌려서 하는 그것은, 그건 화통방아?}

10319 # 월치. 화통바~아. {옳지. 화통방아.}

10319 @ 화툰바~암미까? {화통방아입니까?}

10319 # 얼체. {옳지.}

10319 @ 화툰바~아느 이 동네 이서씀니까? {화통방아는 이 동네에 있었습니까?}

10319 # 화툰바~아느 이써썬. {화통방아는 있었어.}

10319 # 탱탱탱탱 그르미썬 인자 바찌이썬. {탱탱탱탱 그러면서 인제 방아를 쥘었어.}

10319 @ 거도 먼 추 주이니? {그것도 뭐 주인이?}

10319 # 크얼또 주이니 이찌. {그것도 주인이 있지.}

10319 # 싸를 가따 은잔 함 마리카 두디서, 함 방:가마이 두 디석, 서 데석 이래 주고 인자 그래써지. {샅을 갖다가 인제 한 말이면 두 되씩, 한 반 가마니면 두 되씩, 세 되씩 이래 주고 인제 그랬었지.}

10319 @ 예예. {예예.}

10319 @ 그 다메 어르신 혹시 그거, 어 예저네 그어 거면 나락또 그거 점부 다 디딜빠~아 찌씀미까? {그 다음에 어르신 혹시 그것, 예전에 그것, 그러면 벼도 그것을, 전부 다 디딜방아로 찼었습니까?}

10319 # 그르치. {그렇지.}

10319 # 나락또 디딜빠~ 찌고, 버리도 디딜빠~아 찌꼬. {벼도 디딜방아로 찼고, 보리도 디딜방아로 찼고.}

10319 @ 밀도 그러코예? {밀도 그렇고요?}

10319 # 으, 밀도 디딜빠~ 빠사가 무우꼬. {응, 밀도 디딜방아에 빵아서 먹고.}

10320 @ 그어머느 으 나락가튼 거는 디딜빠~아 찌을라 카며 어 검 나락 어뜨게 찌으슴미까, 예저너? {그러면은 으, 벼같은 것은 디딜방아로 찼으려고 하며, 어 그러면 벼를 어떻게 찼었습니까, 예전에?}

10320 # 나라글 여 가주고 껌띠기 그 누물 까 가주고. {벼를 넣어 가지고 껌질, 그 높을 까 가지고.}

10320 @ 소늘 껌미까? {손으로 껌니까?}

10320 # 아니여. {아니요.}

10320 @ 그엄머느? {그러면은?}

10320 # 구우 까 쿵쿵 찌영 까인다 카이끼네. {그것을 가지고 쿵쿵 찼으면 까인다니까.}

10320 @ 아, 디딜빠~아로예? {아, 디딜방아로요?}

10320 # 올치. {옳지.}

10320 @ 디딜빠~아 극 찌으며너. {디딜방아로 그걸 찼으면은.}

10320 # 까인다 카이끼네. {까인다고 하니까.}

10320 @ 그러떡 껌띠기하고 그 하 부트이스글까 아이요? {그러면 껌질하고, 그것하고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10320 # 올치, 그러가 은자 까불러 가주고, 또 인자 여 가주고 또 찌꼬, 껌띠기 나오마 껌띠이는 까불러 내빼리고 또 알메에는 여 가 또 찌꼬 또 찌꼬. {옳지, 그래 가지고 인제 (+키로)까불어 가지고, 또 인제 넣어 가지고 또 찼고, 껌질이 나오면 껌질은 까불어서 내버리고, 또 알맹이는 넣어 가지고 또 찼고, 또 찼고.}

10320 # 응. {응.}

10320 # 그래 찌만 난제 가 자꾸 썰리마 쓰리 보해진다 카이. {그렇게 찼으면 나중에 가서 자꾸 썰어 넣으면 쌀이 보얹게 된다고 하니까.}

10320 @ 아, 검 혹시 그게 쓰리 그거 인 머 뭐 마니 저기 걸 찌이며넌 사리 뿌라지고 그라진 안씀미까? {아, 그럼 혹시, 그게 쌀이, 그거 인제 뭐, 많이 저기 그 찼으면은 쌀이 부러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10320 @ 뿌사지머? {부서지면?}

10320 # 머 뿌사지는 거또 혹 이찌. {뭐 부서지는 것도 간혹 있지.}

10320 @ 예. {예.}

10320 # 응. {응.}

10320 @ 그 그으기 찌이도 엔저네 거둔 부서지는 거느 이쓰도 온 사라리 만슴미까? {그거기 찼어도 예전에 거기다 부서지는 것은 있어도 온전한 쌀알이 많습니까?}

10320 # 이스찌, 만치. {있었지, 많지.}

10320 # 온 사리 마네. {온전한 쌀알이 많아.}

10320 # 잘 텅거느 온 사리 기양 이꼬. {잘 된 것은 온전한 쌀이 그냥 있고.}

10320 # 나뽕기 인자 뿌사지. {나쁜 것이 인제 부서지.}

10320 @ 그 벼가, 나라기 나뽕 게 쫘 그로 데고, 음. {그 벼가, 낱알이 나쁜 게 쫘 그렇게 되고, 음.}

10320 # 으치여. 뿌사지고. {그렇지요, 부서지고.}

10320 @ 그람 버리바~아느 어뜨게 찍습니까? {그럼 보리방아는 어떻게 찼습니까?}

10320 # 버리바~아도 거서 찼다 카이. {보리방아도 거기서 찼는다니까.}

10320 @ 그런 시그로 함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까?}

10320 # 올치. {옳지.}

10320 # 물 부 가주고. {물을 부어 가지고.}

10320 @ 아, 나락빠~아느 그러면 무를 암 부썰? {아, 나락방아는 그러면 물을 안 붓습니까?}

10320 # 나랑반 암 부찌마느 버리바~아느 무를 부야 인잔 껌띠이 까진다 캥께. {나락방아는 안 붓지만은 보리방아는 물을 부어야 껌질이 까진다니까.}

10320 @ 껌 어뜨게 무를 분는데예? {그럼 어떻게 물을 붓습니까?}

10320 @ 하 함 분 이야기 해주이소.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10320 # 호바게다가 거 인자 버리도 가따가 부 가주고, 호바게다가 인자 물, 그얼 보리랑 가치 인자 무를 부에데. {방아확에다가 거기 이제 보리도 가져다가 부어 가지고, 방아확에다가 이제 물, 그것을 보리랑 같이 이제 물을 부어야 돼.}

10320 @ 암, 무를예? {아, 물어요?}

10320 # 올치. {옳지.}

10320 # 그래야 까지. {그래야 까지.}

10320 @ 무를 마이 부썰니까? {물을 많이 붓습니까?}

10320 # 기양, 기양 찌거진 앙 까져. {그냥, 그냥 찼어서는 안 가지요.}

10320 # 거 응가~이 적당:하~이 부 가조 인잔 찼느기라고. {그건 어지간히 적당하게 부어 가지고 이제 찼는 것이라고.}

10320 # 쿡떡쿡떡 이에. {쿡떡쿡떡 이래.}

10320 @ 디덜빠~아로예? {디덜방아로요?}

10320 # 올치. {옳지.}

10320 @ 껌 찌으며너 그래가 인자 물. {그럼 찼으면은 그래 가지고 이제 물.}

10320 # 껌띠이가 나오마 인자 그거또 인자 이래 인자 껌뽕하구로 이래 무를 주지. {껌질이 나오면 인제 그것도 인제 이래 인제 껌뽕하도록 이래 물을 주지.}

10320 # 막 축축하이 이래는 안 주그등. {막 축축하게 이래는 안 주거든.}

10320 # 껌뽕하이 주마 껌띠이가 인자 까이자너. {껌뽕하게 부면 껌질이 인제 까지잖아.}

10320 # 까이며 인자 치~이가 까부르 내빼리고, 또 여 가주고 또 찌꼬 또 찌꼬 요래. {까지면 인제 키클 가지고 까붙어서 내어 버리고, 또 넣어 가지고 또 찼고, 또 찼고 요래.}

10320 # 내나 나라캥 향가진. {마찬가지로 벼하고 한 가지지.}

10320 @ 그 나라근. {그 벼는.}

10319 # 나라근 무를 암 부치마느 버리는 무를 부 가 찌야 데. {벼는 물을 안 붓지만은 보리는 물을 부어 가지고 찼어야 돼.}

10320 @ 버리는 반드시 무를 부여 데네, 예. {보리는 반드시 물을 부어야 되네요, 예.}

10320 # 그르치. {그렇지.}

10320 # 물 암 부마 그양은 안 찌인다 카이. {물을 안 부으면 그양은 안 찢인다고 하니까.}

10320 @ 그 그아면 이 보리는 브리는 그아며 찌고 나며너 껌띠기는 다 해 가주 버립니까?  
{그, 그러면 이 보리는, 보리는 그러면 찢고 나면은 껌질은 다 해 가지고 버립니까?}

10320 # 그러치에. {그렇지요.}

10320 # 소도, 소 주지, 소. {소도, 소를 주지, 소.}

10320 @ 소예? {소요?}

10320 # 은. {응.}

10320 @ 혹시 그 미른 그럼며너. {혹시 그 밀은 그러면은.}

10320 # 밀도 뿌수치. {밀도 부수지.}

10320 # 미른 기양 여 가주 막 탕 거 때로 뿌수치. {밀은 그냥 넣어 가지고 막 탕, 그 때려 부수지.}

10321 @ 미른 껌떼기가. {밀은 껌질이.}

10321 # 껌찌이 뿌수마 인자 읍 밀껌떼기가 남지. {밀은 부수면 이제 밀껌질이 남지.}

10321 # 곧 다부래~이. {그건 밀기울.}

10319=2 다부래~이(+ 밀기울을 가리킴.)

10321 @ 아, 미끌떼기를. {아, 밀껌질을.}

10321 # 다부래~이. {밀기울.}

10321 # 그 저넌 엄실 쟈느 그 다부래~이 주글 끼리가 무우꼬. {그 전에는 없을 때에는 그 밀기울죽을 끓여서 먹었고.}

10321 # 밀갈리를 쳐 가주고 인자 수지비도 떠 무꼬. {밀가루를 쳐 가지고 이제 수제비도 떠 먹고.}

10321 @ 감 머 밀 밀 빠아~너 인제 가리를 내이끼네, 그냥 계속. {그럼 뭐 밀, 밀 방아는 이제 가루를 내니까, 그냥 계속.}

10321 # 그르치. {그렇지.}

10321 # 계속 찌야 데지. {계속 찢어야 되지.}

10321 @ 그럼면 인제 나중예. {그러면 이제 나중예.}

10321 # 밀가루가 인잔 데 가주오 치여가 인자 쳐 가주고. {밀가루가 이제 돼 가지고 키에다가 이제 쳐 가지고.}

10321 @ 가며 위에. {그러면 위에.}

10321 # 또 우에 남는 거는 또 찢꼬. {또 위에 남는 것은 또 찢고.}

10321 # 밀 가리 빠지능 거느 인자 내 노코. {밀가루가 빠지는 것은 인제 내 놓고.}

10321 @ 그거 밀다부래~이는. {그것, 밀기울은.}

10321 # 다부래~엔 난자 다부래~이 데고, 밀껌띠이가 다부래~이그더. {밀기울은 나중예 밀기울이 되고, 밀껌질이 밀기울이거던.}

10321 # 다부래~이는 은자 끼르 무꼬. {밀기울은 인제 끓여 먹고.}

10321 @ 밀다부래이는 인저 버리기도 하고, 또 먼. {밀기울은 인제 버리기도 하고, 또 뭐.}

10321 # 끼르 무끼느, 그 저네는 끼르 무그따 카이, 그글 가요. {끓여 먹기는, 그 전에는 끓여 먹었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요.}

10321 # 그을 누룩 디디고. {그걸로 누룩을 디디고.}

10321 @ 아, 밀다부래이 그 까 인자. {아, 밀기울이 그것을 가지고 인제.}

10321 # 누룩 디디 가 술 해 무꼬. {누룩을 디더 가지고 술을 해 먹고.}

10321 # 주로 인제 인데 초네서 은자 누루글 마~이 디디 가이고 수를 해 무찌, 그 까지고. {주로 이제 이런데, 촌에서는 인제 누룩을 많이 디더 가지고 술을 해 먹었지, 그것을 가지고.}

10321 @ 밀다부래~이 까지고? {밀기울을 가지고?}

10321 # 올치. {옳지.}

10321 @ 꼬이며 어르신 그어머느 인제 밀:: 이거는 밀다부래~이라 하고 그 다옴에 그. {그러면 어르신 그러면은 이제 밀 이것은 밀기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10321 # 버리느 버리껍찌. {보리는 보리껍질.}

10321 @ 보리느? {보리는?}

10321 # 버리껍떠기. {보리껍질.}

10321 @ 버리껍떠기? {보리껍질?}

10321 # 예. {예.}

10321 @ 버리껍떠기도 이찌마느 조금 껍떠기 버껴내고 나며 쫌. {보리껍질도 있지만은 조금,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 쫌.}

10321 # 아네 쪼기, 쪼기 쫌 이찌. {안에 속이, 속이 쫌 있지.}

10321 # 곱 보드라븐 당기. {그건 보드라운 등겨.}

10321 @ 그롭 머라 함미?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10321 # 보드라븐 당기라 하지. {보드라운 등겨라고 하지.}

10321 @ 거 당게라 함미까? {그것을 등겨라고 합니까?}

10321 # 얼치. {옳지.}

10321 @ 거 당게넵 머 함미까, 거너? {그 등겨는 뭐 합니까?}

10321 # 당기는 인자 고::분 당기 나오마 그 까주고 인잔 반주글 해 가주 그그또 끼리 무따 카이께네. {등겨는 이제 고운 등겨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반죽을 해 가지고 그것도 끓여 먹었다고 하니까.}

10321 # 엔날, 엔나레너. {옛날, 옛날에는.}

10321 # 고분 당기 빼가주고. {고운 등겨를 빼가지고.}

10321 @ 보리명기는 고분 당기 까 먹찌예? {보리등겨는 고운 등겨 가지고 먹지요?}

10321 # 응, 올치. {응, 옳지.}

10321 @ 그엄 그 떡도 꾸어 먹썸미까, 그그 까? {그럼 그 떡도 구워 먹습니까, 그걸 가지고?}

10321 # 구 까주우 부침도 해 무꼬 해써. {그것 가지고 부침도 해 먹고 했어.}

10321 @ 그엄 떡 꼬어는 무슨 떠기라 함미, 그릉? {그럼 떡 그것은 무슨 떡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10321 # 당기떠기라 가지. {등겨떡이라고 하지.}

10321 @ 당기떡예? {등겨떡이요?}

10321 # 음. {응.}

10321 @ 그으 그엄 예저네는 머 어쨌든 그른 당기떡 이렇 거이 아마 예 온동네 다 머거따, 그지예? {그거 그럼 예전에는 뭐 어쨌든 그런 등겨떡 이런 것을 아마 온 동네에서 다



먹었다, 그렇지요?}

10321 # 으응, 그글 그때는 배가 고프이 다 무따 카이. {응, 그것을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다 먹었다고 하니까.}

10321 # 우리 클 때엔느 맨날 그래따 카이. {우리가 클 때에는 만날 그랬다고 하니까.}

10321 @ 꼬 다으메 그으 인제 그 이 나락 안 이썸미까?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이 벼가 안 있습니까?}

10321 # 음. {응.}

10321 @ 나라근 그암 먼 껌띠기를 머라고 부름미까? {벼는 그럼 뭘 껌질을 뭐라고 부릅니까?}

10321 # 나락껌띠기. {벼껌질.}

10321 @ 나락껌띠기라? {벼껌질이라고?}

10321 # 나락 꼬, 껌띠기. {벼껌, 껌질.}

10321 @ 껌 나락껌띠기느? {그럼 벼껌질은?}

10321 # 쉰딩기라 켜찌, 신딩기. {쉰 등겨라고 했지, 쉰등겨.}

10321 @ 그그느 나락껌? {그것은 벼껌질?}

10321 # 나락껌띠기르 신딩기라 그래따 카이. {벼껌질을 쉰 등겨라고 그랬다고 하니까.}

10321 @ 그는 신딩게? {그것은 쉰 등겨?}

10321 # 예. {예.}

10321 @ 신딩기. {쉰등겨.}

10321 @ 이 신딩기라고 하는데, 이 신딩기 이거느 인자 몬 먹지예? {이것을 쉰 등겨라고 하는데, 이 쉰 등겨 이것은 이제 못 먹지요?}

10321 # 신딩기느 인자, 올치. {쉰 등겨는 이제, 옳지.}

10321 @ 버리고? {버리고?}

10321 # 올치. {옳지.}

10321 # 고고느 인자 요 그 저네 질삼, 비 땀 켜게, 불 피아 가주고, 비를 인자 말라고, 또 연 데서 열, 여 가주 굼불또 떼고, 그래찌. {그것은 이제 여기 그 전에 길쌈, 베를 땀 때에, 불을 피워 가지고, 베를 이제 말리고, 또 이런 데에 넣어, 넣어 가지고 굼불도 떼고, 그랬지.}

10321 @ 아, 그으 굼불 떼는데 쓰그나 도 질삼 할 때 불 피울 때 그글 가 쓰고 불 땀지예? {아, 그건 굼불 떼는데 쓰거나, 또 길쌈 할 때, 불을 피울 때 그것을 가지고 쓰고 불을 때었지요?}

10321 # 은. 어언데, 올치요. 그거 씨고, 그르치. {응. 그래, 옳지. 그것을 쓰고, 그렇지.}

10321 @ 호씨 인제 보리눔, 보린껌떼기넘 꼬 하고 남, 아네 고분딩기가 인는데, 나락또 고분딩기야 이썸미까? {혹시 이제 보리는, 보리껌질은 그것을 하고 나면, 안에 고운 등겨가 있는데, 벼도 고운 등겨가 있습니까?}

10321 # 그르치. {그렇지.}

10321 # 나라또 고분딩기 인는데, 고분딩기 쪼끔 고분딩기 나오능 거느 인자 소를 주고. {벼도 고운 등겨가 있는데, 고운 등겨, 조금 고운 등겨가 나오는 것은 이제 소를 주고.}

10321 @ 그를 사람 암 묵네요? {그건 사람이 안 먹네요?}

10321 # 으얼여. 영. {응. 응.}

10321 # 근 당갈땡기라 그래찌. {그건 당갈등겨라 그랬지.}

10321 # 당갈뎡기. {당갈등겨.}

10321 @ 이 너, 나라게 이. {이 벼, 벼에 이.}

10321 # 당갈뎡기. {당갈등겨.}

10321 @ 김 이 나, 당가레, 당가레뎡게는. {그럼 이 벼, 당갈, 당갈등겨는.}

10321 # 당갈뎡기. {당갈등겨.}

10321 @ 아, 소 조따, 그지예? {아, 소를 쫓다, 그렇지요?}

10321 # 어, 근 소 조쩌. {응, 그건 소를 쫓지.}

10321 @ 감 이언 헐 나락 뎡기느 썬당기든 당가레뎡게든 먹진 아해따, 그지예? {그럼 이 건 하여튼 벼 등겨는 썬 등겨든 당갈등겨든 먹지는 안 했다, 그렇지요?}

10321 # 그르치. {그렇지.}

10321 @ 조 보린, 보리리넵 뽕항 기 인제 러 죽 두고 글 인제. {저 보리, 보리는 뽕안 것은 이제 죽을 쑤어 그걸 이제.}

10321 # 보리느 인자 고분당기느 인자, 올치, 무꼬. {보리는 이제 고운 등겨는 이제, 옹지, 먹고.}

10321 @ 예, 개떡 해 무, 당, 당기떡 해 무꼬이. {예, 개떡을 해 먹, 등겨, 등겨떡을 해 먹고요.}

10321 # 개떡, 어, 당기떡. {개떡, 응, 등겨떡.}

10321 @ 예, 해 뜨꼬. {예, 해 먹고.}

10321 @ 그 다크메 아까 미른 아. {그 다크메 아까 밀은 어.}

10321 # 올치여, 밀 다부래~이. {옹지, 밀기울.}

10321 @ 밀다부래~이느 누루기나 이렇 거 해 가주고? {밀기울은 누룩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10321 # 놀치. {옹지.}

10321 @ 앙 카언 쫓 머 죽또 꼬리? {안 그러면 저기 뭐 죽도 끓여?}

10321 # 쪼 머기도 하고 밀다부래~이도 하고, 어, 그래꼬. {쪼 먹기도 하고, 밀기울도 하고, 응, 그랬고.}

10322 @ 그 다크메 어르신 그 곡시글 이 타작 머 나까리 치든 먼 나락빠까리 채든 해 가 주 타작글 아 함미까, 그지예? {그 다크메 어르신 그 곡식을 낱가리를 썬든 뭐 나락 뺏가리를 채든 해 가지고 타작을 안 함니까, 그렇지요?}

10322 # 어. {응.}

10322 @ 김 타작하며는 어디다 갈무리함미까, 주로? {그럼 타작하면 어디에다가 갈무리를 함니까, 주로?}

10322 @ 나라근? {나라은?}

10322 # 나라글 얻 어데다 가따 연나? {나라를 어디, 어디에 갖다 넣냐고?}

10322 @ 예예, 예야. {예, 예.}

10322 # 엔나렌 인자 두지도 여코, 섬: 해 가주고 서메도 여코, 둥구매기도 여코, 둥구매기, 가마이도 여코. {옛날에는 이제 곳간에도 넣고, 섬을 해 가지고 섬에도 넣고, 떡둥구미에도 넣고, 떡둥구미, 가마니에도 넣고.}

10322 @ 그엄며 주로 이 여기서느 어르신은 예를 드러서 여기 나락 가통 거 주로 어테 지 버너썰미까? {그러면 주로 이 여기서 어르신은 예를 들어서 여기 벼같은 것을 주로 어디에 집어 넣습니까?}

10322 엔나레 우리 클 쯤에느 요래 인잔 두지로 맹그러 가주고 두지 아네 인자 나라글 가 따 마이 여쭈. {옛날에 우리가 클 적에는 요래 이제 곳간을 만들어 가지고 곳간 안에 이제 벼를 갖다 많이 넣었지.}

10322 @ 두지는 머 어떤 시그로 만듭니까? {곳간은 뭐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10322 # 두지느 인자 이래:: 존 데다 이자 부치 가주고. {곳간은 이제 이래 저런 데에다 이제 붙여 가지고.}

10322 @ 아, 가먼 다리냄니까? {아, 그러면 달아냅니까?}

10322 # 올치, 다르내 가주 지베다가 그래 가주 인자 요래 따로 진는 그또 이꼬, 그래가 은너 그 따오다 나르를 막 퍼 부쭈. {옳지, 달아내어 가지고 집에다가 그래 가지고 이제 요래 따로 짓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벼를 막 퍼서 붓지.}

10322 # 두지 무~이 이꼬. {곳간은 문이 있고.}

10322 @ 무니 이쭈니까? {문이 있습니까?}

10322 @ 두지무는 머 어떤 시그로 만? {곳간 문은 뭐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10322 # 두지문 일, 니, 삼, 사, 이래 인자 주 리여, 벼노를 맹그러 노꼬, 요는 송반 쪼개르가 망그라 가주고. {곳간문 일, 이, 삼, 사, 이래 이제 죽 이래, 번호를 만들어 놓고, 요런 송판 조각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10322 @ 송판 이래가? {송판을 이래 가지고?}

10322 # 맹그러 가주고, 요만사 쪼꾸덩. {만들어 가지고, 요만큼씩 줍거든.}

10322 # 쪼부잉께 요고는 일 버이다, 이 버이다, 삼 버이다, 사 버이다, 이래 쭈::옥 이르니, 벼노르 썬 가주고 그르가 인자. {줍으니까 요것은 일 번이다, 이 번이다, 삼 번이다, 사 번이다, 이래 쭈 이름이, 번호를 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10322 @ 감 위에 시그로? {그럼 위에 방식으로?}

10322 # 올치. {옳지.}

10322 # 우에서부터 인저 부마 인자 이 램 땀 미테느 일 번 너 해갈 쯤에느 일 버네 인자 부우뿌. {위에서부터 이제 부으면 이제 이 땀 밑에 일 번에 넣어야 할 적에는 일 번에 이제 부어 버려.}

10322 # 이 브, 그 차올라 오마 이 버네 부꼬, 다꼬, 또 삼 번 차올르른 삼 버네 부꼬, 사 번 차올른 사 버네 부꼬, 마닐 시 뿐까지 이시만 막 달 부꼬 이. {이 번, 그곳에 차올라 오면 이 번에 붓고, 달고, 또 삼 번이 차올라 오면 삼 번에 붓고, 사 번이 차올라 오면 사 번에 붓고, 만일 십 번까지 있으면 막 다 부어 버리고.}

10322 @ 검 나락 그 인제 그그 나락 그건 어느만큼 마니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벼 그 이제 그그 벼 그건 어느 만큼 많이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10322 # 그르치. {그렇지.}

10322 @ 두지 크기도 다르고 그르케 하겐네예? {곳간 크기도 다르고 그렇게 하겠네요?}

10322 # 그르치, 크지도 다르고 다 다르지. {그렇지,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르지.}

10322 # 자께 하는 사라문 쪼매나고. {작게 하는 사람은 조그마하고.}

10322 # 서메다 여 노코 무꼬 살고. {섬에다 넣어 놓고 먹고 살고.}

10322 @ 검 나락뚜지 인제 하고 머 모지래머너 또 나락 낭꼬 하며느 인제 서미나 머 둥구 매기나 가마이나 이른 데 너논, 너 논는다, 그지예? {그럼 벼곳간 인제 하고 뭐 모자라면은 또 벼 남고 하면은 이제 섬이나 먹둥구미나 가마이나 이런 데 넣어 놓, 넣어 놓는다, 그렇지요?}

10322 # 은, 또 서메다, 올치, 둥구매기나 가마이 너 여코, 응. {응, 또 섬에다가, 올지, 먹 둥구미나 가마이에 넣어 놓고. 응.}

10322 @ 그으며는 그으게 인제 나락 하 처으멘 추수해 나마 향금 지버너 노치마너 그 자꾸 썬 머을 꺼 아임미까, 사라미, 시꾸가 마느끼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벼를 처음에는 추수해 놓으면 많이 집어 넣어 놓지만은 그걸 자꾸 썬어 먹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식구가 많으니까.}

10322 # 응, 그르썬, 그르썬, 그르치.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0322 @ 그암 증가네 머 쏘 나라기 함 반두지나 이르게 데면 증가네 마이 암 빔미까? {그러면 중간에 뭐 쏘 벼가 한 반곳간이나 이렇게 되면 중간에 많이 안 빔니까?}

10322 # 므 그르치. {뭐, 그렇지.}

10322 @ 그른데도 머 다 나랑마 너 노썬미까, 다릉 거또 너썬미까, 그른데는? {그런 데도 뭐 다 벼만 넣어 놓습니까, 다른 것도 넣습니까, 그런 데는?}

10322 # 머 근데는 보통 나랑마 여치. {뭐 그런 데는 보통 벼만 넣지.}

10322 @ 아, 나랑만네? {아, 벼만이요?}

10322 # 으. {응.}

10323 @ 꼬엄며는 이 예저네는 머 어 이 두지라든지, 서미라든지, 둥구매기나 가마이, 이 그 점부 다 지베서 다? {그러면은 이 예전에는 뭐 어 이 곳간이라든지, 섬이라든지, 먹둥구미나 가마니, 이걸 전부 다 집에서 다?}

10323 # 맵그르썬. {만들었지.}

10323 @ 소는수? {손수?}

10323 # 그르치, 손수 다 맵그르썬. {그렇지, 손수 다 만들었어.}

10323 @ 어르신 그 옛날에 그 가실하고, 여 머 어 그 추수, 가으레 추수하능 글 가실한다 하지예? {어르신 그 옛날에 그 가을걷이하고, 여기 뭐 어 그 추수,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가을걷이한다고 하지요?}

10323 # 가실한다꺼. {가을걷이한다고.}

10323 @ 그 가실하고 나며는 이 집피, 지, 비렁 거 가주고 은 머. {그 가을걷이하고 나면 은 이 짚이, 짚, 이런 것을 가지고 으 뭐.}

10323 # 은 너꺼 가주고, 짐 니이고. {으, 엮어 가지고, 집을 이고.}

10323 @ 집 이이지예? {집을 이지요?}

10323 # 어. {응.}

10323 @ 거 그 머 거 집 이일 때는 머머 만듭미까, 그암 지브로? {거기 그 뭐 거기 집을 일 때는 무엇 무엇을 만듭니까?}

10323 # 지브로 인자 마람도 여꼬, 용마람도 맵글고 그래지. {짚으로 이제 마름도 엮고, 용마름도 만들고 그러지.}

10323 @ 그거 이여 언능 그 똥구한, 언는 그 머라고 함미까, 그어느? {그거, 이거 엮는 그 똥글한, 엮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10323 # 어등거? {어떤 것?}

10323 @ 집 으 지붕 이래 위에. {집 어 지붕, 이래 위에.}

10323 # 말레이. {꼭대기.}

10323 # 말레이 우에 언능 거, 용마, 용마람. {꼭대기 위에 엮는 것, 용마름, 용마름.}

10323 @ 그 용마라미고, 그 담 이 돌, 도라가면서 이. {그건 용마름이고, 그 다음에 이 돌,

돌아가면서 이.}

10323 # 영계, 영계. {이영, 이영.}

10323 @ 영계? {이영?}

10323 영계 꺼느 그럼 마이 만드르겐네예? {이영 그것은 그럼 많이 만들었겠네요?}

10323 # 마이 망그러예지. {많이 만들어야지.}

10323 # 그래야 자::꾸 도라감 이서가미서 자::꾸 인자 둥굴둥굴 인제 이지. {그래야 자꾸 돌아가면서 이어가면서 자꾸 이제 둥굴둥굴하게 인제 이지.}

10323 @ 그럼며느 그 보통 나무하러 가기 저네 인자 영계 이렇 거 만들고 하젠네예, 그제 이? {그러면은 보통 나무하러 가기 전에 인제 이영 이런 것을 만들고 하겠네요, 그렇지요?}

10323 # 그르치, 으. {그렇지, 응.}

10323 @ 일 텔때느, 시간 텔 때느, 나무하러 모 까며너. {일이 될 때는, 시간이 될 때는, 나무하러 못 가면은.}

10323 # 으, 마저, 어, 고고 해노코 인자 나무하러 가지. {응, 맞아, 응, 그걸 해놓고 이제 나무하러 가지.}

10323 @ 아, 그아프 영계 하고 그 담 혹시 머 어 으 머 으 덕서기나 이렇 거도 만듭니까? {아, 그러면 이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혹시 뭐 명석이나 이런 것도 만듭니까?}

10323 # 그르치. {그렇지.}

10323 # 덕서또 나랄 땀, 말라기 때르네 덕서글 맹그러 가주고 인자. {명석도 벼를 말, 말리기 때문에 명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10323 @ 덕석도 만드러야 데고? {명석도 만들어야 되고?}

10323 # 맹그러 데지. {만들어야 되지.}

10323 @ 또 머 가마이도 짜이? {또 뭐 가마니도 짜야 되고?}

10323 # 가마이도 짜이 데고. {가마니도 짜야 되고.}

10323 # 가마이 짤 제느 일짱시대선 마~이 짜찌. {가마니를 짤 적에는 일제시대에 많이 찼지.}

10323 @ 겹 마이 해따, 그지예? {그럼 많이 했다, 그렇지요?}

10323 # 응. {응.}

10323 # 보통 하이 일짱시대 안 나와슬 때느 가마이가 업서꼬, 섬, 밀떠리, 둥구매기 이능 겹마 해 가주고요, 고서 마~이 여꼬. {보통 한 일제시대가 안 되었을 때는 가마니가 없었고, 섬, 떡서리, 떡둥구미 이런 것만 해 가지고요, 곡식을 많이 넣었고.}

10323 # 인제 저거 가마이라 카능 건 인자 일본놈드리 저거 인자 피로하기 위해서 일본느 드 나아실 찌게 인자 가마이라 사용해따거. {이제 저거 가마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놈들이 자기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일본놈들이 나왔을 적에 이제 가마니를 사용했다고.}

10323 # 우리느 그그또, 가마이돌 모 짜써 그때느, 우리. {우리는 그것도, 가마니도 못 찼어 그때는, 우리.}

10323 @ 나락 실코 갈려고 저어가, 예예, 예예. {나락 싣고 가려고 자기들이, 예예, 예예.}

10323 # 허, 올치, 가마이 여 가주고 은자. {허, 옳지, 가마니에 넣어 가지고 이제.}

10323 # 가마이도 일보으로 가따 여르스 수::만장 가주고, 가주 가따 카이. {가마니도 일본으로 가져다 여러 수만장을 가지고, 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10323 # 일보늘 막 즈으가 막 가주 가느 기라고. {일본으로 막 자기들이 막 가지고 가는 거라고.}

10323 @ 저어거 피로하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10323 # 음. {응.}

10323 @ 가마이도 일브. 일. {가마니도 일본, 일.}

10323 # 일보르 다 갠. {일본으로 다 가져갔어.}

10323 @ 왜정시대 때 마이 만드런네예? {왜정시대 때 많이 만들었네요?}

10323 # 그르치. {그렇지.}

10323 # 왜정지때 다 가주 가뿌르다 카이. {왜정시대 때 다 가지고 가버렸다고 하니까.}

10323 # 우리느 여 소수 씨고 하 다 배당을 맹그럼 내 가주고 한 사라 마빠 열 짜~이마 열 짱, 수무 장이면 수무 장, 백 짱이며 백 짱 이래가 단, 배당을 준다 카이끼네. {우리는 여기서 소수만 쓰고 배당을 만들어 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열 장이면 열 장, 스무 장이면 스무 장, 백장이면 백 장 이래 가지고 딱, 배당을 해준다고 하니까.}

10323 # 왜놈드리. {왜놈들이.}

10323 @ 어리 그르가 해 가주고 인저 으. {어 그래 가지고 해 가지고 이제.}

10323 # 그래 가주 점분 공출 데 가주고 일본 따 썰고 까 뿌고. {그래 가지고 전부 공출돼 가지고 일본으로 다 싣고 가버리고.}

10323 @ 그 공출로 그래 배당을 해따, 그지예? {그 공출로 그래 배당을 했다, 그렇지요?}

10323 # 그르치여. {그렇지요.}

10323 @ 거문 머 이 영게도 만들고 마람도 말들고 용마름도 만들고? {그러면 뭐 이 이영도 만들고 마름도 만들고 용마름도 만들고?}

10323 # 응, 올치. {응, 옳지.}

10323 @ 그 다으메 가마이도 찢고? {그 다음에 가마니도 찢고?}

10323 # 섬도 맹글고. {섬도 만들고.}

10323 @ 섬도 만들고. {섬도 만들고.}

10323 # 둥구매기도 맹글고. {먹둥구미도 만들고.}

10323 @ 둥구매기도 만들고. {먹둥구미도 만들고.}

10323 # 올치. {옳지.}

10323 @ 그 다임 명숙또 만들고. {그 다음에 명석도 만들고.}

10323 # 그르치. {그렇지.}

10323 @ 예 머 그 다으미 머. {어 뭐 그 다음에 뭐.}

10323 # 점부 맹그려 가 다 서찌. {전부 만들어 가지고 다 썰지.}

10323 @ 머 또 집신도 해쓰? {뭐 또 짚신도 했습니까?}

10323 # 집신도 상꼬. {짚신도 삼고.}

10323 # 집신느 브엔날 집신 사네, 하루 향 크르스 사므야 하로 산다 카이끼네. {짚신도 만날 짚신을 삼네, 하루 한 켄레씩 삼아야 하루를 산다고 하니까.}

10323 @ 아, 그아름 집시늘 마니 만드러썸미까, 매일 망? {아, 그러면 짚신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매일 만들었습니까?}

10323 # 매:일 망그려지. {매일 만들었지.}

10323 @ 아, 사네 나무하러 갈려. {아, 산에 나무하러 가려면.}

10323 # 그르치. {그렇지.}

10323 # 인테 텅기도 침부 집신 싱고 텅기다 보이께네, 하로 시느어 집신 홀파 떠러져 뿌고, 이룬데 핑지 텅기도. {이런 데 다녀도 전부 짚신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하루를 싣으면

짚신이 훌쩍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런 데 평지를 다녀도.}

10323 # 사네 가 뿌마 하로 가주 몬 모, 안 데, 안 데고. {산에 가 버리면 하루 가지고 못, 안 돼, 안 돼고.}

10323 @ 그어면 집신니 검 머 매일 가마 집시는 시 땀: 사머야 데겐네. {그러면 짚신이 그럼 매일 (+산에)가면 짚신은 매일 삼아야 되겠네.}

10323 # 매일: 사머여, 매일: 사므야 데지. {매일 삼아야, 매일 삼아야 되지.}

10323 # 새끼도 매일 꼬아야 데고. {새끼도 매일 꼬아야 되고.}

10323 @ 새끼도 매일 꼬아야 데 그르타, 그지예? {새끼도 매일 꼬아야 되고 그렇다, 그렇지요?}

10323 # 응, 그르치. {응, 그렇지.}

10323 # 나무하러 가도 새끼 무까이 데고. {나무하러 가도 새끼로 묶어야 되고.}

10323 @ 나무 무까야 데고? {나무를 묶어야 되고?}

10323 # 응. {응.}

10323 # 집또 인자 침부 지베나 이 노꼬 인자 새끼르 가이 침부 우 동이 매애 데고. {집도 이제 전부 집이나 이어 놓고, 인제 새끼를 가지고 전부 동여 매야 되고.}

10323 @ 그 새끼도 마이 쏜다. {그 새끼도 많이 쏜다.}

10323 # 마:이 꼬지. {많이 꼬지.}

10323 @ 아, 그어며 집신도 그러면 나무하러 갈 때는 머 여유인는 사라문 집신 한 짝? {아, 그러면 짚신도 그러면 나무하러 갈 때는 뭐 여유있는 사람은 짚신 한 짝?}

10323 # 다라 가꺼 한, 하 항 걸 다르가 가이텐다카이. {달아 가지고 한, 한 켄레를 달아서 가야된다니까.}

10323 @ 한 접 다르가 가야데네? {한 켄레를 달아 가지고 가야되네요?}

10323 # 그르치, 지직 제이 꼬봉때~이 다르가 가야텐다 가이. {그렇지, 지게 제일 끝에 달아 가지고 가야된다니까.}

10323 @ 그엄 저느 아, 이 집시늘 한 며칠씩 신는 주 아란는데. {그러면 저는 아, 이 짚신을 한 며칠씩 신는 줄 알았는데.}

10323 # 아여, 하루마네 다 뜨러. {아니야, 하루만에 다 떨어져.}

10323 # 하루마은도 몬 전뎡, 날 바짝 가물고 하마 한 나저레 금병 다 떠레져뿌러. {하루도 못 견디는데, 날이 바짝 가물고 하면 한 나절에 금방 다 떨어져 버려.}

10323 @ 당이기, 평지에 다니도 그르타, 그지예? {다니기를, 평지에 다녀도 그렇다, 그렇지요?}

10323 # 그르치. {그렇지.}

10323 # 평지 뎡기르 제우 하루 싱끼나 말기나. {평지를 다니면 겨우 하루 신거나 말거나.}

10323 # 다 뜰. {다 떨어져.}

10323 @ 그래 예저넨 바깥양반드리 집신 삼는 거또 이기 보통 이리 아이네예. {그래 예전에는 바깥양반들이 짚신을 삼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10323 # 큰:: 문제지. {큰 문제지.}

10323 # 크음, 그그 삼끼가 나안 머 시르서 머 주글 지켜~이지. {그럼, 그거 삼기가 나는 뭐 싫어서 뭐 죽을 지경이지.}

10323 # 그때너. {그때는.}

10323 # 안 살무문 땀발로 땀기야 데고. {안 삼으면 땀발로 다녀야 되고.}

10323 # 그허 누가 사머 줄 사라미 인나, 대로 사머 준, 지가 안 사머는 땀발로 땀기에 데이. {그거 누가 삼아 줄 사람이 있나, 대신 삼아 주는, 자기가 안 삼으면은 땀발로 다녀야 되니.}

10323 @ 겐또 애들도 이꼬 하니까, 그지예? {그것도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요?}

10323 # 그르치. {그렇지.}

10323 # 아들도 또 사머 싱기야 데지. {아이들도 또 삼아 싱기야 되지.}

10323 @ 또 여, 아녀자도 이꼬. {또, 여기 아녀자도 있고.}

10323 # 글찌. {그렇지.}

10323 # 그르이 땀날사, 신 삼파 볼릴 다 바썸. {그러니까 만라사, 신을 삼다가 볼릴 다 봤어.}

10323 @ 그느이 신 사물라 거면 짐마 함마 땀미까? {그러니까 신을 삼으려 하면 짚만 있으면 됩니까?}

10323 # 음, 짐마 하며 데지. {응, 짚만 있으면 되지.}

10323 @ 다름 거너 피로업슴미까, 신에는?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신에는?}

10323 # 그르치. {그렇지.}

10323 # 지 까주고 하녀, 여울에 삼마 삼도 가 상꼬, 미트리하마 삼도 상꼬 그래찌만스. {짚 가지고 하고, 야물게 삼으면 삼도 가지고 삼고, 미투리를 하면 삼도 삼고 그랬지.}

10323 @ 사드로 하능 걸 미투리라 함미까? {삼으로 하는 걸 미투리라 함니까?}

10323 # 미트리. {미투리.}

10323 @ 아, 미트리, 예. {아, 미투리, 예.}

10323 @ 야따, 그 참, 거 애를 참, 그때는 마이 드르따, 그지? {아따, 그 참, 그 애를 참, 그때는 많이 들었다, 그렇지요?}

10323 # 만:, 그때는 그검 머 사람 사능 거또 아이고 그거 머 짐승 사능 거또 아이고, 머 그그는 머. {많이, 그때는 그거 뭐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짐승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는 뭐.}

10323 @ 그 데에메 어르신 그림 머 어 이렇 그림 머 물건 이릉 거 담는 거 이러거 울러매는 그릉 거또 지브로 만듭미까? {그 다음에 어르신 그림 뭐 이런 그림 뭐 물건 이런 것을 담는 것, 이렇게 둘러매는 그런 것도 짚으로 만듭니까?}

10323 # 그 둥구매기, 둥구매기도 지브로 맹글고. {그 멍둥구미, 멍둥구미도 짚으로 만들고.}

10323 @ 지브로 다? {짚으로 다?}

10323 # 올치. {올지.}

10323 # 저치능 그똥 지브로 맹글고, 점부 어 지불, 점 지불 다 맹그러. {재를 치는 것도 짚으로 만들고, 전부 짚으로, 전부 짚으로 다 만들어.}

10323 @ 그래 머 그때는 집하고 새끼가 엄청나게 피로해따, 그지예? {그래 뭐, 그때는 짚하고 새끼가 엄청나게 필요했다, 그렇지요?}

10323 # 음, 그거 엄지만 머 사르 나가지를 몬해. {응, 그것 없으면 뭐 살아 나가지를 못해.}

10323 @ 혹시 어르신 거 대나무하고 싸리나무 까주고도 머 만드러썸미까, 갈, 가실하고 너? {혹시 어르신 그 대나무하고 싸리나무 가지고도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갈, 가을하고}



는?}

10323 # 그르치. {그렇지.}

10323 @ 머 어똥 거 만듬미가, 대나무하고? {뭐 어떤 것을 만듭니까, 대나무하고.}

10323 # 바지게도 맹글고, 소구리도 맹글고. {바지게도 만드고, 소구리도 만들고.}

10323 @ 주로 머 까 만등거? {주로 뭐 가지고 만듭니까?}

10323 @ 싸리카 함미까? {싸리나무 가지고 합니까?}

10323 # 싸리 가주고. {싸리나무 가지고.}

10323 @ 싸리 까주고요? {싸리 가지고요?}

10323 # 응, 으. {응, 응.}

10323 @ 바지게, 소구리 이릉 거예? {발채, 소구리 이런 것이요?}

10323 # 응, 응. {응, 응.}

10323 @ 대나무 가지곤 또 머 어똥 거 만듬미까? {대나무 가지고는 또 뭐 어떤 것을 만듭니까?}

10323 # 대나무도 은자 바지게도 맹글고, 소구리도 맹글고, 다 여러 가지로 맹글지. {대나무도 인제 발채도 만들고, 소구리도 만들고, 다 여러 가지로 만들지.}

10323 # 둥구매기도 맹글고 여러 가지. {떡둥구미도 만들고 여러 가지.}

10323 # 둥굴데이로 멍꼬 맹글고. {둥근 대나무로 엮고 만들고.}

10323 @ 그엄며느 그 가실하고는 사네 사리나무 이릉 글하고 대나무 꺼끄러도 마이 가젠네? {그러면은 그 가을하고는 산에 싸리나무 이런 것하고 대나무 꺾으로도 많이 가겠네요?}

10323 # 마:이 가찌. {많이 갔지.}

10323 # 그어 찌러 머 여은 사방 땡기찌. {그것을 찌러 뭐 여러 사방을 다녔지.}

10323 @ 여기는 싸리, 사리나무하고 대나무가 만썸미까? {여기는 싸리, 싸리나무하고 대나무가 많습니까?}

10323 # 대나무는 빌로 영꼬 싸리나무가 만치. {대나무는 별로 없고, 싸리나무가 많지.}

10323 # 대나무는 여 빌로 마이 업썸. {대나무는 여기 별로 많이 없어.}

10323 @ 그어므 싸리나무는 그냥 찌가 오가주고 그냥 하마 땡미까, 앙 가땡 그그또 어뜨께 가조 오가 머 무레 어뜨게 해애 땡미까? {그러면 싸리나무는 그냥 구해 와가지고 그냥 쓰면 됩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가져 와서 뭐 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323 # 예를 드 고분 소구리 맹글라 그르만 꺾떠이를 빼끼야 데고, 기양 이른 은잔 막 소구리 할라 가만 카마 기양 막 여꺼 가주고 소구리 맹글고. {예를 들어, 고운 소구리를 만들려고 하면 꺾질을 벗겨야 되고, 그냥 이런 이제 막소구리(+가공하지 않은 거친 소구리)를 하려고 하면 그냥 막 엮어 가지고 소구리를 만들고.}

10323 @ 바지게나 이릉 거는 그냥 함미까? {발채나 이런 것은 그냥 합니까?}

10323 # 음. {응.}

\$ 이야기

10323 @ 어테 어러신 그라며 인제 그릉 어 대충 영애나 머 지붕 일 꺼라든지, 그 다으메 머 이런 명서기나 또 삼태이나 이릉 거 쫘 대충 만드러 노코 나며 인자 나무하러 갑니까? {어디 어르신 그러면 이제 그런 어 대충 이영이나 뭐 지붕을 일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명석이나 삼태기나 이런 것을 쫘 대충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나무하러 갑니까?}

10323 # 그르치. {그렇지.}

10323 # 인자 나무하러 가마 신 이눔 상끼가 마 제::일 가따 먹 크니리라 그런기. {이제

나무하러 가면 신 이놈을 삼기가 제일 낫다가 뭐 큰일이라고 그런 거지.}

10323 # 하루 쨌영 무꼬 나온 매인 맨날 먼 이른 데 땀간 데더 영꼬 맨날 뿔뿔기 바~이지. {하루 저녁 먹고 나면 만날 뭐 이런 데 깨끗한 데도 없고 만날 북데기 방이지.}

10323 # 신 사므야 데지, 세끼 꼬이 데지 그르이께네 머. {신을 삼아야 되지, 새끼를 꼬아야 되지 그러니까 뭐.}

10323 # 맨날 방은 전부 뿔뿔기가 수북하이 뿔뿔기 세 거 누부자고. {만날 방은 저 북데기가 수북한 게, 북데기 사이 거기에서 누워자고.}

10323 @ 그엄 밤 밤 머꺼느 저녕 머꺼느 새끼 꼬고. {그럼 밥, 밥을 먹고는, 저녁 먹고는 새끼 꼬고.}

10323 # 신 상꼬 그기. {신 삼고 그게.}

10323 @ 신 삼꼬? {신 삼고?}

10323 # 어, 그기 저영 무꼬 나며 이리라카이끼네. {응, 그게 저녁 먹고 나면 일이라고 하니까.}

10324 @ 그어면 인제 그래 해 가주고느 나무하러 간다 아임미까, 그지예? {그러면 인제 그래 해 가지고는 나무하러 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10324 @ 그어므 겨우레 나무하러 감 주로 어떤 나무함미까, 가며너? {그러면 겨울에 나무하러 가면 주로 어떤 나무를 합니까, 그러면은?}

10324 # 깔비도 콩코, 삭다지독 갈기고. {술가리도 끌고, 삭정이도 갈기고.}

10324 @ 깔비느 그암머느 그. {술가리는 그러면은 그.}

10324 # 깔빈 술리피 그기 깔비. {술가리는 술있이 그게 술가리.}

10324 @ 예, 깔빈데, 술립 그거 깔비 모아나 거 그으느 어디에 다마 움미까, 거음 다음? {예, 술가린데, 술있 그거 술가리를 모아놓은 것 그것은 어디에 담아 읍니까, 그건 담아?}

10324 # 그거 인자 새끼르 나야 가주고, 이래 장으로 아너 가주고 인제 무까 가주고예 질므지고 오는데. {그것은 인제 새끼를 놓아 가지고, 이래 장(張)으로 안아 가지고 이제 묶어가지고 짊어지고 오는데.}

10324 @ 그아머 그게 안 흐름미까? {그러면 그게 안 흐릅니까?}

10324 # 아, 전차네. {응, 팬찮아.}

10324 # 미테 삭다지로 가따안 전치로 노크딩. {밑에 삭정이를 갖다가 전치(前置)로 놓거든.}

10324 # 전치르 노꾸 우에도 전치 나 가 인자 그능캉 그능카 이래 매이께넝 앙 아 겐찬타가이께. {전치(前置)를 놓고 위에도 전치(前置)를 놓아 가지고 이제 그 놈하고 그 놈하고 이래 매니까 팬찮다니까.}

10324 @ 그냥 무꾸능 게 아이고. {그냥 묶는 것이 아니고.}

10324 # 그르치. {그렇지.}

10324 @ 미테 삭따리 이래 깔고? {밑에 삭정이를 이래 깔고?}

10324 # 오침, 메끼르에 시 개 인자 죽 피노코, 여따아드 미테 인자 삭다 이거능 갈기 나가주고 전치르 나 가주고, 그래 은자 한 장, 한 장 까꾸르로 가조 꺼므 가 재 가주고 수북하이 오마 우에도 은자 전치르 나 가주고, 그르 가 무까 가이고여, 동우로 무까 가 오마, 그기 인자 깔비똥이지, 깔비똥. {웁지, 매끼를, 세 개를 이제 쪽 펴놓고, 여기에다가 밑에 이제 삭정이 이놈을 갈겨 놓아 가지고 전치(前置)를 놓아 가지고, 그래 이제 한 장, 한 장, 갈퀴로 가지고 끌어 모아 가지고 인제 재어 가지고 수북하게 되면 위에도 인제 전치(前置)를 놓

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묶어 가지고, 동이 크기로 묶어 가지고 오면, 그게 이제 술가리동이지, 술가리동.}

10324 @ 칼비똥? {술가리동?}

10324 # 으. {응.}

10324 @ 그 다메 또 어똥 거 함미까, 그아머?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합니까, 그러면?}

10324 @ 칼비또오 말고너? {술가리동 말고는?}

10324 # 풀똥도 이꼬, 엄 머. {검불동도 있고, 그 뭐.}

10324 @ 풀똥예? {검불동요?}

10324 # 어. {응.}

10324 # 풀 뜨더가 말라 가조 인자 그근 풀똥이고. {풀을 뜯어서 말려 가지고 이제 그건 검불동이고.}

10324 # 거울똥으, 거울또~이라 카지. {검불동은, 검불동이라고 하지.}

10324 # 거울똥. {검불동.}

10324 @ 거울똥? {검불동?}

10324 # 으. {응.}

10324 @ 그엄 풀리나 머 잡푸리나 이렇 걸 조금 잡나무 이렇 거 그 막오 나스로 추리가 애 말라가 그래? {그러면 풀이나 뭐 잡풀이나 이런 것을 조금 잡나무 이런 거 그 막 낮으로 추려서 말려서 그래?}

10324 # 그르치, 말라 가주고 인제, 올치, 비 가야 말라 가주고 이너 동으로 무까 가주오 은자. {그렇지, 말려 가지고 인제, 옹지, 베어 가지고 말려 가지고 이제 (+ 검불)동으로 묶어 가지고 이제.}

10324 @ 그게 거울똥임미까? {그게 검불동임니까?}

10324 # 거울똥이지. {검불동이지.}

10324 @ 그대임 또 거울똥 말고 먼 삭정이도 함미까? {그 다음에 또 검불동 말고 뭐 삭정이도 합니까?}

10324 @ 삭파리? {삭정이?}

10324 # 삭파인, 삭파지도 동 무까고. {삭정이, 삭정이도 (+ 나무)동으로 묶고.}

10324 @ 삭다리눔 머 어뜨겐 또 함미까? {삭정이는 뭐 어떻게 또 합니까?}

10324 # 솔라무 인잔 가지가 오래 데 가주고 이퍼리가 떠러지마 이래 말라가 주끼가 덴다 꼬. {소나무 인제 가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잎이 떨어지면 이래 말라서 죽게 된다고.}

10324 # 그글 인자 갈기가 오능 기라. {그걸 이제 갈겨서 오는 거야.}

10324 @ 그으까 머까 갈김미까, 그어느? {그것 가지고, 무엇으로 갈집니까, 그것은?}

10324 # 근 데 올라가선 나 까주오 쏘스 가주 갈기야 데. {그런 데 올라가서는 낫을 가지고 쏘아 가지고 갈겨야 돼.}

10324 @ 나스로 쏘스가예? {낫으로 쏘아서요?}

10324 # 이. {응.}

10324 @ 어 그러며 그게 인젠 쏘서 주며느 소나무도 잘 크게따, 그지예? {응, 그러면 그게 인제 쏘아 주면 소나무도 잘 크겠다, 그렇지요?}

10324 # 그르치. {그렇지.}

10324 # 가제~이르, 가제~이르 처 주마 소나무가 잘 크 크지. {가지를, 가지를 쳐 주면 소나무가 잘 크, 크지.}

10324 @ 거느 요즈믄 잘 안? {그건 요즘은 잘 안 하지요?}

10324 # 양 갈기 주지. {안 갈겨 주지.}

10324 # 그대로 머 삭까디고 그대로 머 까악 차가 이찌 머. {그대로 뭐 삭정이고 그대로 뭐 짝 차 있지 뭐.}

10324 @ 온 옰날 가툼 점부 다 해가 가씀? {이건 옛날 같으면 전부 다 해 가지고 갔습니까?}

10324 # 그르치, 싹: 다 해가 가고 아무끄또 업찌 머. {그렇지, 싹 다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없지 뭐.}

10324 @ 삭다리 그릉그또 한다, 그지예? {삭정이 그런 것도 한다 그렇지요?}

10324 # 음.

10324 @ 그야메 또 머 삭다리말고는 또 어떻 거 함미까? {그다음에 또 뭐 삭정이 말고는 또 어떤 걸 함니까?}

10324 # 몹 풀도 뜨다가 하고. {뭐 풀도 뜯어다가 하고.}

10324 @ 예, 이 가끄 그느 검불뚱이고. {예, 아까 그건 검불뚱이고.}

10324 # 어, 그그또 뜨더 가주고 떼예고. {응, 그것도 뜯어 가지고 떼고.}

10324 @ 그 댜 머 장작또 함미까? {그 다음에 뭐 장작도 함니까?}

10324 # 장자근 인자 그 저네 왜놈드리 인자 낭글 몹 비구로 항게 장자글 가따 비이가 어릅찌. {장작은 이제 그 전에 왜놈들이 이제 나무를 못 베게 해서 장작을 갖다 베기가 어렵지.}

10324 # 함 두들리마 벌금해야 데고. {한 번 붙잡히면 벌금을 내야 되고.}

10324 @ 끄러므 장작가느 거느 그 여 거 쪼겐능 걸 장자기라 하지예? {그러면 장작이라고 하는 것은 쪼겐 걸 장작이라 하지요?}

10324 # 그르치. {그렇지.}

10324 @ 그옴 비오는 그거는 머라 함미까, 그거너? {그럼 베어 오는 그건 뭐라 함니까, 그건?}

10324 # 그 솔라무 비 오능 거지. {그건 솔나무를 베 오는 거지.}

10324 @ 그 그릉 으? {그런 걸?}

10324 # 인저 둥구리 비가 오지. {인제 통나무를 베어 오지.}

10324 @ 아 그를 둥구리 비 온다 함미까? {아, 그걸 통나무를 베어 온다고 함니까?}

10324 # 으. {응.}

10324 @ 어 둥구리는 거 함 머깨씩 지머지고 옴미까, 그암머느, 보통? {통나무는 한 몇 개씩 짊어지고 옴니까, 그러면은, 보통?}

10324 # 머 장 거느 쫘 마이 지고 오고, 굴근 거느 마 항 개도 지고 오고, 두 개도 지고 오고, 그근 짜 몽꼬. {뭐 잔 것은 쫘 많이 지고 오고, 굵은 것은 그냥 한 개도 지고 오고, 두 개도 지고 오고,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

10324 @ 검 그어또 가져 와가, 둥구리 가져 옴머느 또 이래. {그럼 그것도 가져 와서, 통나무를 가져 오면은 또 이래.}

10324 # 은쥔 썩리 가주고. {이제 썰어 가지고.}

10324 @ 바로 썩미까, 양 가면 쫘 나까뚜 나따가 함미까? {바로 썩니까, 안 그러면 쫘 놔 두었다가 함니까?}

10324 # 토 깔, 또 까 썩리 가주고, 뚱굴러 가주오 인자 도치로 깔 따게 가주고 그래 둥그

래. {툽 가지고, 툽 가지고 썰어 가지고, 동강이를 내어 가지고 이제 도끼를 가지고 짜게 가지고 그래 재지.}

10324 @ 둥구리 해가 인지 장작 그 한다, 그지예? {통나무를 해서 인제 장작을 그 만든다, 그렇지요?}

10324 # 으. {응.}

10324 @ 으아따 그 참 이리 보통 이리 아이네, 그게, 실질저그로. {아따 그 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네, 그게, 실질적으로.}

10324 # 으음, 이부로 케서 그르치 그 말도 모에. {응, 입으로 말해서 그렇지 그 말도 못해.}

10324 @ 어 그 가면 혹시 그거 멍미까, 스근 나무가트? {그러면 혹시 그거 뭇니까, 썩은 나무같은?}

10324 # 고두배기. {고두배기(+ 나무를 벤 지가 오래 되어서 썩어버린 등걸을 가리킴.)}

10324 @ 머가에 고예? {머라고요?}

10324 # 고두배기. {고두배기.}

10324 @ 고두배기가통 거또 그암 함미까? {고두배기같은 것도 그럼 합니까?}

10324 # 아, 하지. {응, 하지.}

10324 # 고두배기 막 도치로 가주고 사네 올라가서 고두배이 이시만 뚜디르 배, 빼 가주고 인자 으눔 또 바지게 가 가주 탁트 다르가 질므지고 가서 그눔 떼고. {고두배기를 막 도끼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고두배기 있으면 두드려 빼, 빼 가지고 이제 그 눔 또 발채에 갖고 가서 탁탁 담아서 짊어지고 가서 그 눔을 떼고.}

10324 @ 어 바지켄 으 해가주오, 함 바지 해가 그래 오네예? {발채에 해가지고, 한 발채 해서 그래 오네요?}

10324 # 그르치. {그렇지.}

10324 @ 그 그음 그그느 별로 어 썩근 거라서 타지든, 그 오래읍? {그럼 그건 별로 어 썩은 것이라서 타지는, 오래는?}

10324 # 그그또 빠작 말라 노마 달 탄다 카이. {그것도 바짝 마르면 잘 탄다니까.}

10324 @ 어 부리, 불심도 조쓰? {으, 불이, 불의 힘도 좋습니까?}

10324 # 조, 불심도 조코. {좋지, 불의 힘도 좋고.}

10324 @ 그래데 자아, 그또 마이 하러 가게따, 그지예? {그래서, 그것도 많이 하러 가겠다, 그렇지요?}

10324 # 그르치. {그렇지.}

10325 @ 꼬 다메 어르신 그 겨우레는 인제 가실하고 나며너 먼 채소나 이렇 걸 키울 수가 업따 아임미까, 그지예? {그 다음에 어르신 그 겨울에는 이제 가을걷이를 하고 나면은 뭐 채소나 이런 걸 키울 수가 없다 아넵니까, 그렇지요?}

10325 # 업찌. {없지.}

10325 # 그을 제 아무 거또 업서찌. {그럴 적에는 아무 것도 없었지.}

10325 @ 거므 겨우레 그거 머글려고 어 먼 채소나 이렇 거또 어 그어 그 갈무리함미까? {그럼 겨울에 그거 먹으려고 뭐 채소나 이런 것도 어 그 갈무리합니까?}

10325 # 저을 데 뿌마 아무 그또 몬 송구지. {겨울이 돼 버리면 아무 것도 못 심지.}

10325 @ 그름 모 하는데 그엄머느 갈물, 겨울레 머글려고 어데 다른? {그런 것은 못 하는데 그러면은 갈무리, 겨울에 먹으려고 어디 다른?}

10325 # 침, 김치르 담찌. {김치를 담지.}

10325 @ 갈무리하능 거 어떻 거 이썸미까? {갈무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325 @ 김치 말고, 김장김치 말고. {김치 말고, 김장김치 말고.}

10325 # 김장김치 망꼬 머 고 빼겐 업찌. {김장김치가 많고 뭐 그것밖에는 없지.}

10325 # 김장김치 그거뿌~이지. {김장김치 그것뿐이지.}

10325 # 겨으레야 몽다 케야 아무 꼬떠 업써 머. {겨울에야 먹는다고 해야 아무 것도 없어 뭐.}

10325 @ 무시가통 걸? {무같은 걸?}

10325 # 무시가통 거느 혹:: 인잔 끄느 가주고 인자 땅미테 파무찌. {무같은 것은 혹 이제 (+ 무청을)잘라 가지고 이제 땅 밑에 파묻지.}

10325 @ 아 그 그 그릉 파무더 논 그걸 머라 함미꺼? {아, 그 그런 파묻어 놓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10325 # 고늘 자 무시꾸디~이. {그것을 인제 무구덩이.}

10325 @ 아, 거 무시꾸디이느. {아, 그 무구덩이는.}

10325 # 무시꾸디~이다, 무시 인잔 무더 나따가. {무구덩이다, 무 인제 묻어 났다가.}

10325 # 항 그쓰 내 가주고 인자 국또 끼르아 써르가 무꼬. {한 개씩 꺼내 가지고 이제 국도 끓여 썰어서 먹고.}

10325 @ 무시꾸디~이느 고 너나멈 무시 열고 머 그러진 안 썸? {무구덩이는 거기 넣어두면 무가 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10325 # 그르치여, 따~으 파다으 보께, 땅을 파 미테다, 땅 파가주 미테다 봉께네 아 열지. {그렇지요, 땅을 파다 보니까, 땅을 파 밑에다, 땅을 파 가지고 밑이다 보니까 안 열지.}

10325 @ 그냐 쏘 깊게 파겐네예? {그냥 좀 깊게 파겠네요?}

10325 # 그르치. {그렇지.}

10325 @ 깊게 파가주고 인자 안 열도로 그래 한다, 그지예? {깊게 파 가지고 인제 안 열도록 그래 한다 그렇지요?}

10325 # 음. {응.}

10325 @ 그암 머 무시 말고너 배추나 이렇 거너 안. {그럼 뭐 무 말고는 배추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10325 # 배추는 먼 따오가 짐치 담 뿌마. {배추는 뭐 따와서 김치를 담아 버리면.}

10325 @ 업썸메? {없습니까?}

10325 # 올치. {옳지.}

10325 # 무드 꼬또 어꼬. {문을 것도 없고.}

10325 @ 그아머 거이 머 어 그릉 거느 짐장? {그러면 그 뭐 그런 것은 김장?}

10325 # 어 김치, 놀치. {응 김치, 옳지.}

10325 # 짐치 담:마 그걸로 시마이라. {김치 담으면 그걸로 끝이야.}

10325 @ 검 짐치 다문머는 배추는 그걸로 꼬치고, 그야엄 머 어 무 고구마가통 거또 함미까? {그럼 김치 담으면 배추는 그걸로 끝이고, 그러면 뭐 고구마같은 것도 합니까?}

10325 # 고구마가통 거또 음 머 가시레 케 가주고 와서 은자 다르 나따가 인제. {고구마같은 것도 뭐 가을에 케 가지고 와서 인제 담아 났다가 인제.}

10325 @ 거너 어더 함미까? {그건 어디에 합니까?}

10325 # 고오는 방아네 가따가 여, 안 열구로 여야 데지. {그것은 방 안에 갖다가 넣어, 안

얼도록 넣어야 되지.}

10325 # 그래 가주오 하나 쓰, 하나 쓰 내 가주오 인자 무꼬. {그래 가지고 하나 썩, 하나 썩 꺼내 가지고 인제 먹고.}

10325 @ 바께 나 뚜마 안 템미까, 거는? {밖에 놓아 두면 안 됩니까, 그건?}

10325 # 보끄, 망 떠 어러 뿌마 써거 뿌거더. {밖에, 막 다 얼어버리면 썩어 버리거든.}

10325 @ 그 다오메 그 인저 여름, 감자느 여르메 케지예? {그 다음에 인제 여름, 감자는 여름에 케지요?}

10325 # 그르치. {그렇지.}

10325 @ 감자느 그어므 어 해 가주 어이닥으 너 노썸미까? {감자는 그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디다가 넣어 놓습니까?}

10325 # 감자도 감자꾸디~이라꼬 이써. {감자도 감자구덩이라고 있어.}

10325 # 감자도 땅 밋테 가따 흥 무더 노치. {감자도 땅 밑에 갖다 혹 묻어 놓지.}

10325 @ 아, 그어또 땅 소에 무더 나야 템미까? {아, 그것도 땅 속에 묻어 놔야 됩니까?}

10325 # 으, 음. {응, 응.}

10325 @ 그으느 여름처리니까 땅 소에 무더 나도 텐? {그건 여름철이니까 땅 속에 묻어 놔도 되겠네요?}

10325 # 아, 겨으레도 은자 무더 나도 데. {아, 겨울에도 이제 묻어 놔도 돼.}

10325 @ 아, 무더 나따가 겨울까지도 머꼬 함미꺼? {아, 묻어 났다가 겨울까지도 먹고 합니까?}

10325 # 올치여. {웁지요.}

10325 # 그으또 무꼬 하지. {그것도 먹고 하지.}

10325 @ 그아므 어르신 그기 제사지낼 때 그 밤은 빼마 안 데지예? {그러면 어르신 거기 제사지낼 때 밤은 빼면 안 되지요?}

10325 # 밤, 올치. {밤, 웁지.}

10325 @ 거므 그그느 어떠케 함미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10325 # 바문 저장을 가따가 은잔 바~아다가 인잔 떠는 두루미로 가따 노코 인자 혹 쏘게 다 가따 여 가주고, 양으로 그래 해도 인자, 벌거지가 마이 무 싸서 그그또 마 하이가 어렵 따. {밤은 저장을 갖다가 이제 방에다가 이제 이런 두루미를 갖다 놓고 이제 흙 속에다 갖다 넣어 가지고, 안으로 그래 해도 이제, 벌레가 많이 먹어서 그것도 많이 하기가 어려워.}

10325 @ 아, 그어또 땅, 땅을 파가지고? {아, 그것도 땅, 땅을 파가지고?}

10325 # 올 바~아다가 인자. {아니 방에다가 이제.}

10325 @ 방 아네? {방 안에?}

10325 # 방 아네다가 인자 이른 저 저능 거, 저능 향아리그통 거 저릉 걸 가따 노꼬 거 은자 밤 밋테 노코 인자 흐클 가따 우에 더퍼 가주고, 그래 인자 방꾸서게 내 뚜머 아 열지. {방 안에다가 이제 이런 저 저런 것, 저 늬 향아리같은 것 저런 걸 갖다 놓고 이제 밤은 밋테 놓고 이제 흙을 갖다가 위에 덮어 가지고, 그래 인제 방구석에 놔 두면 안 열지.}

10325 @ 아 널고 그냥 어 쫌 제사지낼 때 쓸 수 이따, 그지예? {안 열고 그냥 쯤 제사지낼 때 쓸 수 있다, 그렇지요?}

10325 # 올치, 올치, 이찌 그래. {웁지, 웁지, 있지 그래.}

10325 @ 궁테 그으또 벌게이 무웅 게 마나가, 벌게이 마이 묵썸미까? {그런데 그것도 벌레가 먹은 것이 많아서, 벌레 많이 먹습니까?}

10325 # 음, 다 버리고, 벌게이 무머너. {응, 다 버리고, 벌레 먹으면.}

10325 @ 끄 머 호박가통 건 또 예저네 해씀미까? {그럼 뭐 호박같은 건 또 예전엔 했습니까?}

10325 # 올찌. {옳지.}

10325 # 호박가통 거또 인자 해 가주오 바~아다 안자 차옥차옥 재 노치. {호박같은 것도 이제 해 가지고 방에다 인제 차곡차곡 재 놓지.}

10325 # 실강에다 언지 노코. {시렁에다 얹어 놓고.}

10325 @ 호박또 바가테 나뭇머느 어려뿌? {호박도 바깥에 놔두면 얼어버리고?}

10325 # 얼지, 얼지, 어르마 씨그 뿌고. {얼지, 얼지, 얼면 썩어버리고.}

10325 @ 그엄므 하이튼 고롱 고느 따뜻한 데 해 나야 텐다, 그지예? {그러면 하여간 그런 것은 따뜻한 데 해 놔야 된다, 그렇지요?}

10325 # 올치, 바~에 가따 들나 나야지. {옳지, 방에 갖다 들여 놓아 두어야지.}

10326 @ 검 어르신 하나만 더 여쭙어 보게씀미다. {그럼 어르신 하나만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10326 @ 그 바메 그 불, 요즈믄 정기 뿔, 이즈가 앙 켜미까? {그 밤에 그 불, 요즘은 전기 불, 이것으로 안 켜니까?}

10326 @ 형광드이, 이렇 걸 켜는데, 예저네느 불 켜는데 어땡 거 사용해씀미까? {형광등, 이런 걸 켜는데, 예전에는 불 켜는데 어떤 것을 사용했습니까?}

10326 # 등뿔. {등불.}

10326 # 호롱뿔. {호롱불.}

10326 # 접씨불. {접시불.}

10326 # 그르치. {그렇지.}

10326 @ 거운 등뿌른 어떻? {그럼 등불은 어떤?}

10326 # 등뿌르 은자 낭글 짜 가주고, 가시 문쪼~우로 발라 가주고, 고 아넨 다 여 호롱을 가따 여 가주고, 그래 인잔 저 바께 갈 켜게 들고 텅기고. {등불은 이제 나무를 짜 가지고, 가에 문종이를 발라 가지고, 그 안에다가 호롱을 갖다 넣어 가지고, 그래 이제 저 밖에 갈 적에 들고 다니고.}

10326 @ 그어며 이 그거느 지베서는 잘 안, 방아네슨 안 켜다, 그지예? {그러면 이 것은 집에서는 잘 안, 방 안에서는 안 켜다, 그렇지요?}

10326 # 그르치, 안 쓰지, 인자. {그렇지, 안 쓰지, 이제.}

10326 # 바께 나갈 켜에 등뿌르라꼬 인 들고 텅기능 기 이썬. {밖에 나갈 적에 등불이라고 들고 다니는 게 있어.}

10326 @ 아, 어두울 때 인제 그대 바겐. {아, 어두울 때 인제 그때 밖에는.}

10326 # 올치, 어두울 켜, 올치. {옳지, 어두울 켜, 옳지.}

10326 @ 바까테 나갈 때? {바깥에 나갈 때?}

10326 # 어, 그르치. {응, 그렇지.}

10326 @ 그 다투메 에 호롱뿌른? {그 다음에 호롱불은?}

10326 # 호롱뿌른 인제 방 아네 쓰고. {호롱불은 이제 방 안에서 켜고.}

10326 # 방아네 호롱 통을 요래 언는 테르 딱 따드머 가주 고 인제 언즈 가이 쓰고. {방안에 호롱 통을 요래 얹는 대를 딱 다듬어 가지고 거기 인제 얹어 가지고 쓰고.}

10326 @ 거 머 그 먼 무슨 기름 썬미까, 거느? {거기는 뭘, 무슨 기름을 썬니까, 거기는?}



10326 @ 무슨 지름 씬미까? {무슨 기름 씬니까?}

10326 # 서규. {석유.}

10326 @ 서규예? {석유요?}

10326 # 으. {응.}

10326 @ 그 엔나레도 서규 씬미까? {그 옛날에도 석유를 썼습니까?}

10326 # 우리 알 쯔엔 쓰고 엔나레는 접씨빨. {우리 어릴 적에는 쓰고, 옛날에는 접씨불.}

10326 @ 접씨뿌른 어떻 겹미까? {접씨불은 어떤 겹니까?}

10326 # 접씨뿌르 은자 저렁 거 은자, 참지름도 접씨빨 쓰고, 미영씨 지름도 쓰고, 산초지름도 쓰고, 어 나무 지름 은자 짜 가주고 인자 썸지르 비비 가주고 우따 당그 가주고 어 불 썸노마 고놈 빠라 무가여 부리 쓰이지. {접씨불은 이제 저런 거 인제, 참기름도 접씨불에 쓰고, 목화씨 기름도 쓰고, 산초기름도 쓰고, 어 아무 기름이나 인제 짜 가지고 인제 심지를 비벼 가지고 위에다 담궈 가지고 불을 켜 놓으면 그놈이 빨아 먹어서 불이 켜지지.}

10326 @ 아주까리가통 거또? {아주까리같은 것도?}

10326 # 아주까리도 썸고. {아주까리도 쓰고.}

10326 @ 그엄 그 등뿌 어 그 접씨빨가통 경우너 예저네 점부 다 그 기르를 다 짜가 해따, 그지예? {그럼 그 등불, 그 접씨불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부 다 그 기름을 다 짜서 했다, 그렇지요?}

10326 # 그르치, 점부 썸 기름 짜 가이 해짜. {그렇지, 전부 기름을 짜 가지고 했지.}

10326 @ 명씨도 기르미 나옴미까? {목화씨도 기름이 나옵니까?}

10326 # 명씨도 나와. {목화씨도 나와.}

10326 @ 그엄므 거머 명씨 그어또 만나게 그 소케 빼낼 때, 미영 자슬 때, 그거 아네 씨 나오면 그그또 암 버리켄네예? {그러면 그럼 목화씨 그것도 만약에 그 솜 빼낼 때 무명실을 자을 때, 그거 안에 씨가 나오면 그것도 안 버렸겠네요?}

10326 # 그르치. {그렇지.}

10326 # 암 버리짜. {안 버렸지.}

10326 # 그놈 명씨 지름 짜가 얼마나 썸는데. {그 놈 목화씨 기름을 짜서 얼마나 썼는데.}

10326 @ 아, 저느 그 그 소케맘 빼내 쓰고 명씨는 버리나 해떠니. {아, 저느 그 솜만 빼내 쓰고 목화씨는 버리나 했더니.}

10326 # 메에, 엔나레느 점부 그을로 헤어든 미영씨 지르므 라꼬, 명씨 지름 그글 쥔 마이 가 썸찌. {옛날, 옛날에는 전부 그걸로 해서 목화씨 기름을 가지고, 목화씨 기름 그걸 제일 많이 썼지.}

10326 # 불 썸는데. {불 켜는데.}

10326 @ 아, 그게 제일 그 불 썸는 데는 그글 제일 마이 썸따, 그지예? {아, 그게 제일 그 불 켜는 데는 그걸 제일 많이 썼다, 그렇지요?}

10326 # 우리는 막 그놈 접씨뿌르 크기 마이 썸진 아 해꼬, 인자 우리 클 때 가주오는 점부 인제 지름 나오 호롱빨 마이 썸찌. {우리는 막 그놈 접씨불을 크게 많이 썸지는 안 했고, 이제 우리 클 때에는 전부 이제 기름 나오고는 호롱불 많이 썼지.}

10326 # 호롱뿌른 상당히 마이 썸찌. {호롱불은 상당히 많이 썼어.}

10326 @ 예, 그암 어르신 인제 어 부모니미나 이를 때느 접씨부를? {예, 그럼 어르신 인제 부모님이나 이럴 때는 접씨불을?}

10326 # 글 쥔 점부 접씨빨 썸. {그럴 땐 전부 접씨불을 썼지.}

10326 @ 마이 씨파, 그지예? {많이 썼다, 그렇지요?}

10326 # 그르치. {그렇지.}

10326 @ 그러머 으르신 검 초뿌른 언제 쓰? {그러면 어르신 그럼 촛불은 언제 쓰셨습니까?}

10326 # 초빨도 나온 지 얼마 안 데써. {촛불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10326 # 그때 머 그때는 네저넨 초빨도 업써. {그때 뭐 그때는 예전에는 촛불도 없어.}

10326 # 업써찌. {없었지.}

10326 # 업써찌. {없었지.}

10326 # 인는 걸 똥도 모르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고.}

10326 @ 거이 머 겐자~이 그렇 거느 똥 머. {거의 뭐 굉장히 그런 것은 또 뭐.}

10326 # 원시시텐데 그때는. {원시시대인데 그때는.}

10326 @ 구할 수가 업따, 그지예? {구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10326 # 아무 그또 구할 꺼 업메, 요 산다케야 소그미나 사고 머. {아무 것도 구할 것이 없어, 여기서 산다고 해 봐야 소금이나 사고 뭐.}

10326 # 소그르 옛날부터 이써찌. {소금은 옛날부터 있었어.}

10326 # 소금 업씨는 몬 사니까. {소금 없이는 못 사니까.}

10326 # 그거느 우째 개발 해편지 소그르 이스뜨라 카이. {그건 어떻게 개발을 했던지 소금은 있었다고 하니까.}

#### 1.3.4.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10327 @ 예저네는 혹시 여기 소를 쫘 어 마니 머겨쑤미까, 예저네도? {예전에는 혹시 여기에서 소를 쫘 음, 많이 먹었습니까, 예전에도?}

10327 # 예저'네는 글'치 소를 마~이 미이지는 모 해찌. {예전에는 그렇게 소를 많이 먹이지는 못 했지.}

10327 # 쫘 이래:: 농사 쫘 마~이 진는 사람, 부자, 그때는 부자라 그래진. {쫘 이렇게 농사를 쫘 많이 진는 사람, 부자, 그 때는 부자라 그랬지.}

10327 # 머심 딜꼬 살다 봉'께네 그'는 사람마 소 쫘 미'이찌. {머슴을 데리고 살다 보니 그런 사람만 소를 쫘 먹었지.}

10327 # 이능 가난한 사람 소'는 몬 미이써, 그때는. {이런 가난한 사람은 소는 못 먹었어, 그때는.}

10327 @ 아, 소를 그림머는 쫘:: 농사를 나아'께' 지거나 그른 사람만 머길 수 이꼬. {아, 소를 그러면 조금 농사를 낫게 짓거나 그런 사람만 (소를)먹일 수 있고.}

10327 #그러치.{그렇지.}

10327 @ 거면.{그러면.}

10327 # 가난한 사람 소 사'지도 몬 해꼬. {가난한 사람은 소를 사지도 못 했고.}

10327 @ 거르 소, 농'사르 지어야 텔 꺼 아임미까? {그러면 소, 농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327 # 고 모' 내나' 고 인짚 인는 사람들한테 인자 먹 거어' 농사도 업서꼬. {그 뭐 역시

그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그 농사도 없었고.

10327 # 가나니 데서, 가나너 노니까. {가난하게 되어서, 가난하여 놓으니까.}

10327 # 농사도 머 인는 사람한테 다 몰리'지. {농사도 뭐 있는 사람한테 다 몰리지.}

10327 # 가나난 사라문 너'무 지베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남의 집에나(+남의 집에서 머 숨이나) 살고.}

10327 # 그'랜는데. {그랬는데.}

10327 # 지금맹'크로 막' 이래 골고리 이래 퍼지 가주고 안 데가 이끄'덩, 그때는. {지금만 큼 막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농토가)퍼져 가지고 안 되어 있거던, 그때는.}

10327 # 인는 사라'문 농사를 마이 지꼬, 엄는 사라'무 거 가섬 품파르나 하고 먼 너무 지 베나 살고 이래따 카이께네. {있는 사람은 농사를 많이 짓고, 없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품 팔이나 하고 뭐, 남의 집에나 살고 이랬다고 말하니까네.}

10327 @ 그엄머 인제 아무래도 그 소오'는 머 예저네느, 요즈믄 주로 소를 키울 때 머 마 구에 너어가 키웁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소는 뭐 예전에는, 요즘은 주로 소를 키 울 때 뭐 외양간에 넣어서 키웁니까?}

10327 # 그치, 오전네느 소를 마구이 여 가주고, 기'양 여 사루마 주고, 기'양 인자 짐마 주 고, 물 조 뿌머 그걸로 끄'치라. {그렇지, 요즘에는 소를 외양간에 넣어 가지고, 그냥 여기에 사료만 주고, 그냥 이제 짚만 주고, 물을 줘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라.}

10327 # 그 저네는 막 끼'르서 씨'리서 나무 해다가 만::날 끼르 가주고, 삼시르때 끼르 가 주고 조쩌마느 지끄'무 인자 벼내 가주고 인자 끼'르가 주질 안치. {그 전에는 막 (+쇠죽을) 끓여서 짚을 썰어서 나무를 해서 가져다가 만날 끓여 가지고, 세끼 때에 (+쇠죽을)끓여 가 지고 주었지마는 이제는 변해 가지고 이제 끓여서 주지를 않지.}

10327 @ 예예. {예::}

10327 # 사루 조 뿌'고. {사료를 줘 버리고.}

10327 # 집' 조뿌'고 머 그래머 그걸로 끄'치라. {짚을 줘 버리고 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라.}

10327 @ 머 예저네느 그런 어르신 머 어리스, 어르신 쯔 절머쓸 때나, 어려쓸 때느 소를 키울 때, 주글 주로 끄'리가? {뭐 예전에는 그런 어르신 뭐 어려서, 어르신 쯔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는 소를 키울 때, 죽을 주로 끓여 가지고?}

10327 # 그르치예. {그렇지요.}

10327 @ 머 또 호씨 다른 데 소를 머 바까테 물고 어데 소 머기러도 가고 그럼니까? {뭐, 또 혹시 다른 데에 소를 뭐 바깥에 (+소를)물고 어디에 소를 먹이러도 가고 그럼니까?}

10327 # 소 미'이로 마:'이 가찌. {소를 먹이러 많이 갔지.}

10327 # 그때는 머, 아'치말로도 소 미'이로 가고 ,저억' 때를돈 머 소 미'이로 가고. {그 때 는 뭐, 아침 전에도 소를 먹이러 가고, 저녁 때도 뭐 소를 먹이러 가고.}

10327 # 맨::날 미기로 인자 저언 디사느 골짜기로 인자 사느로 가따 후두채 여 나따가 인 자 해가 거름:하마 인자 후'떨가 니'르오고. {만날 먹이러 이제 저 뒷산의 골짜기로 이제 산 으로 가서 내몰아 넣어 놓았다가 이제 해가 지려고하면 이제 내몰아 내려오고.}

10327 # 맨날 그래 그이 밤복해찌. {만날 그렇게 그일 반복했지.}

10327 @그러마 아치메. {그러면 아침에.}

10327 # 매:일가치 해찌, 그어느. {매일같이 했지, 그것은.}

10327 @ 거마 인제 아치메 소를 가지고, 데리고 인자. {그러면 이제 아침에 소를 가지고,

데리고 이제.}

10327 # 음, 아치메느 인자 물꼬 은자 이까르 은자, 물꼬 은자 텅기미 미이고, 지역' 땔러는 자 기양 가따 머 모가지가 쟁'기가'주고 소가 사으로 홀들쳐 올리뿌고. {음, 아침에는 이제 (+ 소를)물고 이제 고삐줄을 이제, 물고 이제 다니면서 먹이고, 저녁 때로는 이제 그냥 가져다가 뭐 목아지에 (+ 고삐줄을)감겨자기고 소를 산으로 내몰아 올려버리고.}

10327 # 그'래 미기따 카이, 소털. {그렇게 먹였다 하니, 소를.}

10327 @ 그르며느 소가 그르케 하며느 소 그그느 안 함미까? {그러면은 소가 그렇게 하면 소 그것은 안 함니까?}

10327 @ 소, 저기 머야. {소, 저기 뭐야.}

10327 @ 그람메 예저네는 소를 점부 다 아치땔 그음 물고 가 가주고, 머기 가주고, 미기 가주고, 다 너어 나따가 그엄 저너게 인자 데리고 옴미까? {그러면, 예전에는 소를 전부 다 아침에 그 물고 가 가지고, 먹여 가지고, 먹여 가지고, 다 (+ 산 속에)넣어 놓았다가 그럼 저녁에 이제 데리고 옴니까?}

10327 # 그르쥌. {그렇지.}

10327 # 어어, 아치 마'랜 데리가 오는 사암드 이'꼬, 아치 마'래 끌러 가주곰 하루 점드르 사네 내뿌는 사암드 이꼬, 또 모 아치 마래 미이가 지베 모르다 나따가, 또 지너 때 가선 또 소를 미기고, 이래 켜. {아니, 아침 전에 데리고 가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아침 전에 끌고 가서 하루가 점글도록 산에 내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아침 전에 먹여서 집에 몰 어다 놓았다가, 또 저녁 때 가서 또 소를 먹이고, 이렇게 했어.}

10327 @ 그아므 그'때느 소 주로 미'기'로 가는 사람 누구, 어'르'니 데리고 감미까, 누가 가주 감미까? {그러면 그때는 소를 주로 먹이러 가는 사람은 누구, 어른이 데리고 감니까, 누가 가지고 감니까?}

10327 # 애'드리 보통 마이 가쥌. {애들이 보통 많이 갔지.}

10327 # 소 미인다꼬 인자 소머심도 디리고, 애드리 마~이 가쥌. {소를 먹인다고 이제 소머슴도 데리고, 애들이 많이 갔지.}

10327 @ 그때는 머 혼자 그 가지를 양코, 여러 명 가치 미기러 감미까? {그때는 뭐 혼자 그 가지를 양고 여러 명이 같이 먹이러 감니까?}

10327 # 그르치, 동네 사람 인자 우:: 가치갈. {그렇지, 동네 사람 이제 우:: 같이 갔지.}

10327 # 동네 소 인는 사람 은자, 부자찌이 점부 소 인는 사라민데 자은 머시미라꺼 이스썌. {동네 소가 있는 사람 이제, 부자집이 전부 소가 있는 사람인데 작은 머슴이라고 있었어.}

10327 # 그 사'암드리 주로 인자 풀도 뜨'꼬 소 미이로 마이 가쥌.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풀도 뜯고 소를 먹이러 많이 갔지.}

10327 # 그때느 주'장' 풀로 뜨'더가 미이쥌. {그때는 주로 풀로 뜯어서 먹였지.}

10327 # 지금 머 지비롱 거또 안 주고 순:: 풀: 뜨'드가 미이쥌. {지금 뭐 쥌 이런 것도 안 주고 순 풀만 뜯어서 먹였지.}

10327 # 비가 와도 풀 뜨'드야 데고, 머 암만, 나리 암만 꾸저도 풀 뜨더야 썌리 가주오, 썌리 가주고 소죽 끼'르 가지 그래 미이. {비가 와도 풀을 뜯어야 되고, 뭐 암만, 날이 암만 꺾어도 풀을 뜯어서 썌어 가지고, 썌어 가지고 쇠죽을 끓여 가지고 그렇게 먹였지.}

10327 # 그때느. {그때는.}

10327 @ 아, 그때는 머 지비나 이롱 거또 잘 안 주고? {아, 그때는 뭐 쥌이나 이른 것도

잘 안 주고?}

10327 # 그르치. {그렇지.}

10327 @ 주로 이 소꿀 해 가주고? {주로 이 꿀을 해 가지고?}

10327 # 어, 소꿀로 비 가주고 머. {응, 꿀로 베어 가지고 댜.}

10327 # 댜:가이 투름도 댜가코, 그땐 다 뜨드 미이썸. {말장게 두렁도 말장고, 그때는 다 뜯어 먹었어.}

10327 # 꼬땐 순:: 마 비 가주 미기따 카이. {그때는 순 댜 (+ 꿀을)베 가지고 먹었다 말하지.}

10327 @ 그때는 머, 요'즈'믄 이 워낭 머, 꿀 비는 사람 업찌예? {그때는 댜, 요즘은 이 워낙 댜, 꿀을 베는 사람이 업지요?}

10327 # 업찌. {업지.}

10327 # 지꼬므 인자 꿀 하'나'도 안 비. {지금은 이제 꿀을 하나도 안 베지.}

10327 @ 그러이까 온 동네 머 우거져 이꼬. {그러니까 온 동네에 댜 (+ 꿀이)우거져 있고.}

10327 # 그리치. {그렇지.}

10327 # 마 전:치 꼬리 다 우거져찌. {그냥, 전체가 꿀이 다 우우거졌지.}

10327 # 지그믄 순: 자 집' 꼬'느 미'이고, 왜국수 인자 왜국수 사다 미이고. {지금은 순 이제 짬을 끊어 먹이고, 외국소 이제 외국소 사다가 먹이고.}

10327 # 왜국 풀 가따야, 소 마이 미이는 사람 침부 왜국 풀 사다 미이그땐. {외국 풀 가져다가, 소를 많이 먹이는 사람람 전부 외국 풀을 사다가 먹이거땐.}

10327 @ 그음 머 어르신 그러며너 인제 소, 예저너 점부 소 키울러며느 인절 꿀 베 가주고, 그르가 인자 씨리 가주고 주루고 해따, 그지예? {그럼 댜 어르신, 그러면은 이제 소, 예전에는 전부 소를 키울러며느 이제 꿀을 베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썰어 가지고 주려고 했다, 그렇지요?}

10327 # 그르치예. {그렇지요.}

10327 # 순:: 꿀 비 가 해찌. {순 꿀을 베 가지고 했지.}

10328 @ 거며 인제 예전에엔느 여기 머 소 키우는 데는 주로 머 머머 이썸미까, 머 마구?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여기 댜 소를 키우는 데는 주로 무엇, 무엇 있습니까, 무엇 외양간?}

10328 # 마'아'구? {외양간?}

10328 @ 예. {예.}

10328 # 마구간 여 은자 쪼매나이, 그때는 머 함' 마리, 삼 마리씩 고래뻘께 암 미이썸. {외양간, 여기 이제 조그만 하게, 그때는 댜 한 마리, 한 마리씩 그렇게밖에 안 먹었어.}

10328 # 마이느 이 집탄 열, 지꼬믄 머 열 마라도 미이고 수무 마라도 미오, 뻘 빠리도 미이고 애르지 마능, 그때눔 함 바리씩 요른 농가아서르 함 바르씩 고래 미이썸. {많이는 이 집탄 열, 지금은 댜 열 마라도 먹이고 수무 마라도 먹이고, 뻘 마라도 먹이고 이랬지마는, 그때는 한 마리씩 이런 농가에서는 한 마리씩 그렇게 먹었지.}

10328 @ 검 주로 마구까네 그 이꼬, 그 마구간네느 또 머 어떻게 이썸미까? {그럼 주로 외양간에 그 있고, 그 외양간에는 또 댜 어떤 게 있습니까?}

10328 @ 소르, 소를 위한 그렁 거느 마구간 아네 머 또 다르게 이시먼?{소를, 소를 위한 그런 것은 외양간 안에 댜 또 다른 것이 있으면?}

10328 # 마구가네는 머 장치해나쁜 마구 머 그대로 해 노코, 소마 장치해 노코, 소, 소마 여 노코, 머 큰 마군 장치느 어썸썸. {외양간에는 뭐 장치를 해놓은 것은 외양간 뭐 그대로 해 놓고, 소만 장치해 놓고, 소, 소만 넣어 놓고, 뭐 큰 외양간 장치는 없었어.}

10328 @ 그아머 소이 그 인자 스 그 멍미까, 지비나 꼴가통 거 썸리나 가주 주로 그 여무리라 함미까? {그러면 소가 그 이제 그 뭇니까, 짚이나 꼴같은 것을 썰어 놓아가지고 주로 그 여물이라 합니까?}

10328 # 엄'물'. {여물.}

10328 @ 그어므 여물 주는 통 그거는 머으? {그러면 여물을 주는 통 그것은 뭐?}

10328 # 구'시'이통. {구유통.}

10328 # 구시통이라고 낭'글 이래 큰' 통'낭'그를 파 가주고, 가분테를 막 도치르 쪼서 가주고, 크다:'나이 파 가지고, 이저 구시르 멍그러 가 해찌. {구유통이라고 나무를 이렇게 큰 통 나무를 파 가지고, 가운데를 막 도끼로 쪼아 가지고, 크다랗게 파 가지고, 이렇게 구유를 만들어 가지고 했지.}

10328 # 지끄른 머 세멘도 하고 이래지마는 그저네 점부 나무꾸'시르 해 가쥬, 거러 가주고 그래 살고 \*\*\*. {지금은 뭐 시멘트도 하고 이랬지마는 그 전에는 전부 나무 구유로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래 살고 \*\*\*.}

10328 @ 구시가통 거느 함 만드러 남 오래 감미까? {구유같은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갑니까?}

10328 # 머 그으또 머 수차~ 오래 가지. {뭐 그것도 뭐 수월찮게 오래 가지.}

10328 # 잘 안 썸'니까. {잘 안 썸으니까.}

10328 # 그으또 머 미'썸'년 머 가지. {그것도 뭐 몇 십년 뭐 가지.}

10328 @ 요 요즈른 나무구시는 잘 업찌예? {요, 요즘은 나무 구유는 잘 업지요?}

10328 # 업찌, 그리. {업지, 그렇게.}

10328 # 점:부' 세매늘 가주고 그대:로 가따 햐뿌고. {전부 시멘트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다 해버리고.}

10328 @ 그엄머느 소구시가통 거느 즉쩍 사네 가서 해 가주 와서, 나무 해 가주 와서 만드십? {그러면은 소구유같은 거는 직접 산에 가서 해 가지고 와서, 나무를 해 가지고 와서 만드십니까?}

10328 # 큰:: 낭'글 가따 비 가주고 그래 멍그러썸 해야데. {큰 나무를 가져다 베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지.}

10328 # 양쭈 은자 따드므 가주고. {양쪽에 이제 다듬어 가지고.}

10328 # 그:는 데도 멍'글고 가분텍 한 바가지로 한 너덜빠가지, 서너바가지 들도록 쿵 걸가지오 그래 구썸 해찌. {거는 데도 만들고 가운데 대략 바가지로 대략 너댓바가지, 서너바가지가 들도록 큰 것을 가지고 그렇게 구유를 만들었지.}

10328 @ 그어므 그기 소구시가통 거느 인제 예를 드어서 어르신 만드시고 그래 함머너 호썸나으 소우가통 경우는 머 암소는 쫘 순하지만 황소가튼 노른 또 또 쫘 거썸 놔도 아 이썸미까? {그러면 거기 소구유같은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만드시고 그래 하면 혹시나 소같은 경우는 뭐 암소는 쫘 순하지만 황소같은 놔는 또, 또 쫘 거썸 놔도 안 있습니까?}

10328 # 으르치치. {그렇지.}

10328 @ 그른 놔어 뽀로 얻 뜨르바꼬 이러면느? {그런 놔는 뽀로 어, 들이받고 이러면

은?)

10328 # 혹 뜰바들 수도 인는템, 장치르 가따가 여물젠 딱 해노키 때미로 크기 먼 뜰바다  
녕가고 그래친 아 해써. {혹 들이받을 수도 있는데, 장치를 가져다가 야무지게 딱 해 놓기  
때문에 크게 뭐,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그렇지는 안 했어.}

10328 @ 검 술 그 다메너 이 구시이꼬, 거머 여무른 주로 머 까죽 어뜨케 하이썸미까?  
{그럼 소를, 그 다음에는 이 구유가 있고, 그러면 여물은 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였  
습니까?}

10328 # 발로 디디 가주고 하나는 인자 미기고 하나는 자 발로 인나 폭떡 디디 가주고.  
{발로 디디 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 짚이나 꼴을 작두에)먹이고 한 사람은 이제 발로 이  
제 폭 디디 가지고.}

10328 @ 머 그 짹뚜미까? {뭐 그 작두입니까?}

10328 # 짹'또. {작두.}

10328 # 짹또로. {작두로.}

10328 # 짹뚜로 미이고, 지끄르 인자 한쭈 손인 느질러 가주고 썬리지마느 그 젠너 사래미  
하나는 미이고 하나는 발브 가주고, 발 발브 가주 그래. {작두로 먹이고, 지금은 이제 한 쪽  
손은 눌러 가지고 썰지만은 그 전에는 사람이 한 사람은 먹이고 한 사람은 밟아 가지고 발  
로 밟아 가지고 그래.}

10328 @ 짹뚜 발꼬? {작두를 밟고?}

10328 # 올치. {옳지.}

10328 @ 한 사아므 은저 지비나 머 이름. {한 사람은 이제 짚이나 뭐 이런.}

10328 # 미이고. {먹이고.}

10328 @ 미기고? {먹이고?}

10328 # 올치. {옳지.}

10328 # 그래 가 싸르 가이 미. {그래 가지고 썰어 가지고 먹여.}

10328 # 꼴도 그래 점부 다 그래써. {꼴도 그렇게 전부 다 그랬어.}

10328 @ 그암며느 예저네느 점부 주글 꼬려 주썸미까, 여물주글? {그러면은 예전에는 전  
부 죽을 끓여 주었습니까, 여물죽을?}

10328 # 찜:부 꼬르 조찌. {전부 끓여 주었지.}

10328 @ 여물주근 머 보통 머 어떤 시그로 꼬림미까? 그람며느. {여물죽은 뭐 보통 뭐 어  
떤 식으로 끓입니까? 그러면은.}

10328 @ 특별히 쫄 다름미까? {특별히 쫄 다릅니까?}

10328 # 꼴 썬'어리 가주고 꼴' 여'코, 은저 덩'기' 그그 쫄썸 여'코 그르가 끼리 가서. {꼴  
을 썰어 가지고 꼴을 넣고 이제 등겨 그것을 조금 넣고 그래 가지고 끓여 가서.}

10328 @ 무래다가? {물에다가?}

10328 # 은. {응.}

10328 @ 덩게는 머 어드웬 보리떻게 썸미? {등겨는 뭐 어떻게 보리등겨를 썸니까?}

10328 # 멍기느 버'리'떠'기 여 뚜꼬 나락땡'기도 여코. {등겨는 보리등겨 넣어 두고 왕겨도  
넣고.}

10328 # 그땐 덩'기도 마이도 업써지, 인너 그 저네는 자 소 은자, 쭈우 그넌 소 가주오 농  
사 지꼬 무꼬 사라끄덩, 끄때너. {그때는 등겨도 많이도 없었지, 이제 그 전에는 소, 이제  
죽 그런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거던, 그때는.}

10328 # 점:부 머 쪼끔 향 거또 소 가주 다해찌. {전부 뭐 조금 한 것도 소를 가지고 다 했지.}

10328 # 이릉 기계가 업짜나, 고 행너네. {이런 기계가 없잖아, 그 당시에는.}

10328 # 그르 가조는 소 가주고 순: 머 쿵'도 파래 미이고, 죽 잘 암 머어, 술'도 해 미기고, 소를 가따, 그때느 소 함 발쓰 미이는 사람 일단 정시느 거 다 데리쓰. {그래 가지고는 소에게 순 뭐 쿵도 팔아 먹이고, 죽을 잘 안 먹으면 술도 해서 먹이고, 소를 가져다 그때는 소 한 마리씩 먹이는 사람 일단 정신을 거기에 다 들었어.}

10328 # 소 때'무 무'꼬 사니까. {소 때문에 먹고 사니까.}

10328 @ 그엄 쫘 소가 머 쫘 주글 잘 암 머꾸 이릉 쿵, 쿵도 해 가 머기고 하네예? {그럼 쫘 소가 뭐 쫘 죽을 잘 안 먹고 이러면 쿵, 쿵도 해 가지고 먹이고 하네요.}

10328 # 그르치, 양 머 개도 자아 미기고 마 이래이. {그렇지, 음 뭐 개도 잡아 먹이고 막 이랬지.}

10328 @ 아, 김 소가 개도 잠 먹썸니까? {아, 그럼 소가 개도 잘 먹습니까?}

10328 # 엄, 개, 개 무어. {음, 개, 개는 먹어.}

10328 # 소가 개는 무거. {소가 개는 먹어.}

10328 @ 가든 대개 은자 병 나따 시프며느 그르도 한다, 그지예? {그럼 대개 이제 병이 났다 싶으면 그렇게도 한다, 그렇지요?}

10328 # 그르치, 응. {그렇지, 응.}

10328 # 그검 머 그거느 그때는 땅 한 골베다도 점부 저저 소가 다 이'바껴찌, 사라프로는 머 모 하그더. {그것은 뭐 그것은 그때는 땅 한 동강이도 전부 저 소가 다 일어켰지, 사람으로는 뭐 못 하거던.}

10328 # 지금 기계도 그때 아::무 기계도 업써꼬, 점:: 순 소 가주고 인자 일바시 가주고, 논 갈고 바 깔고, 어 써:리고, 저: 어데 사네서 나무해가 오는 데도 여르 치물 가따가 맨:날 실꼬 땡기거더, 소에다가. {지금 기계도 그때는 아무런 기계도 없었고, 전부 순 소를 가지고 이제 일어져 가지고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어 써레질을 하고, 저 어디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 데도 여러 짐을 가져다가 만날 싣고 다니거던, 소에다가.}

10328 @ 소에다 실꼬, 인제 양 그럼며느 소가 소 으스며느 머 일 자체가 안 텐다, 그지예? {소에다 싣고, 이제 안 그러면은 소가, 소가 없으면은 뭐 일 자체가 안 된다, 그렇지요?}

10328 # 안 데지. {안 되지.}

10328 # 소 엄시만 아마무 꺼또 모테. {소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해.}

10328 @ 나락가툭 거또 머 썰꼬 올 수도 이썸니까? {벼같은 것도 뭐 싣고 올 수도 있습니까?}

10328 # 그르치, 나'락또 실코 보'리도 실코 머 절:. {그렇지, 벼도 싣고 보리도 싣고 뭐 저.}

10328 # 시장가서 쌀랠때 볼 찌 실꼭 고령장거저 시, 임십 니, 삼십 니 실꼬 가고 맨날 그래찌. {시장 가서 쌀을 낼 때 볼 때 싣고 고령장까지 십, 이십 리, 삼십 리를 싣고 가고 맨날 그랬지.}

10328 # 그이 밤복해찌. {거의 반복했지.}

10328 @ 그암 머 그때느 거이 이 머 소가 점부다 그제? {그럼 뭐 그때는 거의 이 뭐 소가 전부다 그지요?}



10328 # 응. {응.}

10328 # 소'로 가주 다'해'따카이. {소로 가지고 다 했다고 하니까.}

10328 @ 소는 어르신 왜 아까 그 머 개는 이래가 쯤 아프고 이라면 소가 아프면 개 자바 머기기도 하는데, 수른 왜 머기미까? {소는 어르신, 왜 아까 그 뭐 개는 이렇게 쯤 아프고 이렇게 되면 소가 아프면 개를 잡아 먹이기도 하는데, 술은 왜 먹입니까?}

10328 # 수'른 무'마 인자 여리 인자 도끼 때미네. {술은 먹으면 이제 열이 이제 돌아나기 때문에.}

10328 # 소가. {소가.}

10328 # 거 여리 이르가 도꼬'랄 라고 막 수를 가지고 큰:: 바가'치, 함:: 바가'치 그랜 퍼 미이따 카이끼네. {그 열이, 이렇게 돌게 하려고 막 술을 가지고 큰 바가지, 한 바가지를 그렇게 퍼 먹었다고 하니까.}

10328 # 먼 한 소는, 장 목뜯' 소는 그놈 지절로 무꼬, 먼 한 소는 망 미이고 해따꼬. {무엇 한 소는, 늘 먹던 소는 그 놈 스스로 먹고, 무엇 한 소는 막 먹이고 했다고.}

10328 @ 아, 인자 머, 쯤 머글 쫄 아는 소는 그냥 부 주며너 그 구시에 부우 노뎌 먹응꼬, 인저 첨 멩는 소는 머기 조여 데네. {아, 이제 뭐, 쯤 먹을 줄을 아는 소는 그냥 부어 주면은 그 구유에 부어 놓으면 먹었고, 이제 처음 먹는 소는 먹여 주어야 되네.}

10328 # 아, 어, 올치, 막 둘러마시뿌리, 음, 미기드, 미 조야데고, 그애찌. {아, 어 올지. 막 둘러마셔버리지. 음, 먹여도 먹여 줘야 되고 그랬지.}

10328 @ 그점 머 미기드 어데 소 아플 때 미김미까, 앙 그아뎌 머 어떠? {그것은 뭐 먹이면 어디 소가 아플 때 먹입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10328 # 금 만 소가 느리하'이 올키 몬 뎡'게고 이랴 쟈게. {그 막 소가 느릿하게 옹게 못 다니고 이럴 적에.}

10328 # 그른너 한 잔 미기 드마 누니 쯤 거스하그, 알콩성지리 드가 노이께네 소가 인자 기구~이 쯤 발달하는 모야~이라.{그렇게 놓아두고 한 잔 먹여 놓으면 눈이 쯤 그윽하고 알콜 성질이 들어가 놓으니까 소가 이제 기운이 쯤 발달하는 모양이라.}

10328 # 그르 소름 상다이 미이 나. {그런 소는 상당히 먹여 놓아.} @ 소가 그러며는. {소가 그러면.}

10328 # 글뎌 지 밥또 한 그르스 가따 부스 조따 카이께네. {그럴 때는 자기 밥도 한 그릇을 가져다 부어 주었다고 하니까.}

10328 # 사람바블. {사람밥을.}

10328 # 소 그놈, 소'로 위주루가 삼:따 보~이께네 머 이 지 구문뽀다 소갈 무'그야만 또 이를 하고 사렘 무꼬 사니까. {소 그 놈, 소'를 위주로 삼다 보니까 무 이 자기 입보다 소가 먹으야만 또 일을 하고 사람도 먹고 사니까.}

10328 # 그만치 그때 그 소갈 중:해따 카이께. {그만큼 그때 그 소가 중했다고 하니까.}

10328 @ 그이까 머 그때느, 이 요즘도 소가 머 중요하긴 하지마너, 예 그때느 정말 머 중요해따, 그지예?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 요즘도 소가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때는 정말 뭐 중요했다 그렇지요?}

10328 # 응, 지끄른 머, 그르치. {응, 지금은 뭐 그렇지.}

10328 # 그때능 그 아주 머 소를 가따가 참 먼 엄:청'시리 가따 중하게 여기썬. {그때는 그 아주 뭐 소를 가져다가 정말 무 엄청스럽게 가져다 중하게 여겼어.}

10328 # 응, 지끄른 사람 크끼 주하게 안 데고, 지그른 인자 춘 고기 그그빠게 암, 그그 물

라 카지 머 이른 아 향그더. {응, 지금은 사람에게 크게 중하게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순 고기 그것밖에 암, 그것을 먹으라고 하지 뭐, 일은 안 하거던.}

10328 # 매엔'날 당그르 매나따, 인자. {만날 당겨 매어 놓았다 이제.}

10328 # 파능 그거 머 빼께 아 해찌. {파는 그것 뒤편에 안 했지.}

10328 @ 그르이까 그때는 소가 쪼금 머 고대고 이럴 때도 수를 찌 한 대식 이르케 머기는 모야~이지예? {그러니까 그때는 소가 쪼금 뭐 고되고 이럴 때도 술을 한 되식 이렇게 먹이는 모양이지요?}

10328 # 음, 미기찌. {음, 먹였지.}

10328 @ 그러면 사람 그 머 피곤할 때 수 무면 쪼금 글트시 소두 쫘 나따, 그지예? {그러면 사람 그 뭐 피곤할 때 먹으면 쪼금 그렇듯이 소도 쫘 낫다 그렇지요?}

10328 # 올치, 올티, 그런 모애~이지. {옳지, 옳지, 그런 모양이지.}

10328 # 그이 야긴 모애~이라 그기. {그것이 약인 모양이라 그것이.}

10328 # 그리까 미기사따꼬. {그래 가지고 먹었다고.}

10328 @ 소는 그럼 머 인제 주로 어 마구에는 구시하고 소 마구깁하고 검 머 흑시 소는 그 겨우레는 추꼬 이러면 머 위에? {소는 그럼 뭐 이제 주로 으, 외양간에는 구유하고 소 외양간하고 그럼 뭐 흑시 그 겨우레는 춥고 이러면 뭐 위에?}

10328 # 삼'저~'이라꼬 이써, 삼'정'. {덕석이라고 있어, 덕석.}

10328 # 삼'저~'을 지'까 땡'그러 가주 툽툽하이 인자. {덕석을 짚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툽툽하게 이제.}

10328 # 아네 삼녕 또 하나 입피꼬 인자 가세 인자 이피고. {안에 덕석을 또 하나 입히고 이제 바깥에 이제 입히고.}

10328 # 춥따꼬. {춥다고.}

10328 # 겨우레는 또 마~이 추부쓰, 그때, 예저네느. {겨우레는 또 많이 춥았어, 그때, 예전에는.}

10328 # 지끄른 글쿰 안 춥찌마는. {지금은 그렇게 안 춥지만.}

10328 # 그르 가주고 그르 맨날 이피따 카이께네. {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만날 입혔다고 하니까.}

10328 # 밤마중 이피고. {밤마다 입히고.}

10328 # 나줄로도 이피 내 두고, 밤마중 그래 이피 나따가. {잡으로도 입혀 놓아 두고, 밤마다 그렇게 입혀 놓았다가.}

10328 @ 거른 소삼정은 검 지브로 인자 만드러가 두. {그러면 소 덕석은 그럼 짚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10328 # 지브로 땡'그러 가이가, 그르치여. {짚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10328 @ 그르 가 머 새끼나 이렇 걸로 묵씀미까? {그래 가 뭐 새끼나 이런 걸로 묵씀니까?}

10328 # 음, 그건 북'띠라꼬 이써. {음, 그것은 북띠라고 있었어.}

10328 # 까꾸레이 해 가조고 막 졸라 능기이써. {갈퀴리를 해 가지고 막 당겨서 넘겨(매었어.).}

10328 @ 아, 북띠예? {아, 북띠예?}

10328 # 어. {응.}

10328 @ 거는 머로 만듭미까? {그것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10328 # 그그또 지프르 맨그러 가주 하지. {그것도 짚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지.}

10328 # 따~'아 가지고 인자 이 꼬재일 항 꺾 가지를 이르이래 여 가지고, 여따 내 거러 가지고 시 도러갈 매능 이 이찌. {땅아 가지고 이제 이 나무가지를 한 개 가지고 이래 이래 넣어 가지고, 여기에 내어 걸어 가지고 쉽게 돌아가 내는 것이 있지.}

10328 # 북띠라꼬. {북띠라고.}

10328 @ 검 북띠 까 인제 안 버껴지도록 그르케 해 논는다, 그지예? {그럼 북띠 가지고 이제 안 벗겨지도록 그렇게 해 놓는다, 그렇지요?}

10328 # 으, 그르치. {응, 그렇지.}

10328 @ 그때는 어찌든 머 소:한테 지극정성이어따, 그지예? {그때는 어찌든 뭐 소한테 지극정성이었다, 그지요.}

10328 # 적:꼭 정성해찌. {적극 정성으로 했지.}

10328 @ 요즘름 소삼정가통 거 함미까? {요즘은 소 덕석같은 것을 함니까?}

10328 # 아네. {안 해.}

10328 # 지끄르 아 이피께 그때로 서라른 내뻐 도뿌리. {지금은 안 입히니까 그대로 겨우 내 그대로 내버려 두어버리지.}

10328 @ 그 그르도 옛날하고 요즘하고는 쫘 소 어 그 쫘 차이가 만타, 그지예? {그, 그래도 옛날하고 요즘하고는 조금 소는 그 쫘 차이가 많다, 그지요?}

10328 # 그르치, 지끄른 순:: 머 고기 애주로 하지. 머 엄 머 파르 가주 인자 돈 그어 미입 하던 거 그 재미로 하지 머, 다름 거 머 이른 머 하내이단 보태주능 거도 어꼬, 아무끄또 업써. {그렇지, 지금은 순 뭐 고기 위주로 하지. 뭐 음, 뭐 팔아 가지고 이제 돈 그 몇 입하는 것 그 재미로 하지 뭐, 다른 것 뭐 이른 뭐 하나도 보태어 주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10329 @ 그 다메 예저네 아까 어르신 그 인제 머 쪼금, 요즈른 집짐마다 소를 머기고 또 어떤 지븐 소 마니 머기기도 하지마는 예저네는 소를 그러면 그 다른 사람 집 소를 머기는 경우도 이서썸미까? {그 다음에 예전에 아까 어르신 그 이제 뭐 조금, 요즘은 집짐마다 소를 먹이고 또 어떤 집은 소를 많이 먹이기도 하지마는 예전에는 소를 그러면 그 다른 사람 집의 소를 먹이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10329 # 이서찌. {있었지.}

10329 # 배내, 배내~'이라꼬. {배내, 배내라고.}

10329 # 배내'이. {배내(소)}

10329 # 엄는 사라른 자 인는 사람 인자 배내~'이로 가따 미이마 송안치르 가따 인자 미기마, 그놈 소르 은잔 키야 가주고 송안치 노마 인자 송안치 하고 큰 소는 인자 주인 조 뿌고. {없는 사람은 이제 있는 사람 이제 배로소로 가져다 먹이마 송아지를 가져다 인제 먹이면, 그놈 소를 이제 키워 가지고 송아지를 낳으면 이제 송아지를 하고 큰 소는 이제 주인을 주어 버리고.}

10329 @ 아, 그암 암소 그거 키어 주고? {아, 그럼 암소 그것을 키워 주고?}

10329 # 올치, 암소도, 배내'기라, 그게, 배내'기라꼬 저네, 옴나레. {옴지, 암소도 배내소라, 그게 배내소라고 전에, 옛날에.}

10329 # 인자 배내이로 인자 몰꼬 와가주고 그누를 키야 가주고, 자 큰 소 맹그러 가 송아치르 노차너. {이제 배내로 이제 몰고 와 가지고 그놈을 키워 가지고, 이제 큰 소를 만들어 가 송아지를 낳잖아.}

10329 # 인자 송아'치노 송안'치는 그 지비 하고 인자 큰 소는 따'부 뿐지브로 조' 뿌고.  
 {이제 송아지는, 송아지는 그 집이 하고 이제 큰 소는 도로 본집으로 주어 버리고.}

10329 @ 아, 월래 인자 쪼마난 송아지르 한, 암소 송아지 하날 키어 가주고 큰 소 만드러  
 가주고 인자 그르가 새끼 나오며느 인잡. {아, 원래 이제 조그만 송아지를 한, 암소 송아지  
 하나를 키워 가지고 큰 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은 인제.}

10329 # 울치, 쪼매난 송안치르 가 키아가이, 응, 그르치, 응, 울치. {옳지, 조그만 송아지  
 를 가지고 키워가지고, 응, 그렇지, 응, 옳지.}

10329 # 새끼는 은자 하고 큰 소는 인자 주고. {새끼는 이제 하고 큰 소는 이제 주고.}

10329 @ 그글 인자 배넉'? {그것을 이제 배내?}

10329 # 배내, 배내'기. {배내, 배내소지.}

10330 @ 그 보통 소 머기는 거는 주록 그런 방시기 만심미꺼, 나무:~? {그 보통 소를 먹이  
 는 것은 주로 그런 방식이 만습니까, 남의?}

10330 # 어엄'는 사라문 인자 소꼴띠~'이 한 장만할'라며 그래야며 소끄띠을 장만 돈, 소  
 살 도~'이 엄씨니까. {없는 사람은 이제 소 그루터기 하나 장만하려면 그래야만 소 그루터  
 기를 장만할 돈, 소 살 돈이 없으니까.}

10330 # 그저네는 우케 양식이 엄서 가주 내가 한 테르 가따가 꾸 무며는 두우' 디' 조야  
 데능기라. {그 전에는 원래 양식이 없어 가지고 내가 한 되를 가져다가 꾸어 먹으면은 두  
 되를 주어야 되는 것이라.}

10330 # 쫘쫘니로 조애 데능 기야. {곱장리로 주어야 되는 것이야.}

10330 # 지'끄름 머 동그트여 머 미 푸로, 미 푸로 카지만 그젠는 내가 쌀 향 디 가따가  
 인는 사람 지고 한 디 가따 무'으'머는 두 디르 조'애 데잉게라. {지금은 뭐 돈같은 것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 하지만 그 전에는 내가 쌀 한 되를 가져다가 있는 사람을 의지하  
 고 한 되를 가져다 먹으면은 두 되를 주어야 되는 것이라.}

10330 # 배'를'. {배를.}

10330 # 함 말 무만 두 말. {한 말 먹으면 두 말.}

10330 # 한 섬 무우마 두 섬. {한 섬을 먹으면 두 섬.}

10330 # 그만'치썩 머. {그 만치썩 뭐.}

10330 # 배:'르' 조애데, 엄청나게 조애데. {배를 주어야 돼, 엄청나게 주어야 되지.}

10330 # 그래 농께 그저네, 예저네는 엄:는 사라문 자꾸 더 업, 업'서'지고, 인는 사라문 그  
 래도 쫘 모이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전에, 예전에는 없는 사람은 자꾸 더 없, 없어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쫘 모이고.}

10330 # 지금도 그러치마는. {지금도 그렇지마는.}

10330 # 지금도 향가지 아이가, 엄는 사라문 마 당 응꼬, 돔 마~이 인는 노문 멀 해가주고  
 도 머 큼 부자가 데고, 엔나레는 지끼이나 향가지라 카이께. {지금도 한 가지 아니가, 없는  
 사람은 그냥 늘 없고, 돈 많이 있는 놈은 무엇을 해 가지고도 무엇만큼 부자가 되고, 옛날  
 에는 지금이나 한 가지라고 하니까.}

10330 @ 엔나른 더 심해따, 그지예? {옛날은 더 심했다, 그렇지요.}

10330 # 더 심해져. {더 심했지.}

10330 @ 이자가 그지예? {이자가 그렇지요?}

10330 # 그르치. {그렇지.}

10330 @ 머 배를 바드쓰이께네. {뭐 배를 받았으니까.}

10330 # 머, 어. {뭐, 응.}

10330 # 뽕짱나라 캉게, 이기 인자 뽕장닌데. {굽장리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굽장리인데.}

10330 @ 아, 그 그글? {아, 그 그것을?}

10330 # 뽕짱니~이. {굽장리.}

10330 @야 {야.}

10330 # 뽕쫘다꼬 인자. {굽을 준다고 이제.}

10330 # 한 디 무므 두 디 주능께 뽕짱나라 그래이. {한 되를 먹으면 두 되를 주니까 굽장리라 그래.}

10330 @ 그 은제 장리라고 이, 장니싸리라 함미까? {그 이제 장리라고 이, 장리쌀이라 함니까?}

10330 # 그르치, 뽕'짱'니~이살. {그렇지, 굽장리쌀.}

10330 @ 그르िका 소도 인제 주로 은제 키울 때는 배내기소 키우고나, 앙 그엄 머 그냥 일반 소, 나쁜 소 키우능, 그르능 그는 잘 아 하는 모애지예? {그러니까 소도 인제 주로 이제 키울 때는 배내소를 키우거나, 안 그러면 뭐 그냥 일반 소, 남의 소를 키우는, 그러는 것은 잘 안하는 모양이지요?}

10330 # 그르치. {그렇지.}

10330 # 인잔 너무 소 키아진 아느지. {인제 남의 소를 키우지는 않지.}

10330 # 여이 그기 인자 주로 마네찌. {여기에는 그런 것이 인제 많았지.}

10330 @ 그 배내기소는 그르가 인제, 그르며 그 월래 소 마는 사아몬 그르 가 송아지 이래가 하여 가주 또 소를 자꾼 늘린다, 그리예? {그 배내소는 그래서 인제, 그러면 그 월래소가 많은 사람은 그래 가지고 송아지를 이래가 하여 가지고 또 소를 자꾸 늘린다, 그렇게요.}

10330 # 그르치 머, 두 바르서, 시 바리션 늘리지, 그래. {그렇지 뭐, 두 마리씩, 시 마리씩 늘리지, 그렇게.}

10330 @ 그 배내기소는 보통 그럼면 한 키우고 하, 새끼 빼고 할려면 한 한 이삼년 키워야 데겐네예? {그 배내소는 보통 그러면 한 번 키우고, 새끼를 빼고 하려면 한 한 이삼년은 키워야 되겠네요.}

10330 # 일'런', 이'티. {일년, 이 해.}

10330 # 한 이'티' 데야 인 인자 송안치로 보지. {한 이 해가 되어야 인제 송아지로 보지.}

10330 # 이티 미기야. {이 해 먹여야.}

10330 @ 송아치도 그럼며느 암소 송아지 나오면 더 조케따, 그지예? {송아지도 그러며는 암소 송아리줄 낳으면 더 좋겠다, 그렇지요?}

10330 # 음, 그르치예. {음, 그렇지요.}

10330 # 그땸 향'소가 일 잘한'다꼬 향'소도 갠차네써. {그때는 황소가 일을 잘 한다고 황소도 켜쌌어.}

10330 @ 아, 이른 황소가 잘하니까? {아, 일은 황소가 잘 합니까?}

10330 # 올치, 잘하지. {웁지, 잘 하지.}

10330 # 암소보다 히미 시다 카이께네, 황소가. {암소보다 힘이 세다고 하니까, 황소가.}

10330 # 엔나르너 그르고 또 향소간 버르시 상그로움 마네서 사라를 뜰바미길 더라 이서 따 카이께네. {옛날에는 그리고 또 황소가 버릇이 다루기 힘든 것이 많아서 사람을 들이받기를 가끔 있었다고 하니까.}

10330 @ 검 인제 황소나 이렇 거 배내기소 인제 해가조오 큰 소는 가따 주고 송아지를 인자 다시 키울 꺼 아임미까? {그럼 인제 황소나 이런 것, 배내소 인제 해가지고 큰 소는 가져다 주고 송아지를 이제 다시 키울 것 아닙니까?}

10330 # 그르치. {그렇지.}

10330 @ 그아몽 그 키우가? {그러면 그렇게 키워가지고?}

10330 # 키아마 인자 그근 지거 데지. {키우면 인제 그것은 자기 것이 되지.}

10331 @ 그어므 키오 가주 인제 자기 꺼 데는데, 그올려며느 보통 그냥 소, 송아지 인제 조금 크며는 어떠케 기를 자바야 텀미까? {그러면 키워 가지고 인제 자기 것 되는데, 그러려면 보통 그냥 소, 송아지가 이제 조금 크면은 어떻게 길을 잡아야 됩니까?}

10331 # 그 만랄 인자 길드래애 데지. {그 만랄 인제 길드려야 되지.}

10331 @ 검 어뜨게, 그거느 어째서 그런데예? {그럼 어떻게, 그것은 어찌하여 그런데요?}

10331 # 바테 은자 이래 막 멀 끌'꼬도 텅기'고. {밭에 이제 이렇게 막 무엇을 끌고도 다니고.}

10331 # 한 사람 이'끌고 홀치~'이로 막 비홀치너 다려 가주오 텅기'민서 은자 농 가능 거저능 걸 연스블 씨'깁'는 기라. {한 사람이 이끌고 극쟁이로 막 빈 극쟁이로 달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논 가는 것, 저런 것 연습을 시키는 것이라.}

10331 @ 어 일단 머 머 비 빈 홀찌이더 해 가주고도? {어, 일단 뭐, 뭐 빈, 빈 극쟁이도 해 가지고도?}

10331 # 그르치. {그렇지.}

10331 # 여 머 큰' 막때'기나 그능 걸 가따가 질까'도 인데도 끌꼬 텅기고 인자, 질드'털'라고. {여기에 뭐 큰 막대기나 그런 것을 가져다가 길가에도 이런 데도 끌고 다니고 이제, 길을 들이려고.}

10331 # 그래야 은자 노네 가며 고:를' 인자 바로 갈 수 이꼬. {그래야 이제 논에 가면 골을 이제 바로 갈 수가 있고.}

10331 # 그르가 인자 질' 뜨'르지마 지 헌차 가고 인자 그 당시에는 막 자꾸 이'끄지, 사래미 한 사래미. {그래 가지고 인제 길을 들였으면 자기(소) 혼자 가고 인제 그 당시에는 막 자꾸 이끌지, 사람이, 한 사람이.}

10331 # 디엔 따'르가고. {뒤에는 따라가고.}

10331 @ 그 소 처으메 보통 그엄 소 키울 때, 송아지는 쪼마할 때느 어떠케 코 여 똥꼬 그러켄 안 하지예? {그 소 처음에 보통 그런 소를 키울 때, 송아지는 조그만 할 때는 어떻게 코, 여기에 똥꼬 그렇게는 안 하지요?}

10331 # 그 움마'아'나'면 송아지 한, 한 사 을, 사 안, 사 한 오개월 데만 먹 쿡, 쿡 찌. {그 웬만하면 송아지 한, 한 삼 사, 한 사, 한 오개월이 되면 뭐 쿡, 쿡 찌르지.}

10331 # 지끄믄 저르 크:도 코 양끼지만 엔나르는 그마나머 여 코를 끼야 인자 사름 맘데로 하지, 코 양끼며 맘데로 모 하자너. {지금은 저렇게 커도 코를 안 꿰지만 옛날에는 그만 하면 여기 코를 꿰어야 인제 사람 마음대로 하지, 코를 안 꿰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

10331 # 그른데 머 코를 가따 어이끼, 그때 황소고 암소고 다 끼따 카이게, 엔나레느. {그러는데 뭐 코를 가져다 어렵게 그때 황소고 암소고 다 꿰었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10331 # 지끄믄 머 침 머 백 빠리, 이백 마리 미이는 사람, 코 하나도 양 끼. {지금은 뭐 처음 뭐 백 마리, 이백 마리 먹이는 사람도 코를 하나도 안 꿰어.}

10331 @ 아, 그냥 똥미까? {아, 그냥 똥니까?}

10331 # 그대르 냐뚜. {그대로 놓아두지.}

10331 @ 잘 크라고 그람미까? {잘 크라고 그럼니까?}

10331 # 그르케'찌. {그렇겠지.}

10331 # 지그르 머 그영 방마다 봉 코도 양 끼고, 매더 양 카고 큰 우사르 지노콤 막 저그 마음대로 막 텅기자너. {지금은 뭐 그냥 방마다 보니 코도 안 꿰고, 매지도 안 하고 큰 우사를 지어 놓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잖아.}

10331 @ 그엄 코, 그 코, 이 콰, 이 그 똥롱 거 그걸 머 하, 그검 머 한다함미? {그럼 코, 그 코, 이 코, 이 그것을 꿰는 것 그걸 뭐, 그걸 머 한다고 하지요?}

10331 # 코긴다 카지. {코웬다고 하지.}

10331 @ 그 코깰 때는 머? {그 코를 꿰 때는 뭐?}

10331 # 코깰 때는 은잔 낭'글 빼:'쪽'하이 따드머 가주고 소르 인자 먹 송안치를 무까가 노코, 코꾸여~을 인잔 찢러 가주고. {코를 꿰 때는 인제 나무를 빼죽하게 다듬어 가지고 소를 인제 뭐 송아지를 묶어 가서 놓고, 콧구멍을 인제 찢러 가지고.}

10331 # 어 낭글 인제 요롱 걸 엔나레 노송나무라꼬 이써. {어, 나무를 이제 요런 것을 옛날에 노송나무라고 있어.}

10331 # 노송나무 고누를 가주 요래 오쿠라 나따 고눔 가 이 요 코를 인자 끼지. {노송나무 그 놈을 가지고 요렇게 오그려 놓았다가 그놈을 가지고 이 여기에 코를 인제 꿰지.}

10331 @ 노송나무 카능 그어느 여물미까? {노송나무라고 하는 그것은 단단합니까?}

10331 # 아, 고기 인자 이랴 부라 꾸버만 요래 오구닥하'이 잘 꾸핀다 카이께네. {아, 그것이 이제 이렇게 불에 굽으면 요렇게 오그당하게 잘 굽힌다고 하니까.}

10331 # 올게. {올게.}

10331 @ 잘 부러지지도 앙코예? {잘 부러지지도 앓고요?}

10331 # 음, 암 뿌리고. {응, 안 뿌러지고.}

10331 # 고 우에 아주 해짱해짱하이 쪼꿈마. {그 위에 아주 가볍게 가볍게 조금만.}

10331 @ 근데 그 코 이래 가 뚜르 노며느 므 피 안남미까? {그런데 그 코 이렇게 꿰어 놓으면은 뭐 피가 안 납니까?}

10331 # 왜 안나, 피나는 거또 이써. {왜 안 나와, 피가 나는 것도 있어.}

10331 # 빼 먼 마~'이느 안 나고. {피 뭐 많이는 안 나고.}

10331 # 그르 가주 먼 딴'장'도 발라주고. {그렇게 가지고 뭐 된장도 발라 주고.}

10331 # 엔나레 영감들 그래써. {옛날에는 영감들이 그랬어.}

10331 @ 아, 그암 머 그냥 그르 노으며느? {아, 그럼 뭐 그냥 그렇게 해 놓으면은?}

10331 # 은, 그래가 미칠 아~이시믄 고머 나서뿌. {응, 그래 가지고 며칠 안 있으면 그만 나아버려.}

10331 # 마 하이튼 잘 나사. {그냥 하여튼 잘 나아.}

10331 # 쏘가. {소가.}

10331 @ 그라면 인제 코 인제 이 코 끼 가주고 인제 여기 인제 묶습니까? {그러면 인제 코, 인제 이 코를 꿰 가지고 인제 여기에 이제 묶습니까?}

10331 # 그르치. {그렇지.}

10331 # 당그르 매 가주고 인자 요요 뿔떼기 제우 쪼매 날라 카맘 골로 해 딱 끼가이 당그르 매 나치, 저저 어 끼 가조. {높은 곳에 매어 가지고 인제 여기 뿔에 겨우 조그맣게 나려고 하면 그것으로 해서 알맞게 꿰어 높은 곳에 매어 놓지, 저 저 꿰 가지고.}

10331 @ 그 인제 그르가 인제 고삐줄 해가주고 은제 그랙 질드린다, 그지예? {그 인제 그 래 가지고 이제 고삐줄을 해 가지고 이제 그래서 길을 들인다, 그렇지요?}

10331 # 그르치. {그렇지.}

10331 @ 거어 어르신 거 은자 아까 머 질드리기 위해서는 먼 길다닐 때도 그르케 하고 빈 홀찌~이도 하고 이룬다 아 해썸미까, 그지예? {그 어르신 그 인제 아까 뭐 길을 들이기 위해서는 뭐 길을 다닐 때도 그렇게 하고 빈 극쟁이도 하고 이룬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10331 @ 글도 머 잘 안테는 소느 이 소 사라미 아페서 이끌? {그래도 뭐 잘 안 되는 소는 이 소를 사람이 앞에서 이끌어?}

10331 # 자꾸 이끌지. {자꾸 이끌지.}

10331 # 그를 때도 이끄러. {그럴 때도 이끌어.}

10331 # 사래미 끌'꼬 텅'기야 데. {사람이 끌고 다녀야 되어.}

10331 # 사람 하나는 꼭' 갸, 디에 하남 부뜰'고 하나는 꼭 끌'꼬 텅'이에데, 소를. {사람 하나는 꼭 뒤에 하나는 붙들고 하나는 끌고 다녀야 돼, 소를.}

10332 @ 그어면 소 머 그으 일할 때, 소 부릴 때는 어뜨게 소리가통 거 이썸미꺼, 소리 내기도 함미까? {그러면 소 뭐 그렇게 일할 때, 소를 부릴 때는 어떻게 소리같은 것이 있습니까, 오리를 내기도 합니까?}

10332 # 극찌, 이라이라, 자라자라 인자. {그렇지, "이라이라, 자라자라" 인제.}

10332 # 이'쭈로 가자카마 자'라'자'라', 이주로 가모 우로우로 이카고 야, 아프로 가자마 아프로 은자 가자 카고. {이 쪽으로 가자고 하면 "자라자라", 이 쪽으로 가면 "우로우로" 이렇게 말하고 야,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이제 가자고 말하고.}

10332 # 그럼 마를 잘: 아'라드찌 인자 소도. {그럼 말을 잘 알아 듣지, 인제 소도.}

10332 @ 인제 머 처음 그래 머뿐 인제 기를 자버 노으면 인젠 길 잘드린 소는 말하는 데로 인제 머 다 따라하? {인제 몇, 처음 그렇게 몇 번 길을 잡아 놓으면 인제 길을 잘 들인 소는 말하는 대로 이제 뭐 다 따라합니까?}

10332 # 그르치. {그렇지.}

10332 # 자라 카마 이리 가고 자라 카머 저리 가고 인자. {"자라"고 말하면 이리로 가고 "자라"고 말하면 저리로 가고 인제.}

10332 @ 그람 어'디 인제 여기서. {그러면 어디 인제 여기서.}

10332 # 여 뽕:: 가시가든 자 또 도르에 데그더. {여기에 뽕그르 가에 가면 인제 또 돌아야 되거든.}

10332 @ 그때는 머라 함미까?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10332 # 글쎄 인자 사라'미 인자인자 도라 카민선 돌만, 사라'미 돌:마 인자 소가 저절로 다부로 돈다 카이. {그때 인제 사람이 인제 인제 "돌아"라고하면서 돌면, 사람이 돌면 인제 소가 저절로 도로 돈다라고 하니까.}

10332 @ 가다가 머 세울 때는 그람 머? {가다가 뭐 세울 때는 그러면 뭐?}

10332 # 워: 카지. {"워"라고 말하지.}

10332 # 워어. {워어.}

10332 # 워 카른 서. {"워"라고 말하면 서.}

10332 # 세울 쟈는 머 떡' 걸리'마 하마 워 카만 소가 선다카이끼네. {세울 적에는 (+ 극쟁이)워 떡 걸리면 벌써 "워"라고 말하면 소가 선다고 하니까.}



10332 # 워 카른 머더 안서는 뽕뽕 데바시 서뿌리. {"워"라고 말하면 모두 안서는 법도 단  
번에 서버려.}

10332 @ 소가 그 말 잘 듣는 소는 머 아주 잘 듣는다, 그지예? {소가 그 말을 잘 듣는 소  
는 뭐 아주 잘 듣는다, 그렇지요?}

10332 # 드러, 마이 잘 드러. {들어, 많이 잘 들어.}

10332 # 소돈 마를 잘 드러. {소도 말을 잘 들어.}

10332 @ 그러면 그으또 질 잠능 그또, 소 질잠능 거또 기술이겐네예? {그러면 그 또 길을  
잡는 것도, 소 길잡는 것도 기술이겠네요?}

10332 # 그르치, 우시 그르돈 잘 치는 사라미 더 잘 데리고, 모 보통 머 질 드리마 데. {그  
렇지, 매우 그래도 잘 치는 사람이 더 잘 데리고, 뭐 보통 뭐 길을 드리면 돼.}

10332 @ 머 질 잘 못뜨리감머느 다른 사람한테 부탁또 하고 그람미까? {뭐, 길을 잘 못  
드리면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그러니까?}

10332 # 그르치. {그렇지.}

10332 # 마저, 우리 소 질 좀드리도 케사코 그라지. {맞아, "우리 소 길을 좀 들여다오"라  
고 말하고 그러지.}

10332 # 너 질 잘 드린다. {너 길을 잘 들인다.}

10332 # 우리 소 질 좀 데리도 이라지. {"우리 소 길을 좀 들여다오" 이러지.}

10332 @ 잘 들을 분드리 쯔 게션는 모야이다, 그지예? {잘 (길을)들이는 분들이 쯔 게션  
는 모양이다, 그렇지요?}

10332 # 얼치, 얼지, 이썸, 마저 마저. {옳지, 옳지, 있어, 맞아 맞아.}

10333 @ 그다메 어르신 혹시 그 소:오가 새까리나 소 모양에 따라서 이르미 쯔 다룽 거또  
이썸미까? {그 다음에 어르신 혹시 그 소가 색깔이나 소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쯔 다른  
것도 있습니까?}

10333 # 속 꺼문소도 이꼬 어 노란소도 이꼬 그저 이 저미 이래 퍼뜩퍼뜩한 소도 이꼬.  
{흑 검은 소도 있고 어 노란 소도 있고, 그저 이 점이 이렇게 퍼뜩퍼뜩한 소도 있고.}

10333 @ 그른 소는 이르미 멤미까? {그런 소는 이름이 뭘니까?}

10333 # 거 인자 얼루기소고, 꺼무 꺼몽건 은자 꺼몽소. {그 인제 얼룩이 소고, 검은 검은  
것은 인제 검은소.}

10333 @ 아, 꺼문소? {아, 검은소?}

10333 # 올티. {옳지.}

10333 # 인자 노라, 지끔 보통 소느 은잔 노란소, 소 은잔 껌띠이가 그래 구분테가 이썸.  
{이제 노란, 지금 보통 소는 이제 노란소, 소가 이제 껌질(+가죽)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있지.}

10333 @ 그럼머느 요즈믄 주로 머 꺼문스? {그럼면은 요즘은 주로 뭐 검은?}

10333 # 버므능 어 그룽 거는 빌'로 업썸. {보면은 어, 그런 것은 별로 없어.}

10333 # 조부네는 교배'로 가따가 수'중을 가따가 인잔 종고마 빼가주오 인자 수정을 씨기  
다 보니께네 그룽 거느 하네도 업썸. {전번에는 교배로 수정을, 인제 좋은 것만 빼 가지고  
인제 수정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

10333 # 점'부 노랑 거뽕~'이고. {전부 노랑 것뿐이고.}

10333 @ 요즈믄 꺼문 소나 이렇 거느 얼룩소느 업따 그지예? {요즘은 검은 소나 이런 것  
은 얼룩소는 없다 그렇지요?}

10333 # 응, 그릉 거느 자 잘 안나, 잘 안나와. {응, 그런 것은 자,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10333 # 요 주디도 머 까문 거또 업는데. {여기 주둥이도 뭐 검은 것도 없는데.}

10333 # 똑: 가통 거 가따 인자 순, {똑 같은 것을 가져다 인제 수,}

10333 # 저어 자 정애글 뽕 찌게 장 여 조은 소만 인잔 빼 가주고 하다 보이께네 그릉 기 업서저씨. {저기 인제 정액을 뽕 적에 늘 여기에 좋은 소만 인제 빼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졌어.}

10333 @ 예저네는 머 그냥 자연 교미를 하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자연 교미를 하니까.}

10333 # 올치, 자연교배르 함께 인자 먼 아무 소나 그대로 하이께네 그를 쟈엔 인자 얼룩 소도 나오고, 꺼문소도 나오고 그래찌. {올지, 자연교배를 하니까 인제 뭐 아무 소나 그대로 하니까 그럴 적엔 인제 얼룩소도 나오고, 검은소도 나오고 그랬지.}

10333 @ 이른 감 어떻 게 잘 함니까? {일은 그럼 어떤 것이 잘 함니까?}

10333 # 머 꺼문소돈 잘 해, 꺼문소가. {뭐 검은소도 잘 해, 검은소가.}

10333 # 꺾디이라꼬 꺾두소느 참 잘하는 모애이라. {검둥이라고 검둥소는 참 잘 하는 모양 이라.}

10333 @ 아, 그 이 꺼문소가 허문 조, 이른 잘 헐는 모애이다, 그지예? {아, 그 이 검은소가 힘은 좋아, 일은 잘 했는 모양이다, 그렇지요?}

10333 # 잘 해씨. {잘 했어.}

10333 @ 누른소나 이릉 거쁘다느 그지예? {누런 소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지요?}

10333 # 마저, 잘 해씨, 마저. {맞아, 잘 했어, 맞아.}

10333 @ 그릉데 인제 요즈믄 머 점부 단 누른소를 조아하니까 온통 머 누른소 머 한다, 그지예? {그런데 인제 요즘은 뭐 전부 다 누런 소를 좋아하니까 온통 뭐 누런 소를 뭐 한다, 그렇지요?}

10333 # 그르치. {그렇지.}

10333 # 오세는 그그 내 카잉끼네. {요새는 그 내가 말하니까.}

10333 # 정애글 가따간 저 인자 수정소서 뽕버 올 쟈게는 조은 소만 자꾸 노랑소 그릉 거 뽕보 오고 이때미러 지꾸몽 그릉 게 안 나온다카이. {정액을 가져다가 저 이제 수정소에서 뽕아 올 적에는 좋은 소만 자꾸 노랑소 그런 것 뽕아 오고 이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나오다라고 말하지.}

10333 @ 요즈믄 그러므 거이 머 어 소 부부는 머 누른소 정애, 그릉 걸로 해가 교미를 한? {요즘은 그러면 거의 뭐 이 소 부분은 뭐 누런소 정액,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교미를 한?}

10333 # 그, 그릉, 그르치. {그, 그릉, 그렇지.}

10333 # 마 점부 그기지 머. {그냥 전부 그것이지 뭐.}

10333 # 지그므 소랑 그저네 고배 씨기가 그릉 건 업꺼덩. {지금은 소랑 그 전에 교배 시키셔 그런 것은 없거든.}

10334 @ 그담 흑씨 머 어르신 거 소뿌리, 뽕 모양에 따라서 소가 쫘 다름 거또 이썸니까? {그 다음에 흑시 뭐 어르신 그 소뿌리, 뽕 모양에 따라서 소가 쫘 다른 것도 있습니까?}

10334 # 음, 그르치. {음, 그렇지.}

10334 # 초가 인자 천장뽕도 이꼬. {소가 인제 천장뽕도 있고.}

10334 # 천장으로 이래 입 꺾뽕강 거또 이꼬, 이래 아프로 우구덩항 거또 이꼬, 꼬꾸랑하

이 해가 막 사를 파고드가능 거또, 오 여러:: 부부~이 이따 카이께네. {천장으로 이렇게 이, 뽕족한 것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 오그러진 것도 있고, 꼬부랑하게 해 가지고 막 살을 파고 드러 가는 것도, 으 여러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10334 @ 아, 그라머 인 천장소는 머 이르게 완? {아, 그러면 이 천장소는 이렇게?}

10334 # 올치, 천장 천장 막 바룬 뽕 찌빠다~이 이래 크능 거또 이꼬, 이래 크능 거또 이꼬, 이래 오구러져 가주고 사를 뜯는 거또 이꼬 그래. {옳지, 천장 천장 막 바로 꺾 뽕족하게 이렇게 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오그라져 가지고 살을 뜯는 것도 있고 그래.}

10334 @ 검 주로 그아므 그 뽕 중에서는 조은 소는 뽕 천장뽕 그제 조치요? {그럼, 주로 그러면 그 뽕 중에서는 좋은 소는 뽕 천장뽕 그것이 좋지요?}

10334 # 그르치, 이기 인자 아프로 인자 이리 뽕수구리 하이, 어 여 지금 우리소 채르보머 이래가 인나. {그렇지, 이것이 인제 앞으로 인제 이렇게 뽕수구리하게, 어 여기 지금 우리소 러럼 보면 이래 가지고 있나.}

10334 # 그~이 소가 갠찬치. {그러니 소가 갠찬지.}

10334 @ 요즘 머 검 마냐게 인자 소가 그럼, 그아머 이글 올르간느 이렇 걸 천장뿌리라 하고, 그 담메 이그 구븐거름 머슨 뿌리라 함미까, 거룽거? {요즘 뽕 그럼 만약에 인제 소가 그럼, 그러면 이 것 올라 갔는 이런 걸 천장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것 굽은 것은 무슨 뽕이라고 함니까, 그런 것?}

10334 # 구봉 거는 누우저따 이래 하고. {굽은 것은 눌어졌다고 이렇게 하고.}

10334 # 구북, 꾸거전, 구부정 뿌리다 이카아지. {굽어, 구겨진, 구부정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10334 # 머 거 큰:: 머 뿌 리르믄 다룽 건 어꼬. {뽕 그 큰 뽕 이름은 다른 것은 없고.}

10334 @ 거머 인제 그럼 뽕 가툽 경우 만냐게 아까 은제 어르신 이야길 하셧는데, 아느로 이러케? {그러면 인제 그러면 뽕같은 경우 만약에 아까 이제 어르신께서 이야기를 하셧는데 안으로 이렇게?}

10334 @ 구버 드르가능 거는? {굽어 들어갔는 것은?}

10334 # 그거는, 고오느 인자 글 푸리 자꾸 크니까 인자 쏘브로 가시오 인잔 씨 조애데. {그것은, 그것은 인제 그 뽕이 자꾸 크니까 인제 톱으로 인제 썰어 주어야 돼.}

10334 # 토브로. {톱으로.}

10334 # 앙 그라머 자꾸 인자 살 이리 파구 드가서 아프니까, 이래 꾸꾸렁하이 해 가지고, 그래 인자 막 토브로 가조 막 꼬너 준다카이, 끈티~이로. {안 그러면 자꾸 인제 살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아프니까, 이렇게 꾸부렁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인제 막 톱을 가지고 막 끊어 준다고 하니, 끝을.}

10334 # 그은 소돈 상, 그양 상다이 마네쎄. {그런 소도 상, 그냥 상당히 많았어.}

10335 @ 흑씨 어르신 그 소가 키움며는 소 나이에 따라서 이름도 다룽 게 이썸미까? {흑시 어르신 그 소를 키우면은 소 나이에 따라서 이름도 다른 것이 있습니까?}

10335 @ 다르게 부름미까? {다르게 부릅니까?}

10335 # 소이 인자 나이 가따 인잔 송안치 미빠 난능 거또 인자 뽕 보고 안다 이카는데, 뽕리 인자 알, 알테기 고게 인자 항 게 노만 뽕, 송아지 함 마리 나따, 두 개 노마 두 바리 나따, 고 보마 알고. {소가 인제 나이가 인제 송아지 몇 배 낳는 것도 인제 뽕을 보고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뽕이 인제 알, 알테기(+뽕에 나이테처럼 표시된 형태임.) 그것이 인제

한 개 놓으면 뿔, 송아지 한 마리 낳았다, 두 개 놓으면 두 마리를 낳았다, 그렇게 보면 알고.}

10335 @ 아 고롱 게 뿌레 보면 대충 표시가 난다, 그지예? {아, 그런 것이 뿔에 보면 대충 표시가 난다, 그렇지요.}

10335 # 올티, 송아지, 송아지 미빼나따 가능걸 대충 아라. {옳지, 송아지, 송아지를 몇 배 낳았다고 하는 걸 대충 알아.}

10335 # 뿌레서. {뿔에서.}

10335 @ 근테 소 머 혹시 그 머 소 일런 텐, 한 살 머근 소는 머 이름 따로 부르고 그런 건 업서썸미까? {그런데 소 뭐 혹시 그 뭐 소가 일년 된, 한 살 먹은 소는 뭐 이름을 따로 부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10335 # 머 이동내기, 늑다리, 인자 그른 인자 구부늘 드가찌. {뭐 외동내기, 늑다리, 인제 그런 인제 구분을 들어갔지.}

10335 @ 외동내기는 뎡미까? {외동내기는 무엇입니까?}

10335 # 외동내~이가 은자 아주 인자 어렁 거. {외동내기가 인제 아주 이제 어린 것.}

10335 # 한 일런 새끼 함 마리 난능 거, 고능 거 인자 외동내~이라고 해. {한 일년 새끼 한 마리를 낳은 것, 그런 것을 인제 외동내기라고 해.}

10335 @ 그 다으메 또 아까 머라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라고?}

10335 # 그 다으메 쯔 새끼 여러벌 뎡능 거 인자 늑다리. {그 다음에 쯔 새끼를 여러 벌 뎡는 것은 이제 늑다리.}

10335 # 늑다리. {늑다리.}

10335 @ 인제 머 거이 인제 느 늘거 가주고 인제 어 며뻔 모뻔? {인제 뭐 거의 인제 늑, 늑어 가지고 인제 으, 몇 배 못 뻔?}

10335 # 열 빠리 여, 열 빠리 까지 노꼬 열따서 빠리 까진 논 소도 이따 카이게네. {열 마리, 여, 열 마리까지 낳고 열다섯 마리까지 낳은 소도 있다고 하니까.}

10335 # 함 마리가. {한 마리가.}

10335 # 어 마~이 노는 소드리 이썸. {으, 많이 낳는 소들이 있어.}

10335 # 그르 노마 인자 그인 소로 원츄 마이 빼마 난제 가서 은자 새끼르 몽 가자. {그렇게 낳으면 인제 그 소로 원체 많이 빼면 나중에 가서 인제 새끼를 못 갖어.}

10335 # 애기르 마이 배서. {애기를 많이 베어서.}

10335 @ 검 세끼 모 까지는 그른 소는 머 이름미 따로 부름미까, 그냥 늑다리라? {그럼 새끼 못 가지는 그런 소는 뭐 이름을 따로 부릅니까, 그냥 늑다리라?}

10335 # 나주 늑'다리. {아주 늑다리.}

10335 # 으, 아주 늑'다리. {으, 아주 늑다리.}

10335 # 늑'다리라고. {늑다리라고.}

10335 @ 늑다리가통 경우는 인저 머 더 인제 새끼르 모 까진다, 그지예? {늑다리같은 경우는 인제 뭐 더 이제 새끼를 못 가닛다, 그렇지요?}

10335 # 그'르치. {그렇지.}

10336 @ 혹시 어르신도 예저네 소 인제 그 머 그르케 키우시고 하다 보며너 소 지베서 암소 가주오 새끼를 나키도 하지마너, 빼기도 하지마는 그냥 소 사르도 감미까? {혹시 어르신도 예전에 소 이제 그 뭐 그렇게 키우시고 하다 보면은 소를 집에서 암소를 가지고 새끼를 낳기도 하지마는, 빼기도 하지마는 그냥 소 사려도 갑니까?}

10336 # 그르치. {그렇지.}

10336 # 고라 자~에 소 사러, 송안지 사러 마~이 가지. {고령 장에 소를 사러, 송아지 사러 많이 갔지.}

10336 @ 꺼 고령장에도 소가 마이 나와썸니까, 예저네? {그 고령장에도 소가 많이 나왔습니까, 예전에?}

10336 # 마~이 나오찌. {많이 나왔지.}

10336 # 지금도 마이 나오지마는 그 저넨 참: 마~이 나와썸꺼등. {지금도 많이 나오지마는 그 전엔 참 많이 나왔었거든.}

10336 @ 고령장에 그아면 소가통 건 마이 나옴며느 소견 조은 소간 이꼬 나쁜 소가 이썸꺼 아임니까? {고령장에 그러면 소같은 것은 많이 나오면은 소가 좋은 소가 있고 나쁜 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336 # 이찌. {있지.}

10336 @ 검 그 어뜨에 고름니까? {그럼 그 어떻게 고름니까?}

10336 # 조은 소, 나쁜 소? {좋은 소와 나쁜 소를?}

10336 # 그검 머 사람 누느로 보막 머 조은 소, 나쁜 소 구버리 다: 텐다 카이끼네. {그건 뭐 사람 눈으로 보면 뭐 좋은 소, 나쁜 소 구별이 다 된다고 하니까.}

10336 @ 그도 어튼 머 모양이라든지, 모양이 이썸꺼 아임니까? {그것도 어떤 뭐 모양이라든지, 모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336 # 모양이 잘, 그르치, 모양이 잘 생기곤 머'찌'기 생긴 소는 조은 소고, 그이 복, 보 머 요라건 잘 몬 생긴 소는 아주 이래 보기가 안 데꼬 그래. {모양이 잘, 그렇지, 모양이 잘 생기고 멋지게 생긴 소는 좋은 소고, 거의 보, 보면 요런 것은 잘 못 생긴 소는 아주 이렇게 보기가 안 되었고 그래.}

10336 @ 거면 이지 조은 소, 나쁜 소에 따아서 금도 달라지젠네요? {그러면 이제 좋은 소, 나쁜 소에 따라서 값도 달라지겠네요?}

10336 # 달라지지. {달라지지.}

10336 # 영 차이가 만치. {아주 차이가 많지.}

10336 @ 그런데 그기 머 예를 드려서 머 뿌리라든지 머. {그런데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빨이라든지 뭐.}

10336 # 음, 빨다 보고, 생기긴 다 보고, 등도 이래 쪽'곤'는' 그또 이꼬, 등이 이래: 구분는 거또 이꼬, 그 소를 생기기 이래 모양이 여러: 가지라 카이끼네. {음, 빨도 보고, 생긴 것 다 보고, 등도 이렇게 쪽'곤'는 것도 있고, 등이 이렇게 굽었는 것도 있고, 그 소가 생긴 것이 이렇게 모양이 여러 가지라고 하니까.}

10336 @ 검 머리는 어떻 곁 조, 조은 소라 함니까? {그럼 머리는 어떤 곁 좋은, 좋은 소라고 합니까?}

10336 # 음, 머르돈, 머르도 잘 생기에 데고, 머르돈 우리 누네 보기 잘 생긴 거또 이꼬, 머리 잘 몬 새인 거또 이꼬, 소가 여러 가지 그어또, 사람도 잘 생긴 사람, 몬 생긴 사람 이뜨시 소도 머 구부니 만타 카니께. {음, 머리도, 머리도 잘 생기야 되고, 머리도 우리 눈에 보기가 잘 생긴 것도 있고, 머리가 잘 못 생긴 것도 있고, 소가 여러 가지 그것도, 사람도 잘 생긴 사람, 못 생긴 사람이 있듯이 소도 뭐 구분이 많다고 하니까.}

10336 @ 검 어떻 곁 머리 조은 소라 함, 잘생긴 소라 함니까, 쯔? {그럼 어떤 것을 머리가 좋은 소라고 함, 잘 생긴 소라고 합니까, 쯔?}

10336 # 그 인자 우리 누느로, 유가느로 바 가주고. {그 인제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바 지고.}

10336 @ 보며는? {보면은?}

10336 # 우리돌 보마 은자 판단한다 카이끼네. {우리도 보면 인제 판단하고 하니까.}

10336 @ 소 머리 머 크기나 이렇 게 문제가 아니꼬? {소 머리 뭐 크기나 이런 것이 문제 가 아니꼬?}

10336 # 그르치. {그렇지.}

10336 @ 딱 보며느 인제 이거는 잘 생기꼬 머. {딱 보면 이제 이것은 잘 생겼고 뭐.}

10336 # 올치. {옳지.}

10336 # 우리, 우리 여 저 사람보고 아 저 사람 잘 생기따 카드시 사람 유까를 보마 소 잘 생기스 \*\*\*\* 안저흐이 꾸부이 생기따 카이. {우리, 우리 여기 저기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은 잘 생겼다고 말하듯이 사람 유감을 보면 소가 잘 생겨서 \*\*\*\* 완전하게 구분이 생긴다고 말하니까.}

10336 @ 아까 켄 등이라든지 머 다리 이렇 거느 어떠케 조오, 조? {아까 그 등이라든지 뭐 다리 이런 것은 어떻게 좋은, 좋은 것은?}

10336 # 다리'도 마'이 구봉 기 이꼬 쪽' 고'등 기 이꼬 소도 여러:: 가지가 마네. {다리도 많이 굽은 것이 있고 쪽 곧은 것이 있고, 소도 여러 가지가 많아.}

10336 @ 겁 어떻 걸 조은 소로 침미까? {그럼 어떤 것을 좋은 소로 침니까?}

10336 # 쪽 고드에 데지. {쪽 곧어야 되지.}

10336 # 다리도 쪽 고꼬 등도 쪽 국, 그른 소가 인잔 조은 소지. {다리도 쪽 곧고 등도 쪽 곧고, 그런 소가 인제 좋은 소지.}

10336 @ 그얌 등도 이러케 구부면 안 데고 그냥 똑 바르고? {그럼 등도 이렇게 굽으면 안 되고, 그냥 똑 바르고?}

10336 # 올치, 쪽, 쪽, 예 똑바드야데. {옳지, 쪽, 쪽 으 똑바라야 되지.}

10336 @ 아, 그얌 다리 인제 고꼬? {아, 그냥 다리도 인제 곧고?}

10336 # 그리치. {그렇지.}

10336 @ 그얌 머 등 이용 이 기리도 강 게 조용 검미까? {그럼 뭐 등 이런 이 길이도 긴 것이 좋은 겁니까?}

10336 # 응, 그르치, 기리도 좀 기르야 데지. {응, 그렇지. 길이도 좀 길어야 되지.}

10336 # 똥짤마하몽 고오는 똥똥하양 기고. {똥짤막하면 그것은 똥똥한 것이고.}

10336 @ 아, 그래서 그릉 거 보고 인제. {아, 그래서 그런 것 보고 인제.}

10336 # 올치. {옳지.}

10336 # 그을 인자 보고 인자 조은 소다, 나쁜 소다 구분한다 카이께. {그것을 인제 보고 인제 좋은 소다, 나쁜 소다라고 구분한다고 말하니까.}

10336 # 사래미 판장해야지. {사람이 판정해야지.}

10336 @ 거므 소 가통 거 흑씨 인제 보통 거 사러 가쓸 때, 또는 팔러 가며는 누가 소를? {그럼 소같은 것 흑씨 보통 거기 사러 갔을 때, 또는 팔으러 가면은 누가 소를?}

10336 # 초, 인자 구정꾸니라꼬 이씨. {소, 인제 거간꾼이라고 있어.}

10336 # 거서 은자 구정꾸~이 나오 가주 구정꾸~이 인나 점부 인자 이 소느 열매가 다르, 자르 텐다, 산다, 그래 가주 그 사래미 마~이 인자 소개르 부치주지. {거기서 인제 거간꾼 이 나와 가지고 거간꾼이 이제 전부 인제 이 소는 열매가 되, 짜리가 된다, 산다, 그래 가지

고 그 사람이 많이 이제 소개를 붙여주지.}

10336 # 소개꾸~이지. {소개꾼이지.}

10336 @ 아, 흥정을 이제 서로 머 마차줍니까? {아, 흥정을 이제 서로 뭐 맞추어 줘니까?}

10336 # 음, 마차주지. {음, 맞추어 주지.}

10336 @ 그암므 그렇 경우에 이제 그 사람머 소에 대해 잘 알겐네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은 소에 대해 잘 알겠네요.}

10336 # 잘' 알'지. {잘 알지.}

10336 # 소로 인잔 여'러 수'우'심'년 해따 보니까, 으 머 자~아서. {소로 이제 여러 수십년을 했다고 보니까, 으 뭐 장에서.}

10336 # 그 인자 소'도 인자 상:당'이 인자 가치가 만치. {그 이제 소도 이제 상당히 이제 값어치가 다양하지.}

10336 # 처는 짜리도 이꼬, 배건 짜리도 이꼬, 마넌 짜리도 이꼬, 심만 짜리도 이꼬, 여러::구'부~이 가따, 상다이 만타캉게네. {천원짜리도 있고, 백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십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갖고 상당히 (그 종류가)많다고 말하네.}

10336 # 생깁 건 잘 생기만 도~'이 망코, 몬 생기면 도~이 어꼬' 그래. {생긴 것이 잘 생겼으면 돈이 많고, 못 생겼으면 돈이 없고 그래.}

10336 @ 가면 이제 소도 일: 잘 하게 생겨꼬 힘 조케 생긴 이런 소는 비싸고? {그러면 이제 소도 일을 잘 하게 생겼고 힘도 좋게 생긴 이런 소는 비싸고?}

10336 # 그르치, 비싸지. {그렇지, 비싸지.}

10336 @ 쪼금 머 땅딸막하이 모 생긴 소는 쪽. {조금 뭐 땅딸막하게 못 생긴 소는 좀.}

10336 # 헐코. {헐코.}

10336 @ 검 소 구정꾼 가통 경우느 보통 그르게 소 소개시켜 주고 이럼머느 어트게 자기가 쫌 이유늘 랑김니까? {그럼 소 거간꾼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소를 소개시켜 주고 이르면 어떻게 자기가 쫌 이유늘 남깁니까?}

10336 # 그르케찌. {그렇겠지.}

10336 # 그 구정꾸니라꼬 미주 떠능 기 이썸. {그 거간꾼이라고 매주 떼는 것이 있어.}

10336 # 소개 씨기 주고. {소개를 시켜 주고.}

10336 @ 그 사라른 그게 지거비다, 그지예? {그 사람은 그것이 직업이다, 그렇지요.}

10336 # 지거비지. {직업이지.}

10336 @ 거머 주로 장에서만? {그러면 주로 장에서만?}

10336 # 머 매:일 장날 건 나오니까. {뭐 매일 장날에는 거의 나오니까.}

10336 @ 그람무 소'느 주로 예저네 가무 자~'에 가서 파르썸니까, 앙 그암 머 동네에서도? {그러면 소는 주로 예전에 그럼 장에 가서 팔았습니까, 안 그러면 뭐 동네에서도?}

10336 # 자~'에 가서 마~'이 파'르찌. {장에 가서 많이 팔았지.}

10336 # 동네 여서늬 머 거이 인자 금도 모리고 그래노~ 몸 팔고, 점부 장을 내주애찌. {동네 여기서는 뭐 거의 이제 값도 모르고 그러니까 못 팔고, 전부 장에 내주었지.}

10336 @ 일단 소 그들 잘 정확카게 알 수 업쓰니까. {일단 소 값을 잘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10336 # 자~'에 가서 인자 구'정꾸~이 판당해 가주고 인 얼마 짜리 덴다, 그'래 마~'이 파'러썸. {장에 가서 이제 거간꾼이 판당해 가지고 이것은 얼마짜리 된다, 그렇게 많이 팔았

어.}

10337 @ 예저네는 어르신 그 이쭈게 머슴도 만초? {예전에는 어르신 그 이 쪽에 머슴도 많죠?}

10337 # 마네찌. {많았지.}

10337 @ 마나찌요? {많았지요?}

10337 # 마네찌. {많았지.}

10337 @ 그 머슴사리도 어뜨에 종류가 쯔 다름미까? {그 머슴살이도 어떻게 종류가 쯔 다릅니까?}

10337 # 머시'머 인잔 이일' 잘하고 은잔 하는 사라므 상:머'슴, 끌머'슴, 끌머'스므 은자 애들 인자 꼬르나 뜨더 나리고, 상:머'시미라 카마 저른 소 가주오 논도 같고, 오:망 거 인잔 다 이 머 후:: 지 이리라 카능 건 다 잘한 사라미라야 상'머스미지. {머슴은 인제 일을 잘하고 인제 하는 사람은 상머슴이고, 끌머슴, 끌머슴은 인제 풀이나 뜯어 나르고, 상머슴이라고 하면 저런 소를 가지고 논도 같고, 여러 가지 것 인제 다 이 뭐 극쟁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잘하는 사람이라야 상머슴이지.}

10337 @ 끌머스므 주로 쯔 어린? {끌머슴은 주로 쯔 어린?}

10337 # 올'치, 꼬리나 뜨더 나리구'로 아들 인자. {웁지, 풀이나 뜯어 나르려고 아이들 인제.}

10337 @ 검 인저 상머슴가통 경우는 인제 주로 머 이를 아주 잘 하고, 모든 이를 거이 다 잘해애텐다, 그췌? {그럼 인제 상머슴같은 경우는 인제 주로 뭐 일을 아주 잘 하고, 모든 일을 거의 다 잘 해야 된다 그렁췌?}

10337 # 잘' 해'애'지. {잘 해야지.}

10337 # 으치, 머 매키능 거 업시 다 잘 해애 데지. {웁지, 뭐 막히는 것 없이 다 잘 해야 되지.}

10338 @ 보통 그엄 머슴사리는 그래하며느 한 머 그 지베 가서 삼미까? {보통 그림 머슴살이는 그래 하면은 한 뭐 그 집에 가서 삽니까?}

10338 # 그 지'베' 가' 일런 내 인자 사'러야 데지. {그 집에 가서 일년 내내 인제 살아야 되지.}

10338 # 일'런 내 인제. {일년 내내 인제.}

10338 # 일'런 사'는 사람도 이꼬 그 지벤 더 서로 주인 주가 마:으'미 마'즈머 이'년도 살고 삼'년도 살고 머 고는 자 짜'미 업꼬. {일년 사는 살마도 있고, 그 집에는 더 주인과 마음이 맞으면 이년도 살고, 삼년도 살고 뭐 그것은 일정함이 없고.}

10338 @ 그러며 그러 하며는 보통 애저네너 일러니나 이년할 때 계약글 함미까, 우째 함미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보통 예전에는 일년이나 이년할 때 계약을 함니까, 어떻게 함니까?}

10338 # 그르치, 일런 인잔 나'락 석 섬. {그렁지, 일년에 인제 벼 석 섬.}

10338 # 상:머'슴 그 저네 석 섬 켜능 게 인자 한 서메다 열메쓰 인제 열따말쓰 연는 기라. {상머슴은 그 전에 석 섬이라고 말했는 것이 인제 한 섬에 열마씩 인제 열다섯 섬씩 넣는 것이라.}

10338 @ 아, 한 서메 열따'섬'말 드가이. {아, 한 섬에 열다섯 말 들어가니가.}

10338 # 열따섬말 드르간데, 석 씨미마 마은담마리네. {열다섯 말 들어갔는데, 석 섬이면 마흔다섯 말이네.}



10338 # 나 끼이 상:머'스미라. {나 그것이 상머슴이라.}

10338 # 세'궁'이라. {세경이라.}

10338 # 일런 내:: 버리야 인냐 꼬빠'기' 모빠러. {일년 내내 벌어야 인제 그것밖에 못 벌 어.}

10338 @ 세경을 그래 준다, 그지예? {세경을 그렇게 준다, 그렇지요?}

10338 # 그르치. {그렇지.}

10338 @ 그엄 거기서 머꼬 자고느 거기서 함미까? {그럼 거기서 먹고 자고는 거기서 함니까?}

10338 @ 머슴찌베서? {머슴집에서?}

10338 # 그르치. {그렇지.}

10338 # 마 즈그지브 와서도 자고. {그냥 자기 집에 와서도 자고.}

10338 # 고는 자는 거는 머. {그것은 자는 것은 뭐.}

10338 @ 검 인제 머, 머겨 주고? {그럼 인제 먹, 먹여 주고?}

10338 # 음, 머기 주고. {음, 먹여 주고.}

10338 # 온 인자 일러네 시: 불'썩 해주고. {옷을 인제 일년에 세 벌씩 해주고.}

10338 @ 음 머, 석 서물 준다, 그지예? {음 뭐, 석 섬을 준다, 그렇지요?}

10338 # 올티. {옳지.}

10338 @ 그럼 꼴:머'스른? {그럼 꼴머슴은?}

10338 # 꼴'머스른 머 바'비나 무'꼬 고래 가주얼 나락 마르나 주든지 머 안 주든지 가네 이비나 무꼬 사능 기라. {꼴머슴은 뭐 밥이나 먹고, 그래 가지고 벼 한 말이나 주든지 뭐 안 주든지 간에 입이나 먹고 사는 것이라.}

10338 # 기냥. {그냥.}

10338 @ 머 머겨주는 대충 머 그른 정도다, 그지예? {뭐 먹여주는 대충 뭐 그런 정도다, 그렇지요?}

10338 # 그르치, 어, 어, 어. {그렇지, 응.}

10338 @ 쪼금 머 주든지 말든지 하고, 그지예? {조금 뭐 주든지 말든지 하고, 그렇지요?}

10338 # 고 은잔 조은 지'베 만내만 나'락', 싸'르나 함 말 주고, 앙 그래마 임'만 무꼬 그대로 살고 이래따. {그 인제 좋은 집을 만나면 벼, 쌀이나 한 말 주고, 안 그러면 입만 먹고 그대로 살고 이렇게 했다.}

10338 # 엔나레는 무을 깨 업써 가주 점부 다 그래따 카이.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그랬다고 말하니까.}

10338 @ 거므 주로 인제 그어 머슴 드'리는 지븐 어트게이 이:리 마는, 농사가 마너서 그 러썹미까? {그럼 주로 인제 그 머슴을 들이는 집은 어떻게 일이 많은, 농사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10338 # 농사가 이너 쫘 마내서 인자 주'이는 이리 하기 실코 인자 농사가 안 지'아노이 점:부' 머심 소느로 다 해찌. {농사가 인제 좀 많아서 인제 주인은 일이 하기 싫고 이제 농사를 안 지어 놓으니까 전부 머슴 손으로 다 했지.}

10338 @ 인제 그러면 머슴가통 경우에 보통 머 집밤마다 쪼금씩 글 더 나께 줄 수도 이꼬, 모타게 줄 수도 이꼬 그러썹미까? {인제 그러면 머슴같은 경우에 보통 뭐 집안마다 쪼금씩 그 더 낫게 줄 수도 있고, 못 하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10338 # 그르치. {그렇지.}

10338 @ 양 그암 석 섬 그게 머 고 거이 머. {안 그러면 석 섬 그것이 뭐 그 것이 뭐.}

10338 # 어, 주이늘 잘 만'내마 그 고상헨'는데 함 말, 나락 함 말 더 조라, 더 조라 인자 이그또 이꼬. {응, 주인을 잘 만나면 그 고생을 했는데 "한 말, 벼 한 말 더 주어라, 더 주어라" 인제 이 것도 있고.}

10338 # 고고는 머 주인 만내'기데엔 달래찌. {그것은 뭐 주인을 만나기에 달렸지.}

10338 @ 인제 그르가 인제 머 하이튼 정:한'다, 그지예? {인제 그래 가지고 인제 뭐 하여튼 정한다, 그렇지요?}

10338 # 음. {응.}

10339 @ 머 예저네는 머 우리 살던 동네 거기도 그러썸시다마는 땅잉을 마니 가진 사암 마니 가주 이끼 때무네 머 머슴말고 나쁜 땅 부치능 경우도 이찌예? {뭐 예전에는 뭐 우리가 살던 동네 거기도 그렇습시다마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머슴은 말고, 남의 땅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요?}

10339 # 그르치, 이찌. {그렇지, 있지.}

10339 # 그기 마네찌. {그것이 많았지.}

10339 # 예나래는 저'어' 대구 이언데 부자드리 노를 침부 자우 다 해끄던. {옛날에는 저기 대구 이런 곳의 부자들이 논을 전부 좌우를 다 했거던.}

10339 # 다: 사'뿌느까. {(+ 논을)다 사버렸으니까.}

10339 @ 아 이런 동네 짬예? {아, 이런 동네 것ेल요?}

10339 # 얼치. {웁지.}

10339 # 다 상아주고 인자 그 사'암'드리 인자 국'쑤'루 바꼬 인자 음 몬사는 사'암'한테 노를 주능기라. {다 사가지고 인제 그 사람들이 인제 세(+ 국수: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지주가 거두어들이는 세를 말함.)를 받고 인제 음 못 사는 사람한테 논을 주는 것이라.}

10339 # 그러면 인자 대구 인잔 그때 이장우라 카는 사람 부잔테 인 느랜 드레 거 니자운 노~이라. {그러면 인제 대구 인제 그 때 "이장우"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인데 이 넓은 들의 것이 이장우 논이라.}

10339 # 그 은자 그 사암드르 나와 가주 인자 소 매가, 수 매 가주고, 나락 농사 지마 요고는 얼마 내라, 요곤 얼마 내라, 인제 딱 매기 주능 기라. {그 인제 그 사람들은 나와 가지고 인제 세(+수)를 매겨서, 세를 매겨 가지고 벼 농사를 지으면 이것은 얼마를 내라, 이것은 얼마를 내라, 인제 바로 매겨 주는 것이라.}

10339 # 매기 주마 인자 우운느 뚜드르 가주고 그 인너 곡서루 인자 가따가 인자 조애데능 기라. {매겨 주면 인제 우리는 (+곡식을)두드려 가지고 그 인제 곡식을 인제 가져다가 인제 주었는 것이라.}

10339 @ 거므 그걸 어 추수하, 보메 정함미까, 으 얼마 내라. {그러면 그것을 으 추수한 다음에 또는, 봄에 정함니까, 으 얼마를 내라.}

10339 # 나'라'기, 나'래'기 인자 느르수리:: 하머 인자 나와서 인자 정하지. {벼가, 벼가 인제 누렇게 되면 인제 (+지주가)나와서 인제 정하지.}

10339 @ 아, 그러며는 보메 그 땅 크기에 따라 정하능 게 아니꼬? {아, 그러면은 봄에 그 땅의 크기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꼬?}

10339 # 음, 여 나락 인자 와서 보고. {음, 여기 벼를 인제 와서 보고.}

10339 @ 워, 나락. {으, 벼.}

10339 # 땅은 머 언'제나 머 이'백' 퍼~'이 한 마지기가 통상이고. {땅은 뭐 언제나 뭐 이 백 평이 한 마지기가 통상이고.}

10339 # 그렇게 인자 나락 인자 잘 텐'나, 모: 펜'나, 잘 테'시'마 수를 더 매고, 모 떼시마 수를 좀 덜 매고. {그러니까 인제 벼 인제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잘 되었으면 세를 더 매기고, 못 되었으면 세를 좀 덜 매기고.}

10339 # 그르 인자 고분제' 나똥. {그래 인제 구분지어 놓았다.}

10339 @ 그엄 주로 그어 보통 함마지기가통 경우는 한 얼마씩 어 내줍니까? {그럼 주로 그 보통 한 마지기같은 경우는 한 얼마씩을 내어 줘니까?}

10339 # 함 마지기 그때 석 섬 무'우마 한 열' 말. {한 마지기 그때 석 섬을 먹으면 한 열 말.}

10339 # 열, 나쁜' 노'믄' 수'르 마'이 매'고, 또 인자 조은 사'라믄 수를 좀 덜 매고 그래찌. {열, 나쁜 사람은 세를 많이 매기고, 또 인제 좋은 사람은 세를 좀 덜 매기고 그랬지.}

10339 @ 그엄머느 그르케 인제 보통 그림머느 함 마지기 하면 한 먼 얼마 정도 나오는데 함 반정도느 가주 감미까, 그러머느? {그러면은 그렇게 인제 보통 그러면 한 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한 몇, 얼마 정도 나오는데 한 반 정도는 가지고 갑니까,그러면은?}

10339 # 반: 정'도'느' 가'주 가는 테'기. {반 정도는 가지고 가는 턱이지.}

10339 @ 보통 함 마지기 지으면네? {보통 한 마지기를 지으면요?}

10339 # 음, 음. {응. 응.}

10339 @ 검 밤반 정도 데는 세뭇니까? {그럼 반반 정도 되는 셈입니까?}

10339 # 그르치. {그렇지.}

10339 @ 그 그거또 머 사람 어 이 동네늬 머 예저네이 이장오스라는 그 부니 주로 해오마니 땅을 가주 이슨는데, 혹시 머 사라메 따라서 그거또 조금씩 그거 나노 간는 게 다릅니까? {그 그것도 뭐 사람 어 이 동네는 뭐 예전에 이장우 씨라는 그 분이 주로 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뭐 사람에 따라서 그것도 조금씩 그것을 나눠 갖는 것이 다릅니까?}

10339 # 그르치. {그렇지.}

10339 # 인제 수' 매로 온' 사래미 인자 쫘 이래 사'래미 쫘 조오마: 쫘름 헐'끼 해'주고, 앙 그른 노른 쪼'락바시 가따읍 내가지고 농사진는 사람 골'탕을 미'기고, 그른 수가 이썸. {인제 세를 매기러 온 사람이 인제 쫘 이렇게 사람이 쫘 좋으면 조금 싸게 해주고, 안 그런 놈은 지독하게 가져다 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골탕을 먹이고 그런 수가 있었어.}

10339 @그 사라메 따라 다르다, 그지예? {그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요?}

10339 # 다'르'지. {다르지.}

10339 @ 그 주로 인제. {그 주로 인제.}

10339 # 그리 오마 나'락 함' 말' 덜 매라꼬 막 닥'뚜 다부지고 오망 거 다 해썸. {그렇게 오면 벼 한 말을 덜 매기게 하려고 막 닭도 잡아 주고 오만 것을 다 했어.}

10339 # 흠, 옰'나래 사룽 거 참. {흠, 옛날에 살은 것 참.}

10339 @ 그엄머느 그림머느 주로 인제 으 그 나락 그거 얼마 매기능 거느 가으레 매긴다. 그지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주로 인제 으 그 벼 그것 얼마를 매기는 것은 가을에 매긴다, 그렇지요?}

10339 # 그르치. {그렇지.}

10339 # 가레 나락 인잔 누루꾸리: 하'마 인자 와서 인자 매'기. {가을에 벼가 인제 누르

구리하면 인제 와서 인제 매기지.}

10340 @ 예저네 어르신 그거 이를 하다 보며너 혼자 일 다 모하니까 서로 일 도와주고 하느 이 푸마시? {예전에 어르신 그것 일을 하다 보면은 혼자 일을 다 못 하니까 서로 일을 도와주고 하는 이 품앗이?}

10340 # 푸'마'시가 이서찌. {품앗이가 있었지.}

10340 @ 푸마시 하지예? {품앗이 하지요?}

10340 # 푸마시도 해. {품앗이도 해.}

10340 # 일'꾼들 끼'리도 푸마시 해' 가주 놈' 매'고 다 해짜'나. {일꾼들 끼리도 품앗이를 해 가지고 논을 매고 다 했잖아.}

10340 @ 그람 푸마시는 주로 언 어떨 때 함미까? {그럼 품앗이는 주로 엇, 어떨 때 함니까?}

10340 # 그'건' 놈' 맬 쟈게가 인자 푸마시 제일 마~'이 하지. {그것은 논을 맬 적에 인제 품앗이를 제일 많이 하지.}

10340 @ 놈 맬 때 인제 푸마시? {논 맬 때 인제 품앗이?}

10340 # 음. {응.}

10340 # 저:: 여 그 저네 버리르 송구 때엔 버'리'놈 맬 찌에도 푸마시 마~이 해꼬, 모 송'굴' 때에도 푸마시 해가. {저 여기, 그 전에 보리를 심을 때엔 보리논을 맬 적에도 품앗이를 많이 했고, 모를 심을 때에도 품앗이를 해 가지고.}

10340 # 푸마시르 상, 그 여네부텨 푸마시르 마'이 해찌. {품아시를 늘, 그 전일부터 품앗이를 많이 했지.}

10340 # 서로 인자 모이 가주우 또 이 지빈 노, 하룬 이 짐 논 송구고, 하룬 저 짐 논 송구고 근 거시 마네찌. {서로 인제 모여 가지고 또 이 집의 논, 하루는 이 집 논 심고, 하루는 저 집 논을 심고 그 것이 많았지.}

10340 @ 그아며는 머 무니, 모싱끼 할 때나 그 다메 보르놈 매기 할 때나 머. {그러면은 뭐 물이, 모싱기 할 때나 그 다음에 보리논 매기 할 때나 뭐.}

10340 # 버르놈 맬 찌게나 머. {보리논 맬 적에나 뭐.}

10340 @ 보리놈 맬 때. {보리논 맬 때.}

10340 # 어, 올치. {응, 옳지.}

10340 # 그느 머이 삼무 푸마시를 해 가이 해찌. {그는 뭐 늘 품앗이를 해 가지고 했지.}

10340 @ 금 머 주로 타작하고 이럴 때도 함미까? {그럼 뭐 주로 타작하고 이럴 때도 함니까?}

10340 @ 푸어시? {품앗이?}

10340 @ 그를 땀 잘 안 함미까? {그럴 때는 잘 안 함니까?}

10340 # 먼 타작할 찌에눔 머 크'르'콤 마이 안 하찌. {뭐 타작할 적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하지.}

10340 # 주로 인자 그릉 거 할 찌에 마이 해찌. {주로 인제 그런 것 할 적에 많이 했지.}

10340 @ 혹시 머 예저네 지붕 이'고 할 때, 이럴 때도 푸마시 함미까? {혹시 뭐 예전에 지붕을 이고 할 때, 이럴 때도 품앗이를 함니까?}

10340 # 그를 쟈에도 머 푸마시 쫌 하지. {그럴 적에도 뭐 품앗이를 쫌 하지.}

10340 @ 거면 제일 마니 하능 거는 머 놈매기나 보리놈매기나 이럴 모심?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뭐 논매기나 보리논매기나 이런 모심기?}

10340 # 모수, 모숨굴' 때 하고, 고를 쟈가 쟈 마이 하지. {모 심을, 모 심을 때하고 그럴 적이 제일 많이 하지.}

10340 # 그는 혼'차 항 께 능'겨리 아 올라가니까 인자 소늘 모다가. {그는 혼자 하니까 능률이 안 올라가니까 인자 손을 모아서.}

10340 @ 그암 푸마시하며느 보통 머 어뜨에 스 여러 명 함며느 순서으가 어뜨게 순섭또 정해야 델 께 아임미까? {그럼 품앗이를 하면은 보통 뭐 어떻게 여러 명이 하면은 순서가 어떻게, 순서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340 # 그'거'는 인잔 일꾸늘 건 가편 사래미 끼리끼리 인자 해 가'잉'고'오, 정'하지도 양'코 인자 푸마신 이 자꼬 일 이 지껴 하로 해주마 또 이지 께또 하로 여 가지고 우: 가서 하고, 또 저 집 께 하고, 저 집 께 하고. {그것은 인제 일꾼을 그 같은 사람이 끼리끼리 인제 해 가지고, 정하지도 았고 인제 품앗이, 이 자주 이, 이 집 것 하루 해주면 또 이 집 것도 하루 넣어 가지고 여럿이 가서 하고, 또 저 집 것 하고, 저 집 것 하고.}

10340 @ 거늘 머 일 그때 그판 데로 함미까? {그럼 뭐 일은 그때 급한 대로 함니까?}

10340 # 그르치. {그렇지.}

10340 # 연 내가 먼저 하고 점마 오'을 우리 거 하'자, 이래 가주 하고. {음, 내가 먼저 하고 싶으면 오늘 우리 것 하자, 이래 가지고 하고.}

10340 # 또 큰 그 다으메 나'른 또 저 사람과 하자, 그래 인자 그래 나가쎌. {또, 그, 그 다음에 날은 또 저 사람 것 하자, 그래 인제 그래 나가지.}

10340 # 그 수'이테로 인자 나'가지. {그 의논대로 인제 나가지.}

10340 @ 그때늘 머 어째든 푸마시 안 하며느 일 능류리 영 아 오른다, 그지예? {그때는 뭐 어째든 품앗이를 안 하면은 일 능률이 영 안 오른다, 그렇지요?}

10340 # 음, 그르치, 그르치. {음, 그렇지, 그렇지.}

10340 # 헨'찬 지'여브서 머 하'지도 몬 하고, 모 거'통 거 혼자 승'굴'라 카모 그 승굴 수도 영꼬, 농 거통 걸 매늘 거또 혼'치 맬'라 카'마 까'부지도 안 하고 그래서 푸마시아 해쎌. {혼자는 지겨워서 뭐 하지도 못 하고, 모심기같은 것 혼자 심으려고 하면 그 심을 수도 없고, 논같은 것을 매는 것도 혼자 매려고 하면 줄어들지도 았고 그래서 품앗이를 했지.}

10340 @ 푸마시하며느 훨씬 빠르기도 빠름미까, 혼자서 하능 거뵤다? {품앗이를 하면은 훨씬 빠르기도 빠릅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

10340 # 그르치, 여러시 함 뵤 시알끼도 덜하고, 앙 그러첸능가? {그렇지, 여럿이 하면 지겹기도 덜 하고, 안 그렇겠는가?}

10340 # 혼'차 하'능 뵤'다 푸마씨하능 게 영: 덜' 지'엿쎌. {혼자 하는 것보다 품앗이하는 것이 영 덜 지겹지.}

10341 @ 혹씨 그 머 푸'마씨느 인제 주로 그거 스로 일 도와주고 또 도와, 바든는 만큼 또 해주고 이릉 거 아임미까, 그지예? {혹시 그 뭐 품앗이는 인제 주로 그것을 서로 일을 도와주고 또 도와, 받았는 만큼 또 해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341 # 그리치. {그렇지.}

10341 @ 근데 가끔 머 푸마씨늘 하기도 하지마느. {그런데 가끔 뭐 품앗이는 하기도 하지마는.}

10341 # 말고 싸'꾼'도 이쎌. {말고 샅꾼도 있지.}

10341 @ 사'꾼'도 함미까? {샅꾼도 함니까?}

10341 # 그르치. {그렇지.}

10341 @ 사꾼가통 경우느? {샅꾼같은 경우는?}

10341 # 인자 돈 주'고, 으, 한, 하루 인자 얼마 쓰 주고, 앙 그래며 인자 하루 인자 쌀' 한 '디~ 주든디 곡서글 인자 주기야 할, 덜'꼬 올' 수도 이꼬. {인제 돈을 주고, 으 한, 하루 인제 얼마씩 주고, 안 그러면 인제 하루에 인제 쌀을 한 되를 주든지 곡식을 인제 주어야 할 (+ 수도 있고), 데리고 올 수도 있고.}

10341 @ 예저네 그아며 사꾼도 마니 그 하고 해썸미까? {예전에 그러면 샅꾼도 많이 그렇게 하고 했습니까?}

10341 # 그르치. {그렇지.}

10341 @ 인제 이리 여유이쓰, 이리 여유, 다 여유이게 헐는느 사암들 인제 삭 바드러 그 래 할 하며느, 예. {인제 일이 여유가 있어서, 일이 여유, 다 여유 있게 했는 사람들이 인제 샅을 받으러 그 래 할, 하면은, 예.}

10341 # 그르치, 썻'또 하'고, 푸'마시도 하고. {그렇지, 샅도 하고, 품앗이도 하고.}

10341 @ 예저네 그암 주'로 곡'서'그로 해'썸미까? {예전에 그럼 주로 곡식으로 했습니까?}

10341 # 그리온 몽'능' 기 급 제예'일' 문'제다 보'잉께네 곡'서'그로 마이 해썸. {그리고 먹 는 것이 급하고, 제일 문제다 보니까 곡식으로 많이 했지.}

10341 # 우리들도 하루 점:두'루' 가서 버리타자기라고 해주'마 버리 함 말 바다 오고. {우 리도 하루가 저물도록 가서 보리타작이라고 해주면 보리 한 말을 받아 오고.}

10341 # 나'락 페 지른 나'락 함' 말 바다 오고, 그 래 마~:이 해따 카이. {벼를 패서 주면 벼를 한 말을 받아 오고,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니까.}

10341 @ 어, 하루 종일 해 주고예? {어, 하루 종일 해 주고도요?}

10341 # 음, 으. {음, 응.}

10341 @ 그은데 인제 이 보토 머 푸마시나 떠느 노부 그 일꾼 안 썸미까, 노부, 농 한다 함미까? {그런데 인제 이 보통 뭐 품앗이나 또는 농, 그 일꾼을 안 썸니까, 농, 농한다고 함 니까?}

10341 # 으. {응.}

10341 @ 농? {농?}

10341 # 열치, 녀'한다 카지. {옳지, 농한다고 하지.}

10341 @ 농 하며너 어 보통 아침 머씨에 시작함미까, 이른? {농을 하면은 어 보통 몇 시 에 시작합니까, 일은?}

10341 @ 머 모내기가통 거 여름가들 때 보며느? {뭐 모내기같은 것 여름갈을 때 보면은?}

10341 # 그'를 썸게 보:통 지끄므로 바서는 아치마래 한 농사처'레 가마 지끔 한 여'서'씨부 터 시작지. {그럴 적에 보통 지금으로 봐서는 아침 전에 한 농사철에 가면 지금 한 여섯시 부터 시작하지.}

10341 @ 거 노꾼도 그때 옴미까? {그 농꾼도 그때 옴니까?}

10341 # 그르치. {그렇지.}

10341 @ 아, 그암 그때부터 해가. {아, 그럼 그때부터 (+ 일을)해가지고.}

10341 # 음, 어두어둡하만 나온다 카이. {음, 어둑어둑하면 나온다고하니까.}

10341 @ 어두울 때까지. {어두울 때까지.}

10341 @ 거며 여서씨 데가 오며느 아치'른' 어뜨에 보'니니 지베서 머'꼬 옴미까, 앙 감며 느 일 하는 지베서 줌미까? {그러면 여섯시가 되어서 오면 아침은 어떻게 본인이 집에서 먹 고 옴니까, 안 그러면은 일을 하는 집에서 줌니까?}

10341 # 일: 한' 지'베서 주, 해 조. {일을 하는 집에서 주지, 해 주지.}

10341 @ 아침도예? {아침도요.}

10341 # 예. {예.}

10341 # 아'침도 해'주고 저'녁또 해'주고. {아침도 해주고 저녁도 해주고.}

10341 @ 저느, 아침 가면 전심. {저녁, 아침 그러면 전심.}

10341 # 저녁. {저녁.}

10341 @ 저녁. {저녁.}

10341 # 시 끼 다: 해'조야 데. {세 끼 다 해주어야 돼.}

10341 @ 시 때 다 해주고. {세 때를 다 해주고.}

10341 # 새:참'또 해조에 데고. {새참도 해줘야 되고.}

10341 @ 참도 해줍니까? {새참도 해줍니까?}

10341 # 음. {응.}

10341 @ 거 새차믄 주로 머 어떠케 언제 언제 해줍니까? {그 새참은 주로 뭐 어떻게 언제, 언제 해줍니까?}

10341 # 머 가, 감자'나' 쌀'마 주고, 새차믄. {뭐 감자, 감자나 삶아 주고, 새참은.}

10341 # 인젠 아침 쪼'레너 한 열시 넘'기 데'마 새참 무꼬, 지늬 켜 한 세시나 네시나 데가 인제 새참무꼬. {인제 아침 나절(+오전)에는 한 열시 넘기 되면 새참을 먹고, 오후에는 한 세시나 네시나 되어서 인제 새참을 먹고.}

10341 @ 겼 버 그럼머느 아침, 전심, 저녁기 쉰 뜨 시 싰 떠 시 끼 주고. {그럼,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이 셋, 세 때, 세 끼를 주고.}

10341 # 두 새참 두 분 주고. {두 새참, 두 번을 주고.}

10341 @ 새참 두 분 주고 그래 한다, 그지예? {새참을 두 번을 주고 그렇게 한다, 그렇지요?}

10341 # 음. {응.}

10341 @ 새차믄 주오 머 감자나 머 남자들 가튼? {새참은 주로 뭐 감자나 뭐 남자들 같은?}

10341 # 그르치, 어, 머 감'자'나 국시'기'나 머 그으눔 머 그르키 끼리 데고. {그러지, 어, 뭐 감자나 국수나 그런 뭐, 그렇게 끓여 주고.}

10341 @ 머 국쉬나 이릉그또? {뭐, 국수나 이런 것도?}

10341 # 그르치, 국시도 해조이 데고. {그렇지, 국수도 해주어야 되고.}

10341 @ 앙 그암 머 술도 줘미까? {안 그럼 뭐 술도 줘니까?}

10341 # 음, 술도 한 잔 슴, 인자 여 지베서 마꺄리 해가주 한 잔 스 \*\*\*. {음, 술도 한 잔씩 인제 여기 집에서 막꺄리를 해가지고 한 잔씩 \*\*\*.}

10341 @ 겼 남자들가통 남자들 눅하며느 마꺄리도 마이 다머야 데게따, 그지예? {그럼 남자들같은 남자들 눅을 하면은 막꺄리도 많이 답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10341 # 그르치. {그렇지.}

10341 @ 농사철 데머느 그지예? {농사철이 되면 그렇지요?}

10341 # 마자, 마이 다므야 데지. {맞아, 많이 답아야 되지.}

10341 @ 그거 다머 가주고눔 머 거이 해나 나코 그래 해야? {그것을 답아 가지고는 뭐 거의 해 놓고 그렇게 해야?}

10341 # 그르치. {그렇지.}

10341 @ 그라며 주로 이 동네는 그거 새차든 국시나 머 감자나 그러습니까? {그러면 주로 이 동네는 그것 새차는 국수나 뭐 감자나,}

10341 # 감자나. {감자나.}

10341 @ 그러썸미까? {그렇습니까?}

10341 # 으에. {응.}

10341 # 수 린자아:: 쭈는 사라브 술도 주고. {술 인제:: 주는 사람은 술도 주고.}

10341 @ 술도 주고예? {술도 주고요?}

10341 # 응. {응.}

## 1.4. 의생활

### 1.4.1. 목화, 삼, 모시의 재배와 길쌈

10401 @ 요즈미야 주로 오슨 주로 사' 아 넘습미까? {요즘이야 주로 옷은 주로 사서 안 입습니까?}

10401 # 그르'치'이'. {그렇지.}

10401 @ 끝치예? {그렇지요?}

10401 @ 예저네는 온 해이블러러 며느는 점부 사다 이번 능 거쁘다는 지베서? {예전에는 옷 해입으려면은 전부 사다 입었는 것보다는 집에서?}

10401 # 지'비서 땡'그'라 가 이버찌. {집에서 만들어서 입었지.}

10401 @ 그르치예? {그렇지요?}

10401 # 으. {응.}

10401 @ 그엄 보통 지베서 땡'그러 임는데, 주'로 머 어'땡 거' 마이' 함미까? {그럼 보통 집에서 만들어 입는데, 주로 뭐 어떤 것을 많이 합니까?}

10401 # 모카. {목화.}

10401 @ 모카예? {목화요?}

10401 # 어, 며영'이라 카지 명:. {응, 명이라고 말하지, 명.}

10401 @ 거든 이 명은 보통: 그그 재배하미까? {그러면 이 명은 보통 그것은 재배합니까?}

10401 # 바'테 가'서 승'고 가주고, 바테 재배하지. {밭에 가서 심어 가지고, 밭에서 재배하지.}

10401 @ 그암 명은 보통 어, 언제 보통 머 거 씨'뿌'림미까, 머:함'미까? {그럼 명은 보통 어, 언제 보통 뭐 그것은 씨를 뿌립니까, 무엇을 합니까?}

10401 # 씨'를 뿌'리지. {씨를 뿌리지.}

10401 # 노'늘 가란, 바'틀 가라 다라 가주고 인자 씨'를 뿌'리마 고이 올라 와 가주 인자 다래가 여러 가주고 다래꼬치 피' 가주고 그래 인잔 다래가 데 가주고 고 누미 인자 이'그마 요레 딱: 바르지지. {논을 갈아, 밭을 가라서 고루어 가지고 인제 씨를 뿌리면 그것이 올라 와 가지고 인제 다래가 열어 가지고 다래꽃이 피어 가지고 그래서 인제 다래가 되어 가지고



그 놈이 인제 익으면 이렇게 딱 벌어지지.)

10401 # 바르지마 인자 아네 이제 보:항 기 인자 막 볼머 급 바찌? {벌어지면 인제 안에 이제 뽀오얀 것이 인제 막 보면, 그것 봤지?}

10401 @ 예예. {예, 예.}

10401 # 이, 고'래 나오지. {이것이, 그렇게 나오지.}

10401 # 고'룽 그 가따 인잔 따'다가 인자 씨에'기' 인자 아'서 가주고 또 인잔 타'알'로 가주고 막 타'그던, 그 노믈. {그런 것을 인제 따다가 인제 췌기에 인제 앓아 가지고 또 인제 활로(+ "타'알'로"는 실수발화임.) 가지고 막 타거던, 그 놈을.}

10401 # 미영을, 미영소믈 막 타마 인자 그 느미 막 첨부 모가네 으시 타 푸러진다 카이끼네. {명을, 명숨을 그냥 타면 인제 그 놈이 그냥 전부 망을 없이 다 풀어진다고 말하니까.}

10401 # 활로 가주 이 타'아'며느. {활로 가지고 이것을 타면은.}

10401 # 그래 가주 인잔 아네 인날 수지께~'이가 여 가주고 인자 마'라 가주고 그래 인잔 여 만'숙 마'러 가주고 인자 그르 물리다 데고 인자 미영을 인잔 자찌. {그래 가지고 인제 안에, 인제 수수깁을 넣어 가지고 인제 말아 가지고 그래 인제 이만큼 말아 가지고 인제 그것을 물레에다 대고 인제 명을 인제 잣지.}

10401 # 자'스며 인자 시'이'리 인자 뽀'피 나온다 카이끼네. {잣으면 인제 실이 인제 뽀혀 나온다고 하니까.}

10401 @ 아, 미영시리. {아, 명실이.}

10401 # 올치. {옳지.}

10401 # 뽀'피 나오만 또 뽀'브 가주고 그눔 마이 가주고 인자 오'슬 인자. {뽀혀 나오면 또 뽀아 가지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인제 옷을 인제.}

10401 @ 아, 째미까? {아, 째니까?}

10401 # 올치. {옳지.}

10401 # 그르 인녀 비'를 나려 가주고, 그그또 가정이 여'런 수::시까'지라 카이끼네. {그렇게 인제 베를 날아 가지고, 그것도 과정이 여러 수십 가지라고 말하니까.}

10401 @ 그어며느 이으 인제 명은 인제 아까 이야기 하신데, 명은 검 언제쯤, 미영씨는 언제 뿌림미까? {그러면은 이 인제 명은 인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은 그럼 언제쯤에 명씨는 언제 뿌림니까?}

10401 # 보메. {봄에.}

10401 @ 한 지금쯤 뿌림미까? {한 지금쯤 뿌림니까?}

10401 # 어, 지'끔. {응, 지금.}

10401 # 지금 안'주 쪼'미 더 일'쪽찌. {지금 아직 좀 더 일찍지.}

10401 # 안주 인제 안주가 한 한 달보 이따가 인자 한 사월' 마'리나 오월 초'나 인제 이래 뿌'리지. {아직 인제 아직까지 한, 한 달포 있다가 인제 한 사월 말이나 오월 초나 인제 이렇게 뿌리지.}

10401 @ 검 미영시도 어 쫘 마니 그'라'야 뎡미까, 앙 그럼며느? {그럼, 명 씨도 어 쫘 많이 가꾸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10401 # 그'라'애지. {가꾸어야지.}

10401 # 마~'이 그 테비루 마'이 해'야데. {많이 그 퇴비로 많이 해야 되지.}

10401 @ 아, 그남 마 시 뿌르노며 테능' 게' 아이고예? {아, 그냥 막 씨를 뿌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10401 # 아:이지. {아니지.}

10401 # 거 막 거르'를 씨'르 내 가주고 마'이 거'라'야 텐다 카이께네. {거 막 거름을, 씨를 내어 가지고 많이 가꾸어야 된다고 하니까.}

10402 @ 거며 예저네 어르신 명은 마니 하셔씀미까? {그러면 예전에 어르신께서 명은 많이 하셨습니까?}

10402 # 마'이 해'찌, 그'야. {많이 했지, 그것이야.}

10402 @ 재배를? {재배를?}

10402 # 마'이 해 가주고 인자 일변놈드리 와 가주고 미영 그 노를 또 멜카 은자 공출, 빼' 뜨러 가뿌고, 우리드른 막 그 누무 쪼맨스' 승케' 가주고 하마 그 념들 와서 물리도 빼서 가 다리나뿌고, 고통을 마:이 당해찌. {많이 해 가지고 인제 일본놈들이 와 가지고 명, 그것을 또 말끔이 인제 공출출하여,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들은 그냥 그것을 조금씩 숨겨 가지고 하면, 그 놈들이 와서 물레도 빼앗아 가서 달아나 버리고, 고통을 많이 당했지.}

10402 @ 검 아까 인제 어르신 대충 이야기 해주셨는데 다래' 그 인자 안 생'김미까, 그지 예? {그럼 아까 인제 어르신께서 대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래, 그것이 인제 안 생깁니까. 그렇지요.}

10402 # 이래 거 처메 인자 꼬치 피 가주고 꼬치 지만 다래가 생기 가주고. {이렇게 그 처음에 인제 꽃이 피어 가지고 꽃이 지면 다래가 생겨 가지고.}

10402 # 다래 고서 인자 다, 다래가 이그마 인자 고에 딱: 바레'지마 인자 고서 인자 미영 이 인자 고 인자 나온다 카이, 쏘미 나온다 카이께네. {다래 거기서 인제 다, 다래가 익으면 인제 그것이 딱 벌어지면 인제 거기서 인제 명이 인제 거기서 인자 나온다고 하니까, 숨이 나온다고 하니까.}

10402 @ 고 씨 빼능 그어늬? {그 씨를 빼는 것은?}

10402 # 세'에'기. {씨아.}

10402 @ 썩기라 그러심미까? {씨아라고 그랬습니까?}

10402 # 썩기가 인자 이래: 해:가주고 미' 꼬타'리 고'누를 가 여'마 인자 고 거스근 나가뿌고 인자 씨느 인자 아프로 혈러뿌고, 명은 저존 나아 씨로 한테. {씨아가 인제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꼬투리 그것을 가지고 넣으면 인제 그것은 나가 버리고 인제 씨는 앞으로 혈러 버리고, 명은 저 쪽으로 나가 씨로 한 곳에.}

10402 @ 아, 고 세'기' 고'오는 딱 하며느 잘 빠짐미까? {아, 그 씨아 그것은 그냥 하면 잘 (+ 씨가)빠집니까?}

10402 # 올치, 예. {옳지, 예.}

10402 # 씨느 아프로 빠지고 인자 고는 디에 나오고. {씨는 앞으로 빠지고 인제 그것은 뒤에서 나오고.}

10402 @ 어 그르가 인자 아까 할 가주고? {어, 그래 가지고 인제 아까 (+ 말했던)활을 가지고?}

10402 # 올치, 할 가주 인자 그래 가주곤 노카가주고 막 할' 가'주고 타:'며는 고누미 침:: 부 인자 이래 잔잔::하~'이 인자 부서져 가이고 망 그지 생겨따 카이끄네. {옳지, 활을 가지고 인제 그래 가지고 녹여 가지고 막 활을 가지고 타면은 그것이 전부 인제 이렇게 자잘하게 인제 부서져 가지고 망같이 생겼다고 하니까.}

10402 @ 그'르가 인'자 아까 물레'로? {그래 가지고 인제 아까 (+ 말했던)물레로?}

10402 # 올'치. {옳지.}

10402 @ 으 자서 가주고? {으, 잣어 가지고?}

10402 # 자서 가주 시를 뽀'부 가주고 또 그 먼. {잣어 가지고 씨를 뽀아 가지고 또 그 뽀.}

10402 @ 그엄 베텔에 올리야 뽀미까? {그럼 베텔에 올리야 뽀니까?}

10402 # 그뜨, 그꼬정 올'라'갈라 카만 이 안주 여러:: 경노'르 결:쳐야 데지. {그, 거기까지 올라 가려고 하면 이 아직 여러 경로를 거쳐야 되지.}

10402 @ 아 그암므 실. {아, 그러면 실.}

10402 # 그'래 가'주곤 또 인잔 돌구'세 해 가주고 그 노를 또 비'에다가 인자 비'를 나'라 가주고, 시:를, 푸'를 인자 솔로 가주고 풀' 매' 가주고 그르 도투마'리다 인자 가며 가주고, 그리 비틀' 우'에 언'저 가주고 인자 이~'에때라꼬 인능 거 그골 가주고 인자 잉'에때 해 가주고 곧 바'디꾸영 잔잔:한 구여~'이 인데 그 따다 인제 끼이 가주고 그래 인자 비를 짜는 데. {그래 가지고 또 인제 돌궂에 해 가지고 그 놈을 또 베텔에다가 인제 베텔 날아 가지고, 실을, 풀을 인제 솔로 가지고 풀을 먹여 가지고 그래서 도투마리에 인제 감아 가지고, 그렇게 베텔 위에 얹어 가지고 인제 잉앗대라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인제 잉앗대를 해 가지고 그 바디 구멍, 자잘한 구멍이 인제 그 곳에 인제 꿰어 가지고 그렇게 인제 베텔 짜는 데.}

10402 # 금 머 가'정이야 음 수:수'하지. {음, 뽀 과정이야 음, 수뽀지.}

10402 @ 그담 민제 물레'에서 쳐으메 인자 그거 시를 가'마가주고 거기서 또 베텔, 시를 난'다고 해썬미까? {그 다음에 인제 물레에서 처음에 인제 그것 실을 감아 가지고 거기서 또 베텔, 실을 난다고 했습니까?}

10402 # 그르치. {그렇지.}

10402 @ 나는 것, 그으느 어떠케 함미까? {나, 그것은 어떻게 함니까?}

10402 # 건 저::어 먼데서 인자 이래 인자 죽:: 인자 뽀'브 가주고, 또 날::고, 또 날고 이래 가주고 인자. {그건 저기 먼 곳에서 인제 이래 인제 쭈욱 인제 뽀아 가지고, 또 날고, 또 날고 이래 가지고 인제.}

10402 @ 거 그람 길따:라이 마당이나 이런데서 하썬네예? {그 그럼 길다랗게 마당이나 이런 곳에서 하썬네요?}

10402 # 올치, 올치, 너린 데서, 진: 데'서 해야 데지. {올지, 올지, 넓은 곳에서, 긴 곳에서 해야 되지.}

10402 # 그래 가주고 인자 그으또' 암 피'구로 인자 막 풀 미' 가주고 그래 인자 불 피'아 가주고 말랴' 가미서 도투마리 인자 감능 기라꼬. {그래 가지고 인제 그 또 안 피게 인제 막 풀을 먹여 가지고 그래 인제 불을 피워 가지고 말려 가면서 도투마리에 인제 감는 것이 라고.}

10402 @ 푸릉 그암 머 어뽀 풀? {풀은 그럼 뽀 어떤 풀?}

10402 # 머 이름 머 버'리푸르나 아무 끼나 가지고 인제 뽀그러 가주고 뽀끼 가주고 그 인제 보풀'보풀'항 거 그기 업썬지고 뽀딱하라고 인자 미'기능기라. {뽀 이런 뽀 보리풀이나 아무 것이나 가지고 인제 만들어 가지고 벗겨 가지고 그 인제 보풀보풀한 것, 그것이 없어 지고 뽀끈거리게 하려고 인제 먹이는 것이라.}

10402 @ 아, 풀 인제 그르나마 시리 피능 게 어꼬 그냥 뽀끈하썬네예? {아, 풀을 인제 그렇게 해 놓으면 실이 피는 것이 없고 그냥 뽀끈거리썬네요?}

10402 # 그르치. {그렇지.}

10402 # 그래 가주고 인자 도투마'리 가'므 가'주고 거 인잔 바'디라 카'능 기 이'썸. {그래 가지고 인제 도투마리에 감아 가지고 그 인제 바디라고 하는 것이 있어.}

10402 # 바디 고 잔잔:한 고따'다'가' 인자 올 하나을 다 끼'야데. {바디 거기 자잘한 거기에다가 인제 올 하나하나를 모두 꿰어야 돼.}

10402 @ 어 실 그검 실뭉치에 여러' 개 이'쓰야 테겐네예? {어, 실 그것은 실뭉치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10402 # 거'어'는 인자 다 인제 이래 나'라노'마 인자 여'러 개 이'짜나, 시'리, 그르치? {그것은 인제 다 인제 이렇게 날아 놓으면 인제 여러 개 있잖아, 실이 그렇지?}

10402 # 그래 인자 고'노무 가 끼 가주고 인자 인자 또 그거 인자 바디헨는 북빠'디가 이썸, 북빠디. {그래 인제 그것을 가지고 꿰어 가지고 인제, 인제 또 그것 인제 바디를 만든 북바디가 있어, 북바디가.}

10402 # 북빠'디 그 따'다 여'어 가지고 이자 이래 인자 이래 여어 부'글 인제 이리 여'가' 툭 타고, 이히히 하마 독 짜고, 한 올 한 올 그래 모이 가주고 인자 이른 은자 비가 데능기라고. {북바디 그것에 넣어 가지고 이제 이래 인제 이래 넣어서 북을 인제 넣어 가지고 툭 짜고, 이렇게 하면 툭 짜고, 한 올 한 올 그렇게 모여 가지고 인제 이런 인제 베가 되는 것이라고.}

10402 @ 명비가 텐다 그지예? {명베가 된다 그렇지요?}

10402 # 으. {응.}

10402 @ 아 검 그르가 인젼 명'비가통 경우 인제 그래 해노으며느 어 한 아까 실 나'를 때는, 나능 거또 마니 걸림미까, 시가니? {아, 그럼 그래 가지고 인제 명베같은 경우 인제 그래 해 놓으면 어 한, 아까 실 나를 때는, 나는 것도 많이 걸림니까, 시간이지?}

10402 @ 실 랄 때도? {실을 날 때도?}

10402 # 그르치. {그렇지.}

10402 # 나'러 가'주고. {날어 가지고.}

10402 @ 그으또 함 머 메칠 걸림미까? {그것도 한 뭉, 몇 일이나 걸림니까?}

10402 # 비 메'가'주고 하마 그그또 인자 세워리 마'이 걸리'지. {베를 매어 가지고 벌써 그것도 인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

10402 @ 그엄 비 맬' 때는 베틀 그르가 인제 짤 때늬 보통 주로 누가 여자드리 찜미? {그럼 베를 맬 때는 베틀에 걸어 가지고 인제 짤 때는 보통 주로 누가, 여자들이 찜니까?}

10402 # 여:자'드리 짜애지. {여자들이 짜지.}

10402 # 보토 인'자 여:자'드리 마이 짜지. {보통 인제 여자들이 많이 짜지.}

10402 # 남자드른 비거통어 짜지도 양코, 그릉 건, 남'자드르 옌나레 채'려볼 여'어도 업서꼬, 나무하고 다룽 거 허기 때미노 그눔 머 채리 보도 모대. {남자들은 비같은 것 짜지도 않고, 그런 것은 남자들은 옛날에 차려서 볼 여가도 없었고 나무를 하고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차려 보지도 못해.}

10402 @ 검 여자드른 그 주로 겨'우레 찜미까? {그럼 여자들은 그 주로 겨울에 찜니까?}

10402 # 겨'으레도 짜'고 그으눔 머 수시'로 그으눔 머 \*\*\*\* 어. {겨울에도 짜고 그것은 뭐 수시로 그것을 뭐 \*\*\*\* 어.}

10402 @ 그럼 주로 바'메 짜'겐네예? {그럼 주로 밤에 짜겠네요?}

10402 # 그르치, 바'물로도 짜고 머 그으는 머 시가~'이 업찌. {그렇지, 밤에도 짜고 뭐 그것은 뭐 시간이 (+ 따로)없지.}

10402 @ 그어므 그릉 거 잘 짜는 사라믄 얼므 머 짜며느 얼'마나 째'미까, 하루에? {그럼 그런 것을 잘 짜는 사람은 얼마 뭘 짜면은, 얼마나 째니까, 하루에?}

10402 # 잘 째' 사'람 하루 열 짜. {잘 짜는 사람은 하루에 열 자.}

10402 # 열 짜라 카능 기 요만한데, {열 자라고 하는 것이 요만한데,}

10402 # 하루에 열 짜를 째다 카이께네. {하루에 열 자르르 째다고 하니까.}

10402 # 왜 한 올 띠도오, 한 올 뜨다리 가주고 이래 일짜로 카마 송당'히 만타 카'이께네. {어 한 올을 띠도 한 올 두드려 가지고 이래 열 자(+ "열 자"를 "일 자"로 발음을 실수한 것임.)라고 하면 상당히(+ "송당히"로 잘못 발음하고 있음.) 많다고 하니까.}

10402 @ 그어므 예저네는 시꾸가 마느니까 그그또. {그럼 예전에는 식구가 많으니까 그것도.}

10402 # 마~'이 해'애'데지. {많이 해야되지.}

10402 @ 마이 해야텐다, 그지예?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요?}

10402 # 그르치. {그렇지.}

10402 @ 명도 마이 시머야 텔 뽀만 아니라 그거 베짜능 건. {명도 많이 심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 베를 짜는 것도.}

10402 # 고구느 인자 미영'비'라고 인자 예를 끼'얼레도 해 이꼬 인자 삼'비라 카능 기 또 이짜나, 삼비. {그것은 인제 명베라고 인제 이것을 겨울에도 했고 인제 삼베라고 하는 것이 또 있잖아, 삼베.}

10403 @ 삼비는 머, 그도 심습미? {삼베는 뭐, 그것도 심습니까?}

10403 # 삼비는 인자 사므 사믄 인자, 사믄 은자 노'네다 시'머 가주고. {삼베는 인제 삼을, 삼을 인제 삼을 인제 논에다 심어 가지고.}

10403 @ 그도 심습미까? {그것도 심습니까?}

10403 # 그르치. {그렇지.}

10403 # 씨'를 인자 뿌'르가, 소부름:하'이 뿌'리 노마 그 누미 인잔 지'그메 대마초라 카능 그기데, 사'미라 카'이께네. {씨를 인제 뿌려 가, 수북하게 뿌려 놓으면 그놈이 인제 지금의 대마초라고 하는 그것인데, 삼이라고 하니까.}

10403 # 우리 손'지피 한:: 집숙 크'그더, 그이. {우리 삼짚이 한정 없이 크거던, 그것이.}

10403 # 뿌'리 노고 인저 마:이' 거러 노마. {(+ 씨를)뿌려 놓고 인제 많이 가꾸어 놓으면.}

10404 # 그 누믄 자 키야 가주고 이퍼리 그 누믄 가따 은잔 이른 대나무 가주곤, 대나무 카를 땡그러 가주고 매카 추 내베리고. {그 놈을 잘 키워 가지고 잎이 그 놈을 가져다 인제 이런 대나무 가기고 대나무 칼을 만들어 가지고 말끔이 추려 내베리고.}

10404 # 아, 이파'리를 쓰능 게 아이고? {아, 잎을 쓰는 것이 아니고?}

10403 # 올치, 추' 내베'리뿌고. {옳지, 추려 내베리고.}

10403 # 그래 인잔 비 가주고 인잔 이래 한::단씩 무까 가지고, 상'꼬시라 카'는 데가 이씨, 상꾼. {그래 인제 베어 가지고 인제 이렇게 한 단씩 묶어 가지고, "상꽃(+ 삼을 고는 즉, 삶는 곳을 가리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상꽃.}

10403 @ 그'는 머 함? {그것은 뭐 하는 곳?}

10403 # 삼: 째:는 데. {삼을 삶는데.}

10403 # 사'믄 인자 그어 인잔 구'디~'이르 이래 파가주고 그따아다가 막 자갈로 가따가 소복::하~'이 해노코 인냐 이른 상꼬 돌르 가따 인데 엉글엉글하~'이 해노코, 미'테다 인잔 부'를 가'따가 사'홀 승, 나'을 덕, 하루 뽀, 한 나즈로 인자 부를 떼'에데. {삼을 인제 거기에

인제 구덩이를 이래 파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자갈을 가져다가 수북하게 해 놓고 인제 이런 상꽃 돌을 가져다 이런 곳에 엉글엉글하게(+ 틈이 보이도록) 해 놓고, 밑에 인제 불을 가져다가 사흘씩, 나흘씩, 하룻밤, 한 나절로 인제 불을 때야 돼.}

10403 # 부'를 때'마 인자 그 누미 자:꾸 때다 보며 자가리 인자 벌:거~이 달'차나. {불을 때면 인제 그것이 계속 때다 보면 자갈이 인제 벌쫄게 달잖아.}

10403 # 다'르며는 그 인 자가를 미'야고 디에 인자 이래: 해가주 삼 재'엔 데가 또 따로 이썬. {(+ 자갈이)달면 그 이 자갈을 (+ 흙으로)메우고 뒤에 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삼을 쌓는 곡이 또 따로 있어.}

10403 # 이르메꼬 요'게는 은자 그 자갈 다'룽 게 이꼬. {이처럼 여기는 인제 그 자갈이 달은 것이 있고.}

10403 # 이래 가주 요'기다 그 누물 소복::하~'이 재노'코 그따다가 인자 무를 가따 드르분 '는 기라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다 그 흙을 수북하게 쌓아 놓고 거기에다가 인제 물을 가져다 들어붓는 것이라고.}

10403 @ 사 위에다가예? {삼 위에다가요?}

10403 # 아니야. {아니야.}

10403 @ 아, 그 돌? {아, 그 돌?}

10403 # 올치. {옳지.}

10403 # 돌 인 데다 물 여'머 그 흙 지:미 얼'매나 마이 나노? {돌이 있는 데에다 물을 넣으면 그 흙 김이 얼마나 많이 나니?}

10403 @ 으 다'라 이스이께네예? {으, 달아 있으니까요?}

10403 # 그얼치. {그렇지.}

10403 # 막 우'에다 더퍼 가주고 인자 구영'을 뜯'부 가주고 그어따 무를 주우마, 그 은자 당꾸'여~'어 디에 응글형글한 드로 지:미 막' 나가그'등. {막 위에다 덮어 가지고 인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물을 주면, 그 인제 담 구멍 뒤에 엉글엉글한 데로 김이 막 나가더던.}

10403 # 지미 나가'주고 인자 거 지:메 인자 디에 텐'는 사미 인자 이'그 뿌'능기라. {김이 나가지고 인제 그 김에 인제 뒤에 대어둔 삼이 인제 익어버리는 것이라.}

10403 # 이 누::러이 이로. {이 누렇게 이래.}

10403 # 자:꾸' 인녀 부'르 원'청 마~이 때 놓께네. {계속 인제 불을 엄청 많이 때어 놓았으니까.}

10403 # 이만치 너른 데다가 마 자:꾸' 물 주마 난제 가선 지미 막' 동'실'리거치 나가이께네. {이만큼 넓은 곳에다가 그냥 자주 물을 주면 나중에 가서는 김이 막 독시루같이 나가니까.}

10403 # 으 나가주 인자 그래 응가::이 인자 바가지오 인자 이'그따 시푸면 사물 은저 꼬자버 내자나. {으 (+ 김이)나가지고 인제 그렇게 어느 정도 인제 봐서 인제 익었다 싶으면 삼을 인제 꺼집어 내잖아.}

10403 # 꼬자바 내' 가'주고 그 인자 이그시마 인잔 활딱 활따 인자 껌디'이'가 비끼진다 아이가. {꼬집어 내어 가지고 그 인제 익었으면 인제 홀라당 홀라당 인제 껌질이 벗겨지지 않겠니?}

10403 @ 그 소느로 비킴미까? {그것은 손으로 벗깁니까?}

10403 # 그르치. {그렇지.}

10403 @ 양 감머 그거또 머 도구가 이십미까? {안 그러면 그것도 뭐 도구가 있습니까?}

10403 # 그 인자 씨'그야, 소느로 빼끼야지. {그 인제 식어야 손으로 벗기야지.}

10403 @ 점부 다 소느로 다 비껴냄미까? {전부 다 손으로 다 벗깁니까?}

10403 # 올치, 으. {옳지, 응.}

10403 # 소느로 빼끼 가주고 인자 그어는 한 거느 인자 찌'르피라 그래지, 지'릅. {손으로 벗겨 가지고 인제 그것은 한 것은 인제 겨릅이라 그랬지, 겨릅.}

10403 @ 한 지릅네? {한 겨릅요?}

10403 # 지'릅. {겨릅.}

10403 # 지'르비고. {겨릅이고.}

10403 # 꺾떼'기느, 삼꺾떼기 그 누무 가주고 인자 너'르 말랴가주고 고느 하, 하'눌 하'눌 요래 소느로 찌:가지고. {꺾질은, 삼의 꺾질은 그 놈을 가지고 인제 넣어 말려가지고 그것은 하, 한올 한올 이렇게 손으로 찢어가지고.}

10403 @ 아, 그. {아, 그.}

10403 # 찌애테지, 그케. {찢어야 되지, 그렇게.}

10403 # 찌:가'주고 인잔 다리'다'가 인자 그 놈 이'서야 데거든 또, 동가리 동가리. {찢어 가지고 인제 다리에다가 인제 그 놈을 이어야 되거던 또, 동강이, 동강이를.}

10403 @ 아, 찢전능 거또 이래 부치애? {아, 찢었는 것도 이렇게 붙여야?}

10403 # 그래야 이제 시, 그르치, 시리 데지. {그래야 이제 실, 그렇지 실이 되지.}

10403 # 그르 가주고 인저 고 노물 가따가 그거또 내나 인자 해가주고 인자 물레'에'다가 막 자스며는 고게 인자 뽕'뽕' 틀'리'니까 시리텐다 아이가. {그래 가지고 인제 그것으르 가져다가 그것도 한 가지로 인제 해가지고 인제 물레에다가 막 자으며는 그것이 인제 뽕글뽕글 틀어지니까 실이 되지 않니?}

10403 # 시:레 데능 그 누문도 은잔 돌고 물리'어 인잔 이래 해가주고 그른 비를 나'라가주고 고 또 인자 해. {실에 대어둔 그 것도 인제 돌고 물레에 인제 이래 해가지고 그런 베를 날아 가지고 그 또 인자 해}

10403 # 그르 그름는도 아까 고 맹크로 비를 매가주고, 글 그그또 막 푸'를 가따가 망 미'기가주고, 미테느 상:당'기불 내간 피아노코 인자 말랴' 가민서 또 강꼬, 말랴가민성 감능기라. {그런, 그런 것도 아까 그것처럼 베를 매어 가지고 그, 그것도 막 풀을 가져다가 막 먹여 가지고, 밑에는 쉼 등겨불을 내어서 피워놓고 인제 말려 가면서 또 감고 말리면서 감는 것이라.}

10403 # 그래 가주구 음, 음 다 저 가정어 한:정도 엄찌. {그래 가지고 음, 음 다 저기 과정이 끝이 없지.}

10403 @ 삼베, 삼베 그거느 그림며느 그 다 꺾떼기 버깁며느 그걸 핑자이 고게 짜? {삼베, 삼베 그것은 그러면은 그 다 꺾지를 벗기면은 그것을 핑장이 곱게 찢어야}

10403 # 그르치, 인자 고꺾, 잘'기 찌면 비가 고꼬, 인자 좀 뚜그끼 찌며는 비가 인제 굴꼬. {그렇지, 인제 곱게 잘게 찢으면 베가 곱고, 인제 좀 두껍게 찢으면은 베가 인제 굵고.}

10403 # 그느 인자' 그기 인자 새가 이써서 열'세비니 머 여'서'세비니, 다서세비니 인제 그 이 세'가 이따 카이께네. {그것은 인제 거기 인제 새가 있어서 열 새 베니, 여섯 새 베니 인제 그 이 새가 있다고 하니까.}

10403 # 그 인저 굴:끼 쨌능 거느 새'가 이그는 다아썰다, 한 열썰 데능 거느 아'주 고끼 쨌능 거느 한 열 새 데고, 칸조로마~이 이능 고는 열새고. {그 인제 곱게 찢는 것은 새가

이 것은 다섯 새다, 한 열새 되는 것은 아주 곱게 찢은 것은 한 열 새가 되고, 가지런하게 있는 것은 열 새고.}

10403 @ 그르िका, 아, 인제 새으 수짜가 노플수로 더 가늘게? {그러니까, 아, 인제 새의 숫자가 높을수록 더 가늘게?}

10403 # 그르치. {그렇지.}

10403 # 고보우 오시 고바'지지. {고운 옷이 고워지지.}

10403 @ 삼베도 이 시리 가느니까? {삼베도 이 실이 가느니까?}

10403 # 올치, 음. {옳지, 음.}

10403 # 념'뽀'뽀'항 거느 막 념'뜨'뜨'하이 우에 해핵 포가 나고 그래치. {넓적 넓적한 것은 막 넓적 넓적하게 위에 확 표시가 나고 그렇지.}

10403 @ 거먼 인제 쯔 고급 쯔 조은 삼벤 그근 찢려며는 아주 고께 해에텐다, 그지예? {그러면 인제 쯔 고급 쯔 좋은 삼베 그것을 찢려면 아주 곱게 해야 된다, 그렇지요?}

10403 # 고::께 해'에데, 그르치. {곱게 해야 되지, 그렇지.}

10403 @ 그리고 삼 그그또 그르케 마 마니 재배해게썸미다, 예저네? {그리고 삼 그것도 그렇게 많이 재배를 했겠습니까, 예전에?}

10403 # 마~'이 해'찌. {많이 했지.}

10403 # 금 머 금방 떠'러저뽀다 카'이께네. {그 뭐 금방 떨어져 버린다고 하니까.}

10403 # 그 눅 먼 땀'나고 여 등지게 해가주고 저어' 사:네 가서 풀 가따안 지고 오면 머 금방 머 떠'러저뽀. {그 것 뭐 땀이 나고 여기 등지게를 해가지고 저기 산에 가서 풀을 가져다 지고 오면 뭐 금방 뭐 떨어져 버려.}

10403 @ 아 삼베가 쯔 야'캄미까? {아, 삼베가 쯔 약합니까?}

10403 # 야카지. {약하지.}

10403 @ 그러며 삼베가튼 경우 아까 인제 명을 거르가 실 만들드시 가문 삼베 인제 점부 더 여기서 인제 하 놀 하 놀. {그러면 삼베같은 경우는 아까 인제 명을 그렇게 해서 실을 만들 듯이 그러면 삼베를 인제 전부 더 여기서 인제 한 올, 한 올.}

10403 # 파'레서 인자 이시, 이시아 데'지지. {팔에서 인제 이어, 이어야 되지.}

10403 # 이기 가이고 고 테. {이어 가지고 그 때.}

10403 @ 거 이슬 때 우째 이기슴미까? {그 이슬 때는 어떻게 이었습니까?}

10403 # 요래 또개' 가주고. {이렇게 쪼개어 가지고.}

10403 @ 아감 무꿈미까? {아 그러면 뭍습니까?}

10403 # 이'브로 또개' 가주고 그르가 은자 요고 쨍'가가주고 싹 이래 비비마 고 누미 이스 진다 카이께네. {입으로 쪼개어 가지고 그래서 인제 요것을 끼워 가지고 모두 이렇게 비비면 그것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10403 @ 비'벼가주고. {비벼 가지고.}

10403 # 올치. {옳지.}

10403 # 사르 데가 이리 막 이래 비비, 여 싹'리 막 불:그이 다르쓰 이래따카이. {살에다 대어 가지고 이렇게 막 이래 비벼, 여기 살이 막 붉게 달아서 이랬다고 하니까.}

10403 @ 아 여 떡 계속 이을라 그러며 여 떡. {아, 여 뭐 계속 이르려고 그러면 여 뭐.}

10403 # 그띠, 어. {그러치, 응.}

10403 # 머 사르다 할'라카이 한:정'업찌. {뭐 살에다 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지.}

10403 @ 아, 사례 안 하고 안 함. {아, 살에 안 하고 안 하면.}



10403 # 사'르, 사'레 해애 데지. {살애, 살애 해야 되지.}

10403 @ 안 하며 그이 또 잘 안 이서집미꺼? {안 하면 그것이 또 잘 안 이어집니까?}

10403 # 안 테에'지. {안 되지.}

10403 @ 아따 그엄 무 엔나레 그어 여자 어름 머 어머니들 이르게 하고 나며 삼 함므 상꼬 나면 머. {아 그럼 뭐 옛날에 그 여자 어른 뭐 어머니들 이렇게 하고 나면 삼을 한 번 삼고 나면 뭐.}

10403 # 여겜 머 다 머 우독빠가지가 테고 머. {여기 뭐 다 머 우독(愚禿)바가지가 되고 뭐.}

10403 @ 삼 삼능 그이 대단한 이리:네? {삼을 삼는 것이 대단한 일이네?}

10403 # 대단한 이리지. {대단한 일이지.}

10403 # 참: 머 말 모단 이리지. {참, 뭐 말을 못할 일이지.}

10403 # 그그를 가따 어때다 가따 예'에'기라꼬 할라 카마 자꾸 하~이 엄능 기지. {그것을 가져다 어디다 가져다 얘기라고 하려고 하면 자꾸 끝이 없는 것이지.}

10403 # 그만침 고상 마~이 해따 카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10403 @ 사뭇 그암 주로 여르메 그래 해썸미까? {삼은 그럼 주로 여름에 그렇게 했습니까?}

10403 # 그르치. {그렇지.}

10403 # 여르메 인자 모숭'고 노코 нама 인자 삼무지헬라고. {여름에 인제 모를 심어 놓고 나면 인제 삼을 많이 할려고.}

10403 @ 한참 자라썸 때 인자 찢라 와가지고. {한참 자랐을 때 인제 잘라 와 가지고.}

10403 # 그르치. {그렇지.}

10403 # 으어 그 저네 내 창'꼬시라 카'능 거 그긴'데, 콤 머이 자갈르 가따가 그랜 너 함분해 노마 또 은잔 꼬자브 내'가주고 인자 자갈마 여'야 테그더. {어, 그 전에 내가 창끗이라고 말한 것 거기인데, 그 뭐 자갈을 가져다가 그렇게 넣어 한 번 해 놓으면 또 인제 꺼집어 내어 가지고 인제 자갈만 넣어야 되거든.}

10403 # 허'키 마~이 드가마 부리 안 달:기때미네, 또 자갈마 여'어 가주고 또 이트르나 사흐르나 또 불 때 가지고 이카' 가주고, 또 그래 이카'고 이카'고 그래찌. {흙이 많이 들어 가면 불이 안 달기 때문에 또 자갈만 넣어 가지고 또 이틀이나 사흘로나 또 불을 때어 가지고 익혀 가지고, 또 그래 익히고 익히고 그랬지.}

10403 @ 겜 사'뭇 그어므 여르메 마니 그근 이 사'뭇는 모'야'이지예? {그럼 삼을 그러면 여름에 많이 그걸 이 삼았는 모양이지요?}

10403 # 그르치, 마~이 해야 데지. {그렇지, 많이 해야 되지.}

10403 # 그'얼무 가주고 주'우로 오슬 해 가 이꼬 사르씨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로 옷을 해 가지고 입고 살았으니까.}

10403 # 여르물로느 그 누무 가주고 이꼬 사라시이께네. {여름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입고 살았으니까.}

10403 @ 겜 어딘 그 삼 아까 삼 삼능 고 상'꼬시라 그래썸미까? {그럼 어디 그 삼 아까 삼을 삼는 곳 "상끗"이라 그랬습니까?}

10403 # 음. {응.}

10403 # 삼 삼는 데. {삼을 삼는 데.}

10403 @ 그렇 그 삼'꼬승 그라든 집쩍마다 하나씩 다 이썸? {그럼 그 "상끗"은 그러면 집

집마다 하났기 다 있어?}

10403 # 아:이, 그거는 이 동네빌'로. {아니, 그것은 이 동네 별로.}

10403 # 이냐 꺼르 마::'이 데그드, 수북:하'이, 혼차 고래 하능 게 아이고. {인제 그러면 많이 되거던, 수북하게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403 # 동네 사래미 다' 한'테 한다 카이께네. {동네 사람이 다 한 곳에 한다고 하니까.}

10403 @ 자기 삼 찌가 와가주고? {자기 삼을 찌서 가지고 와 가지고?}

10403 # 음, 음. {음, 응.}

10403 @ 그람 머 삼 그걸 찌가주고 삼 사물 때느 또 머 함 메칠 삼께따, 그지예? {그러면 뭐 삼 그것을 찌 가지고 삼을 삶을 때는 또 뭐 한 며칠 삶겠다, 그렇지요?}

10403 # 음. {응.}

10403 # 마저, 미'칠'스 삼마. {맞아, 며칠씩 삶아.}

10403 @ 거르 그 사르가 아 나또 나며느 금방 삼 이어야 템미까, 찌즈가즈고? {그럼 그 삶아서 아, 놓아 두면은 금방 삼을 이어야 됩니까, 찌어가지고?}

10403 # 그거는 남 먼 찬차이 인자 이 이찌. {그것은 나 뭐 천천히 인제 잇, 잇지.}

10403 @ 나: 나도. {놓아 놓아두어도.}

10403 # 머 일런 내 하능 기고 머. {뭐 일년 내내 하는 것이고 뭐.}

10403 @ 나: 나도. {놓아 두어도.}

10403 @ 그냐~ 나나도 살머 노으며느 머 변하고 그러진 안하능 모야이네예? {그냥 놓아 두어도 삶아 놓으면은 뭐 변하고 그러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10403 # 으, 그근 엄찌, 마랴 나뿐찌. {응, 그것은 없지, 말려 놓아 버리지.}

10403 # 말랴가 뽐무'리 추게' 가주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말려서 또 물에 축여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지.}

10403 @ 아, 함 부 살마 노은 거느 인자 무'레 또 다시 추게'며느 또. {아, 한 번 삶아 놓은 것은 인제 물에 또 다시 축이면 또.}

10403 # 또 부'르지고 인제. {또 분게 되고 인제.}

10403 @ 거머 그 삼 인자 아까 삼 이래가 이'어가'주고 그거느 아까 명? {그러면 그 삼을 인제 아까 삼을 이래 가지고 이어 가지고 그것은 아까 명?}

10403 # 예 그 이어가주고 그거또 인자 물:리'로 인잔 도:능 기 이:시'가 인자 도리 도르마 요기 인자 갱기'지자네 요래. {예, 그것을 이어 가지고 그것도 인제 물레로 인제 도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인제 도로 돌면 여기에 인제 감겨지잖아, 이렇게.}

10403 # 이래 도르마. {이래 돌면.}

10403 # 갱기'지마 그글 시를 땡'그능 기라고. {감기면 그것을 실을 만든 것이라고.}

10403 @ 그으또 머 아까 명실 날 드시 이어또 날미까? {그것도 뭐 아까 명실을 날 듯이 이것도 날립니까?}

10403 # 나'르야지. {날아야지.}

10403 @ 이어느 어떤 시그로 나릅미까, 이어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날립니까, 이것은?}

10403 # 그으또 내나 명시캉 가치 인자 쭈욱 나'르가'주고 지단::하~'이 나'라 가'주고 그르 도투'마'리다 올'리가주고. {그것도 한 가지로 명실과 같이 인제 쭈욱 날아 가지고 길다랗게 날아 가지고 그것을 도투마리에 올려 가지고.}

10403 @ 그 그또 풀 함미까? {그 것도 풀을 합니까?}

10403 # 그그또 풀해애. {그것도 풀을 해야지.}

10403 # 그음 풀 더 마~'이 해애 데. {그럼 풀을 더 많이 해야 돼.}

10403 @ 삼베느예? {삼베는요?}

10403 # 음. {응.}

10403 @ 아, 거'치러서 그러썬미까? {아, 거칠어서 그렇습니까?}

10403 # 그르치. {그렇지.}

10403 # 머 암 피'구로 매:뜩하~'이 테따 카이. {뭐 안 필 정도로 매끄럽게 되었다고 하니까.}

10403 @ 그람 풀 머길 때느 보통 머 보리푸리나 이렇 그까 한다 하셔썬미까? {그럼 풀을 먹일 때는 보통 뭐 보리풀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10403 # 그르치. {그렇지.}

10403 @ 그암 이래가 머기 노'으며느 또 막. {그럼 이래 가지고 (+풀을)먹여 놓으면 또 막.}

10403 # 그 소'오'리라꼬 이썬, 소'울'. {그 술이라고 있어, 술.}

10403 # 술 그때 쟁피'로 가주고 헐는데 소리 가지 인자 빼'끼지. {술은 그때 창포를 가지고 했는데 술을 가지고 인제 벗기지.}

10403 # 고 인 빼'끼간 풀 바리고 뜯 바리고 하마 인자 미테 지풀, 그 신:당'기 뿔' 피아 노마 인자 뜨뜯::하~'이 해가 마 마리마 인자 도투마'리 데가 여여 강꼬, 또 머슬 이래 한서 데 가주고 또 강꼬, 이거 어데 감는데. {그 이 벗겨가 풀을 바르고 또 바르고 하면 인제 밑에 짚을, 그 쉰 등겨 불을 피워 놓으면 인제 따뜻하게 해서 그냥 말리면 인제 두투마리를 대어서 여기에 감고, 또 무엇을 이래 하나씩 대어 가지고 또 감고, 이것을 어디에 감는데.}

10403 @ 아, 그암 미테 이거 그 머미까, 풀 잘 암 마리니까 마리도록 미테 실 나르난는 데다가 부를 쫄 당기뿌를 해나안다? {아, 그럼 밑에 이 것 그 무엇입니까, 풀이 잘 안 마르니까 마르도록 밑에 실 날아서 놓은 데에다가 불을 쯤, 등겨불을 해 놓았다?}

10403 # 으, 부'를 가뜰, 그'르치, 당기'뿌'를 가따 해나이데. {으, 불을 가져다, 그렇지, 등겨불을 가져다 해 놓아야 돼.}

10403 # 그래양 뜨뜯:하~'이 마리지. {그래야 따뜻하게 마르지.}

10403 @ 검 풀 그어느 함 분마 매기마 텨미까? {그럼 풀 그것은 한 번만 먹이면 됩니까?}

10403 # 멀 함 봄 미'기' 가'주고 그래. {멀 한 번 먹여 가지고 그래.}

10403 @ 그래가 인자 또 다시 아까 인제 그거 명비 짜드시 이그또? {그래서 인제 또 다시 아까 인제 그것도 명베를 짜듯이 이것도?}

10403 # 음, 그 도투마'리 비트'레 올'리 가주고 인자 고르익, 고고또 인자 끼'이' 가주고 그래 툇딱 차고 이리 여 가 요 툇 차고, 또 이쭈리 여간 이쭈르 소늘 바꼬 툇 차고, 이쭈서는 여래가 또 인 여를 툇 차고 이래지. {음, 그 도투마리 베틀에 올려 가지고 인제 그래, 그것도 인제 꿰어 가지고 그래 툇딱 차고, 이리로 넣어 가지고 여기에 툇 차고, 또 이 쪽으로 넣어서 이 쪽으로 손을 받고 툇 차고, 이 쪽에서는 넣어서 또 여기를 툇 차고 그랬지.}

10403 @ 그 인제 짜능 거는 명비 짜능 거나 그거 짜능 거 거이 가따, 그지예? {그 인제 짜는 것은 명베를 짜는 것이나 그것 짜는 것이 거의 같다, 그렇지요?}

10403 # 그르치, 짜능 거나 항 가지지. {그렇지, 짜는 것은 한 가지지.}

10404 @ 그른데 그 음, 아까 인제 그 어르신 그 삼 아니썬미까, 그지예? {그런데 그 음, 아까 인제 그 어르신 그 삼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10404 # 음. {응.}

10404 @ 삼베 짤 때, 어 삼 그거 머 쟈:고, 또 삼 베고, 삼 이거 홀'꼬 할 때느 도구눔 머 다른 도군 업씀미까? {삼베를 짤 때, 어 삼 그것을 뭐 찢고, 또 삼베 그것, 삼 이것을 훑고 할 때는 도구는 뭐 다른 도구는 없습니까?}

10404 @ 토'비나? {툽이나?}

10404 # 송:고'시라꼬 이써써. {송곳이라고 있었어.}

10404 # 어 이'래이'래 가주온 씨르 가주 바아 가주고, 그 인잔 후'울'터야 인자 가:지가 버르지거덩. {응, 이래 이래 가지고 쇠를 가지고 박아 가지고, 그 인제 훑어야 인제 가지가 벌어지거던.}

10404 # 그기' 이'써써. {그것이 있었어.}

10404 @ 흑심 토비나 이릉 거눔 머 씸미까? {흑시 톱이나 이릉 것은 뭐 씹니까?}

10404 @ 이르 먹 이레 소네 지고 톱하느 그어눔 머 하능 검미까? {이렇게 뭐 이레 손에 쥐고 톱하는 그런 뭐 하는 겁니까?}

10404 # 토비 그이 내:나 그 하'능 기라 캥'께네. {툽이 그것이 마찬가지로 그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10404 # 삼. {삼.}

10404 @ 아, 삼 홀릉 검미까? {아, 삼을 훑는 겁니까?}

10404 # 올'치, 삼' 이래 테'고, 낭'게 테고 인자 이래 홀'꼬 홀릉 기 인자. {올지, 삼을 이래 대고 나무에 대고 인제 이렇게 훑고 훑는 것이 인제.}

10404 @ 그 그 어'떠케 홀'른지 함 이야기 하 쫘' 해주'이'소 거. {그, 그 어떻게 홀'른지 한번 이야기를 한 번 좀 해주십시오, 그것.}

10404 # 사'물 무'레 추'까 가'주고 이랜 그 인잔 삼 홀'른 거기 머신 덩기리라 카나 머 그 글 가주고 인자 홀'투마, 사'미 인자 가재~'이가 잔잔::하~이 난다 카이께네. {삼을 물에 축여 가지고 이렇게 그 인제 삼을 훑는 것이 무슨 "덩기리"라고 하나 뭐 그것을 가지고 인제 훑으마, 삼이 인제 가지가 자잘하게 난다고 하니까.}

10404 # 고오 까'주고 인자' 가쟁'이으 쟈가주고 요'쪼'꺼 이스가주고 비비 가주고 인자 그래 한다카이. {그것 가지고 인제 가지를 찢어가지고 이쪽 것을 이어가지고 비벼 가지고 인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10404 # 이래 지나라꼬 이쓰. {이렇게 "진지"라고 있어.}

10404 # 이래 상' 꼬'너 가주고 양쪼'게 거'러 논능 기 또 이'따 카'이께네. {이렇게 삼을 끊어 가지고 양 쪽에 걸어 놓는 것이 또 있다고 하니까.}

10404 # 이래 낭'글 따'드머 가주고 이래가 여 걸고 여 거러 가주고 고'래 하낙 스 하나 스 인자 빼 가주고 다리:다 비'비고, 또 비'비고 이래. {이렇게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 걸고 여기에 걸어 가지고 그래 하나씩 하났기 인제 빼 가지고 다리에다 비비고, 또 비비고 이렇게 해.}

10404 # 진'지'라 카능 긴데, 진'지:. {진지라고 하는 것인데, 진지.}

10404 @ 진지는 머미까, 거느? {진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0404 # 진'지'가 내:나 상 거눔 거 거이 진지때'라꼬 이써. {진지가 마찬가지로 삼을 거는 것 그것이 진짓대라고 있어.}

10404 @ 아, 진지때 해나 나코 이래 가 계속 이래 감습미까? {아, 진짓대를 해 놓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감습니까?}

10404 # 거'러노'코. {걸어 놓고.}

10404 # 사'므로 가'따가 인제 이래 거리노코. {삼으로 가져다가 인제 이렇게 걸어놓고.}

10404 # 하'낙'스 상'거르 빼'가'주고 인자 하능기라고. {하나씩 삼을 빼어 가지고 인제 하는 것이라고.}

10404 # 글 빼'가'주오 인자' 인'는다 카'이께네. {그것을 빼 가지고 인제 잇는다고 하니까.}

10404 @ 아, 진지때 거러나 나나코예? {아, 진짓대에 걸어서 놓고요?}

10404 @ 음. {응.}

10404 @ 그 그러며 그 지'릅때 그어늬 머 인자 내빼'림'미까? {그, 그러면 그 겨릅대 그것은 뭐 인제 내어버립니까?}

10404 # 지'릅때 그어르 그어뜨 까주오 장바으또 하고, 그 내나 니비 미기는 데, 장바해가지고 써. {겨릅대 그것을 그것도 가지고 잠반도 하고, 그 마찬가지로 누에 먹이는 데, 잠반을 해가지고 써.}

10404 @ 그거 머 여꺼 가주고. {그것을 뭐 엮어 가지고.}

10404 # 올치. {옳지.}

10404 # 거 여'꺼 가주고 인자 그거 장'바또 하고. {거 엮어 가지고 인제 그것은 잠반도 하고.}

10404 # 자'리도 맹글고, 그 노므 가주고. {자리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10404 # 여르메 저거 바다'아' 피' 놀 자리또 맹글고 그래따 카이. {여름에 저 것을 마당에 펴 놓을 자리도 만들고 그랬고 하니까.}

10404 @ 아, 그 또 버겨가 해나나머 맨질맨질해가 켜찬타, 그지예? {아, 그 또 벗겨서 해서 놓으면 매끄러워서 괜찮다, 그렇지요?}

10404 # 음, 으. {음, 응.}

10404 # 지'꾸거트머 베긴'다꼬 가'지도 아늘킨테, 그때는 그 누무 가'주고 깔고 누부자고 이래따 카이, 새벽까지. {지금같으면 베긴다고 가지도 않을 것인데, 그 때는 그것을 가지고 깔고 누워 자고 이랬다고 하니까, 새벽까지.}

10404 @ 그 해나 마~이 베기'미'까? {그것을 해 놓으면 많이 배기납까?}

10404 # 베기'이지. {배기이지.}

10404 # 그 낭'킨테 그 암 베길 테가 인는가. {그 나무인데 그 안 배길 턱이 있겠는가.}

10404 @ 이런 대자리하고 어 하고느 영: 다름미'까? {이런 대자리하고 어, 그것하고는 영 다릅니까?}

10404 # 그르치'이. {그렇지.}

10404 # 동글동글하~이 이런테. {동글동글하게 이런테.}

10404 @ 거르 애들 머 그른테 잘 안, 아는 누께썸데이? {그럼 애들 뭐 그런 곳에 잘 안, 안 눕겠습니다.}

10404 # 옴:나'레는 머 그래도 누'피찌 머. {옛날에는 뭐 그래도 눕혔지 뭐.}

10404 # 누옴'머 머 우알 수 업능 기지. {눕히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10404 @ 그 아까 인제 그 삼'물 그 고께 췌'느냐, 쫘' 굴'께 췌'느냐에 따라서 제일 구'웅' 거 다서췌라 해썸미까? {그 아까 인제 그 삼을 그 곱게 찢었느냐, 좀 곱게 찢었느냐에 따라서 제일 곱은 것은 다섯 새라 했습니까?}

10404 # 다'서췌. {다섯 새.}

10404 # 녁, 녁:세도 이서꼬. {냉, 녁 새도 있었고.}

10404 @ 아, 너어, 녁세도 이꼬, 다스세도 이꼬? {아, 녁, 녁 새도 있고, 다섯 새도 있고?}

10404 # 여'어세도 이꼬. {여섯 새도 있고.}

10404 @ 여'어세도 이꼬. {여섯 새도 있고.}

10404 # 일'곱'세도 이꼬. {일곱 새도 있고.}

10404 # 고'오'는 인잔 잘기 데이서 인자 미췌미췌 인자 구'부~이 텐다 카이께네. {그것은 인제 자잘하게 되어서 인제 그 구분이 된다고 하니까.}

10404 @ 겹 제일 머 고께 하능 거느? {그럼 제일 뭐 곱게 하는 것은?}

10404 # 한 여'덜세나 아'웁세나, 아 그래데고. {한 여'덜 새나 아'웁 새나, 아 그렇게 되고.}

10404 @ 그아무 그러케 하, 여'더세, 아'웁세 헤어 가주고 고운 삼베 나오느 그른 주로 어떤 때, 누가 입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 여'덜 새, 아'웁 새를 해 가지고 고운 삼베가 나오는 것은 주로 어떤 때, 누가 입습니까?}

10404 # 고고느 은자 고:붕' 거 고고느 은자 가격또 비싸고. {그것은 인제 곱은 것 그것은 인제 가격도 비싸고.}

10404 @ 거 팜미까, 그아며. {그 팜니까, 그러면.}

10404 # 어, 팔지. {응, 팔지.}

10404 # 엔나레느 질삼 매가주 열'매나 파능 거 마이 파러찌. {옛날에는 질삼을 매어 가지고 얼마나 파는 것이, 많이 팔았지.}

10404 @ 그엄 고'고'느 주로 인제 그 고'웁 거 거, 고'웁 거느 해가주오 팔고, 인제 쫘:궁 굴근 오른 지비서 이꼬? {그럼 그것은 주로 인제 그 고'웁 것, 고'웁 것은 해 가지고 팔고, 인제 조금 굵은 울은 집에서 입고?}

10404 # 입, 이, 이꼬. {입, 입, 입고.}

10404 @ 그 삼베도 마니 해가주오 파런네, 그지예? {그 삼베도 많이 해 가지고 팔았네, 그러지요?}

10404 # 파'러찌. {팔았지.}

10404 # 미'영'도 해가 팔'고 머 암 파능 거 업찌. {명도 해 가지고 팔고 뭐 안 파는 것이 없지.}

10404 # 시장 가마 인제 거느 팔지. {시장을 가면 인제 그것은 팔지.}

10404 # 함 피'레 열매췌, 함 피'레 그저네 수물, 수'무 자가 함 피'린'데, 한' 자가 지금 미'센찌데노? 요 정도 텔끼라. {한 필에 얼마씩, 한 필에 그 전에 스물, 스무 자가 한 필인데, 한 자가 지금 몇 센티 되지? 요 정도 될 것이라.}

10404 @ 어, 그라므 함' 필' 그'래 가주가'며느 예저네 거 쫘 어뜨해 짜리니 이레 마~이 줌'미까? {어, 그럼 한 필 그'래 가지고 가면 예전에 그 쫘 어떻게 쌀이나 이렇게 많이 줬니까?}

10404 # 미'입' 몸 빠다찌, 머. [몇 일 못 받았지, 뭐.}

10404 @ 이'를 하능 건 데:게' 마는데 그지예? {일을 하는 것은 아주 많은데 그렇지요?}

10404 # 그르치. {그렇지.}

10405 @ 그웁 여, 이' 동네 흑씨 그거 삼:' 말고 머 모시'나 이릉 거느 해췌미까? {그럼 여기, 이 동네 흑씨 그것 삼' 말고 뭐 모시'나 이런 것은 했습니까?}

10405 # 모시'느 안 해췌. {모시는 안 했어.}

10405 # 모신' 안동으로 저리 가만 모시 마이 해꼬. {모시는 안동으로 저리로 가면 모시를 많이 했고.}

10405 # 모시, 모신 안 해쓰. {모시, 모시는 안 했어.}

10405 @ 여기는 모시는 전혀 아 헨네, 그지예? {여기는 모시는 전혀 안 했네, 그렇지요?}

10405 # 아여, 아해, 아 모시느 안 해꼬. {아, 여기 안 해, 아 모시는 안 했고.}

10405 @ 주로 삼베마? {주로 삼베만?}

10405 # 그르치. {그렇지.}

10405 @ 그 다메 어르신 머 어 삼베할 때느. {그 다음에 어르신 뭐 어 삼베할 때는.}

10405 # 모시도 내:나' 그으랑 항 가지라 카이께네. {모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랑 한 가지라고 하니까.}

10405 @ 거이 비슨하지예? {거의 비슷하지요?}

10405 # 예. {예.}

10405 # 모시도 내나' 그은 월'리라 카이. {모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라고 하니까.}

10405 # 고 인자 고:바'서 은자 모시고 그래서 그르치. {그 인제 고워서 인제 모시고 그래서 그렇지.}

10405 # 월'리느 항' 가지, 똑' 항 가지라 카이께. {원리는 한 가지, 똑 한 가지라고 하니까.}

10405 @ 모시가 영: 곱썰미까? {모시가 영 곱습니까?}

10405 # 곱:찌. {곱지.}

10405 @ 삼베뽀다느? {삼베보다느?}

10405 # 으. {응.}

10405 # 삼베느 쫘 누'리고, 모시느 쫘 히'고. {삼베는 쫘 누렁고, 모시는 쫘 회고.}

10405 # 고 인자 모시르 아' 해'바시니까네 거 때'를 가따 어:찌'기 생'기따 카'능 결, 예 모른다 카'이께네. {그 인제 모시를 안 해보았으니까 그 때를 가져다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걸을, 예 모른다고 하니까.}

10405 @ 그어면 인제 어르신 그 인접 베틀', 비'틀 아 이썰미까? {그러면 인제 어르신 그 인제 베틀, 베틀이 안 있습니까?}

10405 # 음. {응.}

10408 @ 어 이 이게 인제 네저네 우리 함 봄. {어, 이, 이게 인제 예전에 우리 한 번.}

10408 # 물:리'고 이'그느 썰'에'기'고. {물레고, 이것은 "씨아"이고.}

10408 # 이기 인자 미영' 아'시마 요리 흐리'고. {이것이 인제 명을 앓으면 이리로 흐리고.}

10408 # 고 데 나오고. {거기 되어 나오고.}

10408 @ 이 이게 인제 새애'기'지예? {이, 이게 인제 "씨아"이지.}

10408 # 그르치. {그렇지.}

10408 @ 이 세'기가'튼 경우에 이으또 이르미? {이 씨아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름이?}

10408 # 이래 돌리 가주고 인자.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인제.}

10408 @ 이르미 쫘 이썰미까? {이름이 쫘 있습니까?}

10408 # 씨기, 썰기라. {씨아, 씨아라.}

10408 @ 다 근냥 이제 세'김'미까? {다 근냥 이제 씨아입니까?}

10408 # 올치. {옳지.}

10408 # 요 총'이 썰'이고, 요고는 세'기' 기'고, 이으너 손자'비고, 이그느 안질'께고, 이느 몸토~'이고, 이거 꾸부~이 데는데, 요구 썰'기'기. {요 총이 썰'기고, 이것은 "씨아 귀"고, 이것은 손잡이고, 이것은 "안장"이고, 이것은 몸통이고, 이것이 구분이 되는데, 이것이 "씨아귀".}

10408 # 요'오 돌'리마 인제 요따'다 미영'을 가따 미'기머는 씨'느 올로 흐르고, 고 은자 시:른 올론 나오. {요기를 돌리면 인제 여기에다 명을 가져다 먹이면 씨는 여기로 흐르고, 그 인제 실은 여기로 나오고.}

10408 @ 소페 절로 흘러 가고예? {숨은 절로 흘러 가고요?}

10408 # 그르치. {그렇지.}

10408 # 썩:썩: 그르'미셔. {썩썩 그러면서.}

10408 # 요 낭'글 가따 이 기'를 맹'그'러 가주고 쓰. {이 나무를 가져다 이 귀를 만들어 가지고 씨.}

10408 # 이눔 물레고. {이것은 물레고.}

10408 @ 물레'지예? {물레지요?}

10408 @ 이거느 이르미 쯔 이썸미까? {이것은 이름이 쯔 있습니까?}

10408 # 물레'라 카'잉께네. {물레라고 하나까.}

10408 @ 예, 이어 머, 아니 여 하나하나 이르미 이썸미까? {예, 이 어 뭐, 아니 여기 하나 하나에 이름이 있습니까?}

10408 # 물레, 요고는 머신 \*\*\*\*\*. {물레, 이것은 무엇이 \*\*\*\*\*.}

10408 # 이찌, 이거또. {있지, 이것도.}

10408 @ 이 요 요고 머 꼬 아주 쪼뽀한 그거 머 세? {이 여, 여기 뭐 그 아주 뽀족한 그것 뭐?}

10408 # 에에에, 요 욱 가'락', 가라'글 썩 인자 그 가라글 해가주고, 하능 긴테, 기'무리. {에에에, 요 이것은 가락, 가락을 쇠로 인제 그 가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기물이.}

10408 @ 이 기무리? {이 기물이?}

10408 # 올치. {옳지.}

10408 @ 이느 가라기고? {이것은 가락이고?}

10408 # 어. {응.}

10408 # 이그눔 물레'고. {이것은 물레고.}

10408 @ 물레 이렇 거또 주로 여자가 돌'려썸미까? {물레 이런 것도 주로 여자가 돌렸습니까?}

10408 # 그르치. {그렇지.}

10408 @ 음 머 혹씨 비트::른 머 이름 머 아시능 거 이썸미까? {음, 뭐 혹씨 베틀은 뭐 이름 뭐 아시는 것 있습니까?}

10408 # 비트른 인자 용에도 이꼬, 고 머 여러 가지 이찌, 비트리. {베틀은 인제 "용두머리"도 있고,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베틀이.}

10408 @ 비틀도 종뉴가 머 만치예? {베틀도 종류가 뭐 많지요?}

10408 # 그르치, 이르미 만치. {그렇지, 이름이 많지.}

10408 @ 이름 드러가능 게? {이름이 드러가는 것이?}

10408 # 비틀까레 먼, 그 어디 비'든테. {베틀가리 뭐, 그 어디에 보이던테.}

10408 @ 그엄 비틀'가통 경우에 인제 어르신니 그 머 지, 비틀'도 저 지베서 만듭미까? {그럼 베틀같은 경우에 인제 어르신이 그 뭐지, 베틀도 저 집에서 만듭니까?}

10408 # 그르치. {그렇지.}

10408 @ 아, 이기 인자 도투마리에 머 감는다고예? {아, 이것이 인제 도투마리에 뭐 감는다고요.}



10408 # 여: 따'아'다가 인자 그엌, 시:를 감는다 그래이께네. {여기에다가 인제 그 실을 감는다고 그랬으니까.}

10408 # 미'영시리나 삼'비나 맹주'나 이거 인자 다: 인자 미테 불 피아노코, 꼬'제~이그통 이릉 어 항 개쓰 나아 가미스 이제 불 라 가주고, 감능 기 이기 인자 도투마'리라 카이, 도투마'리. {명실이나 삼베나 명주나 이것 인제 다 인제 밑에 불을 피워 놓고, 꼬챙이같은 이른 것 한 개씩 놓아가면서 이제 불을 놓아 가지고, 감는 것 이것이 인제 도투마리라고 하니까, 도투마리.}

10408 @ 이 음똥 지베서 만듭니까? {이것도 집에서 만듭니까?}

10408 # 이이또 지베서 맹글 수 이쎄. {이것도 집에서 만들 수 있어.}

10408 @ 이음 무슨 나무로 만듭니까, 쫄 스? {이것은 무슨 나무로 만듭니까, 쫄?}

10408 # 프 큰 나무만 다 데지. {뭘 큰 나무만 다 되지.}

10408 @ 소나무나 이릉 그까 만? {소나무나 이런 것 가지고만?}

10408 # 얼치, 예. {웁치, 응.}

10408 @ 그 다음 이어 비틀' 아임니까, 그지예? {그 다음 이것이 베틀 아닙니까, 그렇지요?}

10408 # 예. {예.}

10408 @ 비틀 인제. {베틀 인제.}

10408 # 이거느 처처 응, 이 응이, 이 응'에때. { 이것은 저저 잉, 이 잉, 잉앗대.}

10408 @ 아, 응에때. {아, 잉앗대}

10408 # 예. {예.}

10408 # 이기느 비틀가'래. {이것은 베틀가로대.}

10408 # 이그느 안질'깨. {이것은 앓을게(+안장).}

10408 # 이근 인자 발로 거러가주고 한테 이기 이 잉어'때. {이것은 인제 바로 걸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이 신나무.}

10408 @ 어, 잉어때? {어, 신나무?}

10408 # 예. {예.}

10408 # 이거느 베'틀'다리:. {이것은 베틀다리.}

10408 # 네 여여 바리 니: 개라꼬 비틀까'래 사형제는 카능긴데 여깁 노래 나와 이쎄. {네, 여기 발이 네 개라고 베틀가리 사형제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노래가 나와 있어.}

10408 @ 검 머 이걸, 어 여느 인자 도툼마'리 언'저가. {그럼, 뭘 이것을, 어 여기는 인제 도투마리에 얹어 가지고.}

10408 # 그래, 여 도투마'리고. {그래, 여기는 도투마리고.}

10408 # 이그눔 비틀' 인자 다리'. {이것은 베틀 인제 다리.}

10408 # 두 개. {두 개.}

10408 # 이거느 응'에때. {이것은 잉앗대.}

10408 @ 그아며느 인제 여기 인제 양: 여프 부글 인제 지븐. {그러면 인제 여기 인제 양 옆으로 북을 인제 집어.}

10408 # 으, 여가 인제 안즐'깨. {응, 여기가 인제 앓을게.}

10408 # 요 저 이 부'글 인자 열 열'따가 이쥬 소느 여꼬 이 이쥬 소나고, 이쥬 손 여마 이쥬 소느 빼가이 또 역 또 역. {여기 저, 이 북을 인제 넣, 넣었다가 이쪽 손은 넣고 이, 이쪽 손하고 이 쪽 손을 넣으면 이 쪽 손은 빼가지고 또 넣고, 또 넣고.}

10408 # 바다 함 분 놀'리야 인제 여서 버'리진다 카이께네. {받아서 한 번 움직여야 인제 여기서 벌어진다고 하니까.}

10408 # 응'에때가 여 드가가 이시~이께네. {잉앗대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10408 @ 거며 인저 시 베는' 어디 여기 머 어테 묵'찌예? {그러면 인제 실, 베는 어디 여기, 뭐 어디에 묵지요?}

10408 # 허리에? {허리에?}

10408 # 그르치. {그렇지.}

10408 # 허'리에 여'게 인자. {허리에 여기에 인제.}

10408 # 무까' 가'주고 여게 인자 글 자꾸 뜯 이기 질:마 똑 감'꼬, 질:마 또 강'꼬 이랬다. {묵어 가지고 여기에 인제 그걸 자꾸 또 이것이 길면 또 감고, 길면 또 감고 이랬다.}

10408 @ 어 이 여자들 이어 베' 이 모짜느, 잘 모 짜는 사암도 이썸미까? {어, 이 여자들 이 베를 이 못 짜는, 잘 못 짜는 사람도 있습니까?}

10408 # 이찌. {있지.}

10408 # 그 모 짜는 사람도 마네. {그 못 짜는 사람도 많아.}

10408 @ 검 비를, 비 짜는 방부, 비 짜능 거 이그또 기수리네, 그지예? {그럼 베를, 베를 짜는 방법, 베를 짜는 것 이것도 기술이네, 그렇지요?}

10408 # 그르치. {그렇지.}

10408 @ 머 그암 주로 시집 오며느 비 짜'능 기술도 배'우겐네예? {뭐 그럼 주로 시집을 오면은 베를 짜는 기술도 배우겠네요?}

10408 # 배'아지. {배우지.}

10408 # 아, 아'무나 머 모한'다카이, 이또. {아, 아무나 뭐 못 흥나다고 하니까, 이것도.}

10408 @ 그르가 예저네는 머 머느리가통 경우느 업 비 짜능 기수른 쫘 배우느야. {그래서 예전에는 뭐 머느리같은 경우는 음, 베를 짜는 기술은 좀 배워 놓아야.}

10408 # 음, 배'아야 데는데, 모 빼'아느 사암도 혹: 이'따카이. {음,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는 사람도 혹 있었다고 하니까.}

10408 @ 금 머 이거 모 빼'우며느 쪼곰 어 시어머니한테 쫘 조은 소리를 모 뜨께따, 그지예? {그럼 뭐 이것을 못 배우면 조금 으, 시어머니한테 쫘 좋은 소리를 못 들겠다, 그렇지요?}

10408 # 게러, 게'럽찌. {괴롭, 괴롭지.}

10408 @ 예? {예?}

10408 # 게럽찌. {괴롭지.}

10408 @ 에이 이 이게 인자 잉'아뻘미까? {예, 이 이것이 인제 잉앗대입니까?}

10408 @ 이기 잉어뻘미까? {이게 잉앗대입니까?}

10408 # 이진 잉언'때가 아인테. {이건 잉앗대가 아닌테.}

10409 @ 그암면 혹씨 이 무명이나 어 이 또느 삼베나 모시 어, 모시느 안하셔꼬, 예여 이 이렇 경우너 보통 함 피른? {그러면 혹씨 이 무명이나 어 이 또느 삼베나 모시 어, 모시느 안 하셨고, 여기 이, 이런 경우는 보통 한 필은?}

10409 # 수무 자. {스무 자.}

10409 @ 수무 잠미까? {스무 잡니까?}

10409 # 으. {응.}

10410 @ 그머 하루에 한 짤 수 인능 게 아까 한 머 짜 템? {그러면 하루에 한 짤 수 있는

것이 아까 한 몇 자 됩니까?}

10410 # 열 짜야 종도는 닝기 짜아. {열 자 정도는 넘게 짜지.}

10410 @ 열 짜 정도네예? {열 자 정도네요?}

10410 # 으, 열 짜. {응, 열 자.}

10410 # 거 은자 빨'리 짜'마 줌' 마이 짜고, 머 지~:: 먼 밥 해무'꼬 올'라 가'따가 니르 가 따 케'사만 열메' 몬 짜고, 그으느 고정'이' 데가 인능 기 아~이'고. {거 인제 빨리 짜면 좀 많이 짜고, 뭐 천천히 뭐 밥을 해 먹고 올라 갔다가 내려 갔다가 하면 얼마를 못 짜고, 그것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고.}

10410 @ 머 이리 바쁘며는 또. {뭐 일이 바쁘며는 또.}

10410 # 그르치. {그렇지.}

10410 # 참'시 올'라가따 따'만 민'내끼 몬 짜고, 하루 점::드룩 짜'야 한 여남 자 따는 모 예~이드라, 가마 보~이께네. {잠시 올라 갔다가 짜면 몇 날을 못 짜고, 하루가 저물도록 짜야 한 여남은 자를 짜는 모양이더라, 가만히 보니까.}

10410 @ 그 남자늬 베틀 베 짜고 그러지 안 습니까? {그 남자는 베틀에서 베를 짜고 그렇지 않는 습니까?}

10410 # 그언치. {그렇지.}

10410 # 남자늬 아이 그'런 닐 아~: 해'짜. {남자는 아니 그런 일은 아니 했지.}

10410 @ 바깥니리 마느니까예? {바깥 일이 많으니까요?}

10410 # 그르치. {그렇지.}

10410 @ 그음 머 여자드르 바깥닐 업썸며는 머 밤 머으면 그게 이리게따, 그지예? {그럼 뭐, 여자들은 바깥 일 없으면 뭐 밥을 먹으면 그것이 이리겠다, 그렇지요?}

10410 # 맨::날 거, 그르치. {만날 거, 그렇지.}

10410 # 맨날 그거하고 바~아 짜'가주 밥 해무'꼬 프엔날 그그 마 해. {만날 그것하고 방아를 찌어 가지고 밥을 해 먹고 만날 그것만 해.}

10410 @ 어이 여자들도 이리 만타 그제? {어, 이 여자들도 일이 많다 그렇죠?}

10410 # 열라'르, 열라' 노만 또 열라 키'아야 데이. {아기를, 아기를 놓으면 또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10410 @ 이리 만타, 그지예? {일이 많다, 그렇죠?}

10410 # 암, 무지'무지' 하지. {암, 무지무지 하지.}

10410 # 남'자는 아무'또 아이다 카~'이. {남자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10410 # 남자야 먼 저 사~에 가 나무나 해가 오고, 노네 가서 노~이나 갈고 하든 데지마느이, 여자드르 한' 니는 연나레는 한:도 '또 업'써. {남자야 뭐 저 산에 가서 나무나 해 가지고 오고, 논에 가서 논이나 갈고 하면 되지마는, 여자들이 한 일은 옛날에도 한도도 끝도 없었어.}

10410 @ 아침 일찍 이르나서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10410 # 그르치, 열라 키'아야 데지, 바~아 짜'가주오 바 해조에 데지, 새참 해조에 데지, 또 질삼 해야 데지, 그업 머 이르아 카'능 거건 하:: 무진'장 이리 마네써. {그렇지, 아기를 키워야 되지, 방아를 찌어 가지고 밥을 해줘야 되지, 새참을 해줘야 되지, 또 질삼을 해야 되지, 그럼 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진장 일이 많았어.}

10410 # 여자가 이리. {여자가 일이.}

10410 @ 그 새벽부터 머 밤 늦게까지 그지예? {그 새벽부터 뭐 밤 늦게까지 그렇지요?}

10410 # 그르치', 머 머 잠도 자도 모 해고. {그렇지, 뭐, 뭐 잠도 자지도 못 했고.}

10410 # 밤 세'드로 머 지영 무' 쪼'매이 시간 이썬만 또 미'영 자'서야 테지. {밤이 새도록 뭐 저녁 먹고 조금 시간이 잇으면 또 명을 자아야 되지.}

10410 # 삼', 삼베거는 삼' 사'머야 테지. {삼, 삼베 그것은 삼을 삶아야 되지.}

10410 # 그이 차. {그러니, 참.}

10410 @ 그러 머 거이 놀 짜'미 업따, 그지예? {그럼 뭐 거의 놀 틈이 없었다, 그렇지요?}

10410 # 머, 그검 먼 이'애'기라꼬 다 모 한다 카이끼네. {뭐, 그럼 뭐 이야기라고 다 못 한다고 하니까.}

10410 # 어을마나 안딱, 복짜반든지, 그만치 여자드리 이리 마'네써. {얼마나 안타깝고, 복잡하던지, 그만큼 여자들이 일이 많았어.}

10410 @ 그엄머느 보토~ 예저네 머 어 요즘 그어엄므 지금 어르심 부인께서나 이릉 그엄 뵈다 옛날 어르신 어머님께 비하며 혈썬 마. {그러면은 보통 예전에 뭐 어 요즘 그러면 지금 어르신 부인께서나 이런 것보다 옛날 어르신 어머님께 비하면 혈썬 그냐.}

10410 # 오'셴', 오'셰'엔'너 머, 아, 아::무꾸떠 아~이다, 여아드름 머 그저 머 무'꼬 때~이지 머. {요셴, 요새는 뭐, 아, 아무 것도 아니다, 여자들은 뭐 그저 뭐 먹고 땡이지, 뭐.}

10410 # 지끄미야 머엄 뎡 여아드름 머, 지끄미야 여아드름 뎡 어얼'매나 핀'는 지 말도 모데. {지금이야 뭐, 뭐 여자들은 뭐, 지금이야 여자들은 뭐 얼마나 편한지 말도 못해.}

10410 # 금 먼 여서 머또 하는 여자드름 너무 돈도 버러 뎡기러 하지마느 안 하는 사라문 그점 박 꼬 함 때 서네 께 머 반찬 사가 와주고, 서네 쁼 머 시마~이니까. {그럼 뭐 여기서 뭐도 하는 여자들은 남의 돈도 벌러 다니고 하지만은 안 하는 사람은 그저 밥 그것을 할 때, 서너 끼 뭐 반찬을 사가지고 와주고, 서너 끼 하면 뭐 끝나니까.}

10410 @ 그엄 방아가통 경우도 예저네 찌올러머느 매일, 하루에 함 봄마 찍썬미까? {그럼 방아같은 경우도 예전에 찌으려면 매일, 하루에 한 번만 찍습니까?}

10410 # 그으 으으, 그르치, 매:일 찌'야 테지 머. {그 으, 그렇지, 매일 찌어야 되지 뭐.}

10410 @ 하루 머글 망크른 찌 나야 텐네. {하루 먹을 만큼으느 찌어 놓아야 되었는데.}

10410 # 그르치. {그렇지.}

10410 @ 그르이 머 이리 끄닐 나리 업썬다, 그저. {그러니까 뭐 일이 꿇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저.}

10410 # 크, 머 무:지하~'이 마네써. {그, 뭐 무지하게 많았지.}

10409 @ 그암 명, 아까 명주'도 그음머너 수무 자가 함 피림미까? {그럼 명주, 아까 명주도 그러면은 스무 자가 한 필입니까?}

10409 # 그르치. {그렇지.}

10409 # 삼비도 수무 자가 함 피리고. {삼베도 스무 자가 한 필이고.}

10410 @ 그엄머느 명주나 또 무명이나 삼베나 이렇 거 어 그 짜능 거 보며 시가는 다 비스타이 걸림미까? {그러면 명주나 또 무명이나 삼베나 이런 것, 어 그것 짜는 것 보면 시간은 다 비슷하게 걸립니까?}

10410 # 민'주' 고오'는 더 자끼 짜지. {명주 그것은 더 적게 짜지.}

10410 # 더 가늘다 보이썬니. {더 가늘다 보니까.}

10410 # 명주'는 아주 고부께네. {명주는 아주 곱으니까.}

10410 @ 그는 더 하루에 짜는 냥이 더 저께따, 그지예? {그것은 더 하루에 짜는 양이 더 적겠다, 그렇지요?}

10410 # 그르치, 더 적찌. {그러지, 더 적지.}

10410 # 곧 머 한 바다엔 자'아' 짜'만 찰라 케도 부지르이 짜에 데지. {그건 뭐 한 바닥에 잘 짜면 찰려고 해도 부지런이 짜야 되지.}

10410 @ 그 그르감 머 주로 그아임머는 머 계속 인자 머 빈 짜능 거 배오가 잘 짜는 사암므 아주 잘 짜고. {그 그래서 뭐 주로 그러면은 뭐 계속 인제 뭐 베를 짜는 것을 배워 가지고 잘 짜는 사람은 아주 잘 짜고.}

10410 # 그르치에. {그렇지요.}

10410 # 하:로 미'짜 더 탄' 사'라미 이꼬, 다가치 짜는 사라미에도. {하루 몇 자 더 찐 사람이 있고, 다같이 짜는 사람이라도.}

10410 # 점 자:께 짜는 사람도 이꼬, 거 은잔 빨'리 놀'리가 인잔 다대찌 퍼뜩 머억 빨리 놀리마 은잔 마~이 짜고. {좀 작게 짜는 사람도 있고, 그 인제 빨리 움직여서 인제 다 되었지, 얼른 뭐 빨리 움직이면 인제 많이 짜고.}

10410 @ 빠른 사암 머 이으 쟁자이 빠름니까? {빠른 사람은 뭐 이 굉장히 빠릅니까?}

10410 # 을치, 이래 톨 짝 히딱히딱 거툼 먼한 사라므 천처:이 이래 하며 거느, 요고느 한'올 드러가 가주고 하나 푸'꼬, 하나 불'리니까네 그그눔 빨리 짜마 빨리 부'루빼이게네. {웁지, 이래 톨 짝 후딱후딱 같은 뭇한 사람은 천천이 이래 하면 그것은 이것은 한 올 드러가 가지고 하나가 분고, 하나를 불리니까 그것은 빨리 짜면 빨리 불으니까.}

10410 # 그르이. {그러니까.}

10410 @ 그에 그검 머, 그 다음 또 이거 이래 하고 또 이래 쯔'아주고 해야 데지예? {그건 뭐, 그 다음 또 이것 이래 하고 또 이래 조아주고 해 되지요?}

10410 # 그르치. {그렇지.}

10410 @ 바디 까주 그지예? {바디 가지고 그렇지요?}

10410 # 그르치. {그렇지.}

10410 # 발' 가주오 인자 조지하능 기라. {발을 가지고 인제 조절하는 것이라.}

10410 @ 아, 발까 즈 함미까? {아, 발 가지고 합니까?}

10410 # 아, 어, 발가 땡'기뿌'마 쯔'아때갈 또 버러'지고, 땡'기만 또 버'러'지고, 나'아뿌도 버러지고, 땡'기도 버러지고 요래 데가이. {아, 응, 발 가지고 당겨버리면 잉앗대가 또 벌어지고, 당기면 또 벌어지고, 놓아 버려도 벌어지고, 당겨도 벌어지고 이렇게 되어가니까.}

10410 @ 이럼 발뜨 하고 손하고 이거 머 다 잘 놀'리야건네? {이러면 발도 하고 손하고 이것 뭐 다 잘 움직여야겠네요?}

10410 # 을치, 어, 다 움'지기야 데지. {웁지, 응, 다 움직여야 되지.}

10412 @ 그'르이, 그'라뭉 뵈, 베 짜면서머 머 노래 부르, 노래도 부르고 해겐네예? {그러니까, 그러면 베, 베를 짜면서머 뭐 노래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했겠네요.}

10412 # 비틀'로'래도 머 이스따 그르는데. {베틀 노래도 뭐 있었다고 그러는데.}

10412 @ 요즘 인제 그렇 께 알' 삼 잘 업찌예? {요즘 인제 그런 것 아는 사람 잘 업지요?}

10412 # 업찌, 그래. {업지, 그래.}

10412 @ 예저네 암마 어르시네 모친이나. {예전에 아마 어르신 모친이나.}

10412 # 아준 남만는, 맘마는 잔 여자드르나 이시마 몰라, 하능가 몰라도. {아주 나이 많은, 나이 많은 인자 있으면 몰라, 하능가 몰라도.}

10412 # 그래아 아까 내 카능으 비틀까래 사형제는 대대명상 썸'는갑따. {그래 아까 내가

말한 것, "베틀간의 사형제는 대대명산 썼는값다."}

10412 # 어, 그런 노래가 이서씨. {응, 그런 노래가 있었어.}

10412 @ 그음 르 노래는 구절른 쯔 아심미까? {그럼 뭐 노래는 구절은 쯔 아십니까?}

10412 # 음 베틀'로'래지 머. {음, 베틀 노래지 뭐.}

10412 @ 아니 그르잉까 근 노래 쯔음 아심미까?

10412 # 음 머 잘 몰라. {음, 뭐 잘 몰라.}

10412 # 내가. {내가.}

10412 @ 예 머 어떤 시그로 하능가 한 한 아시는 데로마 함 부 이야기 한 해 보이소. {예, 뭐 어떤 식으로 하능가 한, 한 아시는 대로 한 번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10412 # 그'게 내아 고오'뻘'으 몰라. {그게 내가 그것밖에 몰라.}

10412 # 비틀까래 사형제는 대대명산 썬는값따. {베틀간의 사형제는 대대명산 썼는 값다.}

10412 # 대대르 사형지다. {대대로 사형제다.}

10412 # 그은 비남업'시 만'날 비틀까'래 너:이는 노이가 이따:: 이에. {그것은 변함없이 만 날 베틀간의 넷은 놓여 가지고 있다, 이에.}

10412 # 그른 은자 전서리 이스따 카이께네. {그런 인제 전설이 있었다고 하니까.}

10412 @ 거르 예저네 어르신 어머니미나 이럼 분드른 노래 잘 불'르서께따, 그지예? {그럼 예전에 어르신 어머니미나 이런 분들은 노래를 잘 부르셨겠다, 그렇지요?}

10412 # 그'르치, 그르케'찌. {그렇지, 그랬겠지.}

10412 @ 심 또 심심하고 이러니까 그지예? {심심, 또 심심하고 이러니까 그렇지요?}

10412 # 으. {응.}

#### 1.4.2. 누에치기와 비단 짜기

10414 # 명주'도 그'래짜나, 맵'주'. {명주도 그랬잖아, 명주.}

10414 @ 명주느 인제 그그 또 고치까 하능 거예, 그르치예? {명주는 인제 그것도 고치를 가지고 하는 것, 그렇지요?}

10414 # 올치. {올지.}

10414 # 명주노 그 놈 니'비'갈, 니'비'거는 저 뽕나무 시머 가주고, 그 누'를 인자 키'아 가 주고, 인자 우시 한 집스 이래 크'머는 니비쎄'가 예저네선 은자 씨'가 나와씨. {명주는 그 놈 누에가, 누에 그것은 저 뽕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놈을 인제 키워 가지고, 인제 제법 한 집씩 이래 크면 누에 새끼가 예전에는 인제 씨가 나왔어.}

10414 # 씨'가 잔잔::하~'이 요래 오세 한 장, 두 장 요래 나온는데, 고 누를 가때 인 요래 내뚜'마 인자 따뜰한데 예뚜며 고느 기나온'다 카이께네. {씨가 자잘하게 요렇게 요즘에 한 장, 두 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놈을 가져다 이렇게 놓아 두면 인제 따듯한 곳에 놓아 두면 그것은 기어 나온다고 하니까.}

10414 # 고 아네 네 벌거지가. {그 아, 네. 벌레가.}

10414 @ 예. {예.}

10414 # 고래 기 나오르 고 누를 인잔 요른 저 뽕터리거나 가주 사사 씨'르 모타' 가주고 뽕'니플 따다가 총'총' 씨'리 가주고 요래 주마 고 막까, 새:카마~'이 다 기분는'다 카이. {그

래 기어 나오면 그 놈을 인제 이런 저 썰털이나 가지고 살살 쓸어 모아 가지고 뽕잎을 따다가 총총 썰어 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 모두 새카맣게 다 기어서 붙는다고 하니까.}

10414 # 고'루그로 인지 자꾸 키'아지. {그렇게 인제 자꾸 키워야지.}

10414 # 키'아르 난제 가서는 이만:석 해지. {키우면 나중에 가서는 이만큼 해지지.}

10414 # 이만석 해가주 자:꾸' 인자 니비 난제'가' 싸'리 주다가 난주는 은자 기양 턱터 가따 막 저'프주고. {이만큼 해가지고 자꾸 인제 누에가 나중에 가서 (+ 뽕잎을)썰어 주다가 나중에는 인제 그냥 턱터 갖다 막 덮어주고.}

10414 @ 어 뽕, 뽕닙? {어, 뽕, 뽕잎?}

10414 # 어 뽕입, 뽕니플. {응, 뽕잎, 뽕잎을.}

10414 # 더퍼 주마 깍 자알' 깔가 몽티처리 커'머. {덮어 주면 꼭 잘 깔아서 몽티처럼 크면.}

10414 # 그'래 가'주 인자 그 인나 백차따 카오드, 맥.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인제 먹창다고 말하거던, 먹.}

말함. 즉, "먹차다"의 의미임.)

10414 # 인자 잉가~'이 무'뿌마 인자 여 누루이 매기 차능기라, 노비가. {인제 어느 정도 먹어 버리면 인제 여기가 누렇게 먹이 차는 것이라, 누에가.}

10414 # 매기 차마 그 누르 가'따 인자' 그래' 마 인자 뽕'을 인자 뽕이 미'끼' 실타 이기라. {먹이 차면 그 놈을 가져다 인제 그래 그냥 인제 뽕을, 인제 뽕이 먹기 싫다 이 것이라.}

10414 # 미'끼 시'르마 이자 저누 인자 집 쭈시미 전 데나 멀 해가주 인자 니비르 그따' 올'리마 인자 그'리른 도'르탱'기다 인자 꼬'치르 진능' 기라고. {먹기 싫으면 인제 저기는 인제 쪼 쭈세미 저런 데나 무엇을 해 가지고 인제 누에를 거기에 올리면 인제 그러면 돌아다니다 인제 고치를 짓는 것이라고.}

10414 # 꼬'치르 보:하~'이 지노마 그 누를 자 함 미'칠간, 한 일쭈이리나 하 여르르나 이시마 인자 고놈 다: 지'뿌그더. {고치를 뽕얇게 지어 놓으면 그 놈을 인제 한 며칠간,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이나 있으면 인제 그 놈이 다 지어 버리거던.}

10414 # 실 다 뽕부내뽕 아네 인자 뽕'디기가 데 가주고 인제 그' 느물 인자 따' 가주고 인자 물 끌'른 데다 인자 여뽕마 이자 싣, 실 여 물릴 돌리 가주옹 그 놈 인자 시르 빼'능 기라고. {실을 모두 뽑아 내버리면 안에 인제 번데기가 되어 가지고 인제 그 놈을 인제 따 가지고 인제 물이 끓는 데에다 인제 넣어 버리면 인제 실, 실을 여기 물레에 돌려 가지고 그 놈이 인제 실을 빼는 것이라고.}

10414 # 고게 인자' 하'나 하'날 요리 데따르 그여 막 그이 풀리'그딩. {그것이 인제 하나, 하나를 이렇게 되었다면 그냥 막 거의 풀리거던.}

10414 # 이에 돌려노면 그양 풀리고. {이에 돌려 놓으면 그냥 풀리고.}

10414 # 그르가 은잔 다 풀리만 뽕'디기가 나므따. {그래 가지고 인제 다 풀리면 번데기가 남았다.}

10414 # 뽕디기 그 놈 우리가 마~'이 조 무'써. {번데기 그 놈을 우리가 많이 주어 먹었어.}

10414 # 어 지금 뽕'디기 이짜'나. {어, 지금 번데기 있잖아.}

10414 @ 예 요즘도 뽕데기 애들도 머 사무꼬 그. {예, 요즘도 번데기를 애들도 뭐 사서 먹고 그.}

10414 # 그는 참' 마시스 조타 카'이께네, 애, 옌나레. {그것은 참 맛있어, 좋다고 하니까,

옛, 옛날에.}

10414 # 지금 이거는 정구서 나오능거 어'데 나옴 거 모리게꼬. {지금 이 것은 중국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고.}

10415 # 그그또 은자 내:나' 똑' 절'차는 항 가지. {그것도 인제 마찬가지로 똑 절차는 한 가지라.}

10415 # 그 놈 다 인자 나'라 가지고, 그 놈 실 뽀'부 가'주고 저금 뽀'브 가주고 그 놈 해 가주고 돌:구 물리 뜯 돌'리 가지고 그 놈 뽀'브 가주고 나'라 가주고 그르이 내나 인자. {그 놈 다 인제 날아 가지고, 그것 실을 뽑아 가지고 지금 뽑아 가지고 그 놈 해 가지고 확 물레에 또 돌려 가지고 그 놈을 뽑아 가지고 날아 가지고 그렇게 마찬가지로 인제.}

10415 # 고고또 인자 바디에 끼'이' 가주고, 고놈 머 한:저'어씨 봄, 고봄 바디지. {그것도 인제 바디에 꿰어 가지고, 그 놈 뭐 한정 없이 곱, 고운 바디지.}

10415 # 고래가 이 끼'가'주오 내나' 비트레 올'리 가주고 짜능 거느, 시근 아까 그 시기나 똑 항 가지라고이. {그래 가지고 이렇게 꿰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베틀에 올려 가지고 짜는 것은, 방식은 아까 그 방식이나 똑 한 가지라고.}

10414 @ 아, 그어며 인제 니비가통 경우에 예저네 그거 니비 그거 알가통 거느 어디서 가'저 움'미까, 앙 가며느 여기 해 나'따가, 지베서 해나따가 그르케고예? {아, 그러면 인제 누에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것 누에 그것 알같은 것은 어디서 가져 움니까, 안 그러면 여기 해 놓았다가, 집에서 해 놓았다가 그렇게 하고요?}

10414 # 아아 아으, 저저 그 하는 데가 이'씨. {아아, 음, 저저 그 하는 곳이 있어.}

10414 @ 하는 데가 이썸미꺼? {하는 데가 있습니까?}

10414 # 얼찌. {웁지.}

10414 # 종자용 맹'꾸로 하는 데 이'꼬, 거서 인자 사' 가'주고 와 가주고, 여'서 신'청을 해 노며 인자 보굴해준다 카이께. {종자용처럼 하는 데가 있고, 거기서 인제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신청을 해놓으면 인제 보그브해준다고 하니까.}

10414 @ 검 니비거통 경우느 쫘 깨끄다가 해야 데지예? {그럼 농같은 경우는 쫘 깨끗해야 되지요?}

10414 # 그르치. {그렇지.}

10414 @ 방안도? {방안도?}

10414 # 음, 우리 바~'아 여돈 이쭈 방하고도 해 가주 여도 마~'이 미'기씨. {음, 우리 방에 여기도 이쭈 방하고도 해 가지고 여기도 많이 먹었어.}

10414 @ 쫘 니비 또 따뜯, 춤므느 안 데지미까? {쫘 누에는 또 따뜯해야, 추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10414 # 금 머 여'르미다 보~'이께네 그'르콤 추분 업찌. {그럼, 뭐 여름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위는 없지.}

10414 # 여'르미 미다 보이께네. {여름이다 보니까.}

10414 @ 여 니비를 그림며느 보통 함 분 미'김미까? {여기 누에를 그러면 보통 한 번 먹입니까?}

10414 @ 일'려네? {일 년에?}

10414 # 두' 봄' 미'기지. { 두 번 먹이지.}

10414 # 부메 봄니비, 가을 리비, 두 여름, 두. {봄에 봄누에, 가을 누에, 두 번, 두 번.}

10414 @ 봄니비, 가을니비예? {봄누에, 가을누에요?}



10414 # 두 부늘 해가주 미긴다 카이. {두 번을 해 가지고 먹인다고 하니까.}

10414 @ 그암 니비는 보통, 그으고 아까 인제 어르신 그 어 알 깬다 아임미까, 그지예?  
{그럼 누에는 보통 그리고 아까 인제 어르신 그 어 알을 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10414 @ 알 까고 나와서 인제 그때부터 함며는 한 얼마나, 꼬'치 만들' 때까지 한 얼마나  
걸립미까? {알을 까고 나와서 인제 그때부터 하면은 한 얼마나, 고치 만들 때까지 한 얼마  
나 걸립니까?}

10414 # 한 두 달. {한 두 달.}

10414 @ 두 다를 꼬박 머기야 텐다, 그제? {두 달을 꼬박 먹여야 된다, 그렇지요?}

10414 # 달' 반, 두 달 미'기야 데지. {달 반, 두 달 먹여야 되지.}

10414 @ 그러며는 아까 그거 인제 머 매애'기' 찰' 때까지 머기야 데는데, 머끼시, 누러질  
때까지, 그엄 보통 니비 머 니빔 미더 보며는 니비 그 잠도 잠미까? {그러면은 아까 그것  
인제 뭐 먹이 찰 때까지 먹여야 되는데, 먹기 싫어, 누렇게 될 때까지, 그럼 보통 누에 뭐  
누에를 먹이다 보면은 누에 그 잠도 잡니까?}

10414 # 잠잘 때 이'써. {잠을 잘 때 있어.}

10414 @ 애 애 애기, 애기잠. {애, 애, 애기, 애기잠.}

10414 # 두'잠, 삼'잠까지 자. {두 잠, 세 잠까지 자.}

10414 @ 그암 처'메 자능 걸 애'기자'미라 하고? {그럼 처음에 자는 것을 애기잠이라 하  
고?}

10414 # 두째잠, 두째잠, 세째잠. {둘째잠, 둘째잠, 셋째잠.}

10414 @ 아, 세째 잠 자며닐 자른 다 자썸미까? {아, 셋째 잠을 자면은 잠은 다 잤습니  
까?}

10414 # 은잔, 그르치. {인제 그렇지.}

10414 # 시, 시 분 자면 다 자찌. {세, 세 번 자면 다 잤지.}

10414 @ 그아고 그 함 분 자면은 보통 함 머 며칠 잠미까? {그리고 그 한 번 자면은 보통  
한 뭐 며칠 잡니까?}

10414 # 그저 하루' 반' 내지 하 이'틀. {그저 하루 반 내지 한 이틀.}

10414 @ 검 하루, 하른, 하루 정도 잠며는 또 메칠 머꼬 나면 또 잠, 또 잠미까? {그럼 하  
루, 하루는, 하루 정도 자면 또 며칠을 먹고 나면 또 잠, 또 잡니까?}

10414 # 버 고오는 잠엄씨. {뭐 그것은 대종이 없어.}

10414 # 하 여일 부지러'니 잘 미'기마 쪼끔 빨'리 자고, 느께' 잘 몬 미'이마 쪼름 느께' 자고  
고래. {한 여섯 부지런이 잘 먹이면 조금 빨리 자고, 늦게 잘 못 먹이면 좀 늦게 자고 그렇  
지.}

10414 # 고또 은자 빨'리 미'이마 빨'리 자고. {그것도 인제 빨리 먹이면 빨리 자고.}

10414 # 음, 고오느 일'쨍'항기 아이고 그래. {음, 그것은 일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

10414 @ 니비가 어느 정도 자'이'가 영양을 마니 머'건느냐에 따라 다르네, 그지예? {누에  
가 어느 정도 자기가 영양을 많이 먹었느냐에 따라 다르네, 그렇지요?}

10414 # 응, 그르치, 으, 다르지. {응, 그렇지, 응, 다르지.}

10414 # 하루 아페 자는 사'암도' 이꼬, 하루 디에 자는 사암도 이꼬, 이틀 디에 자는 사암  
도 이꼬 그래가. {하루 앞에 자는 사람(+누에를 사람으로 착한했음.)도 있고, 하루 뒤에 자  
는 누에도 있고, 이틀 뒤에 자는 누에도 있고 그래서.}

10414 @ 그람 머 가치 해도 꼬치가 빨리 데는 집또 이꼬, 쪼름 느께 데는 집또 이꼬 그'러

케파이? {그럼 뭐 가치 먹여도 고치가 빨리 되는 집도 있고, 좀 늦게 되는 집도 있고, 그렇게 했다.}

10414 # 그르치, 하하. {그렇지, 하하.}

10414 # 그르니 함 막 크'은' 차이느 으쩌마는 한 이사밀 차인 나오지. {그러니 한 그냥 큰 차이느 없지마는 한 이삼일 차이느 나오지.}

10414 @ 그아브 그 뽕거통 경우에 뽕나무도 마니 시머께썸시다. {그러면 그 뽕같은 경우에 뽕나무도 많이 심었겠습니까.}

10414 # 마이 승거찌. {많이 심었지.}

10414 # 여어: 바'테 머 뽕나무 마이 시'머썸. {여기 밭에 뭐 뽕나무를 많이 심었어.}

10414 @ 그 뽕나무 그거 뽕은 주로 머 따가주고 머김미까, 앙 그암 머 썸가주고 와서 그래? {그 뽕나무 그것 뽕은 주로 무엇을 따 가지고 먹입니까, 앙 그럼 무엇을 쳐 가지고 와서 그래?}

10414 # 가 은저 그걸 치'가 와가조 인자 지베 가션 따가지고, 가지를 따가지고 그래 미기썸. {가서 인제 그것을 쳐서 와가지고 인제 집에 가서 따가지고, 가지를 따가지고 그래 먹었어.}

10414 @ 그엄 어디 주로 재배'뽕'임미까, 앙 가브 먼 삼'뽕이나 이 돌', 삼'뽕도 머'김미까? {그럼 어디 주로 재배뽕입니까, 앙 그럼 뭐 산뽕이나 이 돌, 산뽕도 먹입니까?}

10414 # 재:배뽕'을, 우리는 재배뽕은 해찌. {재배뽕을, 우리는 재배뽕을 했지.}

10414 # 그 저네는, 엔나레는 저: 돌'뽕' 가주고도 미이따 그러는데, 우린 은자 주로 인자 재배뽕어 가주오 미'기썸. {그 전에는, 옛날에는 저 돌뽕을 가지고도 먹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인제 주로 재배뽕을 가지고 먹이지.}

10414 @ 검 돌뽕보다는 재배뽕이 훨씬 조은 모양이지예? {그럼 돌뽕보다는 재배뽕이 훨씬 좋은 모양이지요?}

10414 # 머 조치. {뭐 좋지.}

10414 # 돌뽕은 이퍼리가 짹짜:나이 고래, 고오는 밀라그롱 고오는 서느 개속 빼끼 몸 매기. {돌뽕은 앞이 자잘하게 그래, 그것은 먹이라고 하면 그것은 서너 개씩밖에 못 먹여.}

10414 # 고 어데 와 사'네 가서 그은 뽕나무 거 따'다 미'일라 카머 미'일 수가 인나 카니. {그 어데 와 산에 가서 그런 뽕나무 것을 따다 먹이려고 하면 먹일 수가 있나고 하니.}

10414 @ 영양까도 저꼬 그르타, 그지예? {영양가도 적고 그렇다, 그렇지요?}

10414 # 그르치. {그렇지.}

10414 @ 인자 먼 재배뽕 모지래고 하며너 돌뽕도 머길? {인제 뭐 재배뽕이 모자르고 하면은 돌뽕도 먹일?}

10414 # 돌뽕 그너 거'이 암 미'이뜨. {돌뽕 그것은 거의 안 먹였다.}

10414 # 엔나레'느 똥썸 미'이따 카던데, 우리는 돌'뽕은 안 미기썸. {옛날에는 돌뽕을 좀 먹었다고 하던데, 우리는 돌뽕은 안 먹었어.}

10414 @ 그엄며느 니비 그르가 어 아까 인제 그르가 머 니'비 미'일 때 그검 머 이래 층계 층계 논능 거 그거는 머라 그럼, 부릅미까 그어느? {그러면 누에 그래서 어 아까 인제 그래서 뭐 누에 먹일 때 그것은 뭐 이렇게 층계 층계 놓는 것, 그것은 뭐라 그럼, 부릅니까, 그것은?}

10414 # 그르치. {그렇지.}

10414 # 그으는 자, 장'박. {그것은 자, 잠반}

10414 @ 장방네? {잠반요?}

10414 # 장박 그 눅 막 지르 뜨가'주 여'꼬, 그 눅 장'방 지금까지 열라카며 여러 수:시 깨' 맹그러야 데그더. {잠반, 그것을 막 지레 떠 가지고 넣고, 그것 잠반을 지금까지 넣으려고 하면 여러 수십 개를 만들어야 되거던.}

10414 @ 장방, 그 다음 이 머 니비 올려난는 그 머 그그눔 머라고 부름미까, 그거너? {잠반, 그 다음 이 뭐 누에 올려 놓는 그 뭐 그것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10414 # 그르치, 장:가'때. {그렇지, 장갓대.}

10414 @ 장가때? {장갓대?}

10414 # 으. {응.}

10414 @ 그으 잠방 이래 올려 노으며너 방에 머 맵, 마니 드러 가겐네예? {거기 잠반을 이렇게 올려 놓으면은 방에 뭐 몇 개, 많이 들어 갔겠네요?}

10414 # 그르치. {그렇지.}

10414 # 주레 중:: 매고 이리 매고 이리 매고 여 아네 요는 사람만냐 뎡기도로 해노코 사방 다 매뿌지. {줄에 쪽 매고 이렇게 매고 이리 매고 여기 안에 요기는 사람만 다니도록 해 놓고 사방에 다 매어 버렸지.}

10414 @ 니비가통 경우에 그 똥돌 마이 누겐네예? {누에같은 경웨 그 똥도 많이 누겠네요?}

10414 # 마::'이' 누지. {많이 누지.}

10414 # 맨날 처'내야 데'지, 거는. {만날 처 내어야 되지, 그것은.}

10414 @ 검머 어디 매일 함 분석 근? {그럼 뭐 어디 매일 한 번씩 그렇게?}

10414 # 그르치, 함 분석 드러내에 데지. {그렇지, 한 번씩 들어내야 되지.}

10414 @ 모아 가'르주고 이'래야 템미까? {모아서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10414 # 음. {응.}

10414 @ 거라므 그으또 이리 만네예? {그러면 그것도 일이 많네요?}

10414 # 일 만치. {일이 많지.}

10414 @ 어 거 밥또 조에 데고. {응, 거기 밥도 주어야 되고.}

10414 # 한정, 한정엄찌. {한정, 한정이 없지.}

10414 @ 그럼 처으메는 주로 이래어 씨리가 주고? {그럼 처음에는 주로 이렇게 썰어 가지고 주고?}

10414 # 음, 난중에는 기양 가따 따가주고. {음, 나중에는 그냥 가져다 따가지고 주고.}

10414 @ 그게 한 머 언제썰, 머 애기잠 자고 나면 그냥 줌미까? {그게 한 뭐 언제썰, 뭐 애기잠을 자고 나면 그냥 줌니까?}

10414 # 한 두째썰, 시째썰 자고 나야 \*\*\*\*\*. {한 둘째 잠, 셋째 잠을 자고 나야 \*\*\*\*\*.}

10414 @ 그냥 줌미까? {그냥 줌니까?}

10414 # 으. {응.}

10414 @ 거므 나중에 고때 데마 쪼금 나께따, 그지예? {그럼 나중에 그 때 되면 조금 낫겠다, 그렇지요?}

10414 # 쪼' 씨'르닝기 이꼬 안 불퍼하지. {쪼 씨는 것이 있고 안 불편하지.}

10414 @ 그 뽕:가통 경우는 뎡 여'름메 미'기며느 물, 비 오고 이럼며늑 우'썰미까? {그 뽕 같은 경우는 뭐 여름에 먹이면은 물, 비가 오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10414 # 비 오고 나만 막 처'매 미'테 저언테다 죽: 가따 거'러나야데. {비가 오고 나면 막

처마 밑에 저런 데다 주옥 가져다 걸어놓아야 되지.}

10414 # 물' 빠'이드로. {물이 빠지도록.}

10414 # 그르 자주곤 뚝' 빨'리 줄 때늬 막 걸'레 자주오 따'까야 테'고. {그래 가지고 또 빨리 줄 때는 막 걸레를 가지고 닦아야 되고.}

10414 @ 무 리쓰마 안 데지에, 뽕으? {물 있으면 안 되지요, 뽕은?}

10414 # 안 데지, 안 데지. {안 되지, 안 되지.}

10414 @ 무 리스면 머 병'듬'미까, 누'비가? {물이 있으면 뭐 병이 듭니까, 누에가?}

10414 # 누'비가, 누'비가 안 데. {누에가, 누에가 안 돼.}

10414 @ 그으가 어째뚝 머 무:른 업'또록 해야 텐다, 그지예? {그래서 어쨌든 뭐 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요?}

10414 # 음. {음.}

10414 @ 겹 예저네 머 니'비 미'길 때느 어르신이나 누우 머 어머님가통 경우 예저네 머기 실 때느 뽕 따고, 뽕' 썬'가' 오능 거또 이리다, 그'지예? {그럼 예전에 뭐 누에 먹일 때는 어르신이나 누에 뭐 어머님같은 경우 예전에 먹이실 때는 뽕을 따고, 뽕을 썬 가지고 오는 것도 일이다, 그렇지요?}

10414 # 크으', 대:큰 니'리지, 그 머 말 모다지. {큰, 아주 큰 일이지, 그 뭐 말을 못 하지.}

10414 @ 마니 머길려고 하며느 거이 예 상당히 그? {많이 먹이려고 하면은 거의 예, 상당히 그 일이지}

10414 # 상::당하'지 머 이:리야, 한:정엄쎄. {상당하지 뭐, 일이야, 한정이 없지.}

10414 # 마~'이 미'기 가잠마. {많이 먹이기를 하자면.}

10415 @ 그엄 주로 지'베서너 인제 그'래가 니비 인제 꼬치 그 해가주고 꼬치 따'아'고 나며너 인제 그 아까 이야기 하신 데로 무'레다가, 소'테다가 함미까? {그럼 주로 집에서는 인제 그래 가지고 누에 인제 꼬치 그것을 해가지고 꼬치를 따고 나면은 인제 그 아까 이야기를 하신 대로 물에다가, 솔에다가 합니까?}

10415 # 음, 으, 끼르감 끼룩, 소테. {음, 으, (+ 물을)끓여가 끓여, 솔에.}

10415 @ 소'테다가 거 인젠. {솔에다가 거 인제.}

10415 # 꼬'러가주고 인 무'를 꼬'르마 인자 그따 꼬치을 지버 여마 이래: 인 저봉바'치로 이래마 이 시리 주루루 나온다 카'이께네. {끓여 가지고 인제 물이 끓으면 인제 거기에 꼬치를 집어 넣으면 이래 이 젓가락으로 이러면 이 실이 주루루 나온다고 하니까.}

10415 @ 머 까주고 한다고예? {무엇 가지고 한다고요?}

10415 # 저봉까'치 가주 이래마. {젓가락 가지고 이러면.}

10415 # 그래마 주'리 나오므 고통 거 가따 인자 물:레'에다가 인자 가라'기라 카능 게 이쎄, 가라'을 그따 자 인자 데가주오 인자 이래 자'서 가주 이래마 감키'지. {그러면 줄이 나오면 그런 것을 가져다 인제 물레에다가 인제 가락이라 하는 것이 있어서, 가락을 거기에다 자 인자 대어 가지고 인제 이렇게 자아 가지고 이러면 (+ 실이)감키지.}

10415 @ 거'느 쏜치 하나가 실 마~'이 나옴'미까? {그것은꼬치 하나가 실이 많이 나오니까?}

10415 # 한' 주서 나오~'이께네 인자 고 한: 주목석 인자 와 상다이 마~'이 지버 여'야 여러: 주리 인자 한때 뭉치데지, 이제 고 항 개 자주온 안 데그더. {한 줄씩 나오니까 인제 그 한 주먹씩 인제 음, 상당히 많이 집어 넣어야 여러 줄이 인제 한테 뭉쳐야 되지, 이제 그

한 개를 가지고는 안 되거던.}

10415 @ 아, 주를 메' 깨' 해야, 거 너무 가느니까, 그르가. {아, 줄을 몇 개 해야, 그것이 너무 가느니까, 그래서.}

10415 # 하 이래 한 두 주무, 서느 주무서 자꾸 지버 여마 인자 그이 주리 인제 여러: 개 나오와, {한 이렇게 한, 두 주먹, 서너 주먹씩 자꾸 집어 넣으면 인제 거의 줄이 인제 여러 개가 나와.}

10415 # 이 한테 뭉:치'마 인제 시리 가느소롭하~이 데능기라. {이 한 곳에 뭉치면 인제 실이 가느스름하게 되는 것이라.}

10415 @ 거므 그 이 명주실도 그거 예를 드, 아까 머 실란'다고 해씀니까? {그럼 그 이 명주실도 그것 예를 들어, 아까 뭐 실을 난다고 했습니까?}

10415 # 음. {응.}

10415 @ 그 이으또 나'라야 땀미'까? {그 이것도 날아야 땀니까?}

10415 # 나'라에 데지. {날아야 되지.}

10415 @ 이으또 머 풀:도 미'기고 함니까? {이것도 뭐 풀도 먹이고 함니까?}

10415 # 그르치. {그렇지.}

10415 # 점' 또까따 카'이. {전부 똑같다고 하니까.}

10415 # 과정원. {과정은.}

10415 @ 검 이그또 머 풀: 매'기능 거늬 보리 풀 쭈'어 가'주고 술: 가'주고 그 다 미'기야 텐다, 그지예? {그럼 이것도 뭐 풀을 먹이는 것은 보리풀을 쭈어 가지고 술을 가지고 그 다 먹여야 된다, 그렇지요?}

10415 # 그르치. {그렇지.}

10415 @ 그르가 다시 인자 어 베트레 인제 짜웁? {그래서 다시 인제 어, 베틀에 인제 째니까?}

10415 # 비트'레 올'리 가'주고 인자 짜'이테지. {베틀에 올려 가지고 인제 짜야 되지.}

### 1.4.3. 옷 만들기

10418 @ 검 명주오까통 경우느 지베서는 자알', 주로 파'라씀니까? {그럼, 명주옷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잘(+안 입고), 주로 팔았습니까?}

10418 @ 예저네느? {예전에는.}

10418 # 그그또 팔'고 지비서드 해 이'꼬, 으 명주오또 우루또 전 마이 이브썬. {그것도 팔고 집에서도 해 입고, 으 명주옷도 우리도 좀 많이 입었어.}

10418 @ 명주, 명주오슨 쫘 오래 감니까? {명주, 명주옷은 좀 오래 갑니까?}

10418 @ 찢김니까? {질깁니까?}

10418 # 그그또 짜'다라 안 찢기. {그것도 별로 안 질겨.}

10418 @ 별로 안 찢겨예? {별로 안 질겨요?}

10418 # 안 찢기지. {안 질기지.}

10418 @ 그 그르이 예저네는 브아 어 애들도 그'르이가 오 이불라 카에 뜨 머 애들도 망코 이르이가 또.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어, 애들도 그러니까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또

뭐 애들도 많고 이르니까 또.}

10418 # 그니깐 엔나레는 율 그눔 해가주고 마 쏘'케' 나가 가주고 이지 이'피노마 그 눅똥 썸'끄만 쏘'케' 그 녀 다 따가주곤 또 세로 가똥 또 끼매야 데지, 그때눔 머 여자들 카머르 이리 머 어:마어마하'기 마네따 카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옷 그것을 해 가지고 그냥 숨을 놓아 가지고 입지, 얹혀 놓으면 그것은 또 뿔으면 숨 그것을 다 따 가지고 또 새로 가져다 또 꿰매야 되지, 그 때는 뭐 여자들 하면은 일이 뭐 어마어마했기에 많았다고 하니까.}

10418 @ 그이치예? {그렇지요?}

10418 # 으어. {응.}

10418 # 여자드른 탕 그때눔 머 이 참 어 사람도 아이지. {여자들은 다 그 때는 뭐 이 참 어 사람도 아니었지.}

10418 @ 어 어르신 그어 머야, 이 길삼하고 명주 짜고 머 베 짜룻 거 이룻 거느 잘 아시지 마느 혹씨 그 뭉미까, 움 만들고 이룻 거는 어르신 잘 모르시지예? {어, 어르신 그 뭐야, 이 길삼하고 명주를 짜고, 뭉 베를 짜른 것 이런 것은 잘 아시지마는 혹씨 그 뭉니까, 옷을 만들고 이런 것은 어르신께서 잘 모르시죠?}

10418 # 그르치, 오슨 짜다랴 땡그눔 걸 래가 암 바시니까, 여 여도 부인드른 땡그러 가 이버찌, 여서 비'이' 가주고. {그렇지, 옷은 별로 만드는 것을 내가 안 보았으니까, 여기 여기도 부인들은 만들어 가지고 입었지, 여기서 베어 가지고.}

10418 @ 그르이까 어르신 그 부인 오시야 이렇거는 잘 아시게따, 그지예? {그러니까 어르신 그 부인 옷이야 이런 것은 잘 아시겠다, 그렇지요?}

10418 # 그르치. {그렇지.}

## 1.7. 질병과 민간요법

### 1.7.1. 각종 질병과 민간 요법

10701 @ 계속 쪼금 예 쪼그 머 더 하게썸니다. {계속 쪼금 뭉 더 하겠습니까.}

10701 @ 그어 예'저'네 그으연뉼 머 병'이 나고 하머느 어이워니 별로 업써다 아임미까? {그 예전에 그러면 뭉, 병이 나고 하면, 의원이 별로 없었다 아닙니까?}

10701 # 업써찌. {없었지.}

10701 @ 꺼 요즈메 병워니 망코. {그 요즘에 병원이 많고.}

10701 # 그르 쪼예느 은잔 마~:이 인자 인잔 점제~'이로 마~이 불러 가주오 구'슬 마~'이 해따 카이케네. {그럴 적에는 이제 많이 이제, 인제 점쟁이를 많이 불러 가지고 굿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10701 # 어, 그를 쪼예느. {어, 그릴 적에는.}

10701 # 거 구'썰~이가 나사 한다꼬. {그 무당이 낮게 한다고.}

10701 @ 아, 머 주로 어 그거 머 병워니 업쓰~이께? {아, 뭉 주로 음 그것은 뭉 병원이 없으니까?}

10701 # 여먼 지 어른 시비 누가 부슬, 구단다, 어는 지비 누가 아프서 구단다, 으래 꾸슬

마~이 해따 카이케네. {여기 어, 어느 집에 누가 곶을, 곶을 한다, 어느 집에 누가 아파서 곶을 한다, 으레 곶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10701 @ 그때는 머 아픈 사암 이쓰며는 구, 구스? {그때는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곶, 곶을?}

10701 # 구'슬 마~이 해따 카이. {곶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10701 @ 금 머 구, 이집 저집 구슬 머 하능게 마이 들린다, 그지예? {그럼 뭐 곶, 이집 저집 곶을 뭐 하는 것이 많이 들렸다, 그렇지요?}

10701 # 마이 들리찌. {많이 들렸지.}

10701 # 그룹게는 머 그저네는 인자 이사라 케바야 빌로 업써씨니카네 약 머 하냐 그거으 쪼끔 이서찌, 이사라 카느기 빌로 업써꺼디. {그룹게는 뭐, 그 전에는 인제 의사라고 해 봐야 별로 없었으니까, 약 뭐, 한약 그것이 조금 있었지, 의사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거던.}

10701 @ 꼬어 어르, 어르신 예저네는 머 주로 밭 이 병들리 이쓰며 주로 어떻게 이서쑤미까? {그 어르, 어르신 예전에는 뭐 주로 뭐 병들이 있으면 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701 # 병드리 엔저느는 그코 머 이래 몸머~이 안데따가 보니까네 먼 호:열'짜베기니, 호:열'짜베기라 카능 거신 그 아'주 모실 뺑'인데. {병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뭐 이래 문명이 안되었다 보니까 뭐, 호열자니, 호열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몹쓸 병인데.}

10701 @ 호일찌는 머 어떻게'미까? {호열자는 뭐 어떤 것입니까?}

10701 # 호일찌는 머 그 저네 호열찌이거 하문 그 저네 걸리가주오, 호'열'짜' 걸리며 막 사라를 썬'다, 이기 인제 호열짜로 이랜는데. {호열자는 뭐, 그 전에 호열자 이 것을 하면 그 전에 걸려 가지고, 호열자에 걸리면 그냥 사람을 썬다, 이것이 인제 호열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10701 @ 머어' 한'다고예? {뭐, 한다고요?}

10701 # 사라물 씨'러, 사라머 마:이 중는다 이기라. {사람을 썰어, 사람이 많이 죽는다 이것이라.}

10701 @ 마이 죽쓰미으? {많이 죽습니까?}

10701 # 으. {응.}

10701 @ 머 알코나뎌 머 후유쫑도 이쑤미까? {뭐 앓고 나면 뭐 후유증도 있습니까?}

10701 # 그르치예. {그렇지요.}

10701 # 그엄므 그 지베는 절:때' 인자 금쫑 치고 가지마'라고. {그러면 그 집에는 절대 인제 금쫑을 치고 들어가지 마라고.}

10701 # 호열찌 병 들리따고 머 머 이 일'제' 금 버'브로도 금기데'뿌꼬 그래쎄. {호열자 병이 들렸다고 뭐 뭐, 일절 그 법으로도 금기가 되어 버렸고 그랬어.}

10701 @ 저념뺑이라 그러타, 그지예? {전염병이라서 그렇다, 그렇지요?}

10701 # 으, 저념뺑~이라 노이께네. {응, 전염병이라 하니까.}

10701 @ 그어 머 피부 이런 데도 머 머머 생기고 함미까, 병이? {그 뭐 피부 이런 곳에도 뭐, 무엇이 생기고 함니까, 병이?}

10701 @ 그렇 거 피부에도 머? {그런 것 피부에도 뭐?}

10701 # 그 그놈 머 피부에어 뽏드락'찌 그 저넌 뽏드라치라꼬 마:이 생'기따 카'이께네. {그 그럼, 뭐 피부에 뽏두라지, 그 전에 뽏두라지라고 많이 생겼다고 하니까.}

10701 # 송, 생송까루또 아'라찌, 뽏드라찌 나지, 팔'뚜'게도 나지, 손'때'도 나지, 그 마:'이

그 느미 시메'따. {생, 생인손도 알았지, 뽀두라지도 났지, 팔뚝에도 났지, 손에도 났지, 그렇게 많이 그것이 심했다.}

10701 @ 그 뽀드락찌눔 머 주롬 머? {그 뽀두라지는 뭐 주로 뭐?}

10701 # 뽀드락찌눔 공기 가'주 인자 별:거이 이러마 인제 막' 이만습 부뚝'하마 인자 그 늑 인자 까'시'르, 까'시'르 찢'러 가주 머 이저 그 늑 막 짜'르가주고 뉘 고름 내'뿌마 인자 겐찬타. {뽀두라지는 굼아 가지고 인제 벌정게 이러면, 인제 이만큼 불뚝하면 인제 그것을 인제 가시로, 가시로 찢'러 가지고 뭐 이제 그것을 막 찢'러 가지고 고름을 내어 버리면 인제 괜찮다.}

10701 @ 고름 그. {고름, 그.}

10701 # 응, 공'기따 마. {응, 굼았다, 뭐.}

10701 @ 학씨리 빼내야 텐다, 그지예? {확실히 빼내어야 된다, 그렇지요?}

10701 # 그르치. {그렇지.}

10701 # 그 늑 암빠르내마 안나사. {그것을 안 빨아내면 안 나어.}

10701 @ 음, 그러마 예저네. {음, 그러면 예전에.}

10701 # 기저네 그기 마:내씨, 옌나레. {그전에 그런 것이 많았어, 옌날에.}

10701 @ 마니 공기따, 그지예? {많이 굼았다, 그렇지요?}

10701 # 그르치. {그렇지.}

10701 # 공기고 머리 인데 부시름도 아:드리. {굼고, 머리 이런 곳에 부스럼도 생겼지, 아 이들이.}

10701 # 점부 막 부시르미 티두르 티두르 해가이여. {전부 막 부스럼이 덕지덕지 해가지고 여기에.}

10701 @ 머리 이는데? {머리 있는 곳에?}

10701 # 얼치. {옳지.}

10702 @ 그암 그엄 부시르므 주로 우째 치료함미까, 부시름나면? {그럼, 그럼 부시름은 주로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부스럼이 나면?}

10702 # 그그눔 먼 주'롬 뎡 머 세워리 가야 난능기지, 예저네 약또 영꼬, 약 꺼 바른다 케 '바야 으 조야꼬 해바야 달 라또 안하고 인저 세'워'리 가며 인전 난는 수가 이찌. {그것은 뭐 주로 뭐, 세월이 가야 났는 것이지, 예전에는 약도 없고, 약 그것을 바른다고 해봐야 음, 조약을 해봐야 잘 났지도 았고 인제 세월이 가면, 인제 났는 수가 있지.}

10702 @ 그래도 머, 그래도 머. {그래도 뭐, 그래도 뭐.}

10702 @ 나이가 쯔 들머느예? {나이가 쯔 들머는요?}

10702 # 그르찌여. {그렇지요.}

10702 @ 근데 그르도 머 시마머느 머 약? {그런데 그래도 뭐 심하면 뭐 약을?}

10702 # 해:야지. {해야지.}

10702 @ 머 어떤 나근? {뭐 어떤 약은?}

10702 # 요기름 뎡, 머슬 발라가주언 진'동짜리(+ 민간에서 부스럼에 좋다는 풀이름.)도 쌀' 마 바리고. {여기를 뎡, 무엇을 발라 가지고 진동차리도 삶아 바르고.}

10702 @ 머슴네? {무엇을요?}

10702 # 진'동차리. {진동차리.}

10702 # 진'동차리도 쌀'머서 바리고. {진동차리도 삶아서 바르고.}

10702 @ 거눔 뎡미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10702 @ 신동차리느? {진동차리느?}

10702 # 요게 인자 거슨. {이것이 인제 그것은.}

10702 @ 푸림미까? {풀입니까?}

10702 # 풀. {풀?}

10702 # 그으또 예 하고, 머 여'러' 가지 푸를 가따아, 조약글 가따가 더러 마:이 헨는데. {그것도 이것 하고, 뭐 여러 가지 풀을 갖다가, 조약을 갖다가 더러 많이 했는데.}

10702 @ 고이 신동차리느 살머가? {그 진동차리를 삶아 가지고?}

10702 # 진'동차리느 쌀'머가주고 거 단술도 해무'꼬 여러 가지 해몽능긴데, 진'동차리가 이 썩썩. {진동차리는 삶아 가지고 그 단술도 해 먹고 여러 가지를 해먹는 것인데, 진동차리가 있었어.}

10702 @ 으 또 그그눔 머 어디 드를려게 이썩미까? {음, 또 그것은 뭐 어디 들녘에 있습니까?}

10702 # 그은 저 바테 이썩. {그것은 저 밭에 있어.}

10702 @ 바테예? {밭에요?}

10702 # 음. {응.}

10702 @ 그아우 또 모 그릉 그 말고 또 머 다른 조약근 또 어떠케 함미까? {그러면 또 뭐 그런 것 말고, 도 뭐 다른 조약은 또 어떻게 합니까?}

10702 # 머 골:담초, 머 여'러' 가지 굴피나무, 머 도투마'리떼에 머 그룸끼 여러 가지 잡초 야기 지금 점부 약초라 카이께네. {뭐, 골담초, 뭐 여러 가지 굴피나무, 뭐 도꼬마리에 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잡초약이 지금 전부 약초라고 하니까.}

10702 # 그 누미 마네. {그것이 많아.}

10702 # 지금도 이썩. {지금도 있어.}

10702 # 인자 아해서 그르치. {인제 안 해서 그렇지.}

10702 @ 그렇어 까지고 해가주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해 가지고?}

10702 # 그렇어 가지고 저 해가주오 은자 마이 바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저것을 해 가지고 인제 많이 바르고.}

10702 @ 머 찌이가 바름미까? {뭐 찢어서 바릅니까?}

10702 # 무'꼬, 나사'고, 어. {먹고 낫게 하고 뭐.}

10702 @ 머 살트가? {뭐, 삶아서?}

10702 # 거 또 밀깁'리 그릉 곁 가따아 게가주고도 밀깁'리행'윈도 하고머 오만 지'슬 다 해찌. {그 또, 밀가루 그런 것을 가져다가 개어 가지고도 밀가루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했지.}

10702 @ 아, 밀깁'로 이래 부침미까 {아, 밀가루로 이렇게 붙이넵까?}

10702 # 올치. {옳지.}

10702 # 우 뽀다시 난 데 급독 빠르내라꼬 부치고. {음, 뽀두지 난 곳에 거기 독을 빨아내라고 붙이고.}

10702 @ 아, 그라머 어디 그 까씨 까 고름 짜내고 고르이까 은 저. {아, 그러면 어디 그 가시를 가지고 고름을 짜내고 그러니까, 음 저.}

10702 # 그르 인자 별거이 인자 무'더 나오그더. {그래 인제 별정게 인제 물어 나오거던.}

10702 # 그 놈 또 떠가 또 부치고, 또 떠가 또 부치고 이래. {그 놈을 또 떼어 가지고 또 붙이고, 또 떼어 가지고 또 붙이고 이래.}

10702 @ 조약 아까 머 이야기 헨스 그업 머 그런 풀 가통 건 찌이가주고 머 바름미까?  
 {조약은 아까 뭐 이야기를 했는 그런 뭐, 그런 풀같은 것을 찢어 가지고 뭐 바릅니까?}

10702 # 므 쌀머가주우 단술도 해무꼬 그눔 머 여러 가지로 해무쓰. {뭐, 삶아 가지고 단 술도 해 먹고,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먹었어.}

10702 @ 어 그르가 어 주로 한다, 그지예? {음, 그래 가지고 음 주로 한다, 그렇지요?}

10702 # 음. {음.}

10702 # 음 메 순: 그기지, 엔나레너. {음, 뭐 순전히 그것이지, 옛날에는.}

10702 @ 예저네 머 혹심 머 마림버'즘 가통 그또 마니 생기지예? {예전에 뭐 혹시 뭐 마 린버짐같은 것도 많이 생기지요?}

10702 # 버'짐도 이스썌. {버짐도 있었어.}

10702 @ 애들레? {애들요?}

10702 # 음, 그 마임버즘 마이 이서썌. {음, 그 마린버짐이 많이 있었지.}

10702 @ 마임버즘 가통 경우느 무 어 뜨 머까 치료함미까? {마린버짐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치료합니까?}

10702 # 그그'뜸 머 그으또 내나 조약 까주고 머 삼페~'여 끌'거 가주곤 던장도 바리고. {그것도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약을 가지고 뭐 사금파리로 긁어 가지고 된장도 바르고.}

10702 @ 아, 사삼페에 까주고? {아, 사금파리를 가지고?}

10702 # 오혈치. {옳지.}

10702 # 거 은잔 여럭 끌, 사살 끌거 가주우 그 림 업써지라꼬, 그래가 장도 찌거 바르고 머. {그 인제 이렇게 긁어, 살짝 살짝 긁어 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라고, 그래 가지고 장도 찍 어서 바르고 뭐.}

10702 @ 가면 장도 바르고, 덴장도 찌거 바루 그럼미까? {그러면, 장도 바르고, 된장도 찍 어 바르고 그럼니까?}

10702 # 음, 올치. {음, 옳지.}

10702 @ 던장 발르나마 쫘 나썌'미까? {된장을 바르고 나면 좀 낫습니까?}

10702 # 따가붕께네 쫘 그 머 난능장 모. {따가우니까 좀, 그 뭐 낫는가 모르지.}

10702 # 그는 지'또 해보고, \*\*\*. {그런 짓도 해보고, \*\*\*.}

10702 @ 진버'짐도 이썌미까? {진버짐도 있습니까?}

10702 # 진버지미라꼬 이션는데, 거는 무리 나는 버지미고, 마름버즈름 보하이 기~양 이 꼬. {진버짐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물이 나는 버짐이고, 마름버짐은 보양게 그냥 있고.}

10702 @ 짐버즈므 그러며느 머 약끈 어떻 거 함미까? {진버짐은 그러면은 뭐 약은 어떤 것을 합니까?}

10702 # 진버즘도 내나 먹 그렇 건 이런 조약 치료를 마이 해썌. {진버짐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조약 치료를 많이 했지.}

10702 @ 어, 조약 치료를 예? {음, 조약 치료를 예?}

10702 # 음. {응.}

10702 # 그땐 이사가 엄따 보이께네 조약 치료빠게 할 게 업써. {그때는 의사가 없다 보니까, 조약 치료밖에 할 것이 없어.}

10702 @ 그 여'름음메느 그 땀'띠 이렇 거또 마이 안 남미까? {그 여름에는 그 땀띠 이런 것도 많이 안 남니까?}

10702 # 땀'띠 마:이 나썌. {땀띠도 많이 났지.}

10702 @ 땀띠 나며느 머 우짱미까? {땀띠가 나면 뭐 어떻게 합니까?}

10702 # 지금, 지금도 따안띠, 땀띠나마 인자 찬무래 인잔 저'나'걸'로 썩능 거 그기지. {지금, 지금도 땀띠, 땀띠가 나면 인제 찬물에 인제 저것으로 썩는 것 그것이지.}

10702 @ 아, 혹시 머 다른 조약거, 밍강? {아, 혹시 뭐 다른 조약은, 민간요법은?}

10702 # 음, 머거 빌로 어꼬. {응, 뭐 그것은 별로 없고.}

10702 @ 방버 어습미까? {방법이 없습니까?}

10702 # 이 여꺼. {이 요것.}

10702 @ 머 꼬 함며느 땀띠 잘 라꼬 하능 거? {뭐 그것 하며느 땀띠가 잘 낫고 하는 것?}

10702 # 음, 그음 마 참무래 인젠 제'어걸로 인 자꾸 인자 씨'꼬, 그기지 머. {음, 그러면 그냥 찬물에 인제 저것으로 인제 자꾸 인제 썩고 그것이지 뭐.}

10702 @ 참므러 머 자꾸 시폰 그르이 한다, 그지예? {찬물에 뭐 자꾸 썩고 그렇게 한다, 그렇지요?}

10702 # 음. {응.}

10702 @ 두 두드래기나 이렇 거 나며 어짱미까? {두, 두드러기나 이런 것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10702 # 두드래이 나마이 그저네 저 저 그저네 초가집 지뿌스, 그을 인자 씨언'썰, 씨언'썰 그 노무 가주오 불 디~에 가여 망 영'게르 씨'이찌. {두드러기가 나면 그 전에 저, 저기 그 전에 초가집 쪼부스러기, 그것을 인제 썩은새, 썩은새 그것을 가지고 불을 붙여 가지고 막 연기를 쏘이지.}

10702 # 궁어 이 점'부 조여기러 거이. {그것이, 이 전부 조약이라 그것이.}

10702 @ 아, 그어머느 씨근 그거까? {아, 그러면은 썩은 그것 가지고요?}

10702 # 으, 씨'근 집', 그 까지고. {음, 썩은 쥘, 그것을 가지고.}

10702 @ 그으 까주 이래 부를 해가주고 영기르 하며넌? {그것 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를 하면은?}

10702 # 으 영게르 씨'이며느 두데기 사그러진다. {음, 연기를 쏘이면은 두드러기가 사그러진다.}

10702 @ 두드래기염 마니 사그러짐미까? {두드러기는 많이 사그러집니까?}

10702 # 음. {응.}

10702 @ 그덤 땀 비듬 이릉 거늬 머 특별히 치러 안 함미까? {그럼 뭐 비듬 이런 것은, 뭐 특별히 치료를 안 합니까?}

10702 @ 비듬 마느면? {비듬이 많으면?}

10702 # 비듬' 그릉 그릉 그느 보통 몸 무 그대로 머 보통 이'기'찌. {비듬같은 것은 그것은 보통 뭐 그대로 뭐 보통으로 여겼지.}

10702 @ 그 다메 누네 여 보며느 또 사암들 피곤하며 여. {그 다음에 눈에 여기 보면은 또 사람들이 피곤하면 여기에.}

10702 # 다에'께. {다래끼.}

10702 @ 다래끼 안니서미까? {다래끼가 안 있습니까?}

10702 # 다래끼 나지. {다래끼가 나지.}

10702 # 그 저네늬 마이 난는데 지꼬르 인자 그이 업떼. {그 전에는 많이 났는데 지금은 인제 거의 없지.}

10702 @ 그 다래끼 낭 거느? {그 다래끼 난 것은?}

10702 # 다래끼 난 데는 그 저네 인자 파'를 가주고 은자 세미다 뜯'다 보고 내 다래끼 빼  
가주 가라 카민, 파테다 세미 가따 여꼬 이래써. {다래끼 난 곳에는 그 전에 인제 팔을 가  
지고 인제 샘에다 들여다 보고 "내 다래끼를 빼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팔을 샘에다 가져  
다가 넣고 이랬어.}

10702 # 그게 인지 양바비라 그러데. {그것이 인제 양밥이라 그러더라.}

10702 @ 그 그으 말고는 또 업썸미까? {그, 그것 말고는 또 없습니까?}

10702 @ 다래끼는? {다래끼는?}

10702 # 그그또 하고, 머 내 다래끼 가조 가거라 케사미성 그 놈 거서또 더러 이꼬. {그거  
도 하고, 뭐 "내 다래끼 가지고 가거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더러 있고.}

10702 # 눈서블 하나 빼미서. {눈썹을 하나 빼면서.}

10702 @ 아, 눈썹 뽀버 가주고예? {아, 눈썹을 뽀아 가지고요?}

10702 # 아, 눈서블 항 개 고 인자 달기민서 썩' 빼미서 내 달기 빼가주 가그라 그래 카이  
빼고 이래따고. {아, 눈썹을 하나 그 인제 당기면서 썩 빼면서, "내 다래끼를 빼 가지고 가  
거라" 그렇게 해서 빼고 이랬다고.}

10702 @ 아, 가며 위에 나며능, 위에? {아, 그럼 위에 나면은 윗눈썹을?}

10702 # 위에 위따래끼, 미테 нама 아래따'래끼. {위에는 윗다래끼, 밑에 나면 아래 다래  
끼.}

10702 @ 그암 브. {그럼 뭐.}

10702 @ 눈썹 위에 꺼 빼고, 미테 꺼 빼고? {눈썹 위의 것을 빼고, 밑의 것을 빼고?}

10702 # 미테 нама 아'릅, 아'름눈서 빼고. {밑에 나면 아래, 아래쪽 눈썹에서 빼고.}

10702 @ 그름 빼가기고 내 내 다래끼 가져가라 카미 이래 그 함미까, 고오누? {그렇게 빼  
가지고 "내, 내 다래끼 가져 가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함니까, 그것은?}

10702 # 음, 음, 올치. {음, 음, 옳지.}

10702 @ 그 다음메 혹시 머 소네 이 머 소니나 바레 이런데 머 무조미나 이렇 거 생기만  
주료? {그 다음에 혹시, 뭐 손에 이 뭐 손이나 발에 이런 곳에 뭐 무좀이나 이런 것이 생기  
면 주료?}

10702 # 이 무좀 마이' 생기찌. {이 무좀이 많이 생기지.}

10702 @ 예저네 마이 생겨썸미까? {예전에 많이 생겼습니까?}

10702 @ 그럼 경우는 어떡케 치러함미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함니까?}

10702 # 그으눔 막 소고'물 가주오 데고 막, 건지러꼬'딩. {그것은 그냥 소금을 가지고 대  
고 막, 가렵거던.}

10702 # 무조미랑 열'메나 건지름노. {무좀이라 얼마나 가렵나?}

10702 # 그 늬 막 소고물 가주곰 빼'데고. {그 늬 막 소금을 가지고 비벼되고.}

10702 @ 소곰물' 함미까, 소곰? {소곰물을 함니까, 소곰?}

10702 # 소고물 가조 막 으래인 데고 망 브그 데따 카이께네. {소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대고 망 문지르고 했다고 하니까.}

10702 @ 아, 소구무로예. {아, 소금으로요.}

10702 # 올치. {옳지.}

10702 # 막 장을 가'따가 찌'거 바르고, 담배제 아 인나? {막 장을 가져다가 찌어 바르고,  
담뱃재 안 있나?}

10702 # 담배제 그 노물 가져고 푸웅 거 찌끄리예 그 누무 가주 막 민'뜨'데고. {담뱃재 그

놔줄 가지고 피운 것 찌꺼기에 그것을 가지고 막 문지르고.}  
 10702 # 그래인 마 해. {그렇게 많이 해.}  
 10702 # 그래 마이 해쓰. {그래 많이 했어.}  
 10702 @ 음, 담배째 찌끄래기 가주고도 하고, 소공 까주오도 하고. {음, 담배 재 지꺼기 가지고도 하고, 소금을 가지고도 하고.}  
 10702 @ 습'전도 머 그래 함미까? {습진도 뭐 그렇게 합니까?}  
 10702 # 습'전'도 그러코. {습진도 그렇고.}  
 10702 @ 그 담배 겨우레 이 먼 동, 발 이렇어 보며 예저네 시니나 이렇어 시운차나스 동상 앙 걸립? {그 다음에 겨울에 이 뭐 동, 발 이런 것을 보면 예전에 신이나 이런 것이 시원찮아서 동상이 안 걸립니까?}  
 10702 # 동상 걸리따. {동상이 걸렸다.}  
 10702 @ 그아머 요 루썸미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10702 # 동상 걸리따 카머 그 저네는 쿵' 가'주 쿵썸'들드 하고. {동상이 걸렸다고 하면 그 전에는 쿵을 가지고 쿵썸도 하고.}  
 10702 @ 쿵썸질 어뜨케 함미까? {쿵썸질은 어떻게 합니까?}  
 10702 # 쿵을 여 바레 무더가 이썸. {쿵을 여기 발에 묻어가 있지.}  
 10702 @ 어디? {어디?}  
 10702 @ 쿵? {쿵?}  
 10702 # 쿵을 여 자'리 여 가주고. {쿵을 여기 자루에 넣어 가지고.}  
 10702 @ 그으 쿵은 그냥 뜰 그녕 근냥 쿵 함미까? {그기 쿵은 그냥 뭐 그냥, 그냥 쿵을 합니까?}  
 10702 # 으, 생 생코, 생쿵으로. {응, 생, 생쿵, 생쿵으로.}  
 10702 @ 생쿵 소게 그냥 발 지버 너 노썸미까? {생쿵 속에 그냥 발을 집어 넣어 놓습니까?}  
 10702 # 음, 음, 그램 동상이 풀린다카이. {응, 응 그럼 동상이 풀린다고 하니까.}  
 10702 # 해도우 풀린다 카머 그래 여어다. {해동이 된다고 하며 그래 넣었다.}  
 10702 @ 쿵에 어데 그어머 썸 쿵을 따뜨타게 함미까, 암 그아프 그냐? {쿵에 어디에 그러면 썸 쿵을 따뜻하게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냐?}  
 10702 # 머 구들마게 여 노코 구래 해쓰이. {뭐 아랫목에 넣어 놓고 그래 했어.}  
 10702 @ 아, 쿵오 구들마게 너나 나꼬 이랴 너노며는 바리 썸? {아, 쿵을 아랫목에 넣어 놓고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발이 썸?}  
 10702 # 해독텐다 그르미성, 해독. {해독이 된다고 그러면서, 해독이.}  
 10702 # 그으또 머 그래 텐다고 데능 거또 아이, 그 인너 조야기 인너 업따 보잉게네, 찌'꿈'맹그로 야기 업따 봉게네 옴나레느 그래 헨능기지. {그것도 뭐 그래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인제 조약이 인제 없다가 보니까, 지금처럼 약이 없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 했는 것이지.}  
 10702 @ 근테 머 효파느 썸 이썸미까, 그래 함머너? {그러는데 뭐 효과는 썸 있습니까, 그래 하면은?}  
 10702 # 금 머 호까 빌'로 인능강 업스나 그나 학'시리 다뺨 모나게꼬. {그럼, 뭐 효과 별로 있는가, 없는가 그러나 확실히 답변은 못 하겠고.}  
 10702 @ 머 하이튼 그르케 하기느 해따, 그지예? {뭐, 하여튼 그렇게 하기는 했다, 그렇지

요?}

10702 # 그르케 해따, 어르치. {그렇게 했다, 그렇지.}

10702 @ 그엄 머 감귀 끼운 이쓰면 주로 머 어떠케 함미까? {그럼 뭐, 감기 기운이 있으면 주로 뭐 어떻게 함니까?}

10702 # 감기 끼구니 이시면 지쑤메 야기 이찌마느 머, 그테느 고뿌르다 커여 게찌. {감기 기운이 있으면 지금에야 약이 있지마는 뭐, 그 전에는 고뿔이라고 하며 했지.}

10702 @ 예, 고뿔 함머느, 고뿔 오머느 어뜨케? {예, 고뿔을 하면은, 고뿔이 오면은 어떻게?}

10702 # 그 저네눔 모 고치까'리론 수'렌 태아가주우 마시고 그'래찌. {그 전에는 뭐 고추가루를 술에 태워가지고 마시고 그랬지.}

10702 # 고치칼리 수에단 태아가주 막 홀 뚜루 마시마 늑 고마 그 떠 강기가 떠러진다 카미서. {고추가루를 술에다 태워가지고 막 후루룩 들어 마시면 인제 그만 그 또, 감기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10702 @ 또 머 다름 거눔 머 항 거 업슴머까? {또, 뭐 다른 것은, 뭐 한 것은 없습니까?}

10702 # 금 먼 더러 이서찌마느 고기 다 이저'뿔후 모리게꼬. {그, 뭐 더러 있었지마는 그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모르겠고.}

10702 @ 머 약초 가통 으 케가주오느 아 해수미까? {뭐 약초같은 것을 케 가지고는 안 했습니까?}

10702 # 아 해찌. {아, 했지.}

10702 # 강기 그으눔 머 그 저네 크기 므 걸리드 테세 디'이드 아네꼬. {감기 그것은 뭐 그 전에 크게 뭐 걸리더라도 대수롭게 여기지도 안 했고.}

10702 @ 그암 머 그 모게 가래나 이렇 거 마이 올로오멈 머 우짬미? {그럼 뭐, 그 목에 가래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면 뭐 어쩍니까?}

10702 # 그 해수아고 {그 해수하고?}

10702 @ 해소? {해수?}

10702 # 해손데. {해수인데.}

10702 @ 예, 해소오머 우짬미까? {예, 해수가 오면 어떻게 함니까?}

10702 # 해'소오몸 머 소'군도 무우 보고. {해수가 오면 뭐 소금도 먹어 보고.}

10702 @ 소그물 그냥 맹소그 먹쑤? {소금을 그냥 맨소금을 먹습니까?}

10702 # 으, 올치. {음, 옳지.}

10702 @ 맹소움 무꼬? {맨소금을 먹고?}

10702 # 그러만 뜨 간 사리드린다 그르미 세금도 무우 보고 그래 해따 카이. {그러면 또 갓 사례가 들린다고 그러면서 소금도 먹어 보고 그랬다고 하니까.}

10702 @ 먼 도라지가튼 거또 먹시무까? {뭐 도라지같은 것도 먹습니까?}

10702 @ 도래? {도라지?}

10702 # 도라지 가통 거또 먼 쌀무가 무꼬 해찌. {도라지같은 것도 뭐 삶어 가지고 먹고 했지.}

10702 # 거느 이 중녀네 해꼬, 옴나레느 그렁 거또 업써꼬. {그것은 이 중년에 했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10702 @ 그럼머느 예저네눔 머 그래 해, 해찌마느 요으, 요 중녀네 인잔 끝 도라지나 이렇 거 살마 무꼬 해찌.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그렇게 해, 했지마는 요, 요 중년에 인제 그

도라지나 이런 것 삶아서 먹고 했지.}

10702 # 그르치. {그렇지.}

10702 # 도라지드이 쌀마 무꼬 머 오망 거 다 해찌, 지끄무 인자. {도라지도 삶아 먹고 뭘, 여러 가지 다 했지, 지금은 인제.}

10702 # 지끼미야 머 약빠~아 가서 약 사다 무마 머 고마 나꼬 하니까네 빌 거 아이지마느. {지금이야 뭘 약방에 가서 약을 사다 먹으면 뭘, 그만 낫고 하니까 별 것이 아니지마는.}

10702 @ 그 다옴 머 딸꾹질 가통 거 머 게소 그 나며늘 머 우짬미까? {그 다음에 뭘 딸꾹질같은 것이 뭘 계속 나면, 뭘 어쩍니까?}

10702 # 딸'꾹'질'로 인자 물 인자 시: 분 떠'무른 난는다. {딸꾹질은 인제 물을 인제 세 번을 떠 먹으면 낫는다.}

10702 @ 물? {물을?}

10702 # 딸각딸가 거리지. {딸각딸각 거리지.}

10702 @ 시 분? {세 번?}

10702 # 참머 린제 시 분 떠무마 딸꾹찌르 아 한다 케찌. {찬물, 인제 세 번을 떠 먹으면 딸꾹질을 안 한다고 했지.}

10702 @ 거 쯔 나썰미까, 그그 하먼. {그것 쯔 낫습니까, 그것을 하먼.}

10702 # 그 머'달 췌는 므 건친 수가 이떼. {그 뭇할 췌는 뭘 그치는 수가 있었지.}

10702 @ 그 래옴 머 그 애들 머 예저네 열라고 이러며느 우짬미까? {그럼, 뭘 그 애들 뭘 예전에 열이 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10702 # 열 마'이 나고 할 찌에는 엔나레늘 머 검 머 거 주'치, 그으또 모꼬. {열이 많이 나고 할 적에는 옛날에는 뭘 그, 뭘 그것 지치, 그것도 먹고.}

10702 @ 머라고예? {무엇이라고요?}

10702 # 쯔, 주'치. {지, 지치.}

10702 @ 아 건 푸림미까? {아, 그것은 풀입니까?}

10702 # 주'치, 주'치라꼬 나무 뿌'리~'인테, 고 빨가~이 주치라꼬 이췌. {지치, 지치라고 나무의 뿌리인테, 그것이 빨간 것이 지치라고 있어.}

10702 # 그은 소'뚜 기'헤떠 거떠. {그것은 제법 귀했다고 그것도.}

10702 # 팔'라 카마 여: 으테 인테 그라야 이췌, 벌'로 업췌췌. {캐려고 하먼 여기 으, 이런테 그라야 있지, 아무 곳애나 없었어.}

10702 @ 그거 머그머느 쯔 여리 내림미까? {그것을 먹으면 쯔 열이 내립니까?}

10702 # 올치. {옳지.}

10702 @ 머 신경통 가튼 데느 이 먼 이거 이 저 어떠케 해서 함미까? {뭘, 신경통같은 데는 이 뭘, 이것, 저 어떻게 합니까?}

10702 # 심:변'통에는 므어슨 머구 우예 하능고 잘 모르젠는데.{신경통에는 무슨,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10702 @ 머 그어도 신경통에는 먼 머 조타라는 야 까통 거 업췌미까, 밍가느로? {뭘 그래도 신경통에는 뭘, 무엇이 좋다고 하는 약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간으로?}

10702 # 어어. {응.}

10702 @ 예저네? {예전에도?}

10702 # 신경토이도 멀' 하먼 나따 카드마 지끔 내가 잘 모리게찌, 내가 신경통에느. {신경

통도 무엇을 하면 낳는다고 하더라 지금 내가 잘 모르겠지, 내가 신경통에는.}

10702 # 머다, 학시랑 걸 모뜰'젠네. {뭐 확실한 것은 모르겠네.}

10702 @ 잘 모뜨러써여? {잘 못 들었나요?}

10702 # 으흠. {음.}

10702 @ 머 그아 황'다리나 이런 데는 머 우짬미꺼? {뭐, 그럼 황달이나 이런 데는 뭐 어떻게 합니까?}

10702 # 체'달', 황'달. {채달(+ 인분을 준 채소를 먹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 얻은 병), 황달.}

10702 @ 예. {예.}

10702 # 그를 찌언네 인자 읍 주루 인낙 고기로 마이 무야데. {그럴 적에는 인제 읍 주로 인제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10702 # 고기로. {고리를.}

10702 # 고기 저 소피 거통 그릉 글 마:이 사다무꼬. {고기, 저 소피같은 그런 것을 많이 사다 먹고.}

10702 @ 앙 그암머 개느? {안 그러면 개는?}

10702 # 읍. {음.}

10702 @ 개는 \*\*\*? {개는 \*\*\*?}

10702 # 개도, 개도 자아무꼬. {개도, 개도 잡아 먹고.}

10702 # 고기로 마'이' 무'에데.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10702 # 황'달'하고 체'다'라고너. {황달하고 채달은.}

10702 @ 그럼 부부 언제 영양이 부족해가 그럼미까? {그런 부분은 인제 영양이 부족해 가지고 그럼니까?}

10702 # 응, 그렇가? {응, 그런가?}

10702 # 그 예자네 인자 똥물 종거 그느 체다르 은자 똥물 조능 그릉그 무마 체다르 오른다 그래끄디. {그 예전에 인제 똥물을 준 그런 채달을 인제 똥물 준 그런 것을 먹으면 체달이 오른다고 그랬거던.}

10702 # 그래가지 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10702 @ 아, 똥무를 몽는다고여? {아, 똥물을 먹는다고요?}

10702 # 똥'무르 가따감 거서게다가 이 나무'레다 주구디. {똥물을 가져다가 거기에다, 이 채소에다 주거던.}

10702 # 엔나렌 거르'미 업씨가주고. {옛날에는 거름이 없어 가지고.}

10702 # 거기 인자 거기 인자 체달 찌우느 오는다이. {거기 인제, 거기 인제 채달증이 오는 것이라.}

10702 # 거기 체'다'으라. {그것이 채달이라.}

10702 @ 예저네 머 하이튼 그어 야꼭또 읍꼬, 으어유 의위니 업씨가주고 예 점부 다 머 어떡 할 수가 업스파, 그지예? {예전에 뭐, 하여튼 그 약국도 없고, 읍 의원이 없어 가지고 읍, 전부 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요?}

10702 # 읍, 마자, 그러, 그르치. {읍, 맞아, 그렇, 그렇지.}

10702 @ 방법또 어꼬. {방법도 없고.}

10702 # 방버또 어꼬. {방법도 없고.}

10702 @ 머 설사나며느 그암머 머 어떠케 함미까? {뭐, 설사가 나면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10702 # 설'싸나미 응'모초를 뜨'드'르 무마 난다이. {설사가 나면 익모초를 뜯어서 먹으면 낫는다.}

10702 # 응모초라고 푸리 이써. {익모초라고 풀이 있어.}

10702 @ 응모초예? {익모초요?}

10702 # 씨'붕 거. {쓴 것.}

10702 # 그으 무므 설사가 근친다. {그것을 먹으면 설사가 그친다.}

10702 @ 그으 무므 또 마니 그'침미까? {그것을 먹으면 또 많이 그칩니까?}

10702 # 앵무초늬 뽕'드러 무'마 인자 배' 아푼 거뜨도 나꼬, 설사나늬 거뜨도 좀 난는다. {익무초를 두드려 먹으면 인제 배가 아픈 것도 낫고, 설사가 나는 것도 좀 낫는다.}

10702 @ 배 아프고 하올 때 응모초를? {배가 아프고 할 때 익모초를?}

10702 # 어, 올치. {응, 옳지.}

10702 @ 머 다룽 거는 썩'또' 머 먹심미까? {뭘, 다른 것은 썩도 뭘 먹습니까?}

10702 # 머 썩, 썩'물'도 뜨 더'러 무'꼬. {뭘, 썩물도 더러 먹고.}

10702 # 썩물돌 뽕'드러 간' 짜'러 가주고 무'구머 쫌 난는다. {썩물도 두드려 갓 찢어 가지고 먹으면 좀 낫는다.}

10702 @ 그아고 머 어르심 머 여드 나질 가통 하다가 소니 비이고 이러며느, 상처나우 우짬미까? {그리고 뭘, 어르신 뭘 여기 낫질같은 것을 하다가 손이 베이면 이러면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10702 @ 베머? {베이면?}

10702 # 그를 찌에느 우리드름 머 그양 기양 이룽 거 허'클 가따인 지'브나찌. {그럴 적에는 우리들은 뭘 그냥, 그냥 이런 것 흙을 가져다가 집어넣어 놓지.}

10702 # 피가 마이 나옴께네 호글 가따 찌버서 쿡' 나'아가주고 이래기도 하고, 썩:, 썩 그누를 자 비벼 가주고 여 부처가주고 매노키도 하고. {피가 많이 나오니까 흙을 갖다가 집어서 쿡 놓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썩, 썩 그것을 잘 비벼 가지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매어 놓기도 하고.}

10702 @ 그냥 마른 썩 말고예? {그냥, 마른 썩 말고요?}

10702 # 거어 지꿈 썩물트르 이짜나. {거기 지금 썩물들 있잖아.}

10702 @ 어, 서, 그냥? {음, 그냥?}

10702 # 어, 거 름 비벼가주고 이래 가주 그나 뽕뽕 매내뚜머 고머 나서뿌고 이래테. {음, 그것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냥 돌돌 매어 놓으면 그만 나아버리고 이랬지.}

10702 @ 잘 나썸미까, 그어염? {잘 낫습니까, 그러면?}

10702 # 음. {응.}

10702 # 머 숨 빈:늬 건느 잘 나서, 월래. {뭘 손 베인 것은 잘 나아, 원래.}

10702 @ 그 다메 머 언치'고 하며느 우짬미까? {그 다음에 뭘 얹히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10702 # 언치'고 하며느 판'다 이르는데. {채하고 나면은 판다고 이르는데.}

10702 # 지끄른. {지금은.}

10702 # 그저 그어르 은자 소네 이래 가주고. {그저 그것을 인제 손에 이렇게 가지고.}

10702 @ 주무리가 은자 은자? {주므려서 인제 인제?}

10702 # 어, 주무르 가주고 여 송까라끈티~이 따'뿌만 새카맘 피가 나오마 고마 난는다.

{응, 주무려 가지고 여기 손가락 끝을 따 버리면 피가 나오면 그만 낫는다.}

10702 @ 주오 따고 그안다, 그지예? {주로 따고 그렇게 한다, 그렇지요?}

10702 # 올치, 거느 인자 우리 거석 빠빈데. {올지, 그것은 인제 우리가 하는 그런 법인데.}

10702 # 음 마이 난는다 이에데. {음, 많이 낫는다고 이러더라.}

10702 # 그래 보통 여 언치만 따도 케사민 따따. {그래 보통 채하면 따 달라고 하면서 땀다.}

10702 @ 그 다메 그 머 음식 머 잘몐 머꺼나 이라며너 머 주로 어떻 거 만납니까? {그 다음에 그 뭐, 잘못 먹거나 이렇게 하면 뭐 주로 어떤 것을 만납니까?}

10702 # 토'사'. {토사.}

10702 @ 토사 만나 버러미느, 그 토사 가통 거 만나며느 그때도 용모초 먹썸니까? {토사를 만나 버러미느, 그 토사같은 것을 만나면 그때도 익모초를 먹썸니까?}

10702 # 그르치, 토사도 인자 만내마 인자 용무초 그통 거, 쑥'물 거통 거. {그렇지, 토사도 인제 만나면 인제 익모초같은 것, 쑥물같은 것.}

10702 # 그래해. {그렇게 해.}

10702 @ 네 그어뜰 쥔 조타, 그지예? {네, 그런 것들이 제일 좋다, 그렇지요?}

10702 # 뜨드가 뭇다. {뜯어서 먹었다.}

10702 # 올치. {올지.}

10702 @ 그 다오메 어 거 이 머 음식글 머꼬 나서 그 머 갑짜기 머 잘모 뜨러 가가주고 켈록꺼리지예? {그 다음에 음, 거 이 뭐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뭐 갑자기 뭐 음식이 잘못 들어 가지고 "콜록"하지요?}

10702 # 세알, 세알 드르따. {사레, 사레 들었다.}

10702 @ 그를 때느 머 어썸니까?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10702 # 그르 채도 물 묵찌. {그럴 적에도 물을 먹지.}

10702 @ 세알 들리도예? {사레가 들려도요?}

10702 # 올치. {올지.}

10702 @ 딸꾸찔할 때도? {딸꾸찔할 때 때도?}

10702 # 딸꾸찔할 때 물 무. {딸꾸찔할 때는 물을 먹지.}

10702 @ 무어 무꼬예. {물을 먹고요.}

10702 @ 그엄 머 또 머 소화 잘 안데간 꼬력꼬력 소리나 트림나는 이렇 거느 어썸니까? {그럼, 뭐 또 뭐 소화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꼬력꼬력" 소리나 트림이 나는 이런 것은 어썸니까?}

10702 # 그 트'림날 채는 소화가 잘 안데서 그러는데. {그 트림이 날 적에는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10702 @ 머 그, 그얼 때도 머 특별한 그 야근 업썸니까? {뭐, 그, 그얼 때도 뭐 특별한 그 약은 없썸니까?}

10702 # 특'별한 야'근 업찌'. {특별한 약은 없지.}

10702 # 엔, 지꼬메 야기 이찌마는 엔나레는 머 그 조약 그검 머 나물 가주 하다 보니까네 비'일로 머 업꼬. {옛날엔, 지금엔 약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뭐 그 조약, 그것 뭐 나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별로 뭐 없고.}

10702 # 살기느 사른는데도, 그때도. {살기는 살았는데도, 그때도.}

10702 @ 그 데엠 머 여, 머 자 그 함메, 혀 이룬데 머?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인제 그러면 혀 이런 곳에 뭐?}

10702 # 시빠~'을 난는거. {헛바늘이 났는 것.}

10702 # 시빠~'을 나따 가지. {헛바늘이 났다고 하지.}

10702 @ 그눔 머 왜 그러습미, 그어너? {그것은 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10702 # 시빠~'을 나능 거눔 머 음식물 잘 몸무가주고 시빠~'을 하는 수가 이리써. {헛바늘이 났는 것은 뭐 음식물을 잘못 먹어 가지고 헛바늘을 하는 수가 있었어.}

10702 # 음식기 머 알구'지기 잘못 떼가주고 서빠~'을 난능 기 이뜨라 카이끼네. {음식이 뭐 알곳게 잘못 되어가지고 헛바늘이 났는 것이 있더라고 하니까.}

10702 # 혹:: 시빠~'을 난 수가 이뜨라 캥께네. {혹, 헛바늘이 났는 수가 있더라고 하니까.}

10702 @ 거누 그냥? {그것은 그냥?}

10702 # 겹 머 그양 전'디니까 머 곱 머 또 나'서지고 그러테, 거너. {그건 뭐 그냥 건디니까, 뭐 그 뭐 또 나아지고 그렇더라, 그것은.}

10702 @ 겹 애들 머 깜짝깜작 놀래? {그럼 애들이 뭐 깜짝깜작 놀라는 것은요?}

10702 # 정'끼. {경기.}

10702 @ 정끼들머 그때는 우짚미까? {경기가 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10702 # 정'끼 그우둔 정'끼판'다. {경기 그것도 경기를 판다.}

10702 # 그우또 넌 바~'을 가 따'테.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늘을 가지고 땀어.}

10705 @ 그 다으메 거 이럼 병 말고눔 머 어떻게 이썸미까? {그 다음에 거기 이런 병 말고는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705 @ 머 이야기? {뭐 이야기가?}

10705 @ 또 다른 병도 예저네 쯔 이서썸미까? {또 다른 병도 예전에 쯔 있었습니까?}

10705 # 풍'뽕 그저네 마네찌. {풍병, 그 전에 많았지.}

10705 @ 풍'뽕예? {풍병이요?}

10705 # 아. {아.}

10705 @ 아, 풍'오며'누? {아, 풍이 오면은?}

10705 # 문, 문:다이병. {문, 문등병.}

10705 @ 문다이뽕도예? {문등병도요?}

10705 # 으. {응.}

10705 @ 풍'뽕오며느 감 우짚미까? {풍병이 오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705 # 문디뽕오맘 문디뽕 거눔 몽곤친다 그러테. {문등병이 오면 문등병 그것은 못 고친다고 그러더라.}

10705 # 어 그르가저 문:디~'이가 데가주고. {음, 그래 가지고 문등이가 되어 가지고.}

10705 @ 다른 데로 거머? {다른 곳으로 데려 가고?}

10705 # 올치, 저: 가서 머'다'은 데도 이꼬. {옳지, 멀리 가서 모아놓은 곳에도 있고.}

10705 # 거기 인 병이 잘 양고치진다 카테, 문'디'뽕이. {거기 음 병이 잘 안 고쳐진다고 하더라, 문등병이.}

10705 @ 그엄 머 풍:: 마'즈면 우짚미까? {그럼 뭐 풍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10705 @ 중풍? {중풍?}

10705 # 중'풍'은 마'즈마 중풍은 마즈마 지'꿈도 머. {중풍은 맞으면 중풍이 오면 지금도

뭐.}

10705 @ 별 방버비 업썸? {별 방법이 없습니까?}

10705 # 빌 방법 업떼. {별 방법이 없더라고.}

10705 # 머 침 노코, 지끄르 침 노코 머 금방 미 씨간 저네마 가마 켜잔타 케산'테, 엔나레는 줍풍 마즈만 머 그어는 할 수 업능기라. {뭐, 침을 놓고, 지금은 침도 놓고 뭐 금방 몇 시간 전에만 가면 괜찮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중풍을 맞으면 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

10705 @ 그르치여? {그렇지요?}

10705 # 음. {응.}

10705 @ 요즘 그 다음, 머 뚜 이래 등이 이래 마 기래 데는 그렇 거또 이썸미까, 예저네? {요즘 그 다음, 뭐 또 이렇게 등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예전에?}

10705 @ 곱사등? {곱사등?}

10705 # 등, 등, 곱사등도 이서찌. {등, 등, 곱사등도 있었지.}

10705 # \*\*\*\*. {\*\*\*\*.}

10705 # 거느 인자 배속'뽕'이다 보잉께네, 곱사너. {그것은 인제 배속병이다 보니까, 곱사느.}

10705 @ 머 애들 러? {뭐, 애들 여기에?}

10705 # 얼쳐깨~'이방'도 이꼬. {얼치기, 이 병도 있고.}

10705 @ 여여여? {여, 여기.?

10705 # 볼'치기. {볼거리.}

10705 @ 예, 그릉어 텨 우짬미까?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10705 # 볼:치'김 멀 뚜'드르 부'치등아. {볼거리는 무엇을 뜯어 붙이더라.}

10705 # 달'갈' 뜨'드가 부'치등가? {달갈을 뜯어서 붙이든가?}

10705 # 그 볼치기 난 데는 달갈' 부'치등장 머 부치테. {그 볼거리가 낫는 데는 달갈을 붙이든가 무엇을 붙이더라.}

10705 @ 머 말 뜨뜸거리능 경우 거툼 이거느? {뭐, 말을 더듬거리는 경우 같은 이것은?}

10705 # 말, 말떠드미. {말, 말더듬이.}

10705 @ 그렇 경우는? {그런 경우는?}

10705 # 그그뽕 병이라서 잘. {그것도 병이라서 잘 안 낫지.}

10705 @ 그면 나술 방법 이썸미까? {그러면 낫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10705 # 금 나술 방법 업떼. {그것은 낫게 할 방법이 없지.}

10705 @ 아, 거느 잘 업썸미까? {아, 그것은 잘 없습니까?}

10705 # 어, 예예. {음, 예.}

10705 # 그는 머 하이, 해야 데엔다 카능 거 어꼬. {그것은 무엇을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고.}

10706 @ 머 아까 이 말슴 쪼그르 해주셨는데, 보통 그림며너 병 어 쫘 나수기 힘든 병 가 퉁 거 인제 들며너 아까 구탄다 아해썸미까? {뭐, 아까 이것은 말슴을 조금은 해주셨는데, 보통 그러면은 병이 음 쫘 낫게 하기 힘든 병같은 것이 인제 들면은 아까 낫한다고 안 했습니까?}

10706 # 음. {응.}

10706 @ 그암 보통 무슨 어떤 시그로 함미까? {그럼, 보통 곳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10706 # 보통 무슨 인제 그어이. {보통 곳은 인제 그것은.}

10706 @ 고 고 병 드러쉴 때예? {그, 그 병이 들었을 때예?}

10706 # 거 인자 병에서 인자 머 조'상이 드'르파, 머'시 드'르파, 머 나무 톨, 토'시~이 드르파, 머 질까엔 질깨기 드르파, 아 머 여러: 가지러 인잔 그 사암드안 드름 마 만치. {거기 인제 병에서 인제 뭐 조상이 들었다, 무엇이 들었다, 뭐 나무, 토, 토신이 들었다, 뭐 길가의 길손이 들었다, 아 뭐 여러 가지 인제 그 사람들은 드는 것이 많, 많지.}

10706 # 그 낭글 니가 비슨 그른 병이 드르파. {그 나무를 너가 베어서 그런 병이 들었다.}

10706 # 어데 가선 니갈 머시 나뿐' 지슬 해서 그런 병이 드르파. {어디에 가서 네가 무슨 나뿐 짓을 해서 그런 병이 들었다.}

10706 # 어, 그럼 지시 인자 마네찌. {어, 그런 짓이 인제 많았지.}

10706 @ 그아며 검 병 어뜨케 나수라 함미까, 그언? {그러면 그런 병은 어떻게 낫게 합니까, 그런 병은?}

10706 # 구언 은자 구, 구슬 해가주고 인자 어데가서 은잔 바블 해노코 비러라. {그건 인제, 곳, 곳을 해 가지고 인제 어디에 가서 인제 밥을 해놓고 빌어라.}

10706 # 바블 해노코 빌머 덴다, 내가 가서 머즐 부를 써부치 주마 난는다, 머 그럼 여러: 가지 방버비 마네찌. {밥을 해놓고 빌면 된다, 내가 가서 무슨 부적을 써서 붙여 주면 낫는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았어.}

10706 @ 머 양감 머 똑 기신때무네 그러타고도 함미까? {뭐, 안 그러면 뭐 또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도 합니까?}

10706 # 음, 기신때미네 글타 그르마 처'녀 주근 기시~이다, 총각 주근 기시~이다, 너거 할'배가 옴라레 주근 기시~이다, 기신 잘 타가 만치. {음,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처녀 죽은 귀신이다, 총각이 죽은 귀신이다, 너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죽은 귀신이다, 인제 귀신 탓이 많지.}

10706 # 아풍 기 인자. {아픈 것이 인제.}

10706 # 아픈 데은 드가마 느거 할배가 드르서, 기시~이 드르서 그르타. {아픈 곳은 들어가면 너희 할아버지가 들어서,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10706 # 그을 푸르 조:케 해조야 덴다, 오슬 해옴 블 해조이덴다, 멀 해조야 덴다, 바블 한 상 차려조야 덴다, 그능 마리 마내찌. {그것을 풀어 좋게 해주어야 된다, 옷을 한 벌을 해주어야 된다, 무엇을 해 주어야 된다, 밥을 한 상을 차려 주어야 된다, 그런 말이 많았어.}

10706 @ 그암 머 바, 오슬 그래 해가 주며 오슨? {그럼 뭐, 밥, 옷을 그래 해지고 주면 옷은?}

10706 # 오슨 저: 가따 은자 사르 준다. {옷은 저기 가져다가 인제 불살아 준다.}

10706 # 사'라주마 데지. {불살아 주면 되지.}

10706 @ 아, 불살르, 아. {아, 불살아서, 아.}

10706 # 사'르주마 니꼬 간다 이기라. {불살아 주면 입고 간다, 이것이라.}

10706 @ 그러, 그런 시그로 머 머 한다 그지예? {그런, 그런 식으로 뭐, 무엇을 한다 그렇지요?}

10706 # 그러치, 음. {그렇지, 음.}

10706 @ 앙 그암며 머 이래가 떠 어디 나뽕 기시 쪼끼도 하고 그래 함미까?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디 나쁜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그래 합니까?)

10706 # 그르치. {그렇지.}

10706 # 머 부를 써가지 가다 부치면 난는다, 머 안난 바쁘이 여러: 가지드라 카이께네.  
{뭐, 부적을 써 가지고 갖다가 붙이면 낫는다, 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더라고 하니까.}

10706 @ 그그또 워낙 종류아 만타, 그지예? {그것도 워낙 종류가 많다, 그렇지요?}

10706 # 마네. {맞아.}

## 1.7.2. 약초 캐는 과정과 주변 이야기

10707 @ 그 다메 그 흑씨 어르신 약초는 케보써썸미까? {그 다음에 그 흑씨 어르신 약초는 케 보셨습니까?}

10707 # 약초 더러 케바써. {약초는 더러 케 보았어.}

10707 # 마늘쫓가리. {마늘쫓.}

10707 @ 약초는 그 주로 어디 사나나 드레 가서 켐미까? {약초는 그 주로 어디 산이나 들에 가서 켐니까?}

10707 # 드레도 이꼬, 사네도 이꼬. {들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10707 @ 엄 머 주로 어떠 [X어떤거 케로X] 감미까? {음, 뭐 주로 어떤[X어떤 것을 케러x] 갑니까?}

10707 # 사네 가맘 머 마'늘'쫓'가리, 골담초, 굴피'나무, 거'지'나무, 지'피'나무, 머 여옴 골담초, 머시 여 야까지가 여러 수백까지가 너머. {산에 가면 뭐, 마늘쫓, 골담초, 굴피나무, 거지나무, 초피나무 뭐 여기 골담초, 무엇 여기 약의 가지가 여러 수백 가지가 넘어.}

10707 # 다 이'알라 카마 한전도 어꼬. {모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정도 없고.}

10707 @ 주로 그르도 약초? {주로 그래도 약초?}

10707 # 그르, 그으 가주 약판술 해무'마 인자 다리도 나꼬. {그래, 그래 가지고 약단술을 해 먹으면 인제 다리도 낫고.}

10707 @ 신경통 이런테? {신경통 이런 곳에?}

10707 # 야그 그러며 싱거통에도 나꼬. {약은, 그러면 신경통도 낫고.}

10707 @ 약판술 해 무며 훨씬 조썸미까? {약단술을 해 먹으면 훨씬 좋습니까?}

10707 # 올치, 음, 조타 이카더라. {옳지, 음 좋다고 말하더라.}

10707 @ 그암며느 그 인제 그 약초가통 거 케로 갈 때 머 주로 어떻게 감미까? {그러면은 그 인제 그 약초같은 것을 케러 갈 때는 뭐 주로 어떻게 갑니까?}

10707 # 인잔 톱또 가주가 비기도 하고 뿌링이가 인자 깡이 가주 케기도 하고. {인제 톱도 가지고 가서 베기도 하고 뿌리니까 인제 팽이를 가지고 케기도 하고.}

10707 @ 검며 이 약초 그거 인제 호맹이까 케기도 하고, 깨이로 케기도 하고 그러케 함미까? {그러면 이 약초, 그것을 인제 호미로 케기도 하고, 팽이로 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10707 # 올치, 음, 음. {옳지, 음, 음.}

10707 @ 그옴 그 약초가통 거 아까 이야기헐 아서는데 무 골'담초'는 어디에 조썸미까? {그럼, 그 약초같은 것은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골담초는 어디에 좋습니까?}

10707 # '담초돌 뼈아픈데 조코. {골담초도 뼈가 아픈데 좋고.}

10707 # 어, 뼈가 라폰데 조코. {음, 뼈가 아픈데 좋고.}

10707 @ 지피나무너예? {초피나무도요?}

10707 # 지피나무도 그러코. {초피나무도 그렇고.}

10707 # 자으덩 다리 인제 이그 뼈거 라폰데가이제일 조타. {하여튼 다리가 인제 이것은 뼈가 아픈 데가 제일 좋다.}

10707 @ 엄나무거통 거또 약춤िका? {음나무같은 것도 약초입니까?}

10707 # 엄나무또 약초. {음나무도 약초지.}

10707 @ 거늬 머 함미까? {그것은 무엇을 합니까?}

10707 # 거두 은잔 뼈'고' 라폰데 조'코, 머 건 머 맘병통치지. {그것도 인제 뼈가 아픈데 좋고, 뭐 그것은 뭐 만병통치지.}

10707 @ 아까 또 머 어떻게 이따 해춤िका? {아까 또 뭐 어떤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10707 @ 굴피라고 그래춤िका? {굴피라고 그랬습니까?}

10707 # 굴피'나무. {굴피나무.}

10707 @ 그늬 머 어데 조춤िका? {그것은 뭐 어디에 좋습니까?}

10707 # 머 거지나무. {뭐, 거지나무.}

10707 # 그릉 거또 점부 다 약 따더 해무마 모메 다 조타 이기라. {그런 것도 전부 다 약으로 따다가 해먹으면 몸에 다 좋다고 말하는 것이라.}

10707 @ 특별히 별? {특별히?}

10707 # 어데 어데라도 다 조타. {어디, 어디라도 다 좋다.}

10707 @ 머 흑씨 예저네 머 소와 잘 안데고 이럴 때 삼추, 삼주나 이렇 걸 케가주고는 안 드셔춤िका? {뭐 흑씨 예전에는 뭐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삼주, 삼주나 이런 것을 케어 가지고는 안 드셨습니까?}

10707 # 삼초도 마이 케가주우, 그으또 인자 모메 삼초야기 몸 보야기다. {삼주도 많이 케가지고, 그것도 인제 몸에 삼주약이 몸에 보약이다.}

10707 # 어늬 땡기미 찹초 뿌리~'이도 마이 케다 무꼬. {그래 다니면서 삼주 뿌리도 많이 케다가 먹고.}

10707 @ 서조 뿌리~이도 케다가 잡수꼬예? {삼주 뿌리도 케다가 잡수고요.}

10707 # 그르치. {그렇지.}

10707 @ 머 주로 그릉거 마이 해따, 그지예? {뭐 주로 그런 것을 많이 했다, 그렇지요?}

10707 # 마이 해찌예. {많이 했지요.}

10707 @ 칠게이도 함미까? {침도 합니까?}

10707 # 이 머 여 칠갱이도 해다 찢러무꼬. {이 뭐, 여기 침도 해다가 잘라서 먹고.}

10707 # 칠게~이도 해다가 인잔 살무가주 물도 무꼬 인자 생넙도 내머 생니빈 온 그 지끔 내묵찌. {침도 해다가 인제 삶아가지고 물도 먹고 인제 생즙도 내면 생즙은 곧 그 요즘 내어 먹지.}

10707 @ 엔날레는 씨버 무꺼나 머? {옛날에는 씨서 먹거나 뭐?}

10707 # 올치, 씨부 무꼬. {옹지, 씨서 먹고.}

10707 @ 앙 그암 야근? {안 그러면 약은?}

10707 # 기양 쌀머 가주 무꼬. {그냥 삶아 가지고 먹고.}

10707 @ 약단수로 해가느 그래춤िका? {약단술을 해가지고 그랬습니까?}

10707 # 으, 그래 무꼬. {응, 그래 먹고.}

10707 @ 아까 그거 머 드레는 그암 약초 어떻 게 이썸미까, 들판네너? {아까 그것 뭐 들에는 그러면 약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들판에는.}

10707 # 들판네는 약초가 거'이' 업찌. {들판에는 약초가 거의 없지.}

10707 # 너 사느로 가야 마이 이꼬 저 꼴짜굴 가야 마이 이찌. {여기 산으로 가야 많이 있고, 저 꼴짜기로 가야 많이 있지.}

10707 @ 머 약쭈기나 이렇 거또 함미까? {뭐 약쭈기나 이런 것도 함미까?}

10707 # 약쭈 그이 그 저네 여 더'러 이선데, 지금 약쭈기 사'라져뿌떼. {약쭈는 그, 그 전에 여기에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약쭈가 사라져버렸어.}

10707 # 약쭈기. {약쭈기.}

10707 @ 약쭈근 머 어데 주? {약쭈는 뭐 어디에 주로?}

10707 # 그글, 그글 말라가 비벼가주 인자 인데 뜨능 기라. {그것을, 그것을 말려 가지고 비벼 가지고 인제 이런 곳에 뜨는 것이라.}

10707 @ 뜸 뜨는? {뜸을 뜨는?}

10707 # 뜸 뜨은 데다. {뜸을 뜨는 데다.}

10707 # 뜸물 마이 뜨지. {뜸을 많이 떴지.}

10707 # 다리 아픈데 인자 어데 다리가 여래 아프다 카마 거 데고 인자 뜸'물 뜨'고. {다리가 아픈 곳에 인제 어디에 다리가 이래 아프다고 하면 그것을 대고 인제 뜸을 뜨고.}

10707 @ 약쭈 비벼가주 불 부쳐? {약쭈를 비벼 가지고 불을 붙여서?}

10707 # 어, 비벼가, 비벼가주고. {응, 비벼 가지고, 비벼 가지고.}

10707 # 어, 뜸물 마이 떠찌. {응, 뜸을 많이 떴지.}

10707 @ 쭈뜨물 마이 해따, 그지예? {쭈뜸을 많이 했다, 그렇지요?}

10707 @ 겹 머끼도 함미까, 약쭈? {그럼 먹기도 함미까, 약쭈는?}

10707 # 약쭈은 암 무어 바찌. {약쭈은 안 먹었지.}

10707 # 약쭈이 상다이 써븐 모야~이던데. {약쭈이 상당히 쓴 모양이던데.}

10707 @ 살면서 머꼬 그러친 안썸미까? {살아서 먹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10707 # 음. {응.}

10707 # 뜸물 마이 떠찌, 그 가주고. {뜸을 많이 떴지, 그것을 가지고.}

10707 # 비벼가주고. {비벼 가지고.}

10707 @ 그 아까 거기 약쭈 머 용모초 그래썸미까? {그 아까 거기 약쭈 뭐, 익모초도 그랬습니까?}

10707 # 용모초. {익모초.}

10707 @ 용모초는? {익모초는?}

10707 # 용모초는 상다이 써버. {익모초는 상당히 써.}

10707 @ 점부 살마가 먹썸미까? {전부 삶아 가지고 먹습니까?}

10707 # 음. {응.}

10707 # 이 살마가 약술 해무꼬. {이것을 삶아 가지고 약술을 해 먹고.}

10707 @ 그는 나스로 빔미까? {그것은 낫으로 빔니까?}

10707 # 그으또 약판술 해무꼬. {그것도 약단술을 해 먹고.}

10707 # 그르치. {그렇지.}

10707 # 나트로 가 비지. {낫으로 가서 베지.}



10707 @ 약쭈기나 용모초 이렇 어 비가주고 그래 함미까? {약쭈기나 용모초 이런 것을 베어 가지고 그렇게 함니까?}

10707 음. {응.}

10708 @ 혹시 이런데 머 약초 재배하능 거느 이쭈미까? {혹시 이런 곳에 뭐 약초를 재배하는 것은 있습니까?}

10708 # 이: 골짜아서늬 빌로 아나지, 약초 재배로. {이 골짜에서는 별로 안 하지, 약초 재배는.}

10708 # 옴나레 그저네 쪼맨창 머 송구다가 마라썸. {옛날에 그전에 조금 뭐 심다가 말았어.}

10709 @ 그옴 멈 여기서느 야글 머 직썸 머 만들거나 그러지는 잘 안한다, 그지예? {그럼 뭐, 여기서느 약을 뭐 직접 뭐, 만들거나 그러지는 잘 안 한다, 그렇지요?}

10709 # 그르치. {그렇지.}

10709 # 약판술마 주로 인자 혹: 약판술 해묵썸. {약단술만 주로 인제 혹, 약단술을 해먹지.}

10709 @ 약판수른 어떠케 만드느지 함 분 쪼끔 이야기해 주이소. {약단술은 어떻게 만드느지 한 번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0709 # 약판수느 야글 인자 낭기가 사네 가서 인자 케'고 비고 해가주고 와가주고. {약단술은 약을 인제 나무를 산게 가서 인제 캐고, 베고 해 가지고 와 가지고.}

10709 @ 주로 어떻거 드러감?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10709 # 큰: 가매소'테다가 인제, 거 드가능 거는 머 아까 내 약까툰 머 골담초, 지피나무, 옴나무, 짜가사리나무, 머 복선, 돌복숭, 여러 수시까지. {큰 가마술에다가 인제, 거기 들어가는 것은 뭐 아까 내가 말한 약같은 것 뭐, 골담초, 초피나무, 옴나무, 짜가사리나무, 뭐 복숭, 돌복숭, 여러 수십 가지지.}

10709 # 어 여러 수시까진데 그 노를 우케 인자 해다가 가매소테다 인자 폭 하루 썸:더로 썰마. {옴, 여러 수십가지인데 그 놈을 어떻게 인제 해다가 가마술에다 인제 폭 하루가 저물도록 삶아서.}

10709 # 살뜨 가주고 그 늬를 인자 하루 썸:드르 썰마 무리 쯔 쪼'러지거등, 함감 부가주고. {삶아 가지고 그 놈을 인제 하루가 저물도록 삶아 물이 쯔 줄어지면, 한 가득 부어 가지고.}

10709 # 그늬를 부마 인자 물 퍼가주고 그녕 거 인자 싸'레다가 인자 바블 안치가 그걸 가준 바블 해. {그것을 부으면 인제 물을 퍼가지고 그런 것을 인제 쌀에다가 인제 밥을 얹혀서 그것을 가지고 밥을 해.}

10709 # 바블 해가 인자 그래 인자 그 누를 이썰구를 여가 인자 사'카'가주고 인자 단수를 한다 카이께네. {밥을 해 가지고 인제 그래, 인제 그것에 엿질금을 넣어 가지고 인제 삭혀 가지고 인제 단술을 한다고 하니까.}

10709 # 단수를 해가조 그래 인자 야그이 원청 마이 드러가마 썸 씨꼬, 야기 덜 드러가마 덜 씨꼬. {단술을 해 가지고 그래 인제 약 그것이 엄청 많이 들어가면 쯔 쓰고, 약이 덜 들어가면 덜 쓰고.}

10709 # 그기 인자 약판수라꼬. {거기 인제 약단술이라고.}

10709 @ 가 양물 거기다가? {거기 약물 거기다가?}

10709 # 올치 거다 바블. {옴지, 거기에다 밥을.}

10709 @ 사칸는, 단술 데가주고? {삭힌 단술을 넣어 가지고?}

10709 # 올치 바블 안즈가 점부 그 까주고 쌀'믄는 그 물 가 하능기라. {옳지, 밥을 해서 전부 그것을 가지고 삶았는 그 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10709 @ 글 꼬림미까? {그, 그렇습니까?}

10709 # 음. {응.}

10709 @ 그어머느 인자 아까 이야기하신 데로 머 소와 데도 조코? {그러면은 인제 아까, 이야기를 하신 대로 뭐 소화도 되고 좋고?}

10709 # 소화도 조코. {소화에도 좋고.}

10709 @ 신경네? {신경통에도요?}

10709 # 다리 아픈 데도 조코. {다리가 아픈 곳에도 좋고.}

10709 # 배 아픈 데도 조코 머 거 맘병통치라. {배가 아픈 곳에도 좋고 뭐 그것은 만병통치라.}

10709 @ 맘병통치네 그? {만병토리네, 그것은?}

10709 # 으. {응.}

10709 @ 그게 마 제일 이 동네에서느 마니 해드시능 그네? {그것이 그냥 제일 이 동네에 서는 많이 해서 드시는 것이네요?}

10709 # 마'이' 마'이' 해무. {많이, 많이 해먹어.}

10709 # 지쫘마중 근 하네 함븀스 해문 띠베도 마네. {집집마다 거의 한 해에 한 번씩 해 먹는 집도 많아.}

10709 @ 그에 그이 야기다, 그지예? {그것이 그 약이다, 그렇지요?}

10709 # 음, 야기라. {음, 약이라.}

10709 @ 아, 보약? {아, 보약?}

10709 # 올치, 보양 맹'크로 그래. {옳지, 보약처럼 그래.}

10709 @ 보양 맨치로 그러케 해드시네, 그러지예? {보약처럼 그렇게 해드시네, 그렇지요?}

10709 # 그르치. {그렇지.}

## 1.8. 세시 풍속과 놀이

### 1.8.1. 세시 풍속

10801 @ 그 어르신 인제 그 세시풍소게 대에서 저, 절기에 따른 그 풍속 아니씀미까? {그 어르신 인제 그 세시풍속에 대해서 절, 절기에 따른 그 풍속이 안 있습니까?}

10801 @ 풍소게 대에서 쪽 함 분 여쭈 보게씀미따. {풍속에 대해서 쪽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0801 @ 정'워레는 주로 어떤 세시풍소기 이씀미까? {정월에는 주로 어떤 세시풍속이 있습니까?}

10801 @ 정월파레너? {정월달에는?}

10801 @ 음력 정월파레너? {음력 정월달에는?}

10801 # 정월 파니는 주로 은자 대보'르미 이꼬, 풍소기. {정월달에는 주로 인제 대보름이 있고, 풍속이.}

10801 @ 설? {설?}

10801 # 은자 여 산'지 지내능 기 이꼬, 옌나레느. {인제, 여기 산제 지내는 것이 있고, 옛날에는.}

10801 # 그르 정'월파레는 여자들 너무 지베 마이 가지 마라. {그렇게 정월달에는 여자들은 남의 집에 많이 가지 마라.}

10801 # 그릉 기 이꼬. {그런 것이 있고.}

10801 # 그르 미까지 이찌. {그런 몇 가지가 있지.}

10801 @ 그럼며 그 보통 그어머느 설라른 머 머 함미까, 그엄머느? {그러면 그 보통 그러면은 설날은 뭐,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은?}

10801 @ 설라른? {설날은?}

10801 # 설라른 지:사'지내지 인자. {설날은 제사를 지내지, 인제.}

10801 @ 지사예? {제사요?}

10801 # 올치. {옳지.}

10801 # 인자 조상의 인자 지사 지내지. {인제 조상에게 인제 제사를 지내지.}

10801 @ 지사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10801 # 으, 고기 인자 주로 은자 지'사' 지냉기 목찌기고. {음, 그것이 인제 주로 인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목적이고.}

10801 @ 세베드리고? {새배를 드리고?}

10801 # 그르치. {그렇지.}

10801 @ 또 머 노는, 노능 거또 이썸미까? {또, 뭐 노는, 노는 것도 있습니까?}

10801 # 설라느눔 머 빌로 머 안놀지. {설날은 뭐 별로 뭐 안 놀지.}

10801 # 인자 이튼날 인자 정월 보름 데야 인자 유'또 놀고. {인제 이튼날 인제 정월 보름이나 되어야 인제 웃놀이도 놀고.}

10801 @ 그엄 정월 보름나른, {그럼 정월 보름날은,}

10801 @ 인자 유또 놀고? {인제 웃놀이도 놀고?}

10801 # 그르치. {그렇지.}

10801 # 인자 고 아네도 할 수 이찌. {인제, 그 이전에도 할 수 있지.}

10801 # 설마 지내가마 인자 아무나나도 인자 유'또 놀 수 이꼬. {설만 지내 가면 인제 아무 날에도 인제 웃놀이도 놀 수 있고.}

10801 @ 유또 놀고, 정월 보름까지는 유또 놀고함미? {웃놀이도 놀고, 정월 보름까지는 웃놀이도 놀고 합니까?}

10801 # 올치, 그르치, 유또 놀고 머, 이 쟁'가리도 치고, 오망 거 다하지. {옳지, 그렇지, 웃놀이도 놀고 뭐, 이 쟁과리도 치고, 여러 가지를 다 하지.}

10801 # 자'치기도 하고, 공:치기도 하고 그어눔 머 여러: 가지 노는 방버비 만치. {자치기도 하고, 공치기도 하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노는 방법이 많지.}

10801 @ 그, 그 다으메 거 정월 보름나르는 그어머눔 머 또 어떻 거 머? {그, 그다음에 거기 정월 보름 날에는 그러면 뭐 또 어떤 것이 뭐?}

10801 # 주름 보~울 보름나레 인자 대'둥이라고 둥:이'도 하고. {주로 보름, 보름날에 인제

대동계라고 동계도 하고.}

10801 # 어, 동이 인자 해가주오 일러네 거 동네서 썬는 정'비가 얼마나 쓰'인'나, 머시 미 뿌이나 썬'나, 그능 게 인자 주로 인자 보름날 마~이 인자 하지. {응, 동계를 인제 해가지고 일 년에 거기 동네에서 썬는 경비가 얼마나 쓰였나, 무엇이 몇 푼이나 썬나, 그런 것이 인제 주로 인제 보름날에 많이 인제 하지.}

10801 # 그래 하고 나서느 인자 피를' 갈라 가주고 인자 입뚜 놓고, 상품 사가주오. {그래 하고 나서느 인제 편을 갈라 가지고 인제 옷놀이도 놓고 상품을 사 가지고.}

10801 # 그래 인자 하루 즐겁게 보내여. {그렇게 인제 하루를 즐겁게 보내요.}

10801 # 메구도 치고. {뽕과리도 치고.}

10801 @ 거기 머 그어머 인제 지심밭끼도 하고 그러켄네, 그어머? {거기 뭐 그러면 인제 지심밭기도 하고 그렇겠네, 그러면요?}

10801 # 그르치. {그렇지.}

10801 @ 지심밭끼도 하고, 거 은제 거기 정월 보름날 머 른 그어 머 달집 태우기도 함미까? {지심밭기도 하고, 거 인제 거기 정월 보름날은 뭐 그런 뭐 달집을 태우기도 함니까?}

10801 # 달집 태우기 하지. {달집을 태우기도 하지.}

10801 # 달집 예저네느 그 동네마'중 다 태아찌. {달집을 예전에는 그 동네마다 다 태웠지.}

10801 @ 달찌븐 머 우쨌미까? {달집은 뭐 어떻게 함니까?}

10801 # 저: 사'네가서 은자 솔리퍼리, 솔께~이, 솔께~이 그 누물 막 지르를 찌다가 지불지 가주고 그르가 인자 아네 인자 지폴 마이 여가주고 마 그따다 부를 지르마 영계가 막 엄:청시리 나네. {저기 산에 가서 인제 솔잎, 솔가지, 솔가지 그것을 막 짐을 쳐다가 짐을 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제 안에 인제 짚을 많이 넣어 가지고 마 거기에다 불을 지르면 연기가 막 엄청스럽게 나지.}

10801 # 둘:둘: 마'르섬 갱'자이 마이 나지. {둘둘 말으면서 굉장히 많이 나지.}

10801 @ 검 달집태우기느 태우기 하기 저네 머 거게서 절도 하고 함미까? {그럼 달집태우기는 태우기를 하기 전에 뭐 거기서 절도 하고 함니까?}

10801 @ 고사 지냄미까? {고사도 지냄니까?}

10801 # 고다도 지내고 거도 머 글도 써가주 노코 머 여러: 가지로 하능 기 만치. {고사도 지내고 거기도 뭐 글도 써 가지고 놓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많지.}

10801 @ 비내예, 그러며느. {비는 것이네요, 그러면은.}

10801 # 올치, 비능 기지. {옳지, 비는 것이지.}

10801 @ 주로 머? {주로 뭐?}

10801 # 으, 자'서게 대에서 밭:고, 난도 아나푸곤 일런 잘 지내라꼬도 밭고 머 비능 게 이찌. {음, 자식에 대해서 밭고, 나도 안 아프고 일 년 잘 지내라고도 밭고, 뭐 비는 것이 있지.}

10801 @ 농사 잘 데, 어 머 그라? {농사가 잘 되라고, 음 뭐 그렇게?}

10801 # 올치, 농사도 잘 디라 그래고. {옳지, 농사도 잘 되라고 그러고.}

10801 # 그 인자 가끼 소망이 인자 다 다르지. {그 인제 각기 소망이 인제 다 다르지.}

10801 @ 고옴 머 저월 대보름미나 또는 그어 설라레 이럴 때능 머 북'조리도 함미까? {그럼, 뭐 정월 대보름이나 또는 거기 설날에 이럴 때는 뭐 북조리도 함니까?}

10801 # 북'조리 하지. {북조리도 하지.}

10801 # 북조리 저저도 걸려가 인네. {북조리는 저기, 저기도 걸려가지고 있네.}

10801 @ 북조리 언제 함미까? {북조리는 언제 합니까?}

10801 # 북조리 보통 은자 정월 초하룻날 시자순자 대보름까지 인자 저누우 팔로 텅기든다, 마이 텅기지. {북조리는 보통 인제 정월 초하룻날부터 시작해서 대보름까지 인제 저것을 파려고 다닌다, 많이 다니지.}

10801 @ 설날부터 해가주 그래 한다, 그지예? {설날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렇지요?}

10801 # 음, 그러치. {음, 그렇지.}

10801 @ 그 다으메 혹씨 그 머 정월따레느 머 구또, 구또 함미까? {그 다음에 혹씨 그 뭘 정월달에는 뭘 굿도, 굿도 합니까?}

10801 # 정우따리느 구슨 잘 안하지. {정월달에는 굿은 잘 안 하지.}

10801 # 그 다으메 머 정월따레 머 설라이나 이럴 때 성묘도 감'미까? {그 다음에 뭘 정월달에 뭘 설날이나 이럴 때 성묘도 갑니까?}

10801 # 성모느 파'러레 마이 가지. {성묘는 팔월에 많이 가지.}

10801 @ 잘 양가고예, 우 여너? {잘 안가고요, 여기서는요?}

10801 # 올치. {옳지.}

10801 @ 그 텨 당즈, 그 당제하고 머 산신제 그래 함미까? {그 다음, 당제, 그 당제하고 뭘 산신제도 그렇게 합니까?}

10801 # 음, 당선제. {응, 당산제.}

10801 @ 당산제 그거너 인제 누가 제주 한 사람 정해가 그래 함미까? {당산제, 그것은 인제 누가 제주를 한 사람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10801 # 그르치. {그렇지.}

10801 # 근 이저납'시 말해'찌. {그것은 이전의 앞에 말했지.}

10801 @ 그 다으메, 그 다으메 머 점도 봄미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점도 봄니까?}

10801 # 점도 해. {점도 하지.}

10801 # 금년 신'수가 어'뜬'노. {금년의 신수가 어떻게?}

10801 @ 저른 어떤 점 봄미까? {점은 어떤 점을 봄니까?}

10801 # 그 사:주'라 카능 거또 이꼬 점도 보고 그래 탄 처느가지로 나 나가 보지. {그 사주라고 카는 것도 있고, 점도 보고 그래 서너 가지로 나, 나눠 보지.}

10801 @ 그며 저른 누가 점, 점찌베 가서 봄미까? {그러면 점은 누가 점, 점집에 가서 봄니까?}

10801 # 인제 채글르아, 토종예, 토정비겨리라 카능 거또 이짜나. {인제 책으로, 토정에 토정비결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10801 # 토정비결도 보고. {토정비결도 보고.}

10801 # 토정비겨른 여서 인자 나 여코 해가주고 그 인자 글마 알만 대충 볼 수 이찌. {토정비결은 여기서 인제 나이를 넣고 해 가지고 그래 인제 글만 알면 대충은 볼 수가 있지.}

10801 @ 그암 누아 찡너 가주고 바주는 사암도 이꼬 그러썸미까? {그럼 누가 책력을 가지고 봐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10801 # 바주는 사암도 인, 그르치. {봐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10801 @ 동네에서? {동네에서?}

10801 # 그르치. {그렇지.}

10801 @ 어 그아브 그르가 자기 일런 신수나 이렇 거 본다, 그지예? {음, 그러면 그래서 자기 일 년의 신수나 이런 것을 본다, 그렇지요?}

10801 # 그르치예. {그렇지요.}

10801 # 일런 신수 내가 어느 나'르눔 머'시 나쁘고 어느 나르눔 머 머'실 조심해라, 무를 조심해라, 사'늘 조심해라, 머'른 조심해라 케사미서 인자 일런 열두달 인자 다: 인자 신수를 인자 바꾸지. {일 년 신수를, 내가 어느 날은 무엇이 나쁘고 어느 날은 뭐, 무엇을 조심해라, 무엇을 조심해라, 산을 조심해라, 물은 조심해라고 하면서 인제 일 년 열두달을 인제 다, 인제 신수를 인제 봐주지.}

10801 @ 그으 보통 그읍 너 설라르 머글, 떠꾸 머글 때 나이 수망큼 먹습미까, 우짚미까, 예저네? {그럼 보통 그러면 설날에 먹을, 떡국을 먹을 때 나이 수만큼 먹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10801 # 떠꾸은 인잔 떠꾸무'마 한 살 무운, 한 살 더 무따, 아 인자 이 끼래 데지. {떡국은 인제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먹었지, 한 살을 더 먹었다, 아 인제 이렇게 되었지.}

10801 # 떠꾸은 머 수를 가따 시알르 몽능 거또 아이고 떠'꾸'만 무'마 너 한 살 무'따, 동지 파쪽 무마 한 살 무따. {떡국은 뭐 수를 갖다가 헤아리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떡국만 먹으면 너 한 살을 먹었다, 동지 팔죽을 먹으면 한 살을 먹었다.}

10801 @ 그아며느 정월 대보르르메는 머 어떻 거 해, 음시근 머 어떻 게 해묵씀미까? {그러면 정월 대보름에는 뭐 어떤 것을 해, 음식은 뭐 어떤 것을 해 먹습니까?}

10801 # 정월 보름내는 부'름' 마'이' 켤'다. {정월 보름에는 부럼을 많이 켤다.}

10801 @ 부름네? {부럼요?}

10801 # 예. {예.}

10801 @ 부름무? {부럼은 뭐?}

10801 # 부시르'를 난느라꼬. {부스럼을 낫게 하느라고.}

10801 @ 금 머 어떠케? {그럼 뭐 어떻게?}

10801 # 머 인자 으리'더 깨무고. {뭐 인제 강정도 깨어 먹고.}

10801 @ 머 그냥 무 깨묵씀미까, 앙 그암 머머 이야기 하미까? {뭐, 그냥 뭐 깨어 먹습니까, 안 그럼 뭐 말을 합니까?}

10801 # 어, 올치, 부시름 깨'묵'짜. {어, 옳지, "부스럼을 깨먹자."}

10801 @ 이야기 하면서? {말을 하면서?}

10801 # 올치. {옳지.}

10801 # 부시름 깨'묵'짜 카미 무'꼬. {부스럼을 깨먹자라고 하면서 먹고.}

10801 # 또 술 마시며느 기발기수리라 카며 인자 기발기, 인자 기 발끼 해들라꼬 기발기수리라꼬도 하고. {또, 술을 마시면은 귀밝이술이라고 하며 인제 귀를 밝게, 인제 귀를 밝게 해 달라고 귀밝이술이라고도 하고.}

10801 @ 그머 연세 마, 어른드러 기발기술 드시고 그런다, 그지예? {그럼 연세 많으면, 어른들은 귀밝이술을 드시고 그런다, 그렇지요?}

10801 # 올치. {옳지.}

10801 @ 거 부시름 깨기도 하고? {거기 부스럼을 깨기도 하고?}

10801 # 음. {응.}

10801 @ 그 다메 머 조, 조리밥 어끼도 함미까? {그 다음에 뭐, 조리, 조리밥을 얻기도 합니까?}

10801 # 조리바브 어찌도 하고. {조리밥을 얻기도 하고.}

10801 # 조리, 조리밥 어드러 마이 가썸. {조리, 조리밥을 얻으러 많이 갔어.}

10801 # 아'들' 마이 보내따 카이께네. {아이들을 많이 보냈다고 하니까.}

10801 @ 그어늘 머 그러며는 집집마다? {그러면 뭐, 그러면은 집집마다?}

10801 # 조리 인자 하나 가숙, 가주고 인자 지똥마다 여 조리밥 주소, 조리밥 주소 카미 인자 텅기마 인자 한 수까르스 더러가주고 조리 다 다며주머 근 한 여남치 모타가 와 인자 엔나렌 은자 방아까레 올라 안자 무'우'마 인자 약 떼고 조타꼬 아들 인자 어더 와서 바아까레 타고 안자서 머꼬, 지베 와가이 노'나서 무끼도 하고 그래썸. {조리를 인제 하나씩 가지고 인제 집집마다 여기, "조리밥 주소, 조리밥 주소"라고 하면서 인제 다니면 인제 한 순가락씩 밥을 털어가지고 조리에 다, 담아주면서 그 한 여남 집을 모아가 와서, 인제 옛날에는 인제 방아의 갈래에 올라 앉아 먹으면 인제 약이 되고 좋다고 아이들에게 인제 얻어 와서 방아 가래에 타고 앉아서 먹고, 집에 와가지고 나누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지.}

10801 @ 아, 그엄미는 그르가 인제 애들한테 조타고 인제 그래가, 어. {아,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인제 애들한테 좋다고 인제 그래가지고, 음.}

10801 # 음, 조타고 어더와서 무라. {음, 좋다고 얻어와서 먹으라고.}

10801 @ 어라 한다, 그지예? {먹어라 한다, 그렇지요?}

10801 # 얼치, 얼치. {웁지, 웁지.}

10801 @ 조리밥또 하고? {조리밥도 하고?}

10801 # 마이 해썸. {많이 했지.}

10801 # 엔나르느 마이 해썸. {옛날에는 많이 했지.}

10801 @ 금 머 더이팔기도 함미까? {그럼 뭐 더위팔기도 함니까?}

10801 # 더이파능 기너, 더이팔기도 머 한다 그래산데, 그으느 학시리 모르게꼬. {더위를 파는 것은, 더위팔기도 뭐 한다고 그렇게 말하던데,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10801 @ 그 대엠 머 그 정월 대보름메눔 머 방'아가통 걷 안 찍습미까? {그 다음에 뭐, 그 정월 대보름에는 뭐 방아같은 것은 안 찍습니까?}

10801 # 그르 바~'애도 잘 안 찌치. {그렇게 방아도 잘 안 찢지.}

10801 @ 찌~어, 정월 대보름 방아찌으므 안 데는 나림미까? {정월, 정월 대보름에는 방아를 찢으면 안 되는 날입니까?}

10801 # 으, 음. {으, 음.}

10801 # 거 미리 다 해나라, 줌비 해노코 그날 찌치 마라, 델 수 이씨마. {그런 것은 미리 다 해 놓아라, 준비를 해 놓고 그날은 찢지 마라, 될 수 있으면.}

10801 # 온, 오토 빨지 마라, 빨래도 하지 마라, 그르사치. {옷, 옷도 빨지 마라, 빨래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10801 @ 어 그엄 설라리는 설라레도 하 안, 하면 안데능 거 이슴미거, 머 빨래 이렇거느 아함미가, 설? {어, 그럼 설날에는 설날에도 하면 안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뭐 빨래 이런 것은 안 함니까, 설에는?}

10801 # 설라레 이러끈 아 하지. {설날에 이런 것은 안 하지.}

10801 # 정월 초하룻날인데 할 수도 어꼬. {정월 초하룻날인데 할 수도 없고.}

10801 # 거 미리 다 해나썸. {그런 것은 미리 다 해 놓았지.}

10801 @ 빨래라든지? {빨래라든지?}

10801 # 아 하지, 그때느. {안 하지, 그때는.}

10801 @ 그 다으메 저기 뽀뽀 바'아도 안 찌꼬? {그 다음에 저기 뽀뽀, 방아도 안 찌꼬?}

10801 # 그르치. {그렇지.}

10801 # 정월 초하루날 아무 끄도 아 하지. {정월 초하루날은 아무 것도 안 하지.}

10801 @ 머리 껌꼬 이렇 거또 안 함미까? {머리를 감고 이런 것도 안 함미까?}

10801 # 머리아 머 거 정월 초하루날 까물 수도, 머리스 까물 수 이찌마는 다름 거느 안 하지. {머리아 뭐, 그 정월 초하루날은 감을 수도, 머리스 감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것은 안 하지.}

10801 @ 바느질 가통 거또? {바느질같은 것도?}

10801 # 바느질도 아 하고, 모듬 거 점부 다 안 하지. {바느질도 안 하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안 하지.}

10801 # 그날 미리 침'부 다' 해노치. {그날은 미리 전부 다 해 놓지.}

10801 @ 큰 정월 대보름날 아까 이 윤노리나 이렇거또 하고 머 널뛰기도 함미까? {거기 정월 대보름날 아까 말한 이 율놀이나 이런 것도 하고 뭐 널뛰기도 함미까?}

10801 # 쟁가리도 치고, 널뛰기도 하고, 고네도 타고. {쟁가리도 치고, 널뛰기도 하고, 그네도 타고.}

10801 @ 그 지불노리도? {그 쥐불놀이도?}

10801 # 지불노리도 하고, 달집또 태우고. {쥐불놀이도 하고, 달집도 태우고.}

10801 # 머 여러: 가지 정월 대보름날 하능 기 만치. {뭐 여러 가지 정월 대보름날은 하는 것이 많지.}

10801 @ 그 머 당산제 지내고 이럴 때너 금기줄도 침미까? {그 뭐 당산제를 지내고 이럴 때는 금기줄도 침미까?}

10801 # 검무줄, 지썰매정 검무줄 쳐. {금기줄, 집집마다 금기줄을 쳐.}

10801 @ 집집마다 다 침미까? {집집마다 다 침미까?}

10801 # 어. {응.}

10801 @ 어디 언제 검 금기줄 언제 침미까? {어디 언제 그럼, 금기줄을 언제 침미까?}

10801 @ 정월 대보름 당일날 침미까, 양 그암며너? {정월 대보름 당일날 침미까, 안 그러면은?}

10801 # 그르치, 인자 그날 초눈나흔날. {그렇지, 인제 그날 초나흔날.}

10801 # 열라온날 지어'게 다 치지. {열나흔날 저녁에 다 치지.}

10801 # 저어'게 인냐 항테 파다간 니:군데 인자 노코 인자 경구썰 치고. [저녁에 인제 황토 흙을 파다가 네 군데 인제 놓고, 인제 금기줄을 치고.}

10801 @ 황토 그건 왜 가따 노썰미까? {황토 그것은 왜 갖다가 놓습니까?}

10801 # 그 인자 빨'금 걸 가따 은자 자끼 자시늬 몬 달리들구로 하능 기지. {그 인제 붉은 것을 갖다가 인제 잡귀 잡신이 못 달려들게 하는 것이지.}

10801 @ 거느 어디다 가따 논는 데예? {그것은 어디에다 가져다 놓는가요?}

10801 # 삿짝 아페 전테 너치. {사립문 앞에 저런 곳에 놓지.}

10801 @ 아, 네 군데에다가 흑 떠다 가따 노코, 예저네 반드시 금기줄도 치고, 그래 헨네, 그지예? {아, 네 곳에다가 흑을 떠다가 갖다 놓고, 예전에는 반드시 금기줄도 치고, 그래 했는데, 그렇지요?}

10801 # 음, 으, 울치, 울치, 음. {음, 으 옹지, 옹지, 음.}



10801 @ 거 무 머 이래 정월은 보통 그래 하고 이월레도 머 하능 거 이썸미까? {그 뭐 이래 정월은 보통 그래 하고, 이월에도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10801 # 이월레도 이월빠비라꼬 엔나레는 해썬. {이월에도 이월밥이라고 옛날에는 했어.}

10801 # 이월 초하룻날 바 비레 나코 인자 그때르 인자 삼시는 저 거서 삼신할마이가 니르 오민성 바'람'물 덜'꼬 온다, 비'를 덜'꼬 온다. {이월 초하룻날 밥을 이래 해 놓고 인제 그때는 인제 삼신은 저 거기서 삼신할머니가 내려 오면서 바람을 데리고 온다, 비를 데리고 온다.}

10801 # 인자 딸 덜'꼬 올 썬게는 바라를 덜'꼬 오고, 바라르 처메팔랑팔랑 거'꼬, 미느리 덜'꼬 올 썬에는 비가 주룩주룩 오고, 그른 전서리 이서썬. {인제 딸을 데리고 올 적에는 바람을 데리고 오고, 바람에 치마가 팔랑팔랑 거리고, 머느리를 데리고 올 적에는 비가 주룩주룩 오고, 그런 전설이 있었지.}

10801 @ 삼신할마이가예? {삼신할머니가요?}

10801 # 올치. {옳지.}

10801 # 그를 썬 영등할마'이가, 영등할마'이라 그래썬, 삼스할마여. {그럴 적에 영등할머니가, 영등할머니라고 그랬지, 삼신할머니를.}

10801 # 영등할마'이. {영등할머니.}

10801 # 영등할마이가 니르 오면서 인자 딸 덜'꼬 올 썬에넌 바라미 불고, 미'르리 덜'꼬 올 썬에는 비가 오고, 그라 오 썬즈라'꼬그, 욱시미 만타 이기라. {영등할머니가 내려 오면서 인제 딸을 데리고 올 적에는 바람이 불고, 머느리를 데리고 올 적에는 비가 오고, 그렇게 옷이 젖으라고, 욱심이 많다 이것이라.}

10801 @ 그엄머는 그 정월 따레는 아까 설라리너 대보름나레 머 음식 해멍능 거또 이'꼬 헨는데,이월레는 머 음식가'통 거또 함미까? {그러면 그 정월달에는 아까 살날이나 대보름날에 뭐 음식을 해먹는 것도 있고 했는데, 이월에는 뭐 음식같은 것도 합니까?}

10801 # 미월또 나물도 장망코, 오곡'뽕또 하고, 응 그래썬. {이월에도 나물도 장만하고, 오곡'뽕도 하고, 응 그랬어.}

10801 @ 매 정월 대보름처럼? {맨 정월 대보름처럼요?}

10801 # 그래, 갈, 어, 갈라무'끼도 하고. {그래, 갈라, 음 갈라 먹기도 하고.}

10801 @ 오곡'뽕또 하고? {오곡'뽕도 하고?}

10801 # 음. {음.}

10801 @ 나물도 하고 그러썬'썬미까? {나물도 하고 그렇게 하썬'썬미까?}

10801 # 올치, 오오'덕 가'까'지 나물 다 장망코. {옳지, 오곡'뽕, 갖가지 나물을 다 장만하고.}

10801 # 그르'가 일'썬 새'부게 해'무'거. {그래 가지고 일'썬 새벽에 해 먹었어.}

10801 # 그노 와'그러노 하면 농사 일'썬', 일'썬'진'나'꼬.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농사를 일'썬, 일'썬'짓'나'고.}

10801 # 머 늙 아'웬 바'블 해야 '문다' 그러머 막 새'부게 바'블 한다 카이. {뭐 다른 사람보다 앞에 밥을 해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새벽에 밥을 한다고 하니까.}

10801 @ 아, 이월'따레'마예? {아, 이월'달'에요?}

10801 # 음. {음.}

10801 @ 농사 아직 실'썬'로 지'썬'도 안'는데도? {농사를 아직 실'썬'로 짓'지'도 안'는데도?}

10801 # 으, 농사 잘 디'라'꼬. {응, 농사가 잘 되'라'고.}

10801 # 으 그때야 머 농산 다 쪼매숙 지이찌, 지끼느. {음, 그때야 뭐 농사를 다 조금씩 지었지, 짓기는.}

10801 @ 아이, 아니 그런데 이월따레느 아지 추워서 안 농사. {아니, 아니 그런데, 이월달에는 아직 추워서 아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텐데.}

10801 # 이월딸 뎡, 이월딸 이자 지내마 인자 이'열'뺨 무꼬 나마 썩근 새끼 몽 매'단다. {이월달 뎡, 이월달이 인제 지내면 인제 이월뺨을 먹고 나면 썩은 새기줄에 목을 매단다.}

10801 # 엔나레 인자. {옛날에 인제.}

10801 @ 거늬 뎡미까? 그것은 뎡니까?

10801 # 머심드리 이서끄더, 이월딸디마 인자 아지 말로 가서 일 해야 데고 인자 이월딸 디머누 허여리 막 케'에'식 달려든다, 이렐게네 인자 썩근 소끼 몽 매다라 가주 주글란다 이기라. {머슴들이 있었거던, 이월달이 되면 인제 아침 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인제 이월달이 되면은 할 일이 계속 달려든다, 이러니까 인제 썩은 새끼에 목을 매달아 가지고 죽을 란다고 하는 것이라.}

10801 @ 그 정도로 히미 든다, 그제? {그 정도로 힘이 든다, 그렇지요?}

10801 # 올치, 그만치 히미 든다, 그른 니르 우예 하젠노 이기라. {옳지, 그만큼 힘이 든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나 이것이라.}

10801 # 그르이 썩근 소테 몽 매달러 간다:: {그러니까 썩은 새끼에 목을 매달러 간다.}

10801 # 엠마레 그림 말 이썩썩.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

10801 @ 머 그 이월따레느 인자 아까 말씀하신데로 농사 그어 잘 데라고 젤 일찍 바블 다은 동네 다을 어떤 집뽀다 빨리 멍는다, 그지예? {뎡, 이월달에는 인제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농사, 거기 잘 되라고 제일 일찍 뺨을, 다른 동네, 다른 어떤 집보다 빨리 먹는다, 그렇지요?}

10801 # 올치, 거기 인자 풍시기지. {옳지, 거기 인제 풍습이지.}

10801 @ 아, 그이 풍스이다, 그지예? {아, 그게 풍습이다, 그렇지요?}

10801 # 음. {응.}

10801 @ 머 혹씨 머 이월따레느 머 노리 하능 거느 이썩미까? {뎡, 혹시 뎡 이월달에는 뎡 놀이하는 것은 있습니까?}

10801 # 이월따름 머 큰 노린 업썩썩. {이월달은 뎡 큰 놀이는 없었지.}

10801 # 인자 일: 처'리다 보잉게네. {인제 일 철이다 보니까.}

10801 @ 인저 이월딸부터 은자 이리 쫘 만타 그지예? {인제 이월달부터 인제 일이 쫘 많다 그렇지요?}

10801 # 그르치. {그렇지.}

10801 @ 거 정월딸 아꺼 대보르메느 궁구쫘도 치고 그래 헨는데, 이월따르늬 머, 머 하능 거 업썩미까? {그 정월달, 아까 대보름에는 금기쫘도 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월달은 뎡, 뎡 하는 것은 있습니까?}

10801 # 거 이월따레느 건 머 안 하지, 인자. {거기 이월달에는 그런 건 뎡, 안 하지, 인제.}

10801 # 정월따레 보통 다 해뿌고. {정월달에 보통 다 해버리고.}

10801 @ 황토가툼 어 그렇 거또 안한다, 그지예? {황토같은 음, 그런 것도 안 한다, 그렇지요?}

10801 @ 아, 가며 하이트 이워레 여너 비가 오며는 영등할마리가? {아, 그러면 하여튼 이

월에 여기는 비가 오면은 영등할머니가?)

10801 # 영등할마이가 니르 오미서 비 올 찌에는 미느리 덜꼬 오고, 바람 불 찌에는 딸 덜꼬 오고. {영등할머니가 내려 오면서 비가 올 적에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바람이 불 적에는 딸을 데리고 오고.}

10801 @ 딸 텔꼬 온다 이래 이야기 하미까? {딸을 데리고 온다고 이래 이야기를 합니까?}

10801 # 올치, 음. {옳지, 음.}

10801 @ 그 날씨저미다, 그지예? {그 날씨점이다, 그러지요?}

10801 # 그르치, 날씨 인저 딸 덜꼬 올 쥔 바람 팔랑팔랑 거마 처매 짜라게 가 팔랑팔랑 거림 보기 조라꼬 인자 바람 덜꼬 오고, 미느리 덜꼬 올 찌에는 인자 미느리 비가 저저 가 주오 인자 더어'러'께 비라꼬 인자 비가 오고, 머 옥씨미 그만치 만타 이기. {그렇지 날씨, 인제 딸을 데리고 올 적에는 바람이 팔랑팔랑 거림처럼 보기가 좋으라고 인제 바람을 데리고 오고, 며느리를 데리고 올 적에는 인제 며느리리가 비에 젖어 가지고 인제 더럽게 보이라고 인제 비가 오고, 뭐 욕심이 그만كم 많다 이것이지.}

10801 @ 머 혹시 보리 뿌리 보고도 점 치고 해씀미까? {뭐, 혹시 보리 뿌리를 보고도 점을 치고 했습니까?}

10801 @ 이월파래? {이월달에?}

10801 # 버리 뿌르 보오느 인자 버리 싸기 인자 입춘. {보리 뿌리를 보는 인제 보리썩이 인제 입춘에.}

10801 @ 아니 이월파래, 음녀 이위래 머 보리 뿌리 보고 머 하네 농사나 이렇 거 점치고 신수에 대해서 점치고 해씀미까? {아니 이월달에, 음력 이월에 뭐 보리 뿌리를 보고 뭐 한 해 이런 농사나 이런 것을 점을 치고, 신수에 대해서 점치고 했습니까?}

10801 # 어어, 그느이 그그너 엄서꼬. {음, 그러니까 그것은 없었고.}

10801 @ 그릉 건 업써써예? {그런 것은 없었어요?}

10801 # 거시긴 거 머꼬 그을 쟈는 인잔 입춘, 천 은자 봄나르 은자 버리 뿌르 뽀부 봄 버리 뿌리가 시: 가'지 니'리따. {거시기 거 무엇이지, 그럴 적에는 인제 입춘, 저 인제 봄날은 인제 보리 뿌리를 뽑아서 봄보리 뿌리가 세 가지가 내렸다.}

10801 # 시 가지 니리마 인자 대풍녀~이 텐다, 인자 그런 전서리 이서쎄. {세 가지가 내리면 인제 대풍년이 된다, 인제 그런 전설이 있었지.}

10801 @ 보리 뿌리 이래 뽀버 가주고 머가 보며예? {보리 뿌리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 무엇을 보면요?}

10801 # 시'이' 뿌'리나, 니 뿌리너 빠리 뿌리가 마이 내리시마 풍'녀니 지'고 버리 뿌리가 자끼 내리마 풍녀~이, 승녀~이 텐다, 이래. {세 뿌리나, 네 뿌리의 보리 뿌리가 많이 내렸으면 풍년이 지고 보리 뿌리가 작게 내렸으면 풍년이, 흉년이 된다, 이래.}

10801 @ 으, 그른 시그로 전도 치기도 해따, 그지예? {음, 그런 식으로 점도 치기도 했다, 그러지요?}

10801 # 그르치. {그렇지.}

10801 @ 사머레느 머 하능 게 이썸미까? {삼월에는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10801 # 사머레느 사'멸 삼'신나리지. {삼월에는 삼월 삼짓날이지.}

10801 # 사멸 삼신나르 인자 여 여 그 저네 연자이선나? {삼월 삼짓날은 인제 여기, 여기 그 전에 제비가 있잖아?}

10801 # 연자 날라 온다꼬 사멸 삼신나르 연자가 나라든다 이래쎄. {제비가 날라 온다고

삼월 삼짇날은 제비가 날아든다 이렇게 말했지.}

10801 @ 연자 날라 드는 날? {제비가 날라 드는 날이요?}

10801 # 음. {응.}

10801 # 차멸 삼진날. {삼월 삼짇날}

10801 # 사멸 삼신날도 존 나르지. {삼월 삼짇날도 좋은 날이지.}

10801 # 인나 꼬또 피고, 입또 피고. {인제 꽃도 피고, 입도 피고.}

10801 # 사멸 삼신나리 인자 존 나, 엔나레 그릉 어 하루 슥 노라따 카니께네, 일꾼드리.  
{삼월 삼짇날이 인제 좋은 날, 옛날에 그런 날은 음, 하루씩 놀았다고 하니까, 일꾼들이.}

10801 @ 사멸 삼진나름 머 하고 놈미까, 그어면? {삼월 삼짇날은 뭐 하고 놀았습니까, 그러면?}

10801 # 사멸 삼신나르 그 날도 머 메구도 치고 놀고 그래쥬. {삼월 삼짇날은 그 날도 뭐 썰과리도 치고 놀고 그랬지.}

10801 @ 건 사멸 삼진나름 머 점치고, 그릉 거 머, 아까 머 보리싸기나 또느? {그건 삼월 삼짇날은 뭐 점치고, 그런 것 뭐, 아까 뭐 보리썩이나 또느?}

10801 # 어, 그릉 건 엄서꼬. {응, 그런 것은 없었고.}

10801 @ 그릉 건 어꼬예? {그런 것으 없고요?}

10801 # 어. {응.}

10801 # 사멸, 사멸 삼'신나리 인자 엔날부터 은자 존' 나리다. {삼월, 삼월 삼짇날이 인제 옛날부터 인제 좋은 날이다.}

10801 @ 사멸 삼진나름 머 머 명, 명능 거 특? {삼월 삼짇날은 뭐, 뭐 먹는 것은 특별히 없고요?}

10801 # 머이, 해무꼬 머, 특빠라이 해무꼬 그능 건 엄서꼬. {무엇을 해 먹고 뭐, 특별하게 해 먹고 그런 것은 없었고.}

10801 # 사'물 삼'신나르 인자 꼬 피고, 이 피고, 인자 춘사머리르다 보잉끼 조은 나리다. {삼월 삼짇날은 인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인제 춘삼월이다 보니까 좋은 날이다.}

10801 # 그래가 사멸 삼신날 정헨능 기, 어른드리. {그래 가지고 삼월 삼짇날을 정했는 것이라, 어른들이.}

10801 @ 사멸 삼진날 머 흑씨 예저네 쏜, 꼬찌지미나 이렇 거느 암 부치머거썩미까? {삼월 삼짇날은 뭐 흑씨 예전에 쏜, 쏜찌짐이나 이런 것은 안 붙여먹었습니까?}

10801 # 음, 사멸 사은날 머 그릉 그능 빌로 아 헨능 거 엄찌 이거. {음, 삼월 사흘날 뭐 그런 것은 별로, 안 했는 것은 없지, 이것은.}

10801 @ 아, 별로 꼬찌지미나 이렇 건느 별로 아 해따, 그지예? {아, 별로 쏜찌짐이나 이런 것은 별로 안 했다, 그렇지요?}

10801 # 어. {응.}

10801 @ 그러고 머 사멸 삼진날 하면 안 데능 이른 니른 업썩썩미까? {그리고 뭐 삼월 삼짇날이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10801 # 그그는 빌로 업서썩 시푸다, 우리 생가에는. {그것은 별로 없었지 싶다, 우리 생가에는.}

10801 @ 그 다크메. {그 다음에?}

10801 # 사워른 자 초파일라리고. {사월은 인제 초파일날이고.}

10801 @ 사월 초라릴날? {사월 초파일날?}

10801 # 어, 서꺼머리가 인자 탄생헀 나리다. {응, 석가모니가 인제 탄생헀는 날이다.}

10801 @ 그눔 초파릴레? {그럼 초팔일예?}

10801 # 속번, 토파이나느 인자 만능 구강하러 해인사르 마이 가찌. {초팔, 초팔일날은 인제 많이 구강하러 해인사를 많이 갔지.}

10801 # 이제로 인제 쪽: 너머 가미서 여자들 막 춤도 치고 너머 가고,그 안날분, 산 사널저 부터 인자 거러가다가 보잉께네 인자 가이 데그더. {이제로 인제 쪽 넘어 가면서 여자들은 막 춤도 추면서 넘어 가고, 그 안날부터 한 사날홀 전부터 인제 걸어가다가 보니까 인제 가야 되거던.}

10801 # 그러 만등불사 구경가자 그러민성 마이 인자 사래미 마이 운집해찌. {그래 만등불사를 구경을 가지고 그러면서 많이 인제 사람이 많이 운집을 했지.}

10801 @ 남자드른 잘 양가고 주로 여자? {남자들은 잘 안 가고 주로 여자?}

10801 # 남자드름 마이 가고. {남자들도 많이 가고.}

10801 # 그때는 작때꾸~'이라고 남자들도 마이 가고, 여자들도 마이가고 그래. {그때는 작대기꾼이라고 남자들도 많이 가고, 여자들도 많이 가고 그랬어.}

10801 @ 잘때꾸눔 멈미까? {작대기꾼은 무엇입니까?}

10801 # 작때꾸느 인자 작때~'이며 지꼬 땡기미 인저 어더 무꼬 사는 사라미다. {작대기꾼은 인제 작대기를 잡고 다니면서 얻어 먹고 사는 사람이다.}

10801 # 작때~이마 가즈거 건는 인는 지베 가마 작때꾼 드론다 카머 머 거블 슬슬 내써. {작대기만 가지고 걸으면서, (+ 재산이)있는 집에 가면 작대기꾼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겁을 슬슬 냈었어.}

10801 # 그른 사람 마이 알기도 알고, 그르 땡기미 인는 달 인는 사알만 뜨드 무꼬 땡기는 사아미 작때꾸~이다. {그런 사람은 많이 알기도 알고, 그렇게 다니면서 있는, 인제 있는 사람만 뜯어 먹고 다니는 사람이 작대기꾼이다.}

10801 @ 사월따른 저 초파일랄 은전 검 초파일랄 날씨 보고도 머 점치고 해썸미까? {사월달은 저 초파일날은 인제 그럼 초파일날 날씨를 보고도 뭐 점을 치고 했습니까?}

10801 # 그르이 비 오마 잘 조빠 날, 보통 보마 사월 초파일라이 사래미 마이 끝따 보이 비가 좀 와써. {그러니가 비가 오면 사월 초파일날, 보통 보면 사월 초파일날이 사람이 많이 끝다가 보니까 비가 좀 왔어.}

10801 @ 비 오멤 머 어떠타 그럼미까? {비가 오면 뭐 어떻다고 그럼니까?}

10801 # 머 그런 전서른 엄서꼬. {뭐, 그런 전설은 없었고.}

10801 @ 그 데엠메 사월레느 다름 거느 업찌 예? {그 다음에 사월에는 다른 것은 없지요?}

10801 # 음찌, 그래이. {없지, 그렇게}

10801 @ 그 다으메? {그 다음에?}

10801 # 오워른 다논날. {오월은 단오날.}

10801 @ 오, 오월 다노. {오, 오월 단오.}

10801 @ 여 다노 마니 함미까? {여기서는 단오는 많이 함니까?}

10801 # 여 다노 빌로 아은데, 여 울로 가마 다노 마이 해찌. {여기는 단오는 별로 앓는데, 여기 위로 가면 단오를 많이 했지.}

10801 # 그날 마 여자들 군데 띠코, 널뛰기 하고, 머 강강술래 하고 오망 걸 다 해써, 그때너. {그날은 그냥 여자들이 그네를 타고 널뛰기를 하고, 뭐 강강술래를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어, 그때는.}

10801 @ 검 이 동네너? {그럼 이 동네는?}

10801 # 이 동네는 머 그래 헨나. {이 동네는 뭐 그렇게 헨나,}

10801 @ 단오느 크게는 아 해따, 그지예? {단오는 크게는 안 헨다, 그렇지요?}

10801 # 일러느 \*. {일 년은 \*.}

10801 # 아 해찌, 그래. {아, 했지, 그래.}

10801 # 어이 오느이 다노다. {아, 오늘이 단오다.}

10801 # 다놀 때 그 때 하참 모승구고 그르끄등. {다 놀 때 그 때 한창 모를 심고 그렇거던.}

10801 # 그르이께네 큰 머 행사는 업써썬, 따로. {그러니까 큰 뭐 행사는 없었어, 따로.}

10801 # 그 저 울로넉 큼 명겨리라 카이. {그 저기 위쪽으로는 큰 명절이라고 하니까.}

10801 @ 저 위쪽계는 다노가 어느 정도 머 모싱끼 해뿌고 함미까, 그러며느? {저 위쪽에는 단오를 어느 정도 뭐 모심기를 해버리고 함니까, 그러면은?}

10801 # 모싱기도 머 그은 저 글로느 우썬루 빨리하다 보잉께네. {모싱기도 뭐 거기는, 저 그리로는 위쪽으로는 빨리 하다가 보니까.}

10801 @ 다노를 논다, 그지예? {단오를 논다, 그렇지요?}

10801 울치, 울치, 노라. {웁지, 웁지 놀아.}

10801 # 밍저으라, 밍저으라. {명절이라, 명절이라.}

10801 @ 다논날 그엄며느 이 여기는 별로 안 하지마느 혹씨 다논날 까마기 울고 이러며느 머 어떠타 그람미까? {단오날 그러면은 이 여기는 별로 안 하지만은 혹씨 단오날 까마귀가 울고 이러면은 뭐 어떻다고 그러니까?}

10801 @ 그릉 거, 그릉 거또 이썬미까, 업썬미까? {그런 것,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10801 # 까치 울만 손님온다, 까치 울마.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 까치가 울면.}

10801 # 까치 울마 방가운 손님온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10801 @ 까마기는 머 그렁 건 업썬미까? {까마귀는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10801 # 까마기는 빌로 머, 까마기 울맘 머 채수업따 이래꼬. {까마귀는 별로 뭐, 까마귀가 울면 뭐 채수가 없다 이렇고.}

10801 # 까치가 울만 기한 손니미 온다 이래찌. {까치가 울면 귀한 손님이 온다고 이렇게 말했지.}

10801 @ 혹씨 어르신 다논날 여자드른 머 어떻 거 함띠까? {혹씨 어르신 단오날 여자들은 뭐 어떤 것을 하던가요?}

10801 # 다논날 청포가주고 인자 청포 그 녀 케다가 머리 까머찌. {단오날 창포를 가지고 인제 창포 그것을 케다가 머리를 감았지.}

10801 # 머리. {머리를.}

10801 @ 이 동네너 그르도 그릉 거느? {이 동네는 그래도 그런 것은?}

10801 # 여늬 머 그릉 거 해끼느 헨능가 몰라도 그 인자 청포 그 늬 청포가 쟁피그덩 쟁피 그 녀를 케다가 인자 쌀무 가주고 머리 까름 머리가 고버 진다 이래 가저 부녀들 마이 해썬. {여기는 뭐 그런 것은 했기는 했는가 몰라도 그 인제 창포 그것이 창포가 "쟁피(+ 이 지역에서 창포임)."이거던, 창포 그것을 케다가 인제 삶아 가지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곱아진다 이래 가지고 부녀자들이 많이 했어.}

10801 @ 다노 머 놀고 그렇 건 아 해도 머리? {단오에 뭐 놀고 그런 것은 안 해도 머리는 감고?}

10801 # 어 그날 그날 저 을로는 마이 노르따 카이께네. {음, 그날, 그날에 저 위로는 많이 놀았다고 하니까.}

10801 @ 여기느? {여기는?}

10801 # 군데도 띠고 머 풍무도 치고 마이 노르찌. {그네도 타고 뭐 풍물도 치고 많이 놀았지.}

10801 # 여느 그르콤 빌로 아내씨. {여기는 그렇게 별로 안 했어.}

10801 @ 근녀 머리 감기느 할, 여자들 머리 감기느 함미까, 그래도? {그러면, 머리를 감기는 함니까, 여자들 머리를 감기는 함니까, 그래도?}

10801 # 음, 올치. {음, 옳지.}

10801 @ 유워래눔 머 하능 거 이즘미까? {유월에는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10801 # 유거른 유디라. {유월은 유두라.}

10801 # 이르미 이찌. {이름이 있지.}

10801 # 유디느 유월따리느 빌로 하능 거 모빠씨, 나느. {유두는 유월달이라 별로 하는 것을 못 봤어, 나느.}

10801 @ 유두 이름마 이꼬 별로 거이 안 함미까? {유두 이름만 있고 별로 거의 안 함니까?}

10801 # 어, 그르치. {응, 그렇지.}

10801 @ 머 특빠리 음식 해몽능 거또 어꼬예? {뭐, 특별히 음식을 해 먹는 것도 없고요?}

10801 # 뜨꺼. {뭐, 없어.}

10801 @ 그냐 유두 말만 그 하고? {그냥 유두 말만 그렇게 하고요?}

10801 # 그르치. {그렇지.}

10801 @ 별로 이야기 아 한다, 그지예? {별로 이야기를 안 한다, 그렇지요?}

10801 # 이거 이어느 유걸 유두다. {이것 이것은 유월 유두다.}

10801 # 치러느 칠성날 이꼬. {칠월은 칠석날이 있고.}

10801 @ 치럴 칠서게는 머함미까? {칠월 칠석에는 무엇을 함니까?}

10801 # 치럴 칠성나르 은잔 거누 징녀 만낸다. {칠월 칠석날은 인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

10801 # 거누 징녀가 인자 저서 인자 일러네 처음 함 봄 만넨데 그거 왁 구르메가 구름 떠 맹글 찌이능 거 아 이똥가? {견우 진녀가 인제 저기서 인제 일 년에 처음 한 번 만났는데 그것 왜, 구름에 구름떠처럼 끼이는 것이 안 있던가?}

10801 # 그게 인자 거론, 거석, 거시이 거눈데, 양쭈게 인자 벼리 이서. {그게 인제 견우, 거시기, 거시기 견우인데, 양쪽에 인제 별이 있어서.}

10801 # 벼리 이씨가주고 여러 삼태서이랄 은자 만내능 기, 그기 인자 거누 징녀 만낸다. {별이 있어 가지고 여러 삼태성이랑 인제 만나는 것이, 그것이 인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

10801 # 그래 인자 옴나레 전서리 나와찌. {그래 인제 옛날에 전설이 나왔지.}

10801 @ 그 다음메 머 이때 폭, 머 거 멈미까, 놔매기 하고 나서 놀고 그래 함미까? {그 다음에 뭐 이 때, 뭐 거기 뭘니까, 논매기를 하고 나서 놀고 그렇게 함니까?}

10801 @ 치럴, 음녀 치럴 쯔으메 그래 함미까? {칠월, 음력 칠월쯔에 그래 함니까?}

10801 @ 하루 놀? {하루 노나요?}

10801 # 그르, 그르치. {그래, 그렇지.}

10801 @ 하루 노능 게 그때즈, 음녀 치털쫌 템미까? {하루 노는 것이 그때쫌, 음력 칠월 쫌 됩니까?}

10801 # 그를 찌에눔 머 숨밀, 시불로 매고 나야 인자 깨말타고 하다 보이께네. {그털 쫌 에느느 뭐 세 벌, 세 벌로 매고 나야 인제 "깨말을 타고(+ 이 지역에서 세 벌 논매기가 끝난 다음에 일꾼들이 서로 장나치며 노는 것을 가리킴.)" 하다 보니까.}

10801 @ 그게 한 음녀 치털쫌 템미까? {그게 한 음력 칠월쫌 됩니까?}

10801 # 어무 땐, 때느 은자 한 치털딸 쫌뎌 데엔나. {아마 그 때, 때는 인제 한 칠월달 쫌 은 되었나?}

10801 @ 예. {예.}

10801 # 올치. {옳지.}

10801 @ 거머 그 그 인제 머 모 시불론눔 매고 나서 쫌 놀, 하루 시고 한다, 그지예? {그 뭐, 그 인제 뭐 세 벌 논을 매고 나서 조금 놀고, 하루를 쉬고 한다, 그렇지요?}

10801 # 그르치, 시불롬 매고 나마 저영마중, 시불론 땔 쫌마중 인자 깨말타고, 사깁 디비 씨가주 씨고, 막 메구치고, 저어게 막 도라 탱기미서 메구치고 그래 노라따 카이께네. {그렇지, 세 벌 논을 매고 나면 저녁마다, 세 벌 논을 땔 적마다 인제 깨말을 타고, 샷갓을 뒤집어 씨가지고 막 팽과리를 치고, 저녁에 막 돌아 다니면서 팽과리를 치고 그렇게 놀았다고 하니까.}

10801 @ 머 치털 칠성말고 또 이쫌미까? {뭐, 칠월 칠석말고 또 있습니까?}

10801 # 파릴 유딘날. {팔월 유두날.}

10801 # 파릴 가온날. {팔월 가위날.}

10801 # 파릴 항가웬날. {팔월 한가위날.}

10801 @ 유월 유두고, 치털 칠서기고. {팔월 유두이고 칠월 칠석이고.}

10801 # 파릴. {팔월.}

10801 @ 그람 치털 백쫌은? {그러면 칠월 백쫌은?}

10801 # 퍼름, 피릴, 치털, 파릴, 치털 백쫌이라 그레이. {팔월, 팔월, 칠월, 팔월, 칠월 백쫌이라고 그랬어.}

10801 # 치털, 치털 백쫌. {칠월, 칠월 백쫌.}

10801 @ 백쫌도 함미까? {백쫌도 합니까?}

10801 # 치털 백쫌은 이선데, 마른 이선데, 치털 백쫌날 미영 수머 가주고, 미영을 따가조 천::명을 따가주고 인자, 병마게한다 이느 전서릴 이서찌. {칠월 백쫌은 있었는데, 말은 있었는데, 칠월 백쫌날에 목화를 심어 가지고, 명을 따 가지고 천, 명을 따 가지고 인제, 병마개를 한다고 하는 이런 전설이 있었지.}

10801 @ 병마게예? {병마개요?}

10801 # 음. {응.}

10801 @ 병마게눔 머슴 병? {병마개는 무슨 병?}

10801 # 빙에다아 쏘오를 가주 이래 망는다. {빙에다가 숨을 가지고 이렇게 막는다.}

10801 # 으 그래 인자 이 기항 그 인자 처미다, 그 마리라. {음, 그래 인제 이 귀한 것이 처음이다, 그 말이라.}

10801 @ 그 하뎌 머 조응 게 이쫌미까? {그것을 하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10801 # 그래 인잔 전서리 그래 나오쎄. {그래, 인제 전설이 그래 나왔지.}

10801 # 므 중 게 인능가 그놈 모르게꼬. {뭐 좋은 게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고.}

10801 @ 머 백중날 머 긍 거, 머 안 하, 안 해야 데능 거 이썸미까? {뭐, 백중날 뭐 그런 것, 뭐 안 하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10801 @ 백중나른? {백중날은?}

10801 # 치릴 백중나른 그놈 머 엄능거느 그음 학시리 모뜨러쎄. {칠월 백중날은 그런 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확실히 못 들었어.}

10801 @ 흑심 머 몸바르고 하능 거 이렇 거또 백중나리나 이래 함미까? {흑시 뭐 문을 바르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백중날에 이렇게 함니까?}

10801 # 무, 그림 머 업서쎄. {뭐, 그림 뭐 없었지.}

10801 @ 그렁 건 업서쓰미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10801 # 파릴따레 이서쎄. {팔월달에 있었지.}

10801 # 파릴따레 몸바르고 해쎄. {팔월달에 문을 바르고 했지.}

10801 @ 파러레느 그림 머? {팔월에는 그림 뭐?}

10801 # 파러레 인자 향가위지. {팔월에는 인제 한가위지.}

10801 @ 향가위지예? {한가위지요?}

10801 # 올치. {옳지.}

10801 @ 향가위느 머? {한가위는 뭐?}

10801 # 파러레느 향가위 인자. {팔월에는 한가위 인제.}

10801 @ 머 함미까? {무엇을 합니까?}

10801 # 떠그, 생페나고, 떡하고, 인자 그를 제느 인자 명저리다 봉계네 성묘도 가고 여러 가지 해쎄. {떡, 송편하고, 떡하고, 인제 그럴 적에는 인제 명절이다 보니까 성묘도 가고 여러 가지를 했지.}

10801 @ 제 머 큼 명저 중에 하나다, 그지예? {제일 뭐, 큰 명절 중에 하나다, 그렇지요?}

10801 # 그르치예. {그렇지요.}

10801 @ 파릴? {팔월?}

10801 # 파릴 가온나리 큼 명저르지. {팔월 가위날이 큰 명절이지.}

10801 @ 파릴 가인나른? {팔월 가위날은?}

10801 # 음. {음.}

10801 # 우리 조스, 조상드르 큼 명저리다. {우리 조상, 조상들의 가장 큰 명절이다.}

10801 @ 차레지레고? {차레를 지내고?}

10801 # 음. {응.}

10801 # 그래 인자 저 썸부 인자 성묘도 인자 다 가정마정 성묘 다 땡기고. {그렇게 인제 저, 전부 인제 성묘도 인제 다 가정마다성묘를 다 다니고.}

10801 # 사네 올라가서, 음스 가가 절하고. {산에 올라 가서, 음식을 가져가 절하고.}

10801 @ 성무도 가고? {성묘도 가고?}

10801 # 으. {응.}

10801 @ 그러며느 그 추스 때어인, 파릴 가인날 머 달 보오, 달: 크기나 이렇 거 보고 또 점치고 해썸미까? {그러면은 그 추석 때에는, 팔월 가위날 뭐 달을 보고, 달 크기나 이런 것을 보고 또 점치고 했습니까?}

10801 # 으, 접, 절도 해쎄. {음, 절, 절도 했지.}

10801 @ 거늬 머 어떠? {그럼 뭘 어떤 것을?}

10801 # 소온 비르찌. {소원을 빌었지.}

10801 @ 아, 소음 빌고예? {아, 소원을 빌고요?}

10801 # 음. {응.}

10801 @ 머 달 모양에 따라서도 쫘 머 헤어 어데? {뭘 달 모양에 따라서도 쫘 뭘 그 해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했습니까?}

10801 # 다 둥근 다리지 머. {다 둥근 달이지 뭘.}

10801 # 파럴 항가인나른 둥근 다리. {팔월 한가위날은 둥근 달이.}

10801 @ 머 다리 쫘 빨꼬 이러며느? {뭘 달이 쫘 붉고 이러면은?}

10801 # 빨, 빨파, 빨파. {붉, 붉다, 붉다.}

10801 @ 빨그마 어뜨타? {붉으면 어떻게?}

10801 # 뿌르마 송년진다 그래고, 이래 쫘 히마 풍년진다 그래고. {붉으면 흥년이 진다 그랬고, 이래 쫘 희면 풍년이 진다 그랬고.}

10801 # 그래으, 그런 전서리 이서. {그래, 그런 전설이 있어.}

10801 @ 다리 인제 히으, 다리 새까리 히며너 풍년든다 그러고? {달이 인제 희면, 달의 색깔이 희면은 풍년이 든다 그러고?}

10801 # 음. {응.}

10801 @ 빨꼬며너? {붉으면은?}

10801 # 빨금머 송년진다 그래고. {붉으면 흥년이 진다 그랬고.}

10801 @ 머 날씨 가주고늬 머 이야기항 거 업었고, 처? {뭘 날씨를 가지고는 뭘 이야기를 한 것이 없었고요, 저?}

10801 @ 파럴 가인날 날씨 까주오늬 별 그렁 거 어꼬예? {팔월 가위날 날씨 가지고는 별로 그런 것이 없고요?}

10801 # 그러치. {그렇지.}

10801 @ 그때 이때에늬 뭇 그거 안 하, 하지 마라야 텔 그렁 게 이썸미까? {그때, 이때에는 뭘 그것 안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10801 # 어 끔 빌로 업서씨. {응, 그것은 별로 없었어.}

10801 # 그엄 정월파래 마네꼬. {그럼 정월달에 많았고.}

10801 @ 이때에 머 거 파럴 가인나른 노늬 거름 머 어떻 거 함미까, 그엄며느? {이때에 뭘 거기 팔월 가위날은 노는 것은 뭘 어떤 것을 함니까, 그러면은?}

10801 # 엉 그를 찌에도 머 질거께 노찌. {응, 그럴 적에도 뭘 즐겁게 놀지.}

10801 @ 뎡? {무엇하고요?}

10801 # 풍물도 치고. {풍물도 치고.}

10801 # 강강, 강강술래도 하고. {강강, 강강술래도 하고.}

10801 @ 강강술래, 여기도 강강술래도 해썸미까? {강강술래, 여기도 강강술래도 했습니까?}

10801 # 머 여자들 강강술래 강가이해, 놀민서 함 분 해찌. {뭘 여자들 강강술래 간간히 해, 놀면서 한 번 했지.}

10801 # 저 꺽짜, 꺽짜 카미 먼내상 고사리 꺽짜 카미선 아든 기지베들 인자 이 사람 하나 떠눔꼬, 저 사람 하나 떠눔꼬 이래 은잔 주를 지어 소늘 자꼬 인잔 그은 노리도 하고. {저기 "꺽짜 꺽짜" 하면서 먼곳의 산 고사리를 꺽자고 하면서 애들, 계집애들 인제 이 사람을

하나 뛰어 넘고, 저 사람을 하나 뛰어 넘고, 이래 인제 줄을 지어 손을 잡고 인제 그런 놀이도 하고.}

10801 @ 아, 그거는 노리 이르미 뭉미까, 거느? {아, 그것은 놀이 이름이 뭉니까, 그것은?}

10801 # 고사리꼭짜. {고사리꼭짜.}

10801 @ 아, 고사리 꼭짜. {아, 고사리 꼭짜.}

10801 # 어, 어 올치. {어, 응, 올지.}

10801 @ 아 강강술래도 하고? {아:, 강강술래도 하고?}

10801 # 올치 꼭짜꼭짜 먼데산 고사리 꼭짜 카면서, 그레 부치가면서, 여러:시 인자 소리 해가면서 이래 너마 데. {올지, "꼭짜꼭짜 먼곳 산 고사리를 꼭짜"라고 하면서, 그레 붙여가면서 여럿이 인제 소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넣으면 돼.}

10801 @ 그거하고.{ 그것하고.}

10801 @ 그거 그 소리 쫘 머 기억나는 거, 나시면 한 번 이야기. {그것, 그 소리가 쫘 머 기억나는 것, 나시면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10801 # 그기 거기라. {그것이 거기라.}

10801 @ 아, 예예. {아, 예.}

10801 # 꺾자 꺾짱 먼데산 대바테 고사리 꼭짜 꼭짜 카면서 내나 인제 그거 테푸리 하고, 테푸리 하고 그레 하나씩 하나스 너머와따 카이. {"꼭짜 꼭짜 먼곳 산 대밭에 고사리를 꺾자 꺾자"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인제 그것을 되풀이를 하고, 되풀이를 하고 그레 하나씩 하나씩 넘어왔다고 하니까.}

10801 @ 으, 예. {으, 예.}

10801 @그러마 강강술래도 하고 그 다으메 으 머 이 풍물도 치고 그레 헨. {그러면 강강술래도 하고, 그 다음에 음 뭐 이 풍물도 치고 그렇게 했네요.}

10801 # 그러치. {그렇지.}

10801 @ 그러마 이때는 머 주로 송편 니나? {그러면 이때는 뭐 주로 송편이나?}

10801 # 송편, {송편.}

10801 @ 과일가튼거 인제. {과일같은 것도 인제.}

10801 #과릴 송편 마이 하고 과일도 그때 마나꼬. {팔월에는 송편을 많이 하고 과일도 그때 많았고.}

10801 @ 음, 예, 예:. {음, 예, 예.}

10801 # 햅곡쑈도 마나꼬 파릴한가위가 조은나리지. {햅곡식도 많았고, 팔월한가위가 좋은 날이지.}

10801 @ 그러치예, 이제 농사 지으가지고. {그렇지요,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801 # 음, 햅꼬도 가지고 하고. {음, 햅곡식도 가지고 하고.}

10801 @ 그 조상신한테 인제. {그 조상신한테 인제.}

10801 # 음, 햅, 햅꼬글 가따 차례를 지네끼네. {음, 햅, 햅곡식을 가져다 차례를 지네니까.}

10801 @ 예예. {예.}

10801 @ 그 다으메 어르신 구'얼'따'레는 머 이쑈니까, 구월? {그 다음에 어르신 구월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월에는?}

10801 # 구월, 구월 유두라 카민서 이서는데 그나른 머어 그저 유두라 말만 드러찌, 그날

행사하능 거는 모빠서. {구월, 구월 유두라고 하면서 있었는데 그날은 뭐 그저 유두라는 말만 들었지, 그날 행사를 하는 것은 못 보았어.}

10801 @ 예. {예.}

10801 @ 구월 머 중양절 이런 부부느 전여 머 업스습니까? {구월 뭐, 중양절 이런 부분은 전혀 뭐 없었습니까?}

10801 # 스, 우린 잘 못 드러서. {그 우린 잘 못 들었어.}

10801 @ 그 별로 업스따 그지예? {그 별로 없었다, 그렇지요?}

10801 # 으. {응.}

10801 @ 그 시'어:: 레는 시워레? {그 시월에는 시월에?}

10801 # 시월 상따라꼬. {시월 상달이라고.}

10801 @ 예. {예.}

10801 # 그레 아까 내 카자나. {그레, 아까 내가 말했잖아.}

10801 @ 예:. {예.}

10801 # 송고시 시월 상따레는 인제 송고시다 하고. {송곳이 시월 상달에는 인제 송곳이다 하고.}

10801 @ 소고시. {송곳이.}

10801 # 지찌마중 인자 소고시라꼬 그 인자 떡해노코 인자. {집집마다 인제 송곳이라고 그 인제 떡을 해놓고 인제.}

10801 @ 예. {예.}

10801 # 그 인자 잘잘 \*\*\* 비'러찌. {그 인제 잘잘 \*\*\* 빌었지.}

10801 @ 아:. {아.}

10801 # 그거는 마이 해서, 지찌마다 해따 카이께네, 건: 송고시. {그것은 많이 했어, 집집마다 했다고 하니까, 그건 송곳은.}

10801 @ 그 머, 그건? {그 뭐, 그것은?}

10801 @ 송고세 빈. {송곳에 빌 때는.}

10801 # 송고세는 떡 해노코 짐 비는 기라. {송곳에는 떡을 해놓고 지금 비는 것이라.}

10801 @ 떡 머 어떤 떡예? {떡 뭐, 어떤 떡이요?}

10801 # 헨나락 해가주고 시, 여 시리떡 해가주고. {헛벼를 해 가지고 시루, 여기 시루떡을 해 가지고.}

10801 @ 시리떡 고물 어떤? {시루떡은 고물을 어떻게?}

10801 # 치치로 나아가주고 인자 또. {켜켜로 고물을 놓아 가지고 인제 또.}

10801 @ 어데 팔꼬물 합니까, 인자 콩고물 함미까? {어디 팔고물을 합니까, 인제 콩고물을 합니까?}

10801 # 시, 시리떡 인제 고. {시루, 시루떡은 인제 고물.}

10801 # 그레 콩꼬무루 마이 하지. {그레, 콩고물을 많이 하지.}

10801 @ 으, 예. {음, 예.}

10801 # 그레 가주고 인제 팔꼬물도 하고. {그레 가지고 인제 팔고물도 하고.}

10801 @ 으, 음. {으, 음.}

10801 @ 그러마 빌 때 머 풍년? {그러면 빌 때, 뭐 풍년을 빙니까?}

10801 # 올치, 주로 인제 풍년 지고 또 가정이 무사하라:, 거기지. {올지, 주로 인제 풍년 지고 또 가정이 무사하라, 그것이지.}

10801 @ 비미까? {빔니까?}

10801 @ 좀 복 마이 달라꼬 그러케. {좀 복을 많이 달라고 그렇게?}

10801 # 냉너네도 또 농사 잘 지키 돌라카고. {내년에도 또 농사를 잘 지켜 달라고 하고.}

10801 @ 음. {음.}

10801 @ 그레가, 그거 한다 거지예, 굳슬 한다 그지예? {그레 가지고, 그것을 한다 그렇지요, 굳을 한다 그렇지요?}

10801 # 아, 거기 인제 송고시라 이르미 이제 거기 송고시라꼬 인자 가정마중 인제 그레, 한 지베 한분씩 그레 쭈욱 해찌, 인제 그레 천농사 지꼬. {아, 거기 인제 송곳이라는 이름이 이제 거기 송곳이라고 인자 가정마다 인제 그렇게, 한 집에 한 번씩 그레 쭈욱 했지, 인제 그레 첫농사를 짓고.}

10801 @ 예, 그 머, 그라믄 아주 거 시루떠글 마이 해따 그지예 이때는. {예, 그 뭐, 그러면 아주 그 시루떡을 많이 했다 그렇지요, 이때는.}

10801 # 음. {응.}

10801 @ 그라마 이때 머 날씨 가주고도 저물 치기도 헐씀니까? {그러면 이때 뭐 날씨 가치고도 점을 치기도 했습니까?}

10801 # 그때 나르 가주고는 크게 저물 안 천는데. {그때는 날을 가치고는 크게 점을 안 쳤는데.}

10801 @ 예예, 어르신 그 다메 시, 동지딸 뭐? {예, 어르신 그 다음에 시월, 동짓달 뭐?}

10801 # 동지딸, 동지딸. {동짓달, 동짓달.}

10801 # 동지나레 인자 파쪽 끼리 몽는 나리지. {동짓날에 인제 팔죽을 끓여 먹는 날이지.}

10801 @ 아:. {아.}

10801 # 파쪽 파쪽 아, 끼리 무마 인제 한살 무따 헤헤헤, 동진날 동지파쪽 끼른다. {팔죽, 팔죽을 음, 끓여 먹으면 인제 한 살을 먹었다, 하하하, 동짓날에 동지팔죽을 끓인다.}

10801 @ 예예, 흐흐, 예. {예, 예, 흐흐, 예.}

10801 @ 그러마 동지 파쪽 끼리가주고는 그냥 목시미까 아니면 안 그러므 머 어떠케 그거 또? {그러면 동지 팔죽을 끓여가지고는 그냥 먹습니까, 아니면 안 그러면 뭐 어떻게 그것도?}

10801 # 그거또 한그를 떠나가주고 조상에게 빌고 그레 목찌. {그것도 한그릇을 떠 놓아가지고 조상신에게 빌고 그렇게 먹지.}

10801 @ 음, 그러마 그 조상한테 이레 빌고. {음, 그러면 그 조상한테 이렇게 빌고.}

10801 # 올치 절하고. {옳지, 절하고.}

10801 @ 절하고 그레 머 고'시네~이도 합니까? {절하고 그렇게 뭐 고수레도 합니까?}

10801 # 고:시레이 이레 가주고 숟까라그 주글 떠가 떼지기도 하고. {고수레 이레 가지고 숟가락으로 죽을 떠 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10801 @ 아, 고시레이도 하고 그레 하네예. {아, 고수레도 하고 그레 하네요.}

10801 # 올치. {옳지.}

10801 @ 그러마 이, 머 그거 파쪽 머그며느 인제 아. {그러면 이, 뭐 그것 팔죽 먹으면은 인제 아.}

10801 # 한살 무:따. {한 살을 먹었다.}

10801 @ 한살 무거예? {한 살을 먹어요?}

10801 # 응. {응.}

10801 @ 그 다므메 혹시 머, 머 파쪽 안, 안 꼬릴 때도 인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뭐, 뭐 팔죽을 안, 안 끓일 때도 있습니까?}

10801 # 그래 안 끼리는 사람도 이쨌. {그래, 안 끓이는 사람도 있지.}

10801 @ 아니, 그건 어떤 해는 끼리고 어떤 해는? {아니, 그것이 어떤 해는 끓이고 어떤 해는?}

10801 # 에기동지다. {아기동지다.}

10801 @ 예. {예.}

10801 # 에기동지다 카민서 혹 안 끼린다 카지마는 그래도 대충은 다 끼려서, 응. {아기동지라고 하면서 혹, 안 끓인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대충은 다 끓였어, 응.}

10801 @ 예. {예.}

10801 # 에기동지라 카민서 안 끼리는 때도 이쨌서. {아기동지라고 하면서 안 끓이는 때도 있었어.}

10801 @ 에기동지는 뭐 어떤 걸 에기동지라 함니까? {아기동지는 뭐 어떤 것을 아기동지라고 합니까?}

10801 # 그 머 다리 작앤능가 우쨌능고 이레 전서리 에기동지다, 그래 나오테. {그 뭐 달이 작았는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전설이 아기동지다, 그래 나오더라고.}

10801 @ 아:. {아.}

10801 @ 아, 그라마 에기동지라꼬 그릴 때는 안 꼬려 멍는 사라믄, 안 꼬려 멍는 사람도 이따 그지예. {아, 그러면 아기동지라고 그릴 때는 안 끓여 먹는 사람은 안 끓여 먹는 살마도 있었다 그렇지요.}

10801 # 그러치. {그렇지.}

10801 @ 아, 대, 하이튼 마 파쪽 불께 해가주고 그 때. {아, 대충, 하여튼 그냥 팔죽을 불께 해 가지고 그 때.}

10801 # 질겨 멍는 사라믄 머 끼리 무꼬. {즐겨 먹는 사람은 뭐 끓여 먹고.}

10801 @ 예예. {예.}

10801 @ 그 다메 서파레는 어떤 게 이습니까? {그 다음에 선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801 # 서파레는 머 큰 거 머 그는 업서찌, 서딸 그믄나레는 인자 그믄날 데마 인자 서딸 그믄날 바메는 이저납세 내 카드시 저 가야사네서 동사미 거러 노은게 참 바메 사라므 인제 데가주고, 동사미 인제 하:해'가주고 사라미 데가주고 서딸 그믄나레 저 고련자~ 장 보러 간다:, 아, 그런 전서리 이쨌, 동사미 화해가주고 그런 전서리 하나 이쨌찌. {선달에는 뭐, 큰 것은 뭐, 그것은 없었지, 선달 그믄날에는 인제, 그믄날이 되면 인제 선달 그믄날 밤에는 앞전에 내가 말했듯이, 저 가야산에 동상을 걸어 놓은 것이 참 밤에 사람이 인제 되어 가지고, 그 동상이 인제 변화해 가지고 사람이 되어 가지고, 선달 그믄날에 저기 고령장에 장을 보러 간다, 아, 그런 전설이 있어, 동상이 변화해 가지고 그런 전설이 하나가 있었지.}

10801 @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801 @ 그라마 이거 자근 서리라꼬 함니까, 자근? {그러면 이것 작은설이라고 합니까, 작은설?}

10801 # 그러치, 그믄나르 자근서리라고 하고. {그렇지, 그믄날은 작은설이라고 하고.}

10801 @ 자근설날 뭐? {작은설날은 뭐?}

10801 # 초하린나른 큰서리라고 하고. {초하룻날은 큰설이라고 하고.}

10801 @ 자근설 안한 거는 머, 하면 안 되는 거는 어떤 거? {작은설에 안 하는 것은 뭐, 하면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10801 # 자근서레는 그지 머 자근서리다. {작은설에는 그렇지 뭐, 작은설이다.}

10801 # 아:들' 노래도 이뜨시 까치까치 서나른 오느리고, 우리우리 설나른 내일 이란다, 그런 노래가 이써 가지고. {아이들 노래에도 있듯이, "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고, 우리우리 설날은 내일이란다"라고 그런 노래가 있어 가지고.}

10801 @ 예, 예. {예, 예.}

10801 @ 서, 자근 설달 그믐날 잠자머 잠자? {설, 작은설, 설달 그믐날은 잠을 자면 잠자면?}

10801 # 눈썹 씨인다 그래찌. {눈썹이 쏸다고 그랬지.}

10801 @ 그라마 잠 안 자고 그럼니까? {그러면 잠을 안 자고 그럼니까?}

10801 # 아, 눈서븐 인제 그럴 제는 인자 우리 쪼메 할 찌게는 밀갈리 그노를 가주고 인자 누서베다 인자 요레 쳐발라찌, 자마. {아, 눈썹은 인제 그럴 적에는 우리가 조그만한 적에는 밀가루, 그것을 가지고 인제 눈썹에다 인제 이렇게 발랐지, 잠을 자면.}

10801 @ 아:. {아.}

10801 # 아, 그라마 너 눈썹 씨'이따, 하하. {아, 그러면 너 눈썹이 세었다, 하하.}

10801 @ 아, 하하하. {아, 하하하.}

10801 # 눈서비 뽀얀 씨이따. {눈썹이 뽀얗게 세었다.}

10801 @ 예예. {예.}

10801 # 그 참 밍경 들다보끼네 밀갈'리가 눈서베 하하하. {그 참, 면경을 들여다 보니까 밀가루가 눈썹에 하하하.}

10801 @ 허허허. {하하하.}

10801 # 그래, 거기 장난, 장나니지. {그래, 그것은 장난, 장난이지.}

10801 @ 저, 그러케. {저, 그렇게.}

10801 # 그래, 인제 서딸 그믐날 바메는 인자 자마 눈썹 씨인다, 그런 전서리 니러 왔째. {그래, 인제 설달 그믐날 밤에는 인제 자면 눈썹이 쏸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 왔지요.}

10801 @ 아. {아.}

10801 @ 그냥 재미로 또 그렇 거또 해따 그지예. {그냥 재미로, 또 그런 것도 했다 그렇지요.}

10801 # 재미로 해찌. {재미로 했지.}

10801 @ 그라믄, 음. {그러면, 음.}

10801 # 그날밤 자지 마라: 이기. {그날 밤에 자지 마라, 이것이지.}

10801 # 마다'도 불 썬노코 바'아도 불 썬노코 환하게 불 썬노아꺼든. {마당에도 불을 켜 놓고, 방에도 불을 켜 놓고, 환하게 불을 켜 놓았거던.}

10801 @ 온 동네 불 다 서. {온 동네에 불을 다 켜어.}

10801 # 올치 올치, 지찌마중 다 썬나따 카이. {웁지, 웁지, 집집마다 다 켜 놓았다고 하니까.}

10801 @ 그 부른 웨 서노시미꺼? {거기 불은 왜 켜놓습니까?}

10801 # 원차 발꼬 인제 새해 마지해가주꼬 조아라꼬 하는기지. {원래 밝고 인제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10801 @ 으 음, 머 보통은. {으, 음 뭐 보통은.}

10801 # 보통 불 다 썬, 올치. {보통 불을 다 켜, 올지.}

10801 @ 아, 불 다 썬미까, 예. {아, 불을 다 켜습니까, 예.}

10801 # 저 통시도 서고, {저기 화장실도 켜고,}

10801 @ 음, 거이 다 선다 그지예? {음, 거의 다 켜다 그렇지요?}

10801 # 마다~도 서고 바~도 불 안 끄고 바도 밤 세도록 서노코. {마당에도 켜고, 방에도 불을 안 끄고, 방에도 밤이 새도록 켜 놓고.}

10801 @ 예. {예.}

10801 # 그래 이썬, 그렇게 이썬. {그래 있어, 그렇게 있어.}

10801 @ 예예. {예.}

10801 @ 머 거이 다: 그거는 다 한다 그지예. {뭐, 거의 다 그것은 다 한다 그렇지요?}

10801 # 음. {응.}

10801 # 지썬마다 불 썬나서이. {집집마다 불을 켜 놓았으니까.}

10801 @ 머 그거는 머 불 서노은 이유는 잘 모르코예? {뭐 그것은, 뭐 불을 켜놓은 이유는 잘 모르코요?}

10801 # 불 서노은 이유시아 밍너네 인자 새해를 인자 만는다, 새해르 마즈께네 올게는 인제 발'게 해가즈고 새해르 마따, 이기. {불을 켜 놓은 이유야 내년예 인제 새해를 인제 맞이한다, 새해를 맞으니까 올해는 인제 밝게 해 가지고 새해를 맞는다, 이것이지.}

10801 @ 예, 음. {예, 음.}



## 제2편 어 휘

### 2.1. 농경

#### 2.2.1. 경작

20101	벼	나"락
20102	이삭	나"락니삭
20102	이삭	이삭
20103	벼씨	씨나락
20104	못자리	모자"리
20105	모판	모"판
20106	쟁기	쟁"기(+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 온 도구임.)
20107	보습	쟁"기술(쟁기에 달린 보습은 "술"이라고 하고, 극쟁이에 달린 보습은 "보습"이라고 함.)
20107	보습	홀치~이보습(쟁기에 달린 보습은 "술"이 라고 하고, 극쟁이에 달린 보습은 "보습" 이라고 함.)
20108	벗	수"울렁"개
20108-0-1	-이	*
20109	극쟁이	홀치~"이
20110	씨레	씨"어"리
20111	번지	농"고르"개
20112	모내기	모싱"께
20113	흙덩어리	빌떠~"이
20114	고무래	당:그레"(+ 구)
20114	고무래	밀그레"라꼬도(+ 신)
20114	고무래	밀기"도카고(+ 소, "밀기"라고도 하고"라는 의미임.)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당그레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밀그레"에
20114-2	고무래(재 용도)	제끌"개
20114-3	고무래(흙 용도)	*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밀그레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당그레"도
20115	쇠스랑	세:빨소시레~이(+ 밭이 세 개인 쇠스랑)
20115	쇠스랑	두빨소시레~이(+ 밭이 두 개인 쇠스랑)
20116	곡괭이	목께~이
20117	괭이	깡"이

20117	팽이	깨~"이
20118	삽	수금"포(+ 구)
20118	삽	삽"(+ 신)
20119	호미	호메~"이
20120	농기구	농기"게
20121	김	잡"초"라꼬도카고(+ 신)
20121	김	풀"(+ 구)
20121	김	지"심매르더(+ 구, 지심과 지슴을 섞어 발음함.)
20121	김	지"슴(+ 구, 지심과 지슴을 섞어 발음함.)
20122	김매다	지"슴매낸다(지심과 지슴을 섞어 발음함.)
20123	애벌 매다	아시"넌멘다(+ 논을 처음 맬 때)
20123	애벌 매다	아시밤"멘"다(+ 발을 처음 맬 때)
20123-1	두벌 매다	두불"런멘다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시불"런멘다
20124	논두둑	논:뜨"룸(+ 논둑과 논두렁이 변별되지 않음.)
20125	밭둑	바뚜룸
20126	밭두둑	두"덕
20127	밭고랑	바"꼬리고
20128	밭이랑	이"렁
20128	밭이랑	반니"렁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이"렁을 지:나씨면(+ "이랑을 지어놓았으면"이라는 의미임.)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바"꼴탄다
20128-2	이랑밟기	버리발"끼(+ 보리밟기, "ㅡ"와 "ㄴ"가 혼동됨.)
20129	보리	보리"이(+ 신)
20129	보리	브리"이(+ 구, "ㅡ"와 "ㄴ"가 혼동됨)
20129-1	가을보리	가을버리"이
20129-2	봄보리	봄뿌리
20130	보리쌀	버리"쌀
20131	가을갈이	가을가"리
20132	감부기	감비"기
20133	두엄	마:구꺼름(+ 마구간에서 나온 거름이라는 의미임, 거름과 의미차이가 없음.)
20134	거름	거르"미라이카지(+ 거름이라고 말한다는 의미임, 두엄과 의미차이가 없음.)

##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가으란다(+ 신)
20201	추수하다	가실한다(+ 구, 다)
20202	벧단	쨌판

20202-1	벗단(한 줌정도)	깨단
20202-2	벗단(타작할 정도)	깨"탄카응(+ "깨"탄카는"의 발음 실수임.)
20202-3	벗단(한 아름정도)	무탄
20203	가리(積)	나락빠까"리
20204	가리다(積)	재"앤다
20205	벗가리	나락빠까"리
20206	난가리	발가리
20207	타작	타작
20208	벼훑이	훑"깨
20208-1	그네	*(+ 제보자가 기억하지 못함.)
20209	개상	깡"상"타작
20209-1	자리개	깡"상"줄
20209-2	자리개질	깡"상"타작한다
20210	도리깨	도루"깨(+ "ㄷ"와 "ㄹ"가 혼동됨.)
20210	도리깨	도르"깨 가즌(+ "도리깨를 가지고"라는 의미임, "ㄷ"와 "ㄹ"가 혼동됨.)
20210-1	도리깃장부	도르"깨때"
20210-1	도리깃장부	도루"깨때
20210-1	도리깃장부	도루"깨장"구"라첸는갑따(+ 다, "도루"깨장 "구"라고 말했는 것 같다"라는 의미임.)
20210-2	도리깃열	도루"깨열"
20210-3	도리깨꼭지	꼭뚜마"리
20211	벼짚	집"탄
20211-0-1	-을	직 까온느라(+ "짚을 가져오너라"의 의미임.)
20211-0-2	-에	지"폐
20212	새 폐기	짐:나레"미
20213	쭈정이	쭈띠"기
20214	티	문지 드가"따
20215	까끄라기	까끄래"기
20216	풍구	풍:노
20217	원두막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허췌"비
20219	흥년	승년
20220	머슴	머슴(+ "ㄹ"와 "ㄷ"가 구별되지 않음.)
20220	머슴	머섬(+ "ㄹ"와 "ㄷ"가 구별되지 않음.)
20221	놉	폼과"리(+ 신)
20221	놉	일"꾼"하러간다(+ 신)
20221	놉	노"바"러간다(+ 구, 다)
20221-0-1	-을	노"비"읍뜨"라
20221-1	(놉을) 사다/얻다/부리다	노"바"러간다
20222	폼앗이	푸마"시한다
20223	폼샷	쌩쭈"다(+ 소)
20223	폼샷	폼싸"기라카고(+ 다)
20223-0-1	-으로	폼싸"그로

###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방아깁"
20302	디딜방아	디들빠~"아고
20303	방앗공이	방아"꼬
20304	방아확	호박
20305	물레방아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돌빠~"아(+ 다)
20306	연자방아	연"자"바~아는
20307	절구	절구바~"아
20308	절구통	절구호박"(+ 구, 다)
20308	절구통	절구"통이로도(+ 소)
20309	절굿공이	절구"꼬
20310	절구질	절구바~"아찜는다
20311	겨	당"기라꼬도카고
20312	보릿겨	당갈땡"기
20313	왕겨	나락찢땡"기
20313	왕겨	썸"당"기
20314	등겨	싸레"기
20315	검불	거"울말랴따(+ "검불을 말렸다"는 의미임)
20316	찢질	찢땡"기(+ 찢질과 찢테기의 구분이 없음.)

#### 2.1.4. 곡물

20401	곡식	곡"서기라케찌
20402	찹쌀	찹살
20403	맷쌀	미"쌀
20404	쌀보리	쌀버리"는
20405	조	서"숙"
20406	차조	찰"서숙
20407	메조	미"서숙
20408	좁쌀	서"숙"쌀
20409	작다	쌀"지
20410	조이삭	서"숙"이삭"
20411	수수	수시"
20411-1	붉은색 수수	빨"근수시"
20411-2	장목수수	빈짜"루수시
20411-3	찰수수	찰수시"이
20411-4	메수수	미수시
20412	수수깡	수시깨~"이
20413	옥수수	강네~"이라케찌
20413-1	찰옥수수	찰강네~"이
20413-2	메옥수수	미강네~"이
20414	귀리	기버:리
20415	메밀	미무"울
20416	콩	콩"
20417	콩깍지	콩깍"찌

20418	메주	미"주
20419	매달다	미"주단"다
20420	떡우다	떠"운다
20421	곰팡이	곰페~이
20422	강낭콩	울"콩"
20423	콩기름	콩기"름
20424	깨	깨
20424-1	참깨	창깨
20424-2	들깨	들"깨
20425	고소하다	꼬시"다

## 2.1.5. 채소

20501	채소	채:수(+ "채소"라고도 발음함.)
20502	나물	산:나물
20502	나물	나무"리라더
20502-1	"나물(발 재료)"	반나무"리라그래찌
20502-2	"나물(발 반찬)"	반:나무"리라
20502-3	"나물(들 재료)"	들:라물
20502-4	"나물(들 반찬)"	들:라물
20502-5	"나물(산 재료)"	산:나물
20502-6	"나물(산 반찬)"	산:나무"리
20503	푸성귀	채소(+ "채:수"라고도 발음함.)
20504	다듬다	따듬는"다
20505	반찬	반"차~이
20506	무	무시"
20507	썰다	써"린다
20508	무청	무시"이퍼"리
20509	시래기	씨레"기
20510	무말랭이	무시오그락"찌
20511	장다리무	무시종다리
20512	배추	배추
20513	고갱이	배추알맹"이(+ 소)
20513	고갱이	배추알(+ 다)
20514	오이	오이"(+ 신)
20514	오이	위(+ 구, 상향이중모음 "위")
20514	오이	무"리"(+ 구, 다)
20515	오이지	무리장아"치
20516	오이소박이	무"리"짐"치
20517	가지(茄子)	까지
20518	호박	호"바"악
20519	고구마	고"구"마
20520	감자	감자"
20520-1	잘다	잘"다
20521	우엉	우봉"
20522	파	파
20523	고추	꼬치"

20523	고추	고치"
20524	시금치	시금"치
20525	미나리	미나"리
20526	부추	정구"지
20527	상추	상"치
20528	마늘	마"늘
20529	생강	생가~"이라카이끼니(+ "생강이라고 한다니 까"의 의미임.)
20530	냉이	나세~"이
20531	달래	달래~"이
20532	도라지	도래"
20533	더덕	더"덕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쌀밥
20602	찬밥	시"근"밥
20602	찬밥	가메숀"
20602-1	더운밥	뜨신"밥
20603	조밥	서숙밥
20604	누룽지	누룬"밥(+ 구, 다)
20604	누룽지	누룽"지(+ 신)
20605	눌은밥	누룬송"냥
20606	송냥	송"냥
20607	뜨물	뜨"물"
20608	김(蒸氣)	짐:
20609	갱죽(羹粥)	갱죽(+ 다)
20609	갱죽(羹粥)	갱시"기(+ 소)
20610	싱겁다	싱겁"따
20611	국수	국"시
20612	칼국수	칼"국"수
20612	칼국수	칼"국"시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기"계"국"시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틀"국"시
20613	건더기	건디"기(+ "건"과 "근"이 혼동됨)
20613	건더기	근디"기
20613-1	국물	궁"물
20614	고명	쎄"기라꼬(+ 떡 위에 보기 좋게 하거나 맛 을 내기 위해 얹는 고명의 의미임.)
20615	꾸미	끼"미"(+ 고명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
20616	미역	미"역"꼭

20617	김(海苔)	김:(+ 신)
20617	김(海苔)	지:미라고(+ 구, "김이라고"라는 의미임)
20618	수체비	수지"비
20619	끼니	끼"니
20620	미음	미어"물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끼"리가주고 인자(+ 신, 자연발화형임.)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꺼"린다(+ 신)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썬다(+ 구)
20621	엿기름	여쩔"곰"
20622	식혜(食醴)	단술"
20623	식해(食?)	*
20624	달다(甘)	달"지
20625	가루	가리"(+ 구, 다)
20625	가루	가루"카고(+ 신, "가루라고 하고"라는 의미임.)
20625-0-1	-에	가리"에
20625-0-2	-을	가리 가"온느라(+ "가루를 가지고 오너라"라는 의미임.)
20625-0-3	-도	가루"도
20626	밀가루	밀가루(+ 신)
20626	밀가루	밀까리"(+ 구)
20627	밀기울	밀쩍"쩔(+ 신)
20627	밀기울	밀쩍띠"기다(+ 구)
20628	미숫가루	미"수까루가(+ 신)
20628	미숫가루	미"숙가리(+ 구)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자"양"(+ 구)
20701	간장	간"장"(+ 신)
20701	간장	지령"(+ 구, 다)
20702	된장	단:장"에
20703	고춧가루	고추까"루"(+ 신)
20703	고춧가루	고치가"리:(+ 구, 다)
20704	고추장	고치"장
20705	소금	소곰메(+ "소고메"의 발음실수임)
20706	김치	김"치(+ 신)
20706	김치	짐"치(+ 구, 다)
20707	김장	김장김"치
20708	깍두기	장자짐"치
20708	깍두기	깍뚜"기라꼬도(+ 신, 소)
20709	나박김치	싱검짐"치
20710	담그다	담는다
20710-0-1	-고	당꼬이따
20710-0-2	-어라	다프라
20711	양념	김장양념

20712	버무리다	썰는"다(+ 구, 조?)
20712	버무리다	버무"리라카고(+ 신)
20713	버섯	버"섯
20713-0-1	-이	버"서지
20714	콩나물(재료)	콩:지"름
20714-1	콩나물(반찬)	콩기름나무"리다(+ "콩기름"과 "콩지름"이 혼동됨.)
20714-2	숙주(나물)	녹띠"(+ 재료)
20714-2	숙주(나물)	녹:띠나무"리다(+ 반찬)
20715	두부	두부"
20716	비지	비"지
20716-1	비지떡	*
20717	달걀	달걀"
20718	가래떡	가"래떡
20719	시루떡	시뤼"떡
20720	송편	싱"편
20721	빋다	멘근"다
20721	빋다	빈"는"다도
20722	흰떡	*
20723	고물	고"물
20724	팔죽	판죽"
20725	새알심	새"알"수시비(+ "수시비"와 "수지비"가 혼동됨.)
20726	백설기	백"짬떡
20727	튀밥	박"산
20728	술	술"
20729	막걸리	막꺄"리
20730	소주	소"주
20731	부침개	적"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뚜막
20802	가마솥	가메소"치
20802-0-1	-을	소"치다(+ "솥을"이라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고 함.)
20802-0-2	-에	서말"찌소테
20803	아궁이	아궁"이(+ 신)
20803	아궁이	부석"(+ 구, 다)
20803-0-1	-이	부석"끼
20804	그을음	끄스르"미(+ "그을음이"라는 의미임)
20804	그을음	끄시르"미
20805	불쏘시개	불살"개다
20806	연기	영"게라꼬
20806-1	내(煙氣)	내"다(+ 연기가 나는 것을 말하며, 연기와 구분되지 않음.)



20806-1	내(煙氣)	내그랍꼬(+ 소)
20807	그을리다	끄시르"미 짜:따(+ "그을음이 끼었다"의 의미임.)
20808	부지깽이	부스깨~"이
20809	부삽	*(+ 제보자가 기억하지 못함.)
20810	냅다	내"다
20811	냄비	냄비"
20812	그릇	바끄"르(+ 밥그릇의 의미임.)
20812	그릇	국끄"룩또카고(+ "국그릇이라고도 하고"라는 의미임.)
20812-0-1	-을	그룩" 싹끄라
20813	뚜껑	띠"끼~"이
20814	주발 뚜껑	띠"비~"이
20815	사발 뚜껑	사발뜨"끼~"이다
20816	솔뚜껑	소투베~"이라꼬
20817	밥주걱	밥주게"
20818	숟가락	수까"라기다
20819	젓가락	저봉까"치
20820	종지	장쭙"지
20821	보시기	쭙"지(+ 소)
20821	보시기	보세"기라고(+ 다)
20822	뚝배기	툑"뻬"기
20823	접시	접"시
20824	조리	조::리
20825	이남박	나무바가"지다
20826	바가지	박제"기
20827	행주	걸"레
20827	행주	행"주라꼬(+ 정지에서 주로 사용함.)
20828	행구다	헝"가라
20829	설거지	설그"지"도"아나고
20830	개숫물	꾸중"물
20831	찌꺼기	찌"끄"리"기
20832	화로	하:로(+ 신, 소)
20832	화로	하:리(+ 구, 다)
20833	화룻불	제"뿌"리"다
20834	부젓가락	불찌"께
20834-0-1	-이	불찌"께거(+ "불찌"께가"의 발음 실수임.)
20834-1	불손가락	불손
20835	다리쇠	시꼬재~"이
20836	석쇠	적"찌
20837	도시락	도스락"(+ 신)
20837	도시락	도시래"기(+ 구)
20838	바구니	산테"미
20839	뒤주	쌀뚜지"
20840	찬합	두름바"기다
20841	강판	끌"게다
20842	개다리소반	깡"상"판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큰바~"이다
20902	벽	빅"(+ 신)
20902	벽	비룽빠"그러(+ 구)
20903	다락	다락뽕"이다(+ 천장과 같은 높이의 방을 다락방이라고 함.)
20904	벽장	빅"짱"
20905	감추다	승케"논는다
20906	흙	흙"생"기따(+ "흙이 생겼다"는 의미임.)
20907	돌쩌귀	돌"쭈"
20907-1	암쭈	앙"꼴"쭈
20907-2	수쭈	쭈"꼴"쭈기고
20908	미닫이	밀짜"앙문
20909	여닫이	여"는"문
20910	덧문	*
20911	열다	문녀"러라(+ "문을 열어라"라는 의미임.)
20912	문고리	몽꼬"리
20913	자물쇠	자물"통
20914	갈히다	가치"이따
20915	열쇠	시"때"
20916	잠그다	장"그따
20917	구멍	몽꾸영"
20917-1	귀구멍	지구영"
20918	찢다	찌"버뜨드따
20918	찢다	지"버뜨드따
20919	구들	구들짱"
20920	흙받기	흑뽕때"기
20921	흙손	흑"손
20922	흙칼	흑"손
20922	흙칼	혁"카를(+ 흙을 "흑""이라고도 하고, "혁""이라고도 발음함.)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나무흑"손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씨"흑"소~이고
20923	바르다	빅"빠"린"다(+ "벽을 바른다"라는 의미임.)
20924	장판	장"판
20925	종이	조~"이
20926	도배	빅"바"린"다(+ 다)
20926	도배	두배한"다(+ 소)
20927	구석	기티~이(+ 신)
20927	구석	구스"기라도(+ 구)
20928	굽도리	굽또"리
20928	굽도리	굽또"리
20929	깨끗하다	멜:가타(+ 다)
20929	깨끗하다	칼크"타

20930	문지방	문투바"게("문지방에"라는 의미임.)
20930-0-1	-에	문투바"게
20931	틈	문새"(+ 소, "문사이"라는 의미임.)
20931	틈	문트"매(+ 다, "문틈에"라는 의미임.)
20932	가장자리	모티~이
20932	가장자리	끈티~"이다
20933	가운데	가분"데다
20934	시렁	실거~"이지
20935	살강	살강"
20936	선반	슴반"(+ "섬"반"이라고도 발음함.)
20937	서랍	빼"다"지(+ 구, 다)
20937	서랍	서"랍
20938	경대	경:대
20939	거울	거"울(+ 신)
20939	거울	밍경(+ 구, 다)
20940	걸다	다르따
20941	호롱	호롱"뿔

##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이"인다
21001-0-1	-에	지붕"에
21002	기와	게와짱"
21003	기와집	게와집"떠 이서꼬(+ "기와집도 있었고"라는 의미임.)
21004	수키와	골"게"와
21004	수키와	수"께와
21005	암키와	바"닥께와더 이꼬(+ "암키와도 있고"라는 의미임.)
21006	대들보	데들"뽀"
21007	서까래	서"까"래
21008	추녀	춘"서
21009	처마	지붕처"매
21009	처마	처"마
21010	오두막	옴패~이"집
21011	초가집	소아짱(+ 초가집의 발음 실수임.)
21011	초가집	초"가짱
21012	이영	영"게
21012	이영	마람띠~"이(+ "이영"을 엮어 말아둔 것.)
21012-0-1	-에서	마람띠~"이 우에서(+ "이영 위에서"라는 의미임.)
21013	용마름	당:마리
21014	기스락	처"마
21014	기스락	처"매
21015	낙숫물	첨"마"물
21015-1	기스락물	비센"물

21016	사닥다리	서다리
21017	용마루	용:마리
21018	토방	뜨"럭"
21019	댓돌	*
21019-1	섬돌	발또듬
21020	마루	청:마리
21020-0-1	-에	청:마"리에
21021	뒷마루	물"리마리
21022	기둥	지동"
21023	주춧돌	주"치"뜰
21023-0-1	-을	주치도루에(+ "주춧돌 위에"라는 의미임.)
21024	굴뚝	굴떡

### 2.3.3. 마당

21101	뜰	꼬"빠"치라고
21102	마당	마당"이
21103	넓다	너리"다
21103-0-1	-어서	널"르서
21104	넓히다	너리"게한다(+ 구)
21104	넓히다	널"핀다(+ 신)
21105	곳간	고방(+ 구)
21105	곳간	두지"더(+ 신, "곳간도"라는 의미임)
21106	외양간	마구간"
21107	마구간	마알"마구다
21108	광	고"까~"이라
21109	헛간	허까"니
21110	쓰레기	쓰"레"기
21111	장독대	장꼬방"
21112	장독 뚜껑	당"뚜"뜨깨(+ "장독뚜껑"의 발음 실수임.)
21112	장독 뚜껑	독뜨끼~"
21113	변소	통시"(+ 구, + 다)
21113	변소	디까"는(+ 신)
21113-1	똥장군	통"짱구~이
21114	울타리	단장
21115	담	돌땀(+ 다)
21115-0-1	-에	돌땀우에
21115-0-2	-도	담도
21116	사립문	삽짹"
21117	뒤꼀	디"인"마"당
21117-0-1	-에	단:마다~"서
21118	바깥	집바"끼다(+ "집밖이다"라는 의미임.)
21118-0-1	-에	집바"께(+ "집밖에"라는 의미임.)
21119	모퉁이	고베~"이
21120	모서리	기"티~"이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큰:동네(+ 소)
21201	마을	마시"리다(+ 다)
21202	윗마을	우"똥네다(+ 소)
21202	윗마을	움마시"르다(+ 다)
21202	윗마을	우"엠큐실(+ 다)
21203	이웃	이"우쩍
21203-0-1	-이	이"우시
21203-0-2	-에	이"우지
21204	마을가다	사랑빠~"아 간다(+ 소)
21204	마을가다	초"당"빠~아 간다(+ 소)
21204	마을가다	마실가"따(+ 다)
21205	우물	새:미물
21206	두레박	뚜"르"박
21207	샘(泉)	웅"덩물(+ 들판에 판 우물을 의미함.)
21207	샘(泉)	오망"물(+ 작은 샘을 의미함.)
21208	가(邊)	끈티~"이(+ 대상의 끝부분이라는 의미에서 부르는 것임.)
21208	가(邊)	박가"이"(+ "밭 가를"이라는 의미임.)
21208-0-1	-을	박가"이"(+ "밭 가를"이라는 의미임.)
21208-0-2	-에	가"에"
21209	물지게	물찌"게
21210	가게	장"사"쩍(+ 구, 다)
21210	가게	점빠~이나(+ 신, 소)
21210	가게	가게"라(+ 신)
21211	싸다	싸"게"(+ 신)
21211	싸다	헐"키"(+ 구)
21212	비싸다	비"사다
21213	흥정	흥정한"다
21214	중매인(거간꾼)	소"계꾼(+ 신)
21214	중매인(거간꾼)	구"정꾼(+ 구, 다)
21215	잔돈	잔"전(+ 구, "잔"돈" 또는 "잔"던"이라고도 발음함.)
21216	에누리	깍"짜(+ 다, 동사활용형임.)
21216	에누리	헐"키해도(+ 다, 동사활용형임.)
21216	에누리	어느"레(+ 소)
21217	거스름돈	잔"전(+ 구, "잔"돈" 또는 "잔"던"이라고도 발음함.)
21217	거스름돈	거스름"똥(+ 신)
21218	거스르다	잔"던내나라(+ "잔"돈" 또는 "잔"전"이라고도 발음함.)
21218	거스르다	잔"전도"오(+ "잔"돈" 또는 "잔"던"이라고도 발음함.)
21218	거스르다	가"저늘(+ 내가 거슬러서 내어 주는 돈을 뜻함.)
21219	꾸다(借)	채"애도(+ "꾸어다오"라는 의미임.)

21219	꾸다(借)	꾸"운"다"더(+ "꾼다고도"라는 의미임. 보통 곡식을 빌릴 때는 "꾸다"를 사용하고, 돈을 빌릴 때는 "채다"를 사용한다고 함.)
21219-0-1	-어야	채"애
21220	구두쇠	구독"세
21221	말기다	매"키논는다
21222	나머지	잔"전
21222	나머지	남:"는"도느
21223	덤	우"에"꺼
21224	몫	모가"치다
21224-0-1	-을	모아"치 챙기따(+ "몫을 챙겼다"라는 의미임. "모아"치는 "모가"치의 발음 실수임.)
21225	빚	빈
21225-0-1	-을	비"슬
21225-0-2	-에	비"세
21226	이차(利子)	위"자(+ 상향이중모음 "위")
21227	심부름	심:부름
21228	두름	한:두름"
21228-1	축	한"축
21228-2	깨	한"띠
21228-3	접	한"접"
21228-4	쌈	한"쌈
21228-5	두름	두루미"라(+ "두름이라고"의 의미임.)
21228-6	단/몫(작은 묶음)	자검"몫"티다
21228-7	단/몫(서너 개 묶음)	한"단
21228-8	톳	한"토
21228-9	모숨	하노"콧(+ 이 지역에서 "모숨"은 시래기 따위와 같은, 엮어 놓은 사물을 세는 단위로 쓰임.)
21229	컬레	항커"리
21230	마지기	여"얼"마"지기다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이"백"평(+ 논외의 경우임. 한 평은 가로 세로 여섯 자 크기임.)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백"평"(+ 밭의 경우임. 한 평은 가로 세로 여섯 자 크기임.)
21231	꾸러미	한두름"
21232	그루	여"얼"개"(+ "얼 그루"를 의미함.)
21233	포기	두피기
21234	저울	정"월
21235	자루(包袋)	잘"리
21235-0-1	-을	잘"리가즈온느라(+ "자루를 가지고 오너라"라는 의미임.)
21235-0-2	-에	잘"리이
21236	하나	하나"
21236-1	한-개	항"개
21236-2	한-되	한"디
21236-3	한-말	함"말
21237	둘	두"울"

21237-1	두-개	두"우"개
21237-2	두-되	두"디"이
21237-3	두-말	두:말
21238	셋	서어"이
21238-1	세-개	시이"개
21238-2	세-되	세에"디"
21238-3	세-말	세:말
21239	넷	너어"이
21239-1	네-개	니:개
21239-2	네-되	네에"디
21239-3	네-말	네:말
21240	다섯	다"씨
21240-1	다섯-개	다"석"개
21240-2	다섯-되	다"션"띠
21240-3	다섯-말	다"섬"말
21241	여섯	여"씨
21241-1	여섯-개	여"석"개
21241-2	여섯-되	여"션"띠
21241-3	여섯-말	여"섬"말
21242	일곱	일"고
21242-1	일곱-개	일"국"개
21242-2	일곱-되	일"곱"띠
21242-3	일곱-말	일"곰"말
21243	여덟	여"덜
21243-1	여덟-개	여"덜"개
21243-2	여덟-되	여"덜"띠
21243-3	여덟-말	여"들"말
21244	아홉	아"호
21244-1	아홉-개	아"옥"개
21244-2	아홉-되	아"홉"띠
21244-3	아홉-말	아"옴"말
21245	열	열"
21245-1	열-개	열"개
21245-2	열-되	열"띠
21245-3	열-말	열"말"
21246	스물	수"물"
21246-1	스무-개	수"무"개
21246-2	스무-되	수"무"디
21246-3	스무-말	수"무"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개	서"령"개
21247-2	서른-되	서"런"디
21247-3	서른-말	서"름"말
21248	마흔	마"현
21248-1	마흔-개	마"형"개
21248-2	마흔-되	마"현"디
21248-3	마흔-말	마"흠"말
21249	쉰	신:
21249-1	쉰-개	시"잉"개"
21249-2	쉰-되	시"인"디

21249-3	원-말	시"임"말"
21250	예순	육"시"
21250	예순	이"슨
21250-1	예순-개	육"시"개
21250-2	예순-되	육"십"띠
21250-3	예순-말	육"십"말
21251	일흔	칠"시"
21251	일흔	이"른
21251-1	일흔-개	칠"시"개
21251-2	일흔-되	칠"십"띠
21251-3	일흔-말	칠"십"말
21252	여든	팔"십
21252	여든	여"든
21252-1	여든-개	팔"시"개
21252-2	여든-되	팔"십"띠
21252-3	여든-말	팔"십"말
21253	아흔	구"시
21253	아흔	아"현
21253-1	아흔-개	구"시"개
21253-2	아흔-되	구"십"띠
21253-3	아흔-말	구"십"말
21254	백	백
21254-1	백-개	백"개"애
21254-2	백-되	백"띠
21254-3	백-말	백"말
21255	이백	이"백"
21256	한둘	한"둘"
21256-1	한두-개	한"두"개
21256-2	한두-되	한"두"띠
21256-3	한두-말	한"두"말
21257	두셋	두"셋"
21257-1	두세-개	두"시"개
21257-2	두세-되	두서"테"지(+ "두서"디"지"의 발음 실수임.)
21257-3	두세-말	두서"말
21258	두서넛	두서"이
21258	두서넛	둘서어"이
21258-1	두서너-개	두서너"개
21258-2	두서너-되	두서너"디
21258-3	두서너-말	두서너"말
21259	서넛	서"넛"
21259-1	서너-개	서너"개
21259-2	서너-되	서너"디
21259-3	서너-말	서너"말
21260	네댓	너"댓"
21260-1	네댓-개	너"덱"개
21260-2	네댓-되	너"덱"띠
21260-3	네댓-말	너"덱"말
21261	대여섯	니"댓"
21261-1	대여섯-개	니"대"개
21261-2	대여섯-되	대"댓"띠



21261-3	대여섯-말	대애"슴말
21262	예닐곱	여닐"곱
21262-1	예닐곱-개	여닐"꼭개
21262-2	예닐곱-되	이일"곱띠
21262-3	예닐곱-말	이일"곱말
21263	일여덟	이녀"덜
21263-1	일여덟-개	인녀"덜개
21263-2	일여덟-되	이녀"덜띠
21263-3	일여덟-말	인녀"덜말
21264	여덟아홉	여나"홉
21264-1	여덟아홉-개	여다"오개
21264-2	여덟아홉-되	여나"홉띠
21264-3	여덟아홉-말	여다"홉말
21265	여남은	여나"암"
21265-1	여남은-개	이남"개
21265-2	여남은-되	이남"대
21265-3	여남은-말	이남"말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매"
21302	길이	치매기"리
21303	저고리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새"애"똥"저구리
21305	두렁이	두디"기
21305	두렁이	쑥"뚜디기(+ 일반 두디기 속에 솜 등을 넣어 서 만든 것.)
21306	무늬	무니"운(+ 무늬를 그려넣은 옷을 의미함.)
21307	고쟁이	꼬장"주"
21308	바지	바"지
21309	두루마기	두루마"악
21310	의복	우"돈(+ 다, 나들이할 때 입는 옷을 의미함.)
21310	의복	추리온"(+ 출입옷을 의미함.)
21310	의복	이"보건(+ 신)
21310	의복	오슨(+ 구)
21311	구겨지다	꾸게"저따
21312	옷고름	오꾸"름
21313	단추	단추"
21314	동정	동"전
21315	겉	바깥"
21315	겉	거"돈(+ "겉옷"을 의미함.)
21315	겉	근(+ 소)
21315-0-1	-에	오:꺾띠"기에

21315-0-1	-에	그"티
21315-0-2	-을	*
21315-0-2	-을	거튼
21316	홀웃	적삼"
21317	겹웃	저"본"
21318	잠방이	짜른바"지
21319	누더기	두디"기온
21320	거지	걸배~"이
21321	구걸	동냥
21322	조끼	쫓끼"
21323	내의	내:복(+ 신)
21323	내의	쫓"곧"(+ 구)
21324	껴입다	썉"임"는"다
21325	소매	소"매
21326	주머니	주무"이
21327	호주머니	호주무"이(+ 신)
21327	호주머니	개쭈무"이(+ 구, 다)
21327	호주머니	호쭈무이
21328	허리띠	헐:끈"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도"복"
21331	삿갓	사"까시
21331-0-1	-에	사"까시
21332	고깔	꼬"깔
21333	사모	사모"관대
21334	유건	과~"이고
21334	유건	유관"
21335	대님	다"임
21336	감발	미:터리(+ 조?)
21337	짚신	집신"
21338	미투리	미:터리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	신"삼"는"다
	결다	
21339	나막신	나막"신
21340	설피	터"벽"신(+ 다)
21340	설피	설"피(+ 소)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밍주"
21401-1	명주실	밍지"실
21402	목화	명:송"군"다(+ "목화를 심는다"라는 의미임.)
21402-1	목화다래	다래
21403	무명	미모"옹비
21403	무명	미어"엄"비도카고(+ "미어"엄"비라고도 하고"라는 의미임.)

21403-1	무명실	미몽"실
21404	씨아	쌔애"기
21405	자새	꾸"리
21405	자새	자새"(+ 누에 고치에서 실을 뽑을 때 쓰는 도구임.)
21406	물레	물레"
21407	베	비"짚"다
21408	길쌈	질삼"한다
21409	골무	골미
21410	반진 고리	반지끄"럭
21411	가위	가시"케
21411-0-1	-을	가시"케 가져온느라
21411-0-2	-에	가시"케 비이"따
21412	마르다(裁)	옴만"다(+ 구, "옷을 마른다"라는 의미임.)
21412	마르다(裁)	빈다(+ 신)
21412-0-1	-고	오"빠"고"이따
21412-0-2	-어라	비"이라
21413	형겹	험쫘가"리
21413	형겹	형겹쫘가"르다
21413-0-1	-을	*
21413-0-2	-에	*
21414	바늘	바"늘
21415	웨다	깁"다
21415-0-1	-고	끼"고"이"따
21415-0-2	-어라	끼"이도"고(+ 다, "웨어 다오"라는 의미임.)
21415-0-2	-어라	끼이"라(+ 소, 잘 사용하지 않음.)
21416	바느질	반질한"다(+ 구)
21416	바느질	바늘질한"다(+ 신)
21417	재봉틀	자"방"틀
21418	끈	끄네"끼
21419	노끈	노"끈
21420	참바	바:드"린"다(+ "바를 꼰다"라는 의미임.)
21421	매듭	매"듭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지따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끄네"끼맨다
21422	보자기	보재"기
21423	이불	이"불
21424	솜	소"케(+ 된소리와 교체됨.)
21424	솜	쏘케
21425	포근하다	포근하"다
21426	홀이불	혼니"불
21427	겹이불	점"니"불
21427-1	솜이불	한"니"불
21428	누비이불	바금니"불(+ 소)
21428	누비이불	니비이"부리라고(+ 다)
21429	베개	비개
21430	베갯잇	비게겹띠"기
21430	베갯잇	호청"

21430-0-1	-에	호칭"에
21431	목침	몽"치"미
21432	퇴침	티"치"미
21433	방석	자부동"
21434	담요	담"뇨"
21435	빨래하다	서답썩는"다
21435	빨래하다	빨래한다(+ 신)
21436	빨랫방망이	물빵매~이
21437	빨래터	빨래"터
21438	빨랫줄	빨래"줄
21439	다리미	다리"비(+ 다)
21439	다리미	다레"비
21439-1	다림질	다르"비질
21439-1	다림질	다리"비질(+ 다)
21440	인두	운"디"
21441	다듬잇방망이	따듬빵매~이
21442	다듬잇돌	다듬"똥
21442	다듬잇돌	따듬"똥
21443	다듬이질	따디"미한다
21443	다듬이질	따드"미질한다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서얼"랄
21502	설	서"리"다
21503	선달 그믐날	그"뭍"날
21504	묵은세배	*
21505	올해	올"해
21505-0-1	-는	올"개느
21505-1	작년	장"년"
21505-2	재작년	그장"년(+ 다)
21505-2	재작년	저장"년
21505-3	내년	다"음해
21505-3	내년	밍연"(+ 다)
21505-4	후년	우"밍"연
21505-5	내후년	거"열"피"밍연
21506	작은설	자근"서리다(+ 아이들의 말)
21507	웃	유까"치
21507-0-1	-을	*
21507-0-2	-에	*
21507-1	웃놀이	윤노"리
21508	웃가락	유까"치
21508-1	도	또"오

21508-2	개	개:
21508-3	걸	걸:
21508-4	웃	유"운"
21508-5	모	모
21509	단동	한동나따
21509-1	외동무니	한동간"다
21509-1	외동무니	단지간"다
21509-2	두동무니	두동사~"이다
21509-3	석동무니	석"동"간다
21509-4	넉동무니	너억"똥
21509-5	막동	막똥"이다
21509-6	단동무니	단동"도"몬나따
21510	보름	보"름날
21510-1	삭망	초보"름
21511	추석	파"럴
21511	추석	파"럴"대보"르미다
21512	망월	달뿔로"리
21513	쥐불놀이	지뿔로"리
21514	자치기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미띠"기
21514-2	긴막대	자"치"기
21515	수수께끼	세뿔"로"리
21516	호미씻이	머슴노"리
21516	호미씻이	망노"리
21517	팽과리	매구"
21518	장구	장"구
21519	결두리	새"참
21520	무당	무"우"당"
21520	무당	구"째~이
21520-1	박수	냥"구"째~이
21521	고수레	고"시"레이
21521-1	고수레!	고오"시"레"
21522	점쟁이	점바"치
21522	점쟁이	점재~"이가(+ 다)
21523	상여(喪輿)	세~:이
21524	굴건	굴"간"
21525	제사	지"사"
21526	제기	목"기"
21527	귀신	떠"도"리"기신
21528	도깨비	토깨"비

## 2.5.2. 농경용품

21601	고빼	코꾼"지
21602	굴레	멍"에쭈
21603	멍에	멍"에
21604	길마	소"질매"

21605	부리망	소"멍"
21606	구유	소죽"통
21606	구유	구"시(+ 구, 다)
21607	작두	짹"두
21608	꿀	꿀"
21609	여물	염물써"렌다
21610	쇠죽	소"죽끼린다
21611	쇠죽바가지	감빠가"치
21612	수레	구루"마
21613	끌다	끈"다
21613-0-1	-고	끌"고간다
21613-0-1	-고	끄시"꼬 온다
21614	바퀴	발"통"(+ 다)
21614	바퀴	도랑태"(+ 소, 모양이 작은 형태임.)
21615	새끼(繩)	새"끼"꼴다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나따
21616	망태기	망"태
21617	먹둥구미	두루마"기다(+ "둥구메"기"형에 대한 오류형 임.)
21617	먹둥구미	둥구메"기
21618	거적	덕서"기"라
21619	가마니	가"마"이년
21619-1	가마니틀	가"마~"일틀"
21620	돛자리	명독짜"리
21621	자리틀	멩독따"리트"리지(+ "명독짜"리트리지"의 발 음 실수로 보임.)
21621	자리틀	멩독짜리틀"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 견다	짤"다"카제(+ "짤다고 하제"형임.)
21622	왕골	골:
21623	삼태기	집"소"구리
21623-1	짚 삼태기	집"소"구리
21623-2	싸리 삼태기	싸:리소"구"리
21624	명석	방서"근(+ 보통 네모난 것을 덕석이라 하고, 둥근 것은 방석이라고 함.)
21625	어레미	얼기"미
21625-1	고운체	치:(+ 중간 정도의 구멍 크기를 가진 체.)
21625-1	고운체	고"분"치(+ 구멍 크기가 가장 작은 체.)
21625-2	굵은체	얼기"미
21626	대장장이	편"수
21627	대장간	대정간"
21628	풀무	불메
21628	풀무	대불미"(+ 크기가 큰 것.)
21628	풀무	숨"불미(+ 크기가 작은 것.)
21629	모루	불미뚝"
21630	모루채	미:(+ 크기가 큰 것.)
21630	모루채	망"치(+ 크기가 작은 것.)
21631	갈퀴	까꾸"리
21632	집계	찌"께

21633	장도리	장"도"리
21633-1	노루발	모뻘"게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뻘
21635	도끼	도:끼(+ 신)
21635	도끼	도:치더하고(+ 구, 다)
21636	자루(柄)	도치짜루"(+ 신)
21636	자루(柄)	자리"(+ 구, 다)
21636-0-1	-을	자루"를
21636-0-2	-에	자루"에
21637	갈고리	갈고"리
21638	췌기	췌에"기
21638	췌기	심받는다도(+ 신, "심 박는다고도"의 의미임.)
21639	송곳	도레"송고시고
21639	송곳	소"웅"고슨
21639-0-1	-에	소"웅"고세
21640	뽕족하다	뽕족하~이
21641	수또	수또"레
21641-0-1	-에	수또"레
21642	맷돌	맷돌
21642-1	수쇠	맷돌촉
21642-2	암쇠	맷돌띠"끼"구영
21643	지게	지"게
21644	발채	바:지"게
21645	지게 작대기	지게짜떼"기
21646	막대기	꼬제~이(+ 구, + 다)
21646	막대기	막떼~"이(+ 신)
21647	몽둥이	몽디~"이

###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비"짜"루"아이가
21702	광주리	산테"미(+ 올이 굵은 것.)
21703	소쿠리	소구"리
21704	함지	함제"기(+ 나무를 파서 만든 것.)
21704	함지	통함"지
21705	폴비	폴"뻘
21705-1	귀알	폴"술:
21706	독	저또~"오
21706-0-1	-에	저또~"오다
21707	물독	물"단지
21708	항아리	독"
21709	단지	단"지"(+ 크기가 다른 용기류에 비해 매우 작은 것이라고 함.)
21710	물동이	물또~"오(+ 길이가 긴 물동이.)
21711	따리	따베~"이
21712	웅기	웅"기"

21713	표주박	손제"비박"바"가"지라
21714	키(箕)	치~"이
21715	떡살	핀"틀"
21715	떡살	떡"손(+ 구)
21716	다식판	단"자틀
21717	시루	실"리
		실"리가저언느라(+ 목적격 조사가 실현되지
21717-0-1	-을	않는 형으로 "시루를 가지고 오너라"라는 의
		미임.)
21717-0-2	-에	실"리:
21718	시룻밑	*
21718-0-1	-에	*
21719	시룻번	시리"빠~이고
21720	부싯돌	부"싯"돌
21720-0-1	-을	부싯도리고
21721	부시	부시
21722	부싯깃	*
21723	담배	담"배"지
21724	담뱃대	담배땀
21724	담뱃대	곰방"데(+ 짧은 담뱃대.)
21724	담뱃대	장"땀(+ 긴 담뱃대.)
		오"죽석:(+ 담뱃대의 재료가 오죽으로 만든
21725	담배설대	데서 유래된 낱말임.)
21725	담배설대	담배설"땀
21726	담배통	담배꼭땀"기
21727	물부리	빨"땀"
21728	담배쌈지	담배"찌갑
21728	담배쌈지	담뱃주무~"이
21728	담배쌈지	쌈"지"라고도(+ 다)
21729	부채	브"채
21730	토시	팔"찌
21730	토시	토시"라꼬(+ 구, 다)
21731	벼루	떡"파니(+ 소)
21731	벼루	베"루로(+ 다)
21732	가락지	가락"찌
21733	비녀	비네"에"
21734	참빗	참"빈
21734-0-1	-을	참"빈가저온너라
21734-0-2	-에	참"비세
21735	얼레빗	어얼"건빈
21735	얼레빗	얼건"빈
21735	얼레빗	어리빈"
21735	얼레빗	어리"미"빈"(+ 구, 다)
21736	세숫대야	시시땀"
21737	비누	빨레빠"노(+ 신)
21737	비누	사:분(+ 구, 다)
21738	도투마리	도투마"리
21739	활대	비틀신(+ 조?)
21740	잉앗대	잉"어"땀
21741	부티	부디"



21742      도롱이

도리~"이

## 2.6. 인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망
21802	이마빼기	이망빼"기다
21803	눈자위	눈"뚱"자
21804	검은자위	꺼믈"창
21805	흰자위	힌"창"
21806	눈꺼풀	눈꺼"울
21806	눈꺼풀	눈꺾띠"기다(+ 다)
21807	거적눈	끄정"누~이다끄도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서"비
21809	속눈썹	쑹"눈썹
21809-0-1	-이	쑹"눈"서비
21809-0-1	-이	쑹눈서비
21810	눈두덩	눈뚱더~이라끄더
21811	안경	양:경"이라끄
21812	안경집	안경집"
21813	돌보기	도빼"기
21814	주름살	쭈글사"리
21814	주름살	주"름살로(+ 구)
21814-0-1	-이	주름"사레
21815	엷되다	점:따
21816	수염	시:염"
21817	구레나룻	구"리시염
21817-0-1	-을	구"리시으미다
21818	코	주무"코다(+ "주먹코이다"라는 의미임.)
21818-0-1	-이	주무"코가
21819	콧수염	운시염
21820	코딱지	코"따께~"이
21821	콧구멍	코꾸여~"
21821-0-1	-을	고꾸영"을
21821-0-2	-에	코꾸여~어스
21822	콧물	코"나"온다(+ 다, "콧물나온다"라는 의미임.)
21822	콧물	콤"물"
21823	입술	입술"
21823-0-1	-에	입수"레
21824	다물다	쪼부"르따(+ 다)
21824	다물다	다무"를따
21825	어금니	어"금니
21826	덧니	던"니"

21827	휘파람	히빠람
21828	침	춤
21829	삼키다	생"켄다
21830	가래(痰)	가래
21831	빨다	바"트에 데지(+ "빨어야 되지"라는 의미임.)
21832	혀	췌"에
21833	헛바늘	췌빠~"아나따(+ "헛바늘 났다"라는 의미임.)
21834	긋불	기"빠"비
21835	귀고리	기고"리
21835-1	귀걸이	기마"개
21836	귀지	기"뽀"
21836	귀지	기"창(+ 다)
21837	귀이개	기호베"기
21838	소리	소"리가
21839	엇듣다	얏:똥"는"다
21840	귀청	기"창"
21841	귀밑	기"미"치라카지(+ "귀밑이라고 하지"라는 의 미임.)
21841-0-1	-을	기"미"테
21842	관자놀이	관"자"
21843	기미	기"미
21844	주근깨	*
21845	턱	아래"텍
21845	턱	텍쭈가"리고(+ 비)
21846	턱수염	테쭈가"리시엄이지
21847	뺨	뺨다"구(+ 비)
21847	뺨	뺨"앰"
21847-1	볼	볼"(+ 이 지역에서 "볼"은 뺨의 비칭인 "뺨따 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됨.)
21847-1	볼	뺨다"구라꼬(+ 다)
21848	가름하다	게름:하"다
21849	보조개	빠"암"드"러"가따(+ 명사형은 존재하지 않음.)
21850	머리카락	머리칼"
21851	비듬	기"미
21852	기계충	버"지미고
21853	정수리	짱베"기
21854	대머리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오그랑머"리
21855	고수머리	고시랑머"리(+ 다)
21856	가르마	가르"매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가르"매탄다
21857	가마	가"매
21857-1	가마(鼎)	가"매"숯"
21857-2	가마(轎)	가"아"매"
21857-3	가마(질그릇)	*
21857-4	가마(가마니)	가"마~이
21858	뒤통수	디"꼭"데기
21859	뒷덜미	딘목쭈"개
21860	목	목"
21860	목	모가"지(+ 비)

21860	목	메가"지(+ 비)
21861	먹살	멕사"르(+ "먹살을"이라는 의미임.)
21861	먹살	목"살

## 2.6.2. 상체

21901	어깨	어깨바"지
21901	어깨	어"어"깨도
21902	밀치다	밀"치"따"
21903	겨드랑	저트랑"
21904	등	등어"리
21905	가슴	가"슴
21906	결리다	등마지"인다(+ "등이 결린다"라는 의미임.)
21906	결리다	절린"다
21907	갈비뼈	갈"비때
21908	허파	허"파"
21908	허파	허"폐
21909	쓸개	씨"일"개
21910	콩팥	콩"관
21910-0-1	-에	콩"파테
21910-0-2	-을	코"옹바슬
21911	팔	팔(+ 다)
21911	팔	팔뚜"기라
21912	팔꿈치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팔쭈름쥼"따
21914	손톱	손톱"
21915	오른손	오"른"손
21916	왼손	왼:손
21917	다르다	다리"게
21917-0-1	-아서	달"라서
21917-1	틀리다	틀려"따
21918	왼손잡이	왼:손제비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송까"락
21920	집게손가락	양지송까"락
21920	집게손가락	약"찌
21921	가운뎃손가락	가분테송까"락
21922	약손가락	꼰"지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송까"락
21924	생인손	중"지 나"따(+ 중기가 났다의 의미임.)
21924	생인손	생송까"락또 알코(+ "생인손도 앓고"라는 의미임.)
21925	사마귀	사"마"구
21926	손아귀	송까"락세"
21926	손아귀	손아"구(+ 다)
21927	손목	숨목"
21928	뺨	뺨
21928	뺨	뺨(+ 다)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작때"기(+ 구)
21930	지팡이	작"찌(+ 신)
21931	옆구리	여꾸"리
21932	간지럽다	간지럽"따
21933	간지럽	간지름"
21934	잔허리	잘룩허"리라
21935	근육	그"늑"
21936	배꼽	배"꾸"영"(+ 구, 다)
21936	배꼽	배총"(+ 간난아기의 배에 남아있는 땃줄을 이르는 말.)
21936	배꼽	배꼽"(+ 신, 소)
21937	목물	몽"물

### 2.6.3. 하체

22001	복사뼈	간"절"뼈
22001	복사뼈	복성"뼈(+ 구, 다)
22002	발가락	발까"락
22003	발바닥	발빠"닥
22004	발톱	발톱
22005	넙새	발"램"새"
22005	넙새	내:미난다(+ 구, 다)
22006	고린내	꾸"룽"내(+ 소)
22006	고린내	발램"새(+ 구, 다)
22007	굳은살	구등"살
22008	정강이	초"때"뼈
22008	정강이	장"개~이
22009	종아리	장"판"지
22009	종아리	종아"리(+ 구)
22010	장딴지	장"판"지
22011	회초리	해"차"리
22012	무릎	무르파"게(+ 이 지역에서 무르팍은 비칭이 아니고, 무릎을 포함하여 아이들을 앉힐 때 쓰이는 부분을 의미함.)
22012-0-1	-을	무르파"게
22012-0-2	-에	무르"베
22013	오금	오금채~"이
22014	엉덩이	엉"디~"도(+ 이 지역에서는 궁둥이와 엉덩이의 차이가 없음.)
22015	궁둥이	궁"디~"(+ 다, 이 지역에서는 궁둥이와 엉덩이의 차이가 없음.)
22016	볼기	볼"(+ 다)
22016	볼기	볼"기"
22017	명	명"
22018	명울	명아"리

22019	가랑이	가래~"이
22020	사이	다리새"(+ "다리 사이"를 의미함.)
22021	살	사타리새"(+ "살 사이"를 의미함.)
22021-0-1	-이	*
22021-0-2	-을	*
22022	사타구니	사탈구"지라
22023	가래뚝	*
22023-0-1	-을	*
22024	허벅다리	허"벅다리(+ 다, 이 지역에서는 허벅다리와 넓적다리의 구분이 없음.)
22025	넓적다리	넙쩍따"리도(+ 소, 이 지역에서는 허벅다리와 넓적다리의 구분이 없음.)
22026	가부좌(跏趺坐)	야"양"반"다리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 다/꼬다/하다	한다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강기(+ 신)
22101	감기	고"뿔"(+ 구)
22102	기침	지"침한다
22103	재채기	제"치기난다
22104	사레	가르지"치미다
22104	사레	가로지"치미다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가로지"치므 난다(+ "가로지침이 난다"라는 말임.)
22105	딸꾹질	새알(+ 다)
22105	딸꾹질	딸국"떨(+ 신)
22106	트림	트"름한다
22107	곰보	얼금배~"이다
22107	곰보	곰"보"도 카고(+ 다, "곰보라고도 하고"라는 의미임.)
22108	천연두	홍진뽕(+ 조?, 홍역과 구별되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는 천연두는 사용하지 않음.)
22108	천연두	홍지"니(+ 이 지역에서는 "천연두, 마마"등은 없고 홍진만 사용하며, 홍역과도 구별이 되 지 않음.)
22109	여드름	이"드름
22110	학질	한"기든다(+ 학질이라는 이름은 들었지만 잘 모름.)
22110	학질	*
22110-1	하루거리	*
22110-2	이틀거리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
22111	홍역	홍진"뻘~이라 카능기(+ "홍진병이라고 하는

22111	홍역	것이"라는 의미임.)
22112	불거리	가"계한다꼬도
22113	땀띠	뿔"치"기
22114	두드러기	땀띠"기
22115	버짐	두드리"기 난다
22115-1	마른버짐	버"짐(+ "버"짐"과 "버"즘", "버"잠" 등이 혼동됨.)
22115-2	진버짐	마름버"즘(+ "버"짐"과 "버"즘", "버"잠" 등이 혼동됨.)
22115-3	도장 버짐	짐버"즘(+ "버"짐"과 "버"즘", "버"잠" 등이 혼동됨.)
22116	문둥이	뚝뚝점(+ "버"짐"과 "버"즘", "버"잠" 등이 혼동됨.)
22116-1	문둥병	문디~이
22117	부스럼	문디~이 병이다
22117-1	종기	부시럼"
22118	고름	뽀드라"치
22119	곰기다	고"르"미다
22120	난쟁이	곰"긴다
22120	난쟁이	난제~이(+ 신)
22121	사팔뜨기	썸:베~이도 카고(+ 다, "썸뱅이라고도 하고"라는 의미임.)
22122	언청이	사:팔띠~이다더(+ "사팔뜨기이다 라고도"라는 의미임.)
22123	소경	썰"보
22123-1	당달봉사	봉사
22124	애꾸	당"달봉사
22125	눈곱	눈썸그디~"이다
22126	다래끼	눈썸썰~이
22126-1	다래끼(눈 위쪽)	눈다래"끼 나따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
22127	절름발이	썰름배~"애
22128	굽사등이	굽사
22128	굽사등이	굽사디~"이
22129	귀머거리	떡"보"(+ 다)
22129	귀머거리	기머거"르다(+ 소)
22130	말더듬이	더듬배~"이
22130	말더듬이	더"드미(+ 고, 다)
22131	병어리	버"버리
22132	잠꾸러기	장꾸러기(+ 다)
22132	잠꾸러기	잠뽀도
22132	잠꾸러기	잠치~"이구나(+ 다, 구)
22133	줄리다	자부름"따
22134	하품	하"품
22135	줄음	자부름 온다
22135-0-1	-을	*
22135-0-2	-에	*
22136	잠꼬대	장"꼬"대

## 2.7. 육아

22201	입덧	입"똥난다
22201-0-1	-을	입"똥"슬
22202	갓난아이	간얼라"
22203	어린아이	얼라"라꼬
22204	경기(驚氣)하다	정"끼드르따
22205	눅히다	니"핀다
22206	계집아이	가세나"
22207	예쁘다	이"쁘"다
22208	사내아이	머스매"애라
22208	사내아이	사내"자시기(+ "머슴애"보다 나이가 더 들었 을 때.)
22209	아우	저"빠" 고르따(+ 다, "젓배 굶었다"라는 의미 임.)
22209-1	아우보다	동생나"따(+ 구)
22209-1	아우보다	아:우본"다"(+ 신)
22209-2	아우 타다	아:우탄"다"(+ 소)
22210	야위다	애"비따
22211	쌍둥이	쌍디~"이
22212	오줌	오주물
22213	똥	똥
22214	기저귀	오줌쌀"게
22214	기저귀	오줌두디~"이라 카고(+ "오줌두더기라고 하 고"라는 의미임.)
22214	기저귀	오중결"래(+ 다)
22214	기저귀	기즈기누(+ 신, "기저귀는"이라는 의미임.)
22215	뉘다(排便)	니"인다
22216	방귀	방구(+ 소)
22216	방귀	똥깁"다(+ 다)
22216-1	뀌다	똥깁"다
22217	구린내	꾸"렁"내난다(+ "꾸룽내난다"라고도 발음함.)
22218	구리다	꾸"룽"내난다(+ "꾸렁내난다"라고도 발음함. "
22219	포대기	구리다"라는 동사형은 쓰지 않음.)
22219	포대기	똥"이(+ 크기가 작고 좁은 것.)
22219	포대기	똥테~"이(+ 다, 구, 크기가 작고 좁은 것.)
22220	기지개	두디기(+ 크기가 큰 것.)
22220	기지개	기지개
22220	기지개	지지게러(+ 다, "기지개를"이라는 의미임.)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 다	기지"게 쏜다
22221	거짓말	거:즈"말한다
22222	남부끄럽다	넘"부"끄럽따
22223	겉쟁이	겉째~이
22224	불쌍하다	불쌍타

22225	죄암죄암	쫓물락쫓"물"락"
22226	곤지곤지	진진
22227	따로따로	따"로따"로 카지(+ "따로따로라고 말하지"라는 의미임.)
22228	도리도리	도레도레
22229	짹짹	짹"짹
22230	부라부라	둥다"꿍
22230	부라부라	불:메"불메"
22231	걸음마	거름"마하자
22231	걸음마	천재"죽(+ 첫걸음의 의미임.)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자"빠져따
22234	곤두박질	구불띠"시실 제는(+ "구부러졌을 제는"의 의미임.)
22234	곤두박질	곤두박"찌 쳐따
22235	안기다	앙키따
22236	바람개비	빨랑개"미
22237	호드기	날라"리
22238	숨바꼭질	숨바꼭"제
22239	소꿉놀이	반주께~"이
22240	사금파리	사기께~"이다
22240	사금파리	사기쫓"개이한테
22240	사금파리	사금파르도(+ 다)
22241	연	여"연"
22241-1	방패연	방패연
22241-2	가오리연	가"오리연
22242	걸리다	영 걸리"따(+ "연이 걸렸다"라는 의미임.)
22243	고누	꼰뜨"기
22244	땅뺏기	뽀"따기
22245	팽이	핑"디~이
22246	딱지치기	떼"에"기"치기
22247	구슬	구"슬치기(+ 신)
22247	구슬	구"실치기
22248	그네	군테"(+ 구)
22248	그네	구네"카고(+ 신, "그네라고 하고"라는 의미임.)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군테타"러 가자
22249	밀신개	발"판"떼기
22249	밀신개	발"판"(+ 다)
22250	굴렁쇠	도랑테
22251	굴리다	도랑테굴"리기다(+ 굴렁쇠를 굴리는 놀이 명칭임. 자동사일 경우에는 "구분"다"를 사용함.)
22251-0-1	-고	*
22251-0-2	-어야	굴"리야데지(+ "굴려야 되지"라는 의미임.)
22252	자전거	자장거
22253	목말	이께바"지 태안다(+ 명사형을 사용하지 않음.)
22254	말타기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땀박"찢(+ 신)
22255	달음박질	다름박"찍(+ 신)
22256	썰매	시게뜨
22256	썰매	안즐베~이시"게뜨라 카그딩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어름판 탄"다
22256-2	송곳	송"굳"
22257	엄살	엉구르 신"다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 하다	신"다
22258	부아	썩"난"다

##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부"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재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가(+ 다, 의문형임.)
22302	어머니	치"넌마
22302-1	어머니(호칭)	엄"마"
22303	할아버지	할"배"애
22303-1	할아버지(호칭)	할"배"라구
22304	할머니	할"매"
22304-1	할머니(호칭)	할매
22305	남편	남"떠~이다
22305	남편	내 남"자다(+ 구)
22305-1	남편(호칭)	여"보"(+ 젊었을 때.)
22305-1	남편(호칭)	영"감"(+ 나이가 들었을 때.)
22305-1	남편(호칭)	머"신 아부"지예(+ "누구 아버지요"라는 의미 임. 아이를 낳고 나면 "아무개 아버지"의 형 태로 부름.)
22306	아내	할마~"이다(+ 나이가 들었을 때.)
22306	아내	썩"시다(+ 젊었을 때.)
22306	아내	마"느"레"다(+ 다)
22306-1	아내(호칭)	여"보"(+ 젊었을 때.)
22306-1	아내(호칭)	애"엄마(+ 아이를 낳고 나면 "아무개 엄마"의 형태로 부름.)
22306-1	아내(호칭)	부"인"카기도 하고(+ "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라는 의미임.)
22306-1	아내(호칭)	할마~"이느(+ 소)
22307	형	히"야다(+ 젊었을 때.)
22307	형	형"이다(+ 장가 간 이후.)
22307-1	형(호칭)	형"님(+ 나이가 들었을 때.)
22307-1	형(호칭)	형(+ 소, 젊었을 때.)
22307-1	형(호칭)	히"야도(+ 다, 젊었을 때.)
22308	아우	동상"이다(+ 구, "동생"이라고도 발음함.)
22308	아우	아우도(+ 신)

22308-1	아우(호칭)	동상"(+ "동생"이라고도 발음함. 보통 이름을 부른다고 함.)
22309	누나	누부"
22309-1	누나(호칭)	누부"야
22310	누이	여"동"생이라고
22310-1	누이(호칭)	동생"(+ "동상"이라고도 발음함.)
22310-1	누이(호칭)	여"동"생(+ "동상"이라고도 발음함. 어렸을 때는 보통 이름을 부른다고 함.)
22311	자식	자"시"기다
22312	맏아들	마다"들
22313	맏딸	맏딸
22314	막내	망내"이
22315	오빠	오"래"비다(+ 구)
22315	오빠	오"빠"다(+ 신)
22315-1	오빠(호칭)	오"라"배도 카고(+ 구)
22315-1	오빠(호칭)	오"빠"다(+ 신)
22316	언니	형"님카지(+ "형"님"이라고도 발음함.)
22316-1	언니(호칭)	형"님(+ "형"님"이라고도 발음함. 나이가 들었을 때.)
22316-1	언니(호칭)	히"야카기도 하"고(+ 젊었을 때.)
22317	아버	아"바인(+ "아바이는"이라는 표현임. 보통 아이가 있을 때는 "아무개 아바이" 형태로 사용하고, 아이가 없을 때는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함.)
22317-1	아버(호칭)	*(+ 그냥 "야야" 정도로 부른다고 함.)
22318	어미	민"지어마이(+ 아이 이름에 "어마이"를 붙여서 씀. "엄마"라고도 함.)
22318-1	어미(호칭)	미"느"라
22318-1	어미(호칭)	용미~"엄마야(+ 아이 이름에 "엄마"를 붙여서 씀. "어마이"라고도 함.)
22319	손자	손"자지
22320	손녀	술"여
22321	사위	사"우다
22321-1	사위(호칭)	박스"방(+ 성을 앞에 붙여 "아무개 서방"의 형태로 사용함.)
22322	외손자	위"손"자(+ 이중모음 "위")
22323	외손녀	위술여
22324	꾸짖다	머"러칸다(+ 다)
22324	꾸짖다	꾸진는"다
22324-0-1	-고	꾸지름하"고 이찌(+ 소, 활용형은 발음하지 않음.)
22324-0-1	-고	머르카"고(+ 다)
22324-1	나무라다	나무랜"다(+ "꾸찌다", "머라카다", "나무라다"가 동의어로 쓰임.)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처"어"녀"(+ 구)
22326	처녀	아가"씨라꼬도(+ 신)
22326	처녀	처:재"도(+ 구)

22327	혼인	신행한"다
22327	혼인	결론하"고(+ 신)
22327	혼인	시골린다(+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의미이나 혼인의 의미도 갖고 있음.)
22327-1	혼인식	시골린다(+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의미임.)
22327-1	혼인식	초"례올른다
22327-1	혼인식	초"례식한다도
22328	혼인 잔치	잔치"친다
22329	장가가다	장"계"간다
22329-1	시집가다	시"지"깁다
22330	혼숫감	혼시장"만
22331	함	혼시"함
22332	겹사돈	겹"사도~이라 카는데
22333	새색시	새"색"시
22333-1	새색시(호칭)	새"색"시
22333-1	새색시(호칭)	새디기(+ 시집와서 시간이 조금 더 경과한 경우 우에 부르는 말.)
22333-1	새색시(호칭)	새"데기카고(+ 시집와서 시간이 조금 더 경과 한 경우에 부르는 말.)
22334	시아버지	시"아"분니미다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분님카지(+ 다)
22334-1	시아버지(호칭)	시"아"분님도
22335	시아머니	시"어"머니다
22335-1	시아머니(호칭)	시"어"머님
22335-1	시아머니(호칭)	어무"이요
22335-1	시아머니(호칭)	어무"님도
22336	비위	비"우"마춘다
22337	아주버니	아즈반"니미다
22337-1	아주버니(호칭)	아즈바"님
22338	서방님	데"런니미다
22338	서방님	도"런"니미다
22338	서방님	서방"님(+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22338-1	서방님(호칭)	데"런님
22338-1	서방님(호칭)	도런니미다
22339	도련님	데"른니미라
22339	도련님	도"런"님카고
22339-1	도련님(호칭)	데"런님
22339-1	도련님(호칭)	도런님
22340	형님	우똥"시다
22340-1	형님(호칭)	형"님도(+ 다)
22340-1	형님(호칭)	우똥"시아(+ 조?)
22340-1	형님(호칭)	형"님
22340-1	형님(호칭)	성"님
22341	시누이	시누다
22341	시누이	시"누"부러
22341-1	시누이(호칭)	시"누"야
22341-1	시누이(호칭)	시"누"부"
22341-1	시누이(호칭)	고"무야
22341-2	아가씨	시"누"다
22341-2	아가씨	애"씨"다

22341-3	아가씨(호칭)	시"누"야(+ 보충1과 같음.)
22341-3	아가씨(호칭)	시"누"야
22342	올케	동상대"기다
22342	올케	올"케라고도
22342	올케	동사"아덕
22342	올케	올:캐다(+ 오빠의 부인을 의미한다고 함.)
22342-1	올케(호칭)	동상대"액또
22342-1	올케(호칭)	동사"아덕
22343	매형	자형이다
22343-1	매형(호칭)	자형"
22344	매제	매제
22344-1	매제(호칭)	매제"다도
22345	큰아버지	크나부"지라꼬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부지더
22345-1	큰아버지(호칭)	백뿌"라도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크나부"지라케찌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크나부지
22346	큰어머니	크"넘"매
22346	큰어머니	뱅"모"라꼬도
22346	큰어머니	크너무"이다가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매다가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무"이다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크너매(+ "크너무"이"라고도 발음함.)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크"너"매다(+ "크너무"이"라고도 발음함.)
22347	큰집	큰"지비다
22348	작은아버지	자나부"지다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나부"지다
22349	작은어머니	자근어무"이라끄더(+ 신)
22349	작은어머니	자근엄"마"다(+ 다)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자"근"엄머거(+ "자"근"엄마"의 발음실수로 보임.)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자"근"엄마(+ 구, 다)
22350	삼촌	자나부"지다
22350-1	삼촌(호칭)	자나부"지로
22351	아저씨	우리오초~"이다
22351	아저씨	오촌아"제다(+ 다)
22351	아저씨	당"숙
22351-1	아저씨(호칭)	아"제요
22352	아주머니	당송"모"다
22352-1	아주머니(호칭)	송"모"
22353	조카	조"카"다
22354	조카딸	질"려다
22355	고모	고"무
22355	고모	고무님
22355-1	고모(호칭)	고"무니미다
22356	고모부	고"무아제다
22356-1	고모부(호칭)	고"무아제다
22357	고종	고"조~이다
22358	이모	이"모니미다
22358-1	이모(호칭)	이"모님

22359	이모부	이"무아제다
22359-1	이모부(호칭)	이"무아제
22360	이종	이"종
22361	외삼촌	이아"제다
22361-1	외삼촌(호칭)	이"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이아"제여(+ 다)
22362	외숙모	이승모다
22362-1	외숙모(호칭)	이"승"모"다(+ 또는 "이승모님"이라고도 부 름.)
22363	외종	에:사"초늘
22364	외할아버지	이"할"배다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이"할"배
22365	외할머니	이"할"메다
22365-1	외할머니(호칭)	위"할"메(+ 상향이중모음 "위")
22366	장인	제"에"인"아부지다
22366-1	장인(호칭)	제:인"어른
22367	장모	장"모"니미다
22367-1	장모(호칭)	장"모"님
22368	처남	아르처남(+ 아내의 남동생)
22368	처남	우"우"처나"미다(+ 아내의 오빠)
22368-1	처남(호칭)	우처남(+ 아내의 오빠)
22368-1	처남(호칭)	처남
22368-1	처남(호칭)	형"니른
22369	처남댁	처나"무대기다
22369-1	처남댁(호칭)	처나"무댁
22370	홀아버	호부래"비
22371	홀어미	가"태"기(+ 다)
22371	홀어미	가부(+ 소)
22372	계모	새"옴"마
22372-1	계부	새"아"부"지
22373	아저씨	이"우더른(+ 다)
22373	아저씨	이"우다"제(+ 아주 친하게 지낼 경우에 부르 는 말이라 함.)
22373-1	아저씨(호칭)	이"우더른
22373-1	아저씨(호칭)	이"우다제
22374	아주머니	이"우따즘마
22374	아주머니	머"어 엄마다
22374	아주머니	띠"기라꼬(+ 택호를 붙여 쓴다고 함.)
22374-1	아주머니(호칭)	무"어시 엄마다(+ 아이의 이름을 붙여 쓴다고 함.)
22374-1	아주머니(호칭)	기동띠"기다(+ 택호를 붙여 쓴 경우임.
22375	사나이	청녀~"이다(+ 다)
22375	사나이	사내"라꼬도(+ 소)
22376	영감	여보"(+ 신)
22376	영감	영감재~"이(+ 비)
22376	영감	영감
22376-1	할망구	할망"구야
22376-1	할망구	할마~"이라도
22377	나이	나
22377-0-1	-를	나러

22378	환갑	항:갑
22378-1	환갑 잔치	항:갑잔치
22379	사투리	사투리다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꼬"기"라꼬
22402	민물고기	물"꼬"기지
22403	피라미	지구"리
22404	지느러미	날개
22405	아가미	아금재~이
22406	창자	창자나온다
22407	송사리	송사"리(+ 이 지역에서는 잘 없음.)
22407	송사리	송사"리(+ 이 지역에는 많지는 않음.)
22408	해엄	시엄친"다
22409	메기	미:기
22410	자라	자라"(+ 소)
22410	자라	자래"(+ 다)
22411	거북	바"다짜라라(+ 다)
22411	거북	거"부기다(+ 소)
22412	미꾸라지	미꼬"라지도(+ 신)
22412	미꾸라지	미끄레~이가(+ 구, 다)
22413	개구리	깨구"리
22414	올챙이	오골채~"이
22415	두꺼비	뚜꺼"비(+ 신)
22415	두꺼비	뚜끼"비(+ 구)
22416	거머리	거"어"무리
22417	다슬기	소래"고디~이
22418	우렁이	고디~"이
22419	고둥	고디~이라
22420	달팽이	달패~"이"
22421	새우	세"우(+ 신)
22421	새우	세예"비(+ 구, 다)
22421-1	새우(민물 대)	치~이까재
22421-2	새우(민물 소)	밌"물세비
22421-3	새우(바다 대)	바"다치~이까재
22421-4	새우(바다 소)	바"다세비
22422	새우젓	세"비절
22422-0-1	-이	세"비저시
22423	가재	까:재
22424	갈치	칼치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5	고등어	꼬등"어라(+ 구, 다)

22426	가오리	가"오리
22426	가오리	납"치기(+ 소)
22427	가자미	까"제"미(+ 다)
22428	멸치	밀"치
22429	명태	명"태
22429	명태	밍"태(+ 구, 다)
22429-1	동태	도"웅"태
22429-1	동태	얼"림밍태
22429-2	황태	항"태
22429-3	노가리	밍"태세"끼
22429-4	북어	마른밍"태
22429-5	생태	명"태라
22430	조기	쫄"기
22431	도미	뿔근고기"러(+ 조?)
22432	뱀장어	배암재~"이
22433	낙시	낙씨바"늘
22434	미끼	고"기밥
22434	미끼	낙씨"바비라(+ 다)
22435	낙싯대	낙"씨"때
22436	얼레	연"쫄강"기
22436	얼레	물레
22436	얼레	연"도랑테"
22437	조개	조:개
22438	소라	바"다꼬디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거"지(+ 신)
22501	벌레	벌게~"이라꼬(+ 구, 다)
22502	날벌레	날"파리(+ 다, 조?)
22502	날벌레	날벌게~"이도
22503	파리	파:리
22503	파리	파래~"이(+ 다)
22503-1	쉬파리	똥파래~"이나
22504	쉬슬다	알썰"른다
22505	가시	티"이
22506	진딧물	비리"(+ 구)
22506	진딧물	진디물(+ 신)
22506	진딧물	떠"물"찌"이따(+ 구)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찌"이다
22507	잠자리	짚"자리
22507	잠자리	칠"게"이"도(+ 구, 소)
22508	방아깨비	흥그레"비
22508-1	암컷	흥그레"비
22508-2	수컷	때때구"리
22509	메뚜기	나랑미떠"기
22510	여치	연:치

22511	사마귀	사:마"기
22511	사마귀	버마채"비르도(+ 구, 다)
22512	벌	꿀"벌"(+ 벌의 한 종류임.)
22512	벌	버"얼"도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기라"지
22513	땅벌	땡"뻔"이(+ 다)
22513	땅벌	땅뻔
22514	나비	나"부도(+ 소)
22514	나비	나"비도(+ 다, 구)
22515	하루살이	하로사"리
22516	풍뎅이	땡"비~이벌레
22517	모기	모게~이
22518	장구벌레	모게~"이세끼도
22519	매미	매리~"이
22520	개똥벌레	호랑벌게"이더
22520	개똥벌레	똥벌게"이
22520	개똥벌레	개똥벌게"라더(+ 다)
22521	반딧불	똥벌게"이불
22522	거미	거"미
22522	거미	거"무(+ 다)
22523	굼벵이	굼"비~"이
22524	구더기	통시"굼비~이가
22525	노래기	고등각"시
22526	그리마	심"버"리
22527	지네	지"니
22528	개미	개"애"미
22529	바구미	바"기"미
22530	진드기	가분나"리
22531	벼룩	비"룩
22532	이	이"
22532-1	서캐	씨"게~"이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송치~"이
22534	귀뚜라미	끼뜨레"미
22535	누에	누"예
22535	누에	누"비(+ 신)
22535	누에	니"비(+ 구, 다)
22536	고치	꼬"치
22537	번데기	뻔디"기
22538	지렁이	꺼"깨~이
22539	회충(蛔蟲)	꺼"시~이
22540	소금쟁이	소곰재~"이
22541	방개	물"방개

### 2.9.3. 가축

22601	가축	짐승기라"안다(+ 구)
-------	----	--------------



22601	가축	가"추그저도(+ 신, "가"추기라도"의 발음 실수임.)
22602	암소	어"미"소
22602	암소	이"미"소(+ 다)
22602	암소	암"소"라고도(+ 신)
22603	송아지	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워:이"미
22605	황소	황"소
22606	길들이다	질"드"르따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이라"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워: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아)	자라자라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아)	자라자라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물"러
22607	쇠고기	소"고"기
22607	쇠고기	소기"기(+ 구)
22608	고기(肉)	고"기러
22608	고기(肉)	기"기라으똥
22609	둘치	*
22610	꼬리	꼬랑대~"이
22611	망아지	말새"끼
22611	망아지	망아"지노(+ "망아지는"이라는 의미임.)
22612	당나귀	노"셰
22613	갈기	갈:기
22614	돼지	대애"지
22614-1	멧돼지	미때"지
22615	주둥이	주디~"이
22616	돼지 머리	대지머"르라돈
22616	돼지 머리	대지대가"리
22617	돼지우리	대지마우"(+ "대지마구""의 발음 실수임.)
22617	돼지우리	대지우"리라고(+ 구, 다)
22617-1	오래오래	똥똥똥"
22618	개(犬)	개:
22618-1	수캐	쭈"깨
22618-2	암캐	앙"깨다
22619	강아지	개세"끼(+ 소)
22619	강아지	강세~"이(+ 다)
22620	염소	염"소"(+ 신)
22620	염소	얌세"이(+ 구, 다)
22621	고양이	개애~"이
22621	고양이	살찌"나(+ 고양이를 부를 때)
22621-1	수고양이	쭈"깨~이
22621-2	암고양이	앙"깨이랍
22622	토끼	토까~"이(+ 구)
22622	토끼	토끼"라곰(+ 신)

22623	거위(鵞)	*
22624	암탉	암"딱"
22625	병아리	병아"리(+ 신)
22625	병아리	빌게"이(+ 구)
22626	모으다	모"은다 카능 거(+ 신)
22626	모으다	모둔"다(+ 구, 다)
22627	수탉	장따"기라(+ 다)
22627	수탉	숙"따"기러더(+ 소)
22627-0-1	-이	다"키
22628	벼슬(鷄冠)	비"슬
22629	부리	주디~"이
22630	모이	모"시
22630-0-1	-을	모"시를
22630-1	모이다	모:인"다
22631	닭털	닥트리"기(+ 구)
22631	닭털	닥틀"(+ 신)
22632	닭똥	닥똥"
22633	어리	빌가"리통
22634	닭장	닥"통
22635	둥우리	알"통"
22636	날개	날"개"친다
22637	깃	*
22637-0-1	-을	*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호:레~이(+ 신)
22701	호랑이	브어"미라(+ 구)
22702	살쾅이	갈"가지(+ 다)
22702	살쾅이	살"깨~이
22703	여우	여우"(+ 신)
22703	여우	여시"(+ 구, 다)
22703	여우	야시"도(+ 구, 소)
22704	원숭이	원"시"이
22705	사슴	사"슴
22706	노루	노리"
22706-0-1	-이	노리"가
22706-0-2	-를	노리"를
22707	고슴도치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땅"띠"지기(+ 구)
22708	두더지	땅"두더기도(+ 신)
22709	족제비	쪽찌"비
22710	뱀	배암
22711	도마뱀	도~"오배암
22712	구렁이	구리~"이
22713	살모사	살무"세라꼬도
22714	생쥐	세:양지

22715	박쥐	박"지
22716	거꾸로	꺼"꾸로
22717	다람쥐	다람"지
22718	새(鳥)	날뼉성"
22718	새(鳥)	새도"
22719	콩지	꼬"리
22719	콩지	꼬래~"이(+ 구)
22719	콩지	콩"지라꼬도(+ 구)
22720	솔개	소루"개
22721	독수리	독"수리
22722	제비(燕)	제"비"
22723	두루미	화양"새
22724	소쩍새	소쩍"새
22725	평	콩"
22726	장끼	쟁"끼
22727	까투리	까토"리
22727-1	꺼병이	콩세"끼
22728	종달새	노고자"리세
22729	빼꾸기	빼꼭"세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땀부기	땀비"기
22732	올빼미	올"빼미라
22733	까치	깐:채~이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
22735	덧	틀"
22735	덧	도"치라건
22735-0-1	-을	도"틀
22736	올가미	홀개~"이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창"꼰"
22801	진달래꽃	철"쭈"꼬"피따(+ 조?)
22802	철쭉꽃	개꼰
22803	민들레	민들레"도
22804	맨드라미	비"슬꼰
22804	맨드라미	맨드라"미가(+ 다)
22805	봉선화	봉"숭"아
22806	파리	콩아"리
22807	해바라기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봉오"리꼰
22809	시들다	씨드"러진다(+ 다)
22809	시들다	이드"러진다

22810	질경이	찹"기~"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찹"기~"이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찹"기"반차~이다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찹"기"나물"도(+ 다)
22811	빨기	빠빠"
22812	비름	비름"
22813	쇠비름	개비름"미도(+ 비름의 한 종류임.)
22813	쇠비름	소비름"(+ 다)
22814	썸바귀	신"내~"이
22815	고들빼기	꼰들배"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꼰들배"기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꼰들배"기나무라만(+ "고들빼기나물을 하면" 이라는 의미임.)
22816	고사리	고사"리
22817	고비	기비"
22818	도깨비바늘	꼬꼬래~"이
22819	도꼬마리	도꾸마"리때
22820	억새	세때"기
22821	갈대	갈:풀
22821	갈대	갈:때(+ 다)
22822	이끼	돌리"깨
22822	이끼	물"리"깨
22822	이끼	이"깨라꺼
22823	아주까리	아주까"래
22824	담쟁이	다안"채~이
22825	수세미	쭈세"미
22826	덩굴	녕구"리
22827	덤불	녕"꿀
22827-1	가시덤불	까시덤"불(+ 다)
22827-1	가시덤불	까시녕"꿀
22828	잔디	띠"이

##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소나무"
22902	솔방울	솔뽕"울
22903	관솔	솔"끼~이(+ 다)
22903	관솔	간"솔"
22904	솔가리	깔"비
22905	그러모으다	겪는다
22906	뽕나무	뽕"나"무"
22907	오디	오들"개
22908	도토리	꿀"밤
22909	떡갈나무	떠"갈나무라
22909	떡갈나무	참"꿀"나무
22910	상수리	꿀"바미라고
22911	웃	온"진

22911-0-1	-으로	오"출
22912	버드나무	버들나무"
22913	느티나무	느티나"무"
22914	그림자	그림"지
22914-1	그늘	그늘"
22915	숲	수"피
22915-0-1	-을	수"블"
22915-0-2	-에	수"폐
22916	시원하다	서워나"지
22917	찢레	찢"리"
22918	칙	칙(+ 신)
22918	칙	칠게~"이(+ 다)
22918-0-1	-에	칠뎡부"레
22918-0-1	-에	칠게~"
22919	가지(枝)	가"아"지"이(+ 신)
22919	가지(枝)	가재~"이라꼬(+ 구)
22920	끝	꼬"치지
22920	끝	끈티"
22920	끝	끈티"다(+ 다)
22920-0-1	-이	꼬"치
22920-0-1	-이	끈티"가
22920-0-2	-에	*
22920-0-3	-을	*
22921	삭정이	삭"따지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뽕"라"안다
22922	나무	나무"
22922	나무	솔랑"기
22922-0-1	-을	나물"(+ "나무를"의 의미임.)
22922-0-2	-에	낭"계
22923	나무하다	낭기하"러간다
22923	나무하다	낭구하"러간다
22923	나무하다	나무하"러간다
22924	그루터기	고두배"기(+ 썩은 그루터기를 이르는 말.)
22924	그루터기	나무끝"티"기(+ 벤 지 얼마되지 않아 썩지 않은 그루터기를 이르는 말.)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나락끝"티"기
22925	등걸	미똥"치다
22926	장작	장"자기라꼬
22926	장작	동가"리(+ 짜개지 않은 나무)
22927	패다	장"작판다(+ 소)
22927	패다	짜깁"다(+ 다)
22928	부스러기	뿌시리"기
22929	숯	숯"
22929-0-1	-이	수"치
22929-0-2	-을	수"툄
22929-0-3	-에	수"체
22930	불잉걸	*
22931	쌈	쌈"기
22932	잎	잎"

22932	잎	호박이퍼"리(+ 다, "호박이퍼리"를 발음한 것임.)
22932-0-1	-을	이"풀
22932-1	잎사귀	입사"구라꼬더
22933	가랑잎	가랑"니블
22934	뿌리	뿌"리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그"미
23002	돌배	돌"배"애
23003	복숭아	복숭"
23004	곶감	꼬"깎"
23005	홍시	홍"시
23006	고욤	기"염"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
23010-0-1	-을	*
23011	석류	성"노
23012	모과	모"계"
23013	과일	과"실"(+ 구, 다)
23013	과일	과"아"이리라
23014	꼭지	꼭떼"기
23014	꼭지	꼭떼"기
23015	밤	바"암"
23015-1	밤송이	밤시"이라
23015-1	밤송이	방시~"이알(+ "밤송이 속에 든 알"을 의미함.)
23015-2	팻밤	푸"뺨
23015-3	알밤	알"바"미라
23015-4	쌍둥밤	쪽"뺨
23016	보늬	비"늘
23017	호두	호두"
23018	가래(楸子)	*
23019	개암	깨동"
23020	머루	머리"
23021	다래	다"래"애
23022	청미래덩굴	이"스라치
23023	으름	으"름
23024	참외	차"미"에
23025	딸기	딸"기"에(+ 신)
23025	딸기	딸"(+ 구, 다)
23025-1	"딸기(밭 재배)"	딸"기"
23025-2	"딸기(밭 야생)"	*

23025-3	"딸기(들 재배)"	*
23025-4	"딸기(들 야생)"	들"딸"기
23025-5	"딸기(산 재배)"	산"딸기러
23025-6	"딸기(산 야생)"	산"딸기
23026	뱀딸기	녕"꿀딸(+ 신)
23026	뱀딸기	배암"딸(+ 구)
23027	마름(菱)	*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삼말래~"이다(+ 신)
23101	산꼭대기	상꼭떼"기(+ 구, 다)
23102	기슭	상"기석"
23102-0-1	-에	상"기스"게
23103	골짜기	상"고울"짜"
23104	메아리	사눌림"(+ 구, 다)
23104	메아리	삼메아"라거더(+ 소)
23105	고함	가아"물(+ "고함을"이라는 의미임.)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지"른다
23106	묘	미이"
23107	뿔자리	민자"리
23107-1	광중	미꾸디~"이
23108	구덩이	무시꾸디~"이(+ "무"를 보관하기 위해 판 구 덩이)
23109	비탈	비"탈져따
23110	가파르다	가파르"다꺼(+ "가파르"다고"의 의미임.)
23110	가파르다	까풀찌"다
23111	언덕	언덕져"따
23112	낭떠러지	낭떠러"지다
23112	낭떠러지	낭"떠"러"져따
23113	들(野)	드"을"
23113-0-1	-에	드"레"
23114	벌	벌"판"
23115	갈림길	쌍"길
23115	갈림길	갈림"끼리다(+ 구, 다)
23116	헤어지다	갈"러진다(+ 다)
23116	헤어지다	헤"에진다(+ 신)
23117	바위	바"우
23117-0-1	-을	바"우드르떠(+ 목적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음.)
23117-0-2	-에	바"우에
23118	돌(石)	돌미~"이
23118	돌(石)	돌"
23118-0-1	-을	도"를"

23118-0-1	-을	돌클"(+ 구)
23118-0-2	-에	도"래"
23118-0-2	-에	돌"캐"(+ 구)
23119	자갈	자갈"
23120	모래	모"래
23120	모래	몰"개(+ 구, 다)
23120-0-1	-를	몰"개(+ 목격적조사를 실현하지 않음.)
23121	진흙	찌느"으"(+ 찌흙을 발음한 것임.)
23121	진흙	진혁"
23121-1	찰흙	차"러커른(+ "찰흙은"을 발음한 것임.)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물
23202	거품	거"품난다
23203	개운하다	깨운하"다도
23204	도랑	또랑"
23204-1	붓도랑	보또랑"
23205	둑	모뚜"기다
23206	잠기다	물"다"므따(+ 다)
23206	잠기다	장기"따
23207	개울	개골짱"무리
23208	내(川)	내"짱
23209	미역 감다	모"까"무리
23210	밭가숭이	빨가디~"이다
23211	목욕하다	때"쌩"는다(+ 다)
23211	목욕하다	모"욕"한다고
23212	수채	수"채
23213	개골창	개"울물
23214	시궁창	수"채"다
23215	웅덩이	웅"둥
23216	수렁	수"북꾸디~이
23217	늪	늪"찌"대
23217	늪	늪또카"고(+ "늪도라고 하고"의 의미임.)
23217-0-1	-에	느"폐"
23218	배(船)	배:
23219	나루터	나루"짱
23220	돛	도"치라고(+ 다)
23220	돛	도"때풍서~"이고
23220-0-1	-에	도"치
23220-0-1	-에	도"틀
23221	돛대	도"떼
23222	돛배	도"빼(+ 다)
23222	돛배	도"판배도
23223	돛 줄	도"때줄
23224	돛 줄	배"줄
23225	거루	노"빼



23226	상앗대	*
23227	개(펼)	바다뻔"
23228	물	무"치라도
23228-0-1	-으로	무"테
23229	밀물	밀"물
23230	썰물	썰"물
23231	가라앉다	가라안"자따
23232	그물	거"물"
23233	해녀	해"애"녀"

### 2.11.3. 시후

23301	새벽	새부"게
23302	새벽밥	새빔"빔
23303	아침	아침"
23303	아침	아치가"르다(+ 다)
23304	아침밥	아침"빔몽는다
23305	점심	점"숨"몽는다(+ "점심밥"이라고도 하지만 보 통 "점심"이라고 한다.)
23306	저녁	지녁"
23307	설빔하다	설빔:하"다
23308	노을	너"울저따
23308	노을	나부"리저따(+ 다)
23308-0-1	-을	*
23309	불그레하다	불구수"리하"다
23310	해거름	지영나"저레(+ 다)
23310	해거름	해거름"
23311	땅거미	해"어듬진"다
23311	땅거미	땅"꿈"저따(+ 구)
23312	봄	보"미"
23313	여름	여"르미
23314	더위	더"이
23315	추위	추"이"가
23316	가을	가을"
23316	가을	가실"(+ 구, 다)
23316-0-1	-에	가시"레
23316-0-1	-에	가으"레
23317	겨울	겨"울
23317-0-1	-에	겨"으레
23318	얼음	어"름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내"엘
23321	모래	모"리"
23322	글피	글"피"
23323	그글피	글"피"
23324	어제	어"지라꼬
23325	그저께	그저"께

23326	그저"께	그저"께
23327	훗날	후"운"날"
23328	하룻날	초하룻"날
23329	이튿날	초이"튿날
23330	사흘날	초사"흘날
23331	나흘날	초나"흘날
23332	닷새날	초다"썰날
23333	엿새날	초여"썰날
23334	이렛날	초이"른날
23335	여드렛날	초여"드르날
23336	아흐렛날	초아"흐른날
23337	열흘날	초여"열랄
23338	하루	하룻"날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흘
23341	나흘	나"흘
23342	닷새	다"썰
23343	엿새	여"어썰
23344	이레	이"리
23345	여드레	여"드레
23346	아흐레	아"흐레
23347	열흘	여"를
23348	한나절	한:나"잘
23348-1	반나절	바"안"나"잘
23349	그믐	그"믐"날
23349-1	그믐"께	그"믐"때
23350	지금	지"끔"
23351	아직	아"직
23352	이제	인자"
23353	이미	이"미
23354	요즈음	오썬"(+ "요즘은"이라는 의미임.)
23355	금방	금시"(+ 다)
23355	금방	금방"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벼"치
23401-0-1	-이	벼"치라꼬
23401-0-2	-을	뽕뽕"테
23402	따스하다	뜨시"다(+ 뜨거움이 강한 의미임.)
23402	따스하다	따뜻:하"다
23403	아지랑이	아지라~"이라고(+ 다}
23403	아지랑이	아로~"이나
23404	응달	으"엄"지다
23404	응달	음다"리다(+ 다)
23405	양달	양"지다(+ 다)
23405	양달	양다"리다

23406	비(雨)	비"가"
23407	가랑비	가랑"비
23408	이슬비	이슬"비
23409	안개	앙"개"애
23410	눈개	*
23411	무지개	무"지"게
23412	소나기	소낙"뻬
23413	갑자기	갑짜기"
23414	홍수	수"해"저따
23414	홍수	물"다"므따(+ 구)
23414	홍수	홍"수더(+ 다)
23415	번개	병"개"애친다
23416	천둥	노승헌"다
23417	벼락	베"락"
23418	무섭다	무섭"따
23419	함박눈	함"방"누~이야도(+ 다)
23420	싸락눈	굴근"누~이다
23420	싸락눈	싸랑"누~이(+ "싸락눈이"의 의미임.)
23421	발자국	발짜옥"
23422	진눈깨비	진눈개"비온다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고"드"름
23425	햇무리	해"문"
23426	달무리	달"문"
23427	둥글다	둥"글다
23428	은하수	은하"수도
23429	금성	새"뻔"
23430	가뭄	가"아"뭉"
23431	마르다	마린"다
23431-0-1	-어서	말"라서
23432	위	우"에
23433	아래	아"래
23434	왼쪽	인"편
23435	오른쪽	오"름"편
23436	결	저"테
23436-0-1	-에	저"테
23437	회오리바람	호"독"빠람
23438	북풍	북"푸~"이
23439	남풍	남"풍"
23440	동풍	동"풍"
23441	서풍	서"풍"

=2 내내깼(+ "또한" 또는 "역시"라는 의미의 부사임.)

=2 수매기다(+ 소작농에게 지주가 소작료를 책정하여 매기는 일을 가리킴.)

=2 함버레(+ "한번에"라는 의미의 부사로서, "함부레"로도 실현됨.)

=2 장무(+ "늘"이라는 뜻으로 "상무"의 발음실수임.)

=2 대반(+ 혼인을 할 때, 신랑이나 신부와 어른을 대접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한자어(對盤)임.)

=2 주룽실(+ 꾸리실을 주렁주렁하게 걸어놓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임.)

=2 수까랴다(+ "애를 태우다"의 의미를 지니며, "수끄루다"형으로도 실현됨.)

=2 야물상(+ 혼례 때, 첫날 밤에 저녁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밤참을 먹으라고 차린 상의 이름.)

=2 화통방아(+ 원동기의 힘을 이용해서 돌리는 방아임.)

=2 당갈땡기(+ 벼의 겉겨를 벗겨 내고 속겨의 가루 즉, 고운 등겨를 말함.)

=2 두지(+ 대응되는 표준어의 낱말은 "뒤주"이지만 여기서는 뒤주의 의미가 아니라 "곳간"의 의미를 나타냄.)

=2 밀떠리(+ 세로의 깊이가 1미터쯤 되는 것으로서 여러 해 사용할 수 있는 곡식을 담은 그릇 즉, 떡서리임.)

=2 막소'쿠'리(+ 싸리나무와 같은 재료를 다듬지 않고 그냥 만든 것으로서 거친 소쿠리를 뜻함.)

=2 끄다(+ 도구로 흩어진 짚푸라기나 북데기, 술가리 등을 끌어모으는 일을 뜻함.)

=2 풀똥(+ 땀감으로 쓰기 위해 마른 풀을 엮은 동을 뜻함.)

=2 거울똥(+ 검불동을 뜻함.)

=2 두들리다(+ 모르게 일을 하다가 붙잡히는 것을 뜻함.)

=2 둥구리(장작을 만들기 위해 산에서 자른 통나무를 가리킴.)

=2 똥구르다(+ 통나무를 장작을 패기 좋을 정도의 크기로 동강이를 낸 것을 뜻함.)

=2 둥그래다(+ 도끼로 패서 만든 장작을 쌓는 것을 뜻함.)

=2 고두배'기(+ 나무의 줄기를 벤 지가 오래 되어서 썩어버린 등걸을 가리킴.)

=2 상끗(+ 삼을 고는 장소 즉, 삼을 삶는 장소를 가리킴.)

=2 엉글엉글하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틈이 보일 정도로 만든다는 의미임.)

=2 우둑바가지(+ 중 머리처럼 반들거리는 바가지를 가리킴.)

=2 맥차다(+ 누에가 마지막 잠을 자고 나서 누에고치를 품기 직전의 색깔이 누런 상태를

=2 장'박(+ 누에를 치기 위해 만든 대나무 등으로 만든 받침 선반 즉, "잠반"을 뜻함.)

=2 장갓대(+ 잔반을 올려 놓는 긴 사다리 모양의 나무를 의미함.)

=2 덩기리(+ 삼을 훑는 도구의 하나)

=2 진지(+ 삼실을 잇기 위해 삼실을 끊어서 걸어놓는 나무이며 "진짓대"라고도 함.)

=2 진짓대(+ 삼실을 잇기 위해 삼실을 끊어서 걸어놓는 나무이며 "진지"라고도 함.)

=2 용에(+ 용두머리를 가리킴.)

=2 신나무(+ 베틀에서 "원산"과 "신끈"을 이어주는 활 모양의 나무를 가리킴.)

=2 구'째~이(+ 굶을 사람 즉, 무당을 가리킴.)

=2 진'동차리(+ 민간에서 부스럼에 좋다는 풀이름.)

=2 덩가다(+ 불을 붙이다의 의미임.)

=2 채달(+ 인분을 준 채소를 먹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 얻은 병을 의미함.)

=2 으리(+ 강정을 뜻함.)

=2 작때꾼(+ 지팡이를 잡고 다니면서 부잣집에 들러서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을 의미함.)

=2 깨말(+ 이 지역에서 세벌 논매기를 한 다음에, 농부들이 장난을 치면서는 노는 행위를 가리킴.)

=2 송긔(+ 일년을 잘 보내고 내년도 풍년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곳을 의미함.)

=2 송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말로 금년을 잘 지내고 내년도 풍년과 가정의 안녕을 비는 곳을 가리킴.)

=2 나"락알메~이(벼의 낱알을 의미함.)  
 =2 절시해따(벼가 익어 고개를 숙였을 때를 말함.)  
 =2 손제"비(+ 쟁기의 손잡이 부분을 의미함.)  
 =2 홀찌"이뜨께(+ 극쟁이의 한 부분임.)  
 =2 씨"어"리이빨(+ 씨레의 밭 부분으로 논을 가는 부분으로 이처럼 생겨서 유래된 말임.)  
 =2 씨"리보스("씨"리보습"을 발음한 것임. 씨레의 보습을 의미함.)  
 =2 (씨"리)가르"세(+ 손잡이와 보습을 이어주는 부분을 의미함.)  
 =2 줄메기(+ 소가 끌 줄을 매어주는 부분을 의미함.)  
 =2 끌"개(+ 이빨이 있는 고무래)  
 =2 깨~"이나"리고(+ 팽이 앞쪽의 쇠로 되어 흙을 파는 부분)  
 =2 깨~"이자로"고(+ 나무로 된 팽이의 손잡이 부분)  
 =2 쪼"붕깨~이(+ 날이 좁은 팽이)  
 =2 늑떠"께~이(+ 날이 넓은 팽이)  
 =2 꼬"깨~"이(+ 크기가 작은 팽이)  
 =2 늑떡호메~"이(날이 넓은 호미)  
 =2 농"꼴(논의 두둑과 두둑 사이)  
 =2 쌀"벼"리"는(+ 보리의 한 종류로 모양이 납작함.)  
 =2 꼬빠"리"너(+ 보리의 한 종류로 수염이 길게 나는 보리)  
 =2 붕까"리(+ 봄갈이, 봄에 논밭을 미리 갈아 두는 것.)  
 =2 늘버리고(+ 보리의 한 종류로 낱알이 성글게 붙은 것.)  
 =2 (밭가리)친다(+ 날가리를 쌓는다는 의미의 동사임.)  
 =2 짜새"앤"다카께네(+ 벼를 세워서 말리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2 지빠까"리(+ 짚가리를 의미함.)  
 =2 버리카끄래"기(+ 보리의 까끄라기라는 의미임.)  
 =2 도꾸빠~"아라꼬도(+ 한 손으로 쥘는 방아)  
 =2 바~아썰"기(+ 디딜방아를 지지하는 부분)  
 =2 방아가"래(+ 디딜방아의 발로 딛는 부분)  
 =2 미:(+ 떡메를 의미함.)  
 =2 뽕떠"기(+ 북데기를 의미함.)  
 =2 늘버리"이(+ 보리의 한 품종으로 이삭이 좀 긴 형태임.)  
 =2 짜"다리 난"다카이(+ "많이 난다고 하이"라는 의미임.)  
 =2 벌로(+ "제멋대로, 자생으로"의 의미임.)  
 =2 벌:라물(+ 자연산 나물을 이르는 말)  
 =2 애디~"이(+ 애호박을 의미함.)  
 =2 누리~"이(+ 늑은호박을 의미함.)  
 =2 대"파가 이꼬(+ "대파가 있고"라는 의미이며 파 중에 줄기가 굵고 긴 것을 말함.)  
 =2 쪽"파가 이꼬(+ "쪽파가 있고"라는 의미이며 파 중에 줄기가 가는 것을 말함.)  
 =2 짐난"다(+ "김이 난다"의 의미임.)  
 =2 국시"기는(+ 나물을 넣어 아침밥을 먹기 전에 먹는 죽)  
 =2 쏘(+ 단독형으로 실현된 예이나 "쭈"과 교체됨.)  
 =2 쏘"글" 연는다(+ "속을 넣는다"라는 의미임)

=2 치대"야데지(+ 반죽하다의 의미임.)  
 =2 심연는다(+ 시루떡을 만들 때 팔이나 콩과 같은 고물을 말함.)  
 =2 쌀"수시비(+ 쌀로 만든 수제비)  
 =2 밀"수시비지(+ 밀로 만든 수제비)  
 =2 찹"살"수시비다(+ 찹쌀로 만든 수제비)  
 =2 인절"미다(+ 떡의 한 종류)  
 =2 절"편"도(+ 흰떡의 한 종류)  
 =2 덩거"리떡(+ 구체적인 떡의 모양을 만들기 이전의 덩어리 진 떡을 의미함.)  
 =2 두말"씨순(+ 술을 크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작은 술을 가리킴.)  
 =2 서말"씨소치고(+ 술을 크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큰 술을 가리킴.)  
 =2 돌쭈구"영(+ 돌쭈의 구멍이라는 의미임.)  
 =2 종"지뿔(+ 재래식 조명 방법 하나로, 접시에 기름을 담고, 심지에 불을 켜는 방식임.)  
 =2 접세"이뿔(+ "종지불"을 달리 이르는 말)  
 =2 등"뿔(+ 재래식 조명 방법의 하나로 이동할 때 쓰는 불)  
 =2 간술뿔(+ "관술불". 재래식 조명 방법의 하나로 관술을 이용한 불)  
 =2 말"래~"이(+ "꼭대기"의 의미임.)  
 =2 배꼬마"다~"이고(+ "바깥마당"이라는 의미임.)  
 =2 수"북꾸다~이(+ 땅이 저절로 꺼져 만들어진 웅덩이)  
 =2 고"기꼬"름지(+ 물고기를 묶어놓은 것을 의미함.)  
 =2 들쨍"월(+ 사람이 저울대를 들고서 무게를 재는 저울을 의미함.)  
 =2 대사"까"지라고(+ 대나무로 만든 샷갓이라는 의미임.)  
 =2 방"갓(+ "반갓", 작은 샷갓을 의미함.)  
 =2 두건"(+ 장례 때 쓰는 관을 가리킴.)  
 =2 돌:곤(+ 삼의 실을 감을 때 쓰는 도구임.)  
 =2 볼"덴"다(+ 형꺄을 떨어진 곳에 붙여서 집는 것을 의미함.)  
 =2 망맨"다(+ 매듭 짓는 방법으로 "아무렇게 맨다"라는 의미임.)  
 =2 고"빼"고매따(+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고를 빼고 땃다"라는 의미임.)  
 =2 홀매"따(+ 매듭 짓는 방법.)  
 =2 무"운해"라(+ 목은 해라는 뜻으로 "새해"에 대해 대답되는 말임.)  
 =2 윤논"다(+ "웃놀이를 한다"라는 의미임.)  
 =2 꾸"버간다(+ 웃놀이에서 말을 두 동 이상 한꺼번에 합치는 행위를 의미함.)  
 =2 여구쨌~"이(+ 곳을 하는 여자)  
 =2 이까"래(+ 소를 부리기 위해 길게 맨 줄)  
 =2 모가지주리라(+ 소의 목에 매어둔 줄)  
 =2 섬"(+ 짚으로 막 만든 것을 의미함.)  
 =2 삼정"은(+ 소의 등을 덮는 짚으로 만든 물건.)  
 =2 바"디(+ 가마니틀에 딸린 기구의 하나.)  
 =2 대소구"리(+ 대나무로 만든 삼태기.)  
 =2 고:비"끼라꼬(+ 크고 날이 넓은 톱.)  
 =2 줄"톱(+ 양쪽에서 밀고 당기면서 나무를 자르는 톱.)  
 =2 끌"게:(+ 끌의 모양이 넓은 것으로서 "고무래"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됨.)

=2 잘"리(+ 멧돌의 손잡이)  
 =2 나무지"게  
 =2 미빵(+ 지계에 딸린 기구의 하나로서 어깨에 거는 줄.)  
 =2 등테"기(+ 지계에 딸린 기구의 하나로서 등이 아프지 않도록 만든 도구.)  
 =2 지"계줄"(+ 지계에 딸린 기구의 하나로서 짐을 묶는 것에 사용하는 줄.)  
 =2 시장"(+ 지계의 한 부분으로 양 쪽 목발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가로 나무.)  
 =2 지계가재~이(+ 지계의 한 부분으로 짚을 엮어두는 곳.)  
 =2 까목떼~이(+ 지계의 한 부분으로 맨 윗쪽의 뽕족한 부분.)  
 =2 지"계목"빨"(+ 지계의 제일 아랫 부분)  
 =2 데나"무"바:지"게(+ 대나무로 만든 발채.)  
 =2 싸:리바지"게(+ 싸리나무로 만든 발채.)  
 =2 강계"리(+ 울이 가는 것으로 산데미와 비슷한 모양임.)  
 =2 나무바가"지(+ 크기가 작은 함제기 모양의 도구.)  
 =2 반티~"이(+ 나무 판자로 네모지게 짜서 만든 것.)  
 =2 버니"기(+ 넓이가 넓은 물동이.)  
 =2 박"바"가"지(+ 박으로 된 바가지의 총칭임.)  
 =2 집나렘빼온나(+ 짚의 속줄기로서, "집나렘 빼어 온너라"의 의미임.)  
 =2 팔"찌망:(+ 여름에 시원하게 하기 위해 끼는 도구)  
 =2 비틀가"레(+ 베틀의 부속물로 길게 가로로 놓은 나무.)  
 =2 비틀발(+ 베틀 주기둥의 아랫 부분)  
 =2 북"(+ 베틀의 부속물로서 실꾸리를 끼우는 나무로 만든 도구.)  
 =2 바"디(+ 베틀의 부속물로 살마다 날실을 끼우는 도구.)  
 =2 쌍:꺼"폴도  
 =2 상거울도(+ 소, "쌍꺼풀"의 다른 어형)  
 =2 빼"쪼코다(+ 뽕족한 모양의 코)  
 =2 코트리"기"다(+ 코 속에 난 털을 의미함.)  
 =2 말강코(+ 맑은 콧물을 가리킴.)  
 =2 세바"닥(+ 헛바닥을 가리킴.)  
 =2 세끈티~"(+ 헛끝을 가리킴.)  
 =2 기꾸"영(+ 꿇구멍을 가리킴.)  
 =2 끄끈딱지텐다(+ "검은 딱지"라는 의미임.)  
 =2 저승"꼬피따(+ "저승꽃 피었다"라는 의미임.)  
 =2 간절빼(+ "광대뼈"를 가리킴.)  
 =2 할마시들(+ 비, "할머니들"의 의미임.)  
 =2 쌍가"매  
 =2 등쭙"게(+ 등줄기의 의미임.)  
 =2 등빼"가지(+ 등뼈의 의미임.)  
 =2 등"쌀  
 =2 허리"짱"디~이(+ 허리의 잘록한 부분)  
 =2 오줌수"꾸"루"미(+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 병임.)  
 =2 배"지"븐(+ "배집은"이라는 말임. 손가락 끝이 갈라지는 병을 배집이라고 함.)

=2 꼬부랑 작때"기(+ 굽은 지팡이라는 의미임.)  
 =2 켜가"따(+ "끼웠다"의 의미임.)  
 =2 꾸벅잠"(+ 고개를 꾸벅이면서 자는 잠)  
 =2 구들모기라 케따(+ 아랫목의 의미임.)  
 =2 선머스마도(+ 나이가 조금 들어서 해동이 거들먹거리는 머슴애를 말함.)  
 =2 꼰판"(+ 고누판의 의미임.)  
 =2 군데쫄"(+ 그네의 줄을 의미함.)  
 =2 발시게또고  
 =2 빈덕시"렵다(+ "변덕스럽다"의 의미임.)  
 =2 긴재~이(+ 물고기를 잡아서 아가미에 꿰는 것을 말함.)  
 =2 배재~이(+ 배가 볼록하게 부른 작은 민물 고기의 이름임.)  
 =2 한:도~(+ "한 동이"의 의미임.)  
 =2 논꼬"디~:카고(+ "논꼬"디~:"라고 하고의 의미이며, 논에서 사는 우렁이를 말함.)  
 =2 모꼬"디~(+ 연못에서 사는 우렁이를 말함.)  
 =2 할미고디~"이(+ 달팽이의 한 종류로서 먹지 못하는 것.)  
 =2 도라"(+ "도랑"의 의미임.)  
 =2 소파래~"이도 이꼬(+ "소파리"의 의미임.)  
 =2 굽"비"이(+ 구더기를 의미함.)  
 =2 통시 저 굽"비"이(+ "통시 굽뽕이"라는 뜻으로 중간에 "저"라는 군말이 들어갔음.)  
 =2 말짠"자리(+ 몸짓이 큰 잠자리)  
 =2 고치짠"자리(+ 고추 잠자리를 뜻함.)  
 =2 미물짠"자리(+ 노랑고 초가을에 나타나는 잠자리)  
 =2 물"짠"자리(+ 물에서 사는 잠자리)  
 =2 우"버리(+ 벌의 종류로서 몸짓이 큰 벌임.)  
 =2 말"버리  
 =2 호박"뽕  
 =2 왕모게~이도(+ 왕모기의 의미임.)  
 =2 수"채꾸여~도(+ 수채구멍이라는 뜻임.)  
 =2 앙:매리~"이(+ 매미의 종류. "왕매미"  
 =2 맴메"미(+ 매미의 종류.)  
 =2 말거미다(+ 거미의 종류)  
 =2 돈꺼미(+ 벽에 붙어 있는 거미)  
 =2 왕게"미"(+ 왕개미의 뜻임.)  
 =2 불게"미"도(+ 불개미의 뜻임.)  
 =2 나"발(+ 돼지의 튀어나온 코 부분과 주둥이 부분을 가리킴.)  
 =2 숙염세"이다(+ 솟염소를 의미함.)  
 =2 무"재"주(+ 물에 사는 뱀.)  
 =2 부형"이꼬또(+ 철쭉꽃과 비슷하나 모양이 크고 흰 꽃.)  
 =2 짹뚜"라꼬(+ 식물의 한 종류)  
 =2 참비르"미라(+ 비름의 한 종류임.)  
 =2 칙"땀"불(+ "칙"의 덩불"임.)



=2 왕버드리 이꼬(+ 버드나무의 종류)  
 =2 수양버드리고(+ 버드나무의 종류)  
 =2 수띠"이라카고(+ "숫덩어리라고 하교"의 의미임.)  
 =2 수썰~이라고도(+ 숫을 구워 파는 사람)  
 =2 덩금재~"이라꼬(+ 숫을 구워 파는 사람)  
 =2 중"복"숭(+ 천도복숭아를 의미함.)  
 =2 쪽뜩씨"이"라(+ 빈 밤송이를 의미함.)  
 =2 두톨베"기(+ 하나의 밤송이 안에 밤 두 쪽이 들어 있는 것.)  
 =2 시톨베"기(+ 하나의 밤송이 안에 밤 세 쪽이 들어 있는 것.)  
 =2 이"톨"베기(+ 하나의 밤송이 안에 밤 한 쪽이 들어 있는 것.)  
 =2 뽕대"뜰(+ 표면이 달아 매끄러워진 돌)  
 =2 골짱무"리다(+ "골짜기의 물"이라는 의미임.)  
 =2 개골창무"리다(+ "개울물"이라는 의미임.)  
 =2 내짱"무"리다(+ "넷가물"이라는 의미임.)  
 =2 무"듬"(+ "무더위"의 의미임.)  
 =2 메지그리하"다(+ 미지근하다의 의미임.)  
 =2 쪼그다(+ 구두쇠라는 의미임.)  
 =2 배"재~이(+ 배가 볼록하면서 크기가 작은 민물 고기 이름.)  
 =2 할미고디~이(+ 달팽이의 한 종류로서 비식용임.)

## 제3편 음 운

### 3.1. 음운 목록

####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테"가"(+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1-0-2	테(輪)-보다	테보"다"(+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2-0-1	태(胎)-이/가	태"가"(+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2-0-2	태(胎)-보다	태보"다"(+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3-0-1	떼(群)-이/가	떼"가"(+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3-0-2	떼(群)-보다	떼"보"다(+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4-0-1	때(時)-이/가	때"가"(+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4-0-2	때(時)-보다	때"보"다(+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5-0-1	틀(機)-이/가	트"리"(+ 이 지역에서는 "어"와 "으"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5-0-2	틀(機)-보다	틀"보"다(+ 이 지역에서는 "어"와 "으"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6-0-1	털(毛)-이/가	터"리"(+ 이 지역에서는 "어"와 "으"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6-0-2	털(毛)-보다	털"보"다(+ 이 지역에서는 "어"와 "으"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7-0-1	글(文)-이/가	그"리"(+ 이 지역에서는 "어"와 "으"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7-0-2	글(文)-보다	글"보"다(+ 이 지역에서는 "어"와 "으"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8-0-1	걸(옷)-이/가	거"어"리(+ 이 지역에서는 "어"와 "으"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8-0-2	걸(옷)-보다	걸"보"다(+ 이 지역에서는 "어"와 "으"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9-0-1	기(旗)-이/가	기"가
31009-0-2	기(旗)-보다	기"보"다
31010-0-1	귀(耳)-이/가	기"가"
31010-0-2	귀(耳)-보다	기"보"다
31011-0-1	시(生時)-이/가	시"가
31011-0-2	시(生時)-보다	시"보"다
31012-0-1	쥬(蠅卵)-이/가	티"가
31012-0-2	쥬(蠅卵)-보다	티"보"다
31013-0-1	쇠(鐵)-이/가	씨"가
31013-0-2	쇠(鐵)-보다	씨"보"다
31014-0-1	외:국(外國)-이/가	예"구"기"
31014-0-2	외:국(外國)-보다	예"국보"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웨"구"기
31015-0-2	왜국(倭國)-보다	웨"국뽀"다
31016	쥬:다(休)	신::다
31017	쇠:다(설을~)	설: 신다
31018-0-1	베(布)-이/가	베"가"(+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18-0-2	베(布)-보다	베보다"아(+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19-0-1	배(船)-이/가	배"가"(+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19-0-2	배(船)-보다	배보"다(+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20-0-1	배(腹)-이/가	배"가"(+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20-0-2	배(腹)-보다	배"보"다(+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21-0-1	(떡)메-이/가	메"에"가"(+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21-0-1	(떡)메-이/가	미"이"가"
31021-0-1	(떡)메-이/가	미"이"가"
31021-0-2	(떡)메-보다	메"보"다(+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21-0-2	(떡)메-보다	미"보"다
31022-0-1	매(鞭)-이/가	매"가"(+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22-0-2	매(鞭)-보다	매"보"다(+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23	매:다(擔)	능이 없음.) 민다
31024	매:다(繫)	멘"다(+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 이 없음.)
31025	떼:다(分離)	뎌"다"
31026	때:다(炊)	떼"엔다(+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 능이 없음.)
31027	베:다(切斷)	빈"다"
31028	배:다(孕胎)	베"애타(+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 능이 없음.)
31029	세:다(算)	센다(+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30	새:다(漏泄)	세드라(+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 이 없음.)
31031-0-1	뒤(後)-이/가	디:가아"
31031-0-2	뒤(後)-보다	디"보"다
31032-0-1	되(升)-이/가	디"가"
31032-0-2	되(升)-보다	디"보"다
31033-0-1	게:(蟹)-이/가	께:가아"(+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 능이 없음.)
31033-0-2	게:(蟹)-보다	께"보"다(+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 능이 없음.)
31034-0-1	개:(犬)-이/가	게가"(+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 이 없음.)
31034-0-2	개:(犬)-보다	게"보"다(+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 능이 없음.)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여"러시
31035-0-2	여럿(多)-보다	여"를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여"르슬
31036-0-1	물결(波)-이/가	물"껴"리
31036-0-2	물결(波)-보다	물"결"보"다
31036-0-3	물결(波)-을/를	물"결"을"
31037-0-1	예:의(禮儀)-이/가	예이"이"가"아
31037-0-2	예:의(禮儀)-보다	예이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웨"이"를"

31038-0-1	계:획(計劃)-이/가	계"에"기"이(+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38-0-2	계:획(計劃)-보다	개액보"다(+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38-0-3	계:획(計劃)-을/를	계"엑"을"+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38-0-3	계:획(計劃)-을/를	계"혜"글"+ 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39-0-1	규칙(規則)-이/가	구"치기"
31039-0-2	규칙(規則)-보다	구"칙보"다
31039-0-3	규칙(規則)-을/를	규"치을"
31040-0-1	휴일(休日)-이/가	허"이리"
31040-0-2	휴일(休日)-보다	휴"일보"다
31040-0-3	휴일(休日)-을/를	후"이를"
31041-0-1	교통(交通)-이/가	거통"이
31041-0-2	교통(交通)-보다	교통보"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교통"을
31042-0-1	효:자(孝子)-이/가	호"오"자"가"
31042-0-2	효:자(孝子)-보다	호자보"다"아
31042-0-3	효:자(孝子)-을/를	호"자"를"
31043-0-1	웬일(何事)-이/가	웬"니"리"
31043-0-2	웬일(何事)-보다	웬닐보"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웬"니"를"
31044-0-1	궤:(좌)(櫃)-이/가	기"이"가
31044-0-2	궤:(좌)(櫃)-보다	기:보"다
31044-0-3	궤:(좌)(櫃)-을/를	기:를"
31045-0-1	왜란(倭亂)-이/가	웨"나니"
31045-0-2	왜란(倭亂)-보다	웨난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에"나닐"+ 이 지역에서는 "ㅡ"와 "ㄴ"모음이 변별 되지 않음.)
31046-0-1	햇대(鷄架)-이/가	해"때"가"
31046-0-2	햇대(鷄架)-보다	해때보"다
31046-0-3	햇대(鷄架)-을/를	해"때"릴"+ 이 지역에서는 "ㅡ"와 "ㄴ"모음이 변별 되지 않음.)
31047-0-1	원망(怨望)-이/가	원"망"이"이
31047-0-2	원망(怨望)-보다	원망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원"망"글"
31048-0-1	권:투(拳鬪)-이/가	건투"가"+ 이 지역에서는 "ㅡ"와 "ㄴ"모음이 변별 되지 않음.)
31048-0-2	권:투(拳鬪)-보다	건투보"다(+ 이 지역에서는 "ㅡ"와 "ㄴ"모음이 변

31048-0-3	권:투(拳鬪)-을/를	별되지 않음.) 건"투"를"(+ 이 지역에서는 "ㅡ"와 "ㄴ"모음이 변
31049-0-1	의논(議論)-이/가	별되지 않음.) 에"논"니
31049-0-2	의논(議論)-보다	에논보"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에"논"을"
31050-0-1	무늬(紋)-이/가	무니"가
31050-0-2	무늬(紋)-보다	무니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무니"를
31051-0-1	왕(王)-이/가	왕"이"
31051-0-2	왕(王)-보다	왕:보"다
31051-0-3	왕(王)-을/를	왕"을
31052-0-1	과자(菓子)-이/가	가"자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가"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가"자를"

### 3.1.3. 장모음·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이"리
31053-0-2	일(一)-보다	일"보"다
31054-0-1	일:(事)-이/가	이"이"리"
31054-0-2	일:(事)-보다	일:보"다
31055-0-1	매(鞭)-이/가	매"애"가"(+ 이 지역에서는 "ㄱ"와 "ㄴ"모음의 변
31055-0-2	매(鞭)-보다	별 기능이 없음.) 매뽕"다(+ 이 지역에서는 "ㄱ"와 "ㄴ"모음의 변별
31056-0-1	매:(鷺)-이/가	기능이 없음.) 매"애"가"(+ 이 지역에서는 "ㄱ"와 "ㄴ"모음의 변
31056-0-2	매:(鷺)-보다	별 기능이 없음.) 매:뽕"다(+ 이 지역에서는 "ㄱ"와 "ㄴ"모음의 변별
31057-0-1	밤(夜)-이/가	기능이 없음.) 바"미"
31057-0-2	밤(夜)-보다	밤보"다
31058-0-1	밤:(栗)-이/가	바"아"미"
31058-0-2	밤:(栗)-보다	밤:보"다
31059-0-1	눈(眼)-이/가	누"니"
31059-0-2	눈(眼)-보다	눈"보"다

31060-0-1	눈:(雪)-이/가	누"우"니"
31060-0-2	눈:(雪)-보다	누"운"보"다
31061-0-1	말(馬)-이/가	마"리
31061-0-2	말(馬)-보다	말보"다
31062-0-1	말(斗)-이/가	마"리"
31062-0-2	말(斗)-보다	말::보"다
31063-0-1	말:(言)-이/가	마아"리
31063-0-2	말:(言)-보다	말"보"다
31064-0-1	손(客)-이/가	소"니
31064-0-2	손(客)-보다	숨보"다
31065-0-1	손(手)-이/가	소"니"
31065-0-2	손(手)-보다	숨"보"다
31066-0-1	손:(孫)-이/가	소오"니"이
31066-0-2	손:(孫)-보다	숨"보"다
31067-0-1	배(梨)-이/가	배"가(+ 이 지역에서는 "궐"와 "궐"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67-0-2	배(梨)-보다	배뽀"다(+ 이 지역에서는 "궐"와 "궐"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68-0-1	배:(倍)-이/가	배"가(+ 이 지역에서는 "궐"와 "궐"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68-0-2	배:(倍)-보다	배보"다(+ 이 지역에서는 "궐"와 "궐"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69-0-1	벌(罰)-이/가	버"리"(+ 이 지역에서는 "ㅡ"와 "ㄴ"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69-0-2	벌(罰)-보다	벌"보"다(+ 이 지역에서는 "ㅡ"와 "ㄴ"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70-0-1	벌:(蜂)-이/가	버"어"리"이(+ 이 지역에서는 "ㅡ"와 "ㄴ"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70-0-2	벌:(蜂)-보다	버"얼"보"다(+ 이 지역에서는 "ㅡ"와 "ㄴ"모음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71-0-1	솔(松)-이/가	소"리"
31071-0-2	솔(松)-보다	솔"보"다
31072-0-1	솔:(刷)-이/가	소"오"리"
31072-0-2	솔:(刷)-보다	소"울"보"다
31073-0-1	줄(鉉)-이/가	주"우"리"
31073-0-2	줄(鉉)-보다	줄"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주"우"리"이
31074-0-2	줄:(연장)-보다	줄"보"다
31075-0-1	돌:(石)-이/가	도"오"리"
31075-0-2	돌:(石)-보다	돌"보"다
31076-0-1	담(牆)-이/가	다"미"
31076-0-2	담(牆)-보다	담"보"다
31077-0-1	담:(膽)-이/가	다"미
31077-0-2	담:(膽)-보다	담보"다
31078-0-1	들:(野)-이/가	드"으"리"
31078-0-2	들:(野)-보다	들"보"다
31079-0-1	달-(懸)-고	달"고"
31079-0-1	달-(懸)-더라	달"고"
31080-0-1	달-(甘)-고	달"고
31080-0-1	달-(甘)-더라	달"고
31081-0-1	달:-(熱)-고	달"고
31081-0-1	달:-(熱)-더라	달"고
31082-0-1	갈-(換)-고	갈"고
31082-0-1	갈-(換)-더라	갈"고
31083-0-1	갈-(磨)-고	가알고"오
31083-0-1	갈-(磨)-더라	가알고"오
31084-0-1	갈:-(耕)-고	갈"고"오
31084-0-1	갈:-(耕)-더라	갈"고"오
31085-0-1	걷-(收)-고	거"꼬
31085-0-1	걷-(收)-더라	거"꼬
31086-0-1	걷:-(步)-고	거"어"꼬
31086-0-1	걷:-(步)-더라	거"어"꼬
31087-0-1	적-(書)-고	저"꼬
31087-0-1	적-(書)-더라	저"꼬
31088-0-1	적:-(小)-고	저어"꼬"
31088-0-1	적:-(小)-더라	저어"꼬"



## 3.2. 음운 과정

### 3.2.1. 활용

#### 1)기초항목

32001-0-1	막-(防)[ㄱ]-지	막"찌
32001-0-2	막-(防)[ㄱ]-고	막"꼬
32001-0-3	막-(防)[ㄱ]-더라	막뜨"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그니까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마"가
32002-0-1	흐르-(流)[ㅡ]-지	흐르"지
32002-0-2	흐르-(流)[ㅡ]-고	흐르"고
32002-0-3	흐르-(流)[ㅡ]-더라	흐르드"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흐르"니까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홀"러
32003-0-1	오-(來)[ㅓ]-지	오"지
32003-0-2	오-(來)[ㅓ]-고	오"고
32003-0-3	오-(來)[ㅓ]-더라	오"드"라
32003-0-4	오-(來)[ㅓ]-으니까	오"니까
32003-0-5	오-(來)[ㅓ]-아/어(왔/었다)	와
32004-0-1	듣-(聞)[ㄷ변]-지	드"찌
32004-0-2	듣-(聞)[ㄷ변]-고	드"꼬
32004-0-3	듣-(聞)[ㄷ변]-더라	드뜨"라
32004-0-4	듣-(聞)[ㄷ변]-으니까	드르"니까
32004-0-5	듣-(聞)[ㄷ변]-아/어(왔/었다)	드"러
32005-0-1	많:- (多)[ㄴᄃ]-지	만"치"
32005-0-2	많:- (多)[ㄴᄃ]-고	망"코"
32005-0-3	많:- (多)[ㄴᄃ]-더라	만:트라
32005-0-4	많:- (多)[ㄴᄃ]-으니까	마"느"니까
32005-0-5	많:- (多)[ㄴᄃ]-아/어(왔/었다)	마"나"
32006-0-1	말-(任)[ㅌ]-지	마"찌
32006-0-2	말-(任)[ㅌ]-고	마"꼬
32006-0-3	말-(任)[ㅌ]-더라	마떠"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마"트니까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마"타
32007-0-1	알:- (知)[ㄹ]-지	아"알"지
32007-0-2	알:- (知)[ㄹ]-고	아"알"고
32007-0-3	알:- (知)[ㄹ]-더라	알:드"라
32007-0-4	알:- (知)[ㄹ]-으니까	아"니"까

32007-0-5	알:- (知)[ㄹ]-아/어(왔/었다)	아"라
32008-0-1	감:- (閉眼)[ㄱ]-지	가"암"찌
32008-0-1	감:- (閉眼)[ㄱ]-지	깜"찌
32008-0-2	감:- (閉眼)[ㄱ]-고	가"양"꼬
32008-0-2	감:- (閉眼)[ㄱ]-고	까"양"꼬"
32008-0-3	감:- (閉眼)[ㄱ]-더라	감"뜨"라
32008-0-3	감:- (閉眼)[ㄱ]-더라	깜뜨라
32008-0-4	감:- (閉眼)[ㄱ]-으니까	까"무"니까
32008-0-4	감:- (閉眼)[ㄱ]-으니까	까"마"
32008-0-5	감:- (閉眼)[ㄱ]-아/어(왔/었다)	까"마"
32008-0-5	감:- (閉眼)[ㄱ]-아/어(왔/었다)	까"므"니까
32009-0-1	벗:- (脫)[ㅍ]-지	버"찌
32009-0-2	벗:- (脫)[ㅍ]-고	버"꼬
32009-0-3	벗:- (脫)[ㅍ]-더라	버뜨"라
32009-0-4	벗:- (脫)[ㅍ]-으니까	버"스"니까
32009-0-5	벗:- (脫)[ㅍ]-아/어(왔/었다)	버"서
32010-0-1	옴:- (可)[ㅇ]-지	옴"치"
32010-0-2	옴:- (可)[ㅇ]-고	옴"코"
32010-0-3	옴:- (可)[ㅇ]-더라	옴"트"라
32010-0-4	옴:- (可)[ㅇ]-으니까	오르"니까
32010-0-5	옴:- (可)[ㅇ]-아/어(왔/었다)	오"라"
32011-0-1	입:- (着衣)[ㅍ]-지	입"찌
32011-0-2	입:- (着衣)[ㅍ]-고	이"꼬
32011-0-3	입:- (着衣)[ㅍ]-더라	입뜨"라
32011-0-4	입:- (着衣)[ㅍ]-으니까	이"브"니까
32011-0-5	입:- (着衣)[ㅍ]-아/어(왔/었다)	이"버
32012-0-1	바꾸:- (換)[ㅍ]-지	바꾸"지
32012-0-2	바꾸:- (換)[ㅍ]-고	바꾸"고
32012-0-3	바꾸:- (換)[ㅍ]-더라	바꾸"드라
32012-0-4	바꾸:- (換)[ㅍ]-으니까	바꾸"니까
32012-0-5	바꾸:- (換)[ㅍ]-아/어(왔/었다)	바"까"
32013-0-1	덮:- (覆)[ㄷ]-지	덱"찌
32013-0-2	덮:- (覆)[ㄷ]-고	덱"꼬
32013-0-3	덮:- (覆)[ㄷ]-더라	덱뜨"라
32013-0-4	덮:- (覆)[ㄷ]-으니까	더"프니까
32013-0-5	덮:- (覆)[ㄷ]-아/어(왔/었다)	더"프어
32014-0-1	묻:- (問)[ㅁ 변]-지	무"찌"
32014-0-2	묻:- (問)[ㅁ 변]-고	무"우"꼬"
32014-0-3	묻:- (問)[ㅁ 변]-더라	무"뜨"라
32014-0-4	묻:- (問)[ㅁ 변]-으니까	무"르니까
32014-0-5	묻:- (問)[ㅁ 변]-아/어(왔/었다)	무"러

32015-0-1	낫:-(癒)[ㅅ변]-지	나찌
32015-0-2	낫:-(癒)[ㅅ변]-고	나"꼬"
32015-0-3	낫:-(癒)[ㅅ변]-더라	나"아"뜨라
32015-0-4	낫:-(癒)[ㅅ변]-으니까	나"슨니까
32015-0-5	낫:-(癒)[ㅅ변]-아/어(왔/었다)	나"서
32016-0-1	닫:-(閉)[ㄷ]-지	다"찌
32016-0-2	닫:-(閉)[ㄷ]-고	다"꼬
32016-0-3	닫:-(閉)[ㄷ]-더라	다:뜨"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드니까"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다"다
32017-0-1	쫓:-(追)[ㅈ]-지	쫓"찌
32017-0-2	쫓:-(追)[ㅈ]-고	쫓"꼬
32017-0-3	쫓:-(追)[ㅈ]-더라	쫓뜨"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쫓"스니까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쫓"차
32018-0-1	베:-(枕)[ㅂ]-지	비"이"지"
32018-0-2	베:-(枕)[ㅂ]-고	비"이"고"
32018-0-3	베:-(枕)[ㅂ]-더라	비:드"라
32018-0-4	베:-(枕)[ㅂ]-으니까	비"니"까
32018-0-5	베:-(枕)[ㅂ]-아/어(왔/었다)	비"어
32019-0-1	깨:-(破)[ㅂ]-지	깨"지
32019-0-2	깨:-(破)[ㅂ]-고	깨"고
32019-0-3	깨:-(破)[ㅂ]-더라	깨드"라
32019-0-4	깨:-(破)[ㅂ]-으니까	깨"니까
32019-0-5	깨:-(破)[ㅂ]-아/어(왔/었다)	깨"서
32020-0-1	펴:-(伸)[ㅍ]-지	피"지
32020-0-2	펴:-(伸)[ㅍ]-고	피"고
32020-0-3	펴:-(伸)[ㅍ]-더라	피드"라
32020-0-4	펴:-(伸)[ㅍ]-으니까	피"니까
32020-0-5	펴:-(伸)[ㅍ]-아/어(왔/었다)	피"어
32021-0-1	밝:-(明)[ㅂ]-지	발"찌
32021-0-2	밝:-(明)[ㅂ]-고	발"꼬
32021-0-3	밝:-(明)[ㅂ]-더라	발뜨"라
32021-0-4	밝:-(明)[ㅂ]-으니까	발"그니까"
32021-0-5	밝:-(明)[ㅂ]-아/어(왔/었다)	발"가
32022-0-1	삶:-(烹)[ㅅ]-지	사"암"찌"
32022-0-2	삶:-(烹)[ㅅ]-고	사"양"꼬"
32022-0-3	삶:-(烹)[ㅅ]-더라	삼뜨"라
32022-0-4	삶:-(烹)[ㅅ]-으니까	살"드니까"
32022-0-5	삶:-(烹)[ㅅ]-아/어(왔/었다)	살"마

32023-0-1	을-(吟)[ㄹ]-지	*(+ 이 지역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어형임.)
32023-0-2	을-(吟)[ㄹ]-고	*(+ 이 지역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어형임.)
32023-0-3	을-(吟)[ㄹ]-더라	*(+ 이 지역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어형임.)
32023-0-4	을-(吟)[ㄹ]-으니까	*(+ 이 지역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어형임.)
32023-0-5	을-(吟)[ㄹ]-아/어(왔/었다)	*(+ 이 지역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어형임.)
32024-0-1	밟:-(踏)[?]-지	바"알"찌"
32024-0-2	밟:-(踏)[?]-고	발"꼬"
32024-0-3	밟:-(踏)[?]-더라	발:뜨"라
32024-0-4	밟:-(踏)[?]-으니까	발"르니까
32024-0-4	밟:-(踏)[?]-으니까	발"브니까
32024-0-5	밟:-(踏)[?]-아/어(왔/었다)	발"바
32025-0-1	하-(爲)[ㅏ 변]-지	하"지
32025-0-2	하-(爲)[ㅏ 변]-고	하"고
32025-0-3	하-(爲)[ㅏ 변]-더라	하"드"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하"니까"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해"씨"
32026-0-1	맷-(結)[ㅈ]-지	매"찌
32026-0-2	맷-(結)[ㅈ]-고	매"꼬
32026-0-3	맷-(結)[ㅈ]-더라	매뜨"라
32026-0-4	맷-(結)[ㅈ]-으니까	매"드니까"
32026-0-4	맷-(結)[ㅈ]-으니까	매"즈니까"
32026-0-5	맷-(結)[ㅈ]-아/어(왔/었다)	매"자
32027-0-1	엷:-(無)[?]-지	어"엷"찌
32027-0-2	엷:-(無)[?]-고	어"엷"꼬
32027-0-3	엷:-(無)[?]-더라	어"엷"뜨"라
32027-0-4	엷:-(無)[?]-으니까	엷슨"니까"
32027-0-5	엷:-(無)[?]-아/어(왔/었다)	엷"서"
32028-0-1	앗-(坐)[ㅏ]-지	안"찌
32028-0-2	앗-(坐)[ㅏ]-고	양"꼬
32028-0-3	앗-(坐)[ㅏ]-더라	안뜨"라
32028-0-4	앗-(坐)[ㅏ]-으니까	안"즈니까"
32028-0-5	앗-(坐)[ㅏ]-아/어(왔/었다)	안"자
32029-0-1	비비-(刮)[ㅣ]-지	비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비비"고
32029-0-3	비비-(刮)[ㅣ]-더라	비비드"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비비"니까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비벼"

32030-0-1	ㄹ-(消)[一]-지	ㄹ"지(+ 이 지역에서는 "一"와 "ㄴ"모음이 변별되지 않음.)
32030-0-2	ㄹ-(消)[一]-고	ㄹ"고(+ 이 지역에서는 "一"와 "ㄴ"모음이 변별되지 않음.)
32030-0-3	ㄹ-(消)[一]-더라	ㄹ"더"라(+ 이 지역에서는 "一"와 "ㄴ"모음이 변별되지 않음.)
32030-0-4	ㄹ-(消)[一]-으니까	ㄹ"니"까(+ 이 지역에서는 "一"와 "ㄴ"모음이 변별되지 않음.)
32030-0-5	ㄹ-(消)[一]-아/어(왔/었다)	꺼"서(+ 이 지역에서는 "一"와 "ㄴ"모음이 변별되지 않음.)
32031-0-1	꺾-(折)[ㄱ]-지	꺾"찌(+ 이 지역에서는 "一"와 "ㄴ"모음이 변별되지 않음.)
32031-0-2	꺾-(折)[ㄱ]-고	꺼"꼬(+ 이 지역에서는 "一"와 "ㄴ"모음이 변별되지 않음.)
32031-0-3	꺾-(折)[ㄱ]-더라	꺾"떠"라(+ 이 지역에서는 "一"와 "ㄴ"모음이 변별되지 않음.)
32031-0-4	꺾-(折)[ㄱ]-으니까	꺼"꼬"니"까(+ 이 지역에서는 "一"와 "ㄴ"모음이 변별되지 않음.)
32031-0-5	꺾-(折)[ㄱ]-아/어(왔/었다)	꺼"꺼(+ 이 지역에서는 "一"와 "ㄴ"모음이 변별되지 않음.)
32032-0-1	신:-(履)[ㄴ]-지	시"인"찌"
32032-0-2	신:-(履)[ㄴ]-고	시"잉"꼬"
32032-0-3	신:-(履)[ㄴ]-더라	신"뜨"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시"느"니"까"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시"너
32033-0-1	보-(視)[ㅂ]-지	보"지
32033-0-2	보-(視)[ㅂ]-고	보"고
32033-0-3	보-(視)[ㅂ]-더라	보"드"라
32033-0-4	보-(視)[ㅂ]-으니까	보"니"까
32033-0-5	보-(視)[ㅂ]-아/어(왔/었다)	보"아
32034-0-1	추-(舞)[ㅈ]-지	추"지"
32034-0-2	추-(舞)[ㅈ]-고	추"고"
32034-0-3	추-(舞)[ㅈ]-더라	추"드"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추"니"까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추"어
32035-0-1	피우-(吸煙)[ㅈ]-지	피"우지
32035-0-2	피우-(吸煙)[ㅈ]-고	피"우고
32035-0-3	피우-(吸煙)[ㅈ]-더라	피"우드라
32035-0-4	피우-(吸煙)[ㅈ]-으니까	피"우니까"
32035-0-5	피우-(吸煙)[ㅈ]-아/어(왔/었다)	피"어
32036-0-1	서-(立)[ㄱ]-지	서"지
32036-0-2	서-(立)[ㄱ]-고	서"고
32036-0-3	서-(立)[ㄱ]-더라	서드"라
32036-0-4	서-(立)[ㄱ]-으니까	서"니까
32036-0-5	서-(立)[ㄱ]-아/어(왔/었다)	서"서"
32037-0-1	기-(匍腹)[ㅣ]-지	기"지"
32037-0-2	기-(匍腹)[ㅣ]-고	기"고
32037-0-3	기-(匍腹)[ㅣ]-더라	기드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기"니"까"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었다)	기"어
32038-0-1	이-(戴)[ㅣ]-지	이"지
32038-0-2	이-(戴)[ㅣ]-고	이"고
32038-0-3	이-(戴)[ㅣ]-더라	이드"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이"니"까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이"어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여"서
32039-0-1	아니-(否)[ㅣ]-지	아니"지
32039-0-2	아니-(否)[ㅣ]-고	아니"고
32039-0-3	아니-(否)[ㅣ]-더라	아니드"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아니"니"까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아니"(+ 이 지역에서는 잘 실현이 되지 않는 형태 임.)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
32040-0-1	되-(升)[ㅂ]-지	테"지
32040-0-2	되-(升)[ㅂ]-고	테"고
32040-0-3	되-(升)[ㅂ]-더라	테더"라
32040-0-4	되-(升)[ㅂ]-으니까	테"니까
32040-0-5	되-(升)[ㅂ]-아/어(왔/었다)	테"어
32041-0-1	있-(有)[ㅃ]-지	이"찌
32041-0-2	있-(有)[ㅃ]-고	이"꼬
32041-0-3	있-(有)[ㅃ]-더라	이뜨"라
32041-0-4	있-(有)[ㅃ]-으니까	이스"니까
32041-0-5	있-(有)[ㅃ]-아/어(왔/었다)	이"서

32042-0-1	놓-(放)[ㅎ]-지	노"치
32042-0-2	놓-(放)[ㅎ]-고	노"꼬
32042-0-2	놓-(放)[ㅎ]-고	노"코
32042-0-3	놓-(放)[ㅎ]-더라	노트"라
32042-0-3	놓-(放)[ㅎ]-더라	노트"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노"즈니까
32042-0-4	놓-(放)[ㅎ]-으니까	노"으니까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노"아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나"따

32043-0-1	홀-(扱)[ㄹ]-지	홀"찌
32043-0-2	홀-(扱)[ㄹ]-고	홀"꼬
32043-0-3	홀-(扱)[ㄹ]-더라	홀뜨"라
32043-0-4	홀-(扱)[ㄹ]-으니까	홀"트니까
32043-0-5	홀-(扱)[ㄹ]-아/어(왔/었다)	홀"터

32044-0-1	곱:- (麗)[ㄹ 변]-지	곱"찌"
32044-0-2	곱:- (麗)[ㄹ 변]-고	고"꼬"
32044-0-3	곱:- (麗)[ㄹ 변]-더라	곱"뜨"라
32044-0-4	곱:- (麗)[ㄹ 변]-으니까	고"부"니까
32044-0-5	곱:- (麗)[ㄹ 변]-아/어(왔/었다)	고"오"바"

32045-0-1	쥐:- (握)[ㄱ]-지	지"이"지"
32045-0-2	쥐:- (握)[ㄱ]-고	지"이"고
32045-0-3	쥐:- (握)[ㄱ]-더라	지"드"라
32045-0-4	쥐:- (握)[ㄱ]-으니까	지니"까
32045-0-5	쥐:- (握)[ㄱ]-아/어(왔/었다)	지"어

32046-0-1	가-(去)[ㄱ]-지	가"지
32046-0-2	가-(去)[ㄱ]-고	가"고
32046-0-3	가-(去)[ㄱ]-더라	가"드"라
32046-0-4	가-(去)[ㄱ]-으니까	가"니까
32046-0-5	가-(去)[ㄱ]-아/어(왔/었다)	가:서

## 2)일반항목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무"꼬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우따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뜨"꼬"오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드따
32049-0-1	"같-(如)-지 -고 -더라"	가꼬
32049-0-2	"같-(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타"따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얕"꼬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얕"파따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히"어꼬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히"츠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날"고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라따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고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루따
32054-0-1	"일:-(洵)-지 -고 -더라"	일:고"오
32054-0-2	"일:-(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르따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어얼"고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어"르따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너영"꼬"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르따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숨"꼬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무"따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시:꼬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버"따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누"꼬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부따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지"꼬"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부따
32061-0-1	"밋:-(憎)-지 -고 -더라"	미"꼬
32061-0-2	"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브따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노"꼬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퍼따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지:꼬"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따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어따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부"꼬"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우따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우우"꼬"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수따
32066-0-1	"짓-(呖)-지 -고 -더라"	지꼬
32066-0-2	"짓-(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서따
32067-0-1	"꽃-(插)-지 -고 -더라"	꼬"꼬
32067-0-2	"꽃-(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저따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노"꼬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아따
32069-0-1	"땅:-(?)-지 -고 -더라"	땅"코
32069-0-2	"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땅"아따
32070-0-1	"끓-(切)-지 -고 -더라"	끓"코
32070-0-2	"끓-(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느따
32071-0-1	"괜창-(無妨)-지 -고 -더라"	괜창"코
32071-0-2	"괜창-(無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겐차"나따(+ 이 지역에서 는 "게"와 "ㄱ"모음이 구 별되지 않음.)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일"꼬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그따
32073-0-1	"떨:-(漈)-지 -고 -더라"	떠얼"꼬
32073-0-2	"떨:-(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떨"버"따
32074-0-1	"옴:-(遷)-지 -고 -더라"	오옴"꼬
32074-0-2	"옴:-(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마따
32075-0-1	"뚱:-(貫)-지 -고 -더라"	뚱"꼬"오
32075-0-2	"뚱:-(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뚱"버따
32076-0-1	"꿍-(跪)-지 -고 -더라"	꿍"꼬오
32076-0-2	"꿍-(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르따
32077-0-1	"닿-(扨, 연필 심이)-지 -고 -더라"	딸"꼬
32077-0-2	"닿-(扨,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르따
32078-0-1	"당:-(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딸"코
32078-0-2	"당:-(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딸"기따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짜"고"오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바"서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말"고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러따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쓰"고"오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따"아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오르"고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라따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바쁘"고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빠따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고프"고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파따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쏘"고"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아"따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꾸"고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워"따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머"물고"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물"러따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다듬"꼬"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드"머따(+ 수 의 적 으 로 어 두 위 치 에 서 된 소 리 로 실 현 되 며, 된 소 리 가 가 평 상 시 발 음 에 가 까 움.)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전"디고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디따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비"고"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라따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이따(+ 이 지 역 에 서 는 "마 르 다"라 는 말 을 사 용 하 지 않 음.)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찌"고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따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마"시고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스따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시:고"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이따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포개"고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포"게"따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뚜디"르고"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디"르따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씨"고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따"아
32097-0-1	"췌:-(바람을)-지 -고 -더라"	씨"이고
32097-0-2	"췌:-(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이따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줄:고"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러따(+ 이 지역에서는 "쇠다"라는 어형에 대해 "줄다"라는 어휘를 사용 함.)
32099-0-1	"쉬:-(饅)-지 -고 -더라"	시이"고
32099-0-2	"쉬:-(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이따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히"고"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히"다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뽀"꼬"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뽀"끄따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아양"꼬"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느따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무"꼬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더따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부울"고"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따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빨"고"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르"따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주"꼬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거따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거"꼬"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르따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물"고"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러따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졸"고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러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썰"고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르"따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가앙"꼬"오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따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더"등꼬"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구"꼬"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버따(+ 이 어휘에서는 된소리가 수의적으로 실 현됨.)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무구"꼬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거"워따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이:꼬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스따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비"꼬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서따(+ 이 어휘에서는 된소리가 수의적으로 실 현됨.)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까마"코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마"타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너트라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여"코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여"따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꼬"뜨"라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아따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엳"꼬"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언"저따
32121-0-1	"귀찮-(?)-지 -고 -더라"	기차앙"코
32121-0-2	"귀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차"나따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발구"우고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발가"아따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말"꼬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그따
32124-0-1	"굵:-(濃)-지 -고 -더라"	공"꼬"
32124-0-2	"굵:-(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골"마따
32125-0-1	"굵:-(太)-지 -고 -더라"	구"울"꼬"
32125-0-2	"굵:-(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거"따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여얼"꼬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열"브따
32127-0-1	"쫘:-(?)-지 -고 -더라"	썰"코
32127-0-2	"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르"따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일"코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르따
32129-0-1	"훅:-(?)-지 -고 -더라"	할"꼬
32129-0-2	"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훅"타따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짤"꼬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짤"브따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래"드라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래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고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자"따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모타"고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테"따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르"고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라"따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프"고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파따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고"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크"따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꼬오"고"오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아"따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쭈"고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따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마추"우고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차"따
32140-0-1	"테우-(?) -지 -고 -더라"	테"우고
32140-0-2	"테우-(?)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테"워따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이"이고"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이따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갈"기"고"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기따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기다"리고"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다"리따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세:드라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에따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고"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따"
32146-0-1	"켜-(툽을)-지 -고 -더라"	썰"코
32146-0-2	"켜-(툽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르따(+ 이 어휘에서는 된소리가 수의적으로 실 현됨.)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디이"고"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디"이따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시이"고"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어따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까라피"이고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래"피따(+ 이 지역에서 는 "까래피다"형이 사용 됨.)
32150-0-1	"눈:-(?) -지 -고 -더라"	누우"꼬"
32150-0-2	"눈:-(?)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러따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깨다"꼬"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러따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누루"꼬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릅"따(+ 이 지역에서는 "누릅다"형이 사용됨.)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부끄러"꼬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끄러"워따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가깝"꼬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까"워따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기"꼬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퍼따
32156-0-1	"긋:-(刮)-지 -고 -더라"	끄"코
32156-0-2	"긋:-(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으따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씨뜨"라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스따
32158-0-1	"쪼그-(搗)-지 -고 -더라"	찌트"라
32158-0-2	"쪼그-(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따
32159-0-1	"깎-(搔)-지 -고 -더라"	깎"코
32159-0-2	"깎-(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깎"그따
3216-0-1	"끓-(?)-지 -고 -더라"	끓:뜨라
3216-0-2	"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러따
32160-0-1	"끓:-(飢)-지 -고 -더라"	궁"꼬"오
32160-0-2	"끓:-(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머따
32161-0-1	"닳:-(似)-지 -고 -더라"	다양"꼬
32161-0-2	"닳:-(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머따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싫"코"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따
32163-0-1	"끓-(𪗇)-지 -고 -더라"	끓:뜨라
32163-0-2	"끓-(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러따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부뜨라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우따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고"오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타따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마"르"고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라따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씹"뜨라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버"따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슬프"고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설"퍼따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기쁘"고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빠따
32170-0-1	"쏘-(? 별이)-지 -고 -더라"	쏘"오고"오
32170-0-2	"쏘-(? 별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애"따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주"고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어따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키"우고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어따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우고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다"따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뿌수"코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사"아따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나누"우고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눠"따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쏘"기고"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기따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끼이"고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이"따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티"고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티"따
32179-0-1	"괴:-(淳)-지 -고 -더라"	고이"고
32179-0-2	"괴:-(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여"따
32180-0-1	"여위-(?) -지 -고 -더라"	애"비고
32180-0-2	"여위-(?)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애"비따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맵"꼬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우따
32182-0-1	"뀌:-(?) -지 -고 -더라"	끼"고"
32182-0-2	"뀌:-(?)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따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고"치고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쳐따
32184-0-1	"싣:-(載)-지 -고 -더라"	시"일"꼬"
32184-0-2	"싣:-(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어어"꼬"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더"따
32186-0-1	"빡-(粉碎)-지 -고 -더라"	빠수"고
32186-0-2	"빡-(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사"따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파라트라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파라"꼬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라"타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다르드"라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러따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푸"고"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따"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누"고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따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더"름"꼬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러"버따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거두"고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다"따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끓"코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기"고"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겨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부시"이"고"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부시"이"고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시"인"다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빠지드라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져스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이르"키"고"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르"키"따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땡"기드라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땡"기따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버"리고"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리따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훔"치고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쳐따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고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따"아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예"우고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웨"워따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워따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사"기고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겨따
32204-0-1	"씩-(腐)-지 -고 -더라"	씩"꼬
32204-0-2	"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씩"겨따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질"고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르따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불"고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부"러따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더"물"고"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무러따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줄드라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러따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승구"고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승가"따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쓰"다"등꼬"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다드"머따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사납"꼬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나"우따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가부"꼬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볍"따
32213-0-1	"젓:-(?) -지 -고 -더라"	저어"꼬"오
32213-0-2	"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스따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뚜껍"꼬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꺼"브따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무르"고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러따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뿌지"르고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지"늘따(+ "뿌질"러따" 의 발음 실수임.)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배"우고"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우따
32218-0-1	"다리-(?) -지 -고 -더라"	다"리고
32218-0-2	"다리-(?)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리따
32219-0-1	"후비-(? 귀를)-지 -고 -더라"	후"비고
32219-0-1	"후비-(? 귀를)-지 -고 -더라"	히"비고
32219-0-2	"후비-(?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히"비따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아리"이고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러"어따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그"리"고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러"따
32222-0-1	"저리-(癡)-지 -고 -더라"	저리"이고"
32222-0-2	"저리-(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르따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불리고"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리따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뜨시"고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시"어따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끄"리고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끼"리고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르따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리어따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누"비고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베따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꾸개"고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게"에따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비"이"고"오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여따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씨"키고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키따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매:고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애"따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매"고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애따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띠"고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띠"어따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다양"꼬"오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머따
32234-0-1	"가렵-(?)-지 -고 -더라"	가름"꼬
32234-0-2	"가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름"따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때"리고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때"르따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어둡"꼬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두"워따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꼬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버따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차"고"오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따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모지라"아고"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지"라따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부르드"라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러따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따루"우고"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라"아따
32242-0-1	"쪼:-(啄)-지 -고 -더라"	쪼"꼬"
32242-0-2	"쪼:-(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쪼"아따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두"고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어따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씨"키고"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쩔"기고"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쩔"겨따다"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편"지고"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편"저따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이"드라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여따
32248-0-1	"만지-(?)-지 -고 -더라"	만"지고
32248-0-2	"만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저따
32249-0-1	"죄:-(?)-지 -고 -더라"	찌"이고
32249-0-2	"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따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빼"틀"고"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터"러따
32251-0-1	"돕:-(助)-지 -고 -더라"	도"오꼬
32251-0-2	"돕:-(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와"따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씨"입"꼬"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브따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끄럽"꼬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러"우따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다뜨"라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아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누루"우더라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러"따(+ 조?)
32256-0-1	"주무르-(?)-지 -고 -더라"	줌무"르고
32256-0-2	"주무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물"러따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매꾸"우고"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워따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꼬수"고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스"어따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내"리고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리따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구불"고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불"러따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만들드"라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드"러따
32262-0-1	"늡-(老)-지 -고 -더라"	늡뜨"라
32262-0-2	"늡-(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늡"그따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알"코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러따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딸"고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르따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사"고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따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우고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체"어따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뿌"르지"고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르저따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다"치고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즈따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리고"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르따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무"치고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즈따
32271-0-1	"죄:-(縮)-지 -고 -더라"	재"애고
32271-0-2	"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재"애따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팔"고"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러따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꼬"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뽑"바"따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디"치고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디"즈따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마"치더라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즈파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저"리고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리따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히"이고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휘"어따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주뜨라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우따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빼"꼬"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서따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기울고"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우"리따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까"꼬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까"워따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방"가"꼬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가"워따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고"오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여따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노라"코"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라타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푸"르더라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푸"르따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서드르드라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둘러따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서트"루고"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툴"르따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깨으르"고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으"러따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뜻하"고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뜻해"따
32290-0-1	"춥-(寒)-지 -고 -더라"	추"꼬
32290-0-2	"춥-(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추"워"따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뜨"겁"뜨라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거"우따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미지근하"고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지근해"따"아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갑"뜨라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가"오따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부"럽"뜨라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어따
32295-0-1	"알밋-(憎)-지 -고 -더라"	알미"꼬
32295-0-2	"알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미"우"따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비슷하"고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슷해"따"아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새"로"꼬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로"우따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서"러"꼬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러"위따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까"다"로꼬"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다"로우따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왜"로"꼬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로"어따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아"시꼬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수우따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뽕뽕하"고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단단해"따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느"꼬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저따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나양"꼬"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마따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냥"기고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냥"겨따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너먼뜨"리드라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떠"르따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쭈굴티"리드라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굴티"르따
32308-0-1	"전주-(比)-지 -고 -더라"	전주"드라
32308-0-2	"전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자"아따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웨"우고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에"우고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에"워따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워따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비비"고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지"르고(+ "비비다"와 의미 차이가 있음.)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지"르고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비"비고(+ "문지르다"와 의미 차이가 있음.)
32310-0-2	"문지르-(摩)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질"러따
32310-0-2	"문지르-(摩)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비"따(+ "문지르다"와 의미 차이가 있음.)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가르"키고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리"켜따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가르"치고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치따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전주"우고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자"아따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겨루"우고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겨라"따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개"고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개"따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뽄마"꼬
32316-0-2	"본받-(效)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뽄마"드따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어지"르고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질"러따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달"리고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려따
32319-0-1	"우기-(撈)-지 -고 -더라"	우"기고
32319-0-2	"우기-(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겨따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중얼거"리고"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중얼거"르따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라"	지꺼"리고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꺼"려따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다"니고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녀따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널쭈"우고"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널짜"아따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다"꼬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라따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드"라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어따
32326-0-1	"숫-(湧)-지 -고 -더라"	소"꼬
32326-0-2	"숫-(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사따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조"오"코"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아"따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빨가"코"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가"따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끄"코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르따
32330-0-1	"얇:-(薄)-지 -고 -더라"	널"꼬
32330-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널"버따
32331-0-1	"하얇-(白)-지 -고 -더라"	하야"코"
32331-0-2	"하얇-(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야"타

###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32332-0-2	국(羹)-을/를	구"글
32332-0-3	국(羹)-에(서)	구"게
32332-0-4	국(羹)-으로	구"그로
32332-0-5	국(羹)-도	국"또

32333-0-1	논(沓)-이/가	노"니"이
32333-0-2	논(沓)-을/를	노"느"을
32333-0-3	논(沓)-에(서)	노"네
32333-0-4	논(沓)-으로	노"느"로
32333-0-5	논(沓)-도	논도

32334-0-1	쌀(米)-이/가	싸"리"이
32334-0-2	쌀(米)-을/를	쌀"을"
32334-0-3	쌀(米)-에(서)	싸"레
32334-0-4	쌀(米)-으로	쌀"로"오
32334-0-5	쌀(米)-도	쌀"또"

32335-0-1	봄(春)-이/가	보"미"
32335-0-2	봄(春)-을/를	보"므"을
32335-0-3	봄(春)-에(서)	보"메
32335-0-4	봄(春)-으로	보"므"로
32335-0-5	봄(春)-도	봄도

32336-0-1	집(家)-이/가	지"비
32336-0-2	집(家)-을/를	집"얼"
32336-0-3	집(家)-에(서)	지"베
32336-0-4	집(家)-으로	지"브로
32336-0-5	집(家)-도	집"또

32337-0-1	옷(衣)-이/가	오"시"이
32337-0-2	옷(衣)-을/를	오"슬"
32337-0-3	옷(衣)-에(서)	오"세
32337-0-4	옷(衣)-으로	오"스"로
32337-0-5	옷(衣)-도	오또

32338-0-1	방(房)-이/가	방"이
32338-0-2	방(房)-을/를	방"을
32338-0-3	방(房)-에(서)	방"에
32338-0-4	방(房)-으로	방"으로
32338-0-5	방(房)-도	방"도

32339-0-1	낫(晝)-이/가	나"지"
32339-0-2	낫(晝)-을/를	나"슬"
32339-0-3	낫(晝)-에(서)	나"세
32339-0-4	낫(晝)-으로	나"트"로
32339-0-5	낫(晝)-도	나또

32340-0-1	낫(顔)-이/가	나"치
32340-0-2	낫(顔)-을/를	나"슬"
32340-0-3	낫(顔)-에(서)	나"세
32340-0-4	낫(顔)-으로	나"트"로
32340-0-5	낫(顔)-도	나또

32341-0-1	부엌(廚)-이/가	부서"기
32341-0-2	부엌(廚)-을/를	부서"글
32341-0-3	부엌(廚)-에(서)	부스"게
32341-0-4	부엌(廚)-으로	부스"그로
32341-0-5	부엌(廚)-도	부석"또
32342-0-1	밭(田)-이/가	바"치
32342-0-2	밭(田)-을/를	바"틀
32342-0-3	밭(田)-에(서)	바"테
32342-0-4	밭(田)-으로	바"트로
32342-0-5	밭(田)-도	바"또
32343-0-1	앞(前)-이/가	아"피
32343-0-2	앞(前)-을/를	아"플
32343-0-3	앞(前)-에(서)	아"페
32343-0-4	앞(前)-으로	아"프로
32343-0-5	앞(前)-도	압"또
32344-0-1	넋(魂)-이/가	느"기
32344-0-2	넋(魂)-을/를	너"글
32344-0-3	넋(魂)-에(서)	느"게
32344-0-4	넋(魂)-으로	느"그로
32344-0-5	넋(魂)-도	늑"또
32345-0-1	흙(土)-이/가	허"기
32345-0-2	흙(土)-을/를	허"클
32345-0-3	흙(土)-에(서)	허"게
32345-0-4	흙(土)-으로	허"크로
32345-0-5	흙(土)-도	헉"또
32346-0-1	여덟(八)-이/가	여"더리
32346-0-2	여덟(八)-을/를	여"더를
32346-0-3	여덟(八)-에(서)	여"더레
32346-0-4	여덟(八)-으로	여"더를로(+ 발음실수로 보임.)
32346-0-5	여덟(八)-도	여"들또
32347-0-1	돌(週歲)-이/가	도"리"이
32347-0-2	돌(週歲)-을/를	도"를"
32347-0-3	돌(週歲)-에(서)	도"레
32347-0-4	돌(週歲)-으로	돌로
32347-0-5	돌(週歲)-도	돌"도
32348-0-1	값(價)-이/가	가"비"이
32348-0-2	값(價)-을/를	가블"
32348-0-3	값(價)-에(서)	가"베
32348-0-4	값(價)-으로	가"브"로
32348-0-5	값(價)-도	갑또

32349-0-1	속:(內)-이/가	소"오기"
32349-0-2	속:(內)-을/를	쏘"글
32349-0-3	속:(內)-에(서)	쏘"게
32349-0-4	속:(內)-으로	쏘"그로로"
32349-0-5	속:(內)-도	쭙"또
32350-0-1	돈:(錢)-이/가	도"니"이
32350-0-2	돈:(錢)-을/를	도"오"늘
32350-0-3	돈:(錢)-에(서)	도"네"
32350-0-4	돈:(錢)-으로	도"느"로
32350-0-5	돈:(錢)-도	돈도
32351-0-1	발(足)-이/가	바"리"이
32351-0-2	발(足)-을/를	바"를"
32351-0-3	발(足)-에(서)	바"레
32351-0-4	발(足)-으로	바"르"로
32351-0-5	발(足)-도	발도
32352-0-1	짐(荷物)-이/가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지"믈"
32352-0-3	짐(荷物)-에(서)	지"메
32352-0-4	짐(荷物)-으로	지"므"로
32352-0-5	짐(荷物)-도	짐도
32353-0-1	입(口)-이/가	이"비"이
32353-0-2	입(口)-을/를	이"벌"
32353-0-3	입(口)-에(서)	이"베
32353-0-4	입(口)-으로	이"브"로
32353-0-5	입(口)-도	입또
32354-0-1	낫(鎌)-이/가	나"시"
32354-0-2	낫(鎌)-을/를	나"슬"
32354-0-3	낫(鎌)-에(서)	나"셰
32354-0-4	낫(鎌)-으로	나"뜨"로
32354-0-5	낫(鎌)-도	나또
32355-0-1	강(江)-이/가	강"이"
32355-0-2	강(江)-을/를	강"을"
32355-0-3	강(江)-에(서)	강"에"에
32355-0-4	강(江)-으로	강"으"로
32355-0-5	강(江)-도	강도
32356-0-1	젓(乳)-이/가	저"시"이
32356-0-2	젓(乳)-을/를	저"슬"
32356-0-3	젓(乳)-에(서)	저"셰
32356-0-4	젓(乳)-으로	저"스"로
32356-0-5	젓(乳)-도	저또

32357-0-1	꽃(花)-이/가	꼬"치
32357-0-2	꽃(花)-을/를	꼬"틀
32357-0-3	꽃(花)-에(서)	꼬"세서
32357-0-4	꽃(花)-으로	꼬"스로
32357-0-5	꽃(花)-도	꼬"또

32358-0-1	팥(赤豆)-이/가	파"시"이
32358-0-2	팥(赤豆)-을/를	파"슬"
32358-0-3	팥(赤豆)-에(서)	파"세
32358-0-4	팥(赤豆)-으로	파"트"로
32358-0-5	팥(赤豆)-도	파"또

32359-0-1	옆(側)-이/가	여"피
32359-0-2	옆(側)-을/를	여"플
32359-0-3	옆(側)-에(서)	여"페
32359-0-4	옆(側)-으로	여"프로
32359-0-5	옆(側)-도	엽"또

32360-0-1	샀(賃金)-이/가	싸"아기
32360-0-2	샀(賃金)-을/를	싸"아글
32360-0-3	샀(賃金)-에(서)	싸"게
32360-0-4	샀(賃金)-으로	싸"그로오"
32360-0-5	샀(賃金)-도	씩"또

32361-0-1	닭(鷄)-이/가	다"리
32361-0-2	닭(鷄)-을/를	다"를
32361-0-3	닭(鷄)-에(서)	다"레
32361-0-4	닭(鷄)-으로	다"꼬로오"
32361-0-5	닭(鷄)-도	닥"또

32362-0-1	밖(外)-이/가	바"끼
32362-0-2	밖(外)-을/를	바"글
32362-0-3	밖(外)-에(서)	바"께
32362-0-4	밖(外)-으로	바"꼬로
32362-0-5	밖(外)-도	박"또

## 제4편 문 법

### 4.1. 대명사

####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내다
40101-0-1	내-가	내가"
40101-0-2	내	내
40101-0-3	나-를	나를
40101-0-4	나-에게	나한"때
40101-0-4	나-에게	나"에게
40101-0-5	나-와	나"와
40101-0-5	나-와	나하"고
40101-0-6	나-는	나"는
40101-0-6	나-는	나"는
40101-0-7	나-도	날"도
40102	저/제-가	지이"가"
40102-0-1	저-가	지이"가"
40102-0-2	저-의	제
40102-0-3	저-을/를	지"를
40102-0-3	저-을/를	저"를
40102-0-4	저-에게	저"에게
40102-0-4	저-에게	지한"테
40102-0-5	저-와/과	저"와
40102-0-5	저-와/과	지"랑"
40102-0-6	저-는	저"는
40102-0-7	저-도	지"도
40103	우리	우리"도
40104	저희	저"히들캉
40105	너	니
40105-0-1	-가	니가
40105-0-2	-의	*
40105-0-3	-을/를	니"를
40105-0-4	-에게	너한"테
40105-0-5	-와/과	너"와
40105-0-5	-와/과	니하"고
40105-0-6	-는	니"는
40105-0-7	-도	니"도
40106	자네	자네
40107	당신	당시"니
40108	너희	너거
40109	개	가"아"는

40109-1	애	야"
40109-1	애	야"가
40109-2	재	자"아"
40109-2	재	자"아"는
40110	자기	지
40111	당신	*

####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고"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누"가"
40112-0-2	누구-의	누구"
40112-0-3	누구-를	누구(+ 목적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음.)
40112-0-3	누구-를	누구 차"자완노
40112-0-4	누구-에게	누"구"(+ 여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음.)
40112-0-4	누구-에게	누" 줄라꼬
40112-0-4	누구-에게	누"구" 줄라꼬
40112-0-5	누구-와	누"구"랑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머꼬"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머심니"꺼
40113-0-1	무엇-이	머"시
40113-0-2	무슨	머신
40113-0-3	무엇-을	머"얼"
40113-0-4	무엇-과	머캉
40113-0-4	무엇-과	머:랑

####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어테
40115	언제	원"제"
40116	어느	머시(+ "무엇이"라는 의미임.)
40117	왜	와
40118	얼마나	얼매"나
40119	어떻게	어"떠"키"

####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요"기"
40120	이것	이"기"



40121	그것	거곰(+ "그건"을 발음한 것임.)
40122	저것	저"거"는
40123	여기	여"기
40124	거기	거"게느
40125	저기	저"기
40126	이리	이:리
40127	그리	그"리
40128	저리	저:리

## 4.2. 조사

### 4.2.1. 격조사

40201	-이/가	물"거"니
40202	-이/가	코"가"
40203	-을/를	기를
40204	-을/를	무"를"
40205	-에게/게	자한"테"
40206	-보고/더러	누"구"더러
40207	-보고/더러	누"구"보고
40208	-에	장"에
40209	-에	다"으메
40210	-에서	지베서
40211	-에서	시자~"으서
40212	-에서	여"게서
40213	-으로	쌀"로"
40214	-으로	지"프"로
40215	-으로	새"끼"로
40216	-으로	그"리로
40217	-와/과	도마도하"고 수"박"하"고
40218	-와/과	나"랑
40219	-보다	히~"이쁘다가
40220	-처럼	대"지처럼(+ "돼지처럼"형임.)
40221	-만큼	너마"참
40222	-만큼	머"글 만치
40223	-아/야	봉"나마
40224	-아/야	봉나"미"
40225	-아/야	흥"구야
40225	-아/야	영"수야
40226	-아/야	누"님
40226-1	-예	누"님뇨
40227	-아/야	할배
40227-1	-요	할"배"요
40228	-이랑	고"기랑 술"캉
40229	-커녕	마너니라카"이

## 4.2.2. 보조사

40230	-은/는	수"른
40230	-은/는	담배느
40231	-만	딸"마"
40232	-도	키"도"
40232	-도	임"물도
40233	-마다	날:마중"
40234	-부터	오"늘부터
40235	-까지	내"일까지
40236	-조차	물조차
40236-1	-할라	비"가" 올라 카는데
40237	-이야/야	행"동이야
40238	-을랑	*
40239	-이라도	부:자라도"
40240	-밖에	니빼끼
40241	-가지고	다"머가주고

##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오"라 근다(+ "오라고 그런다"의 의미임.)
40243	알았어-요	아"라썸니더
40244	했지-요?	해썸니꺼

## 4.3. 종결어미

### 4.3.1. 명령법

40301	-아라	안"즈라
40302	-게	안"즈라(+ 사위랑 친해졌을 때)
40302	-게	안지"게
40303	-으오	안지시"오
40304	-으십시오	안즈시"오
40305	-세요	안즈시오

### 4.3.2. 청유법

40306	-자	가"자
40307	-세	가"자(+ 사위랑 친해졌을 때)
40307	-세	가"세
40308	-으오	갑"시"다
40309	-십시다	가입"시더
40310	-세요	가입시"다

#### 4.3.3. 의문법

40311	-니	오나
40312	-나	오나
40313	-오	옴"니"까"
40313	-오	오"능"교
40314	-습니까	옴"니"까"
40314	-습니까	오"능"교
40315	-나요	옴"니"까"
40315	-나요	오"능"교
40316	-니	가"노
40317	-나	가능"고
40318	-시오	감니"까"
40318	-시오	가능"교
40319	-십니까	가심니"까"
40319	-십니까	가시닝"교
40320	-세요	가심니"까"
40320	-세요	가시닝"교

#### 4.3.4. 서술법

40321	-는다	몽는다
40322	-네	무"꼬 인네
40323	-오	머"꼬 이심미다
40324	-습니다	무"꼬 이심니다
40325	-네요	무"꼬 이심니다
40326	-다	적따
40327	-네	정네
40328	-소	적"썸"니다
40329	-으십니다	적"썸"니다
40330	-으세요	적"썸"니다

#### 4.3.5. 반말

40331	-아	아푸"노
40332	-지	갈 꺼"지

#### 4.3.6. -이다

40333	-이다	내"애"리다
40334	-이니	췌"이"리가
40335	-이네	내"애"리지(+ 의문형임.)
40335	-이네	내"이"리네
40336	-인가	내"애"링가
40337	-이오	내"애"름미다
40338	-이오	내"이"림니까
40338	-이오	내"엘"잉교
40339	-입니다.	내"이"림니다
40340	-입니까	내"애"림니까
40340	-입니까	내"이"링교
40341	-이시지요	내"이"림니다
40342	-이시지요	내"이"링교
40343	-이냐?	머꼬"
40344	-인가?	머꼬"(+ 친할 때)
40344	-인가?	머"어싱교
40345	-이오?	머싱교"
40346	-입니까?	머싱교"
40347	-인가요?	머싱교"
40348	-이야?	머신강"
40348	-이야?	머꼬"
40349	-이어요?	머싱교"

####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만"습"니다
40351	-습디다	만"습떠다
40352	-는구나/구나	몽"네
40352	-는구나/구나	목뜨"라
40353	-는구먼/구먼	몽는구"나
40354	-일세	오름마~"이다
40354	-일세	오름마~"일세
40355	-으마	가췌"네
40355	-으마	가"프마
40356	-음세	가"품세
40357	-을라	다"칠라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무"꼬
40402	-으면서	무"우민서"
40403	-어/-어서	와서"
40404	-으니 /-으니까	따스"니까"
40405	-관테	이런"테"
40406	-다가	오:다"가
40407	-거든	가그덩"
40408	-더라도	목뜨"라도"
40409	-으려고	무"글라꼬"
40410	-도록	빠"빠"지드로"
40410	-도록	죽"뚜루
40411	-을수록	노폴"수록
40412	-듯이	씨"드"시
40413	-지	보"지

#### 4.5. 주체존대

40501	-셔	온느"라(+ 친할 때)
40501	-셔	오"소"
40502	-셨소	헐:닝"교

#### 4.6. 시제

40601	웃는다	운"는"다
40602	기어간다	긴"다"
40602	기어간다	기"간"다"
40603	크다	크"다"
40604	생일이다	생"이"리다
40605	오고 있다	오"고 이썰니"다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무운"나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잡사"썰니까(+ 어른일 경우)
40607	왔었다	와따
40608	먹더라	목뜨"라
40609	먹더냐	목뜨"나
40610	만나는 친구	보"는"
40611	만난 친구	본
40611	만난 친구	만난
40612	만났던 친구	만내편

40613	만날 친구	만날
40614	큰 아이	크"은"
40615	크던 아이	크"으"뜬"
40616	켰던 아이	크"으"든"
40617	마시지 않겠다	무께"따
40618	비가 오겠다	오게"따

##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암 무"우따(+ 긴부정문으로는 표현하지 않음.)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안 조"타(+ 긴부정문으로는 표현하지 않음.)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앙 깨끗하"다(+ 긴부정문으로는 표현하지 않음.)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	앙 가"따(+ 긴부정문으로는 표현하지 않음.)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암 만나바"따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찌도 앙"코
40706-1	먹도 않고	먹"또 앙"코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암 뭉는"다
40708	맞잖소?/안 맞소?	마"제

## 4.8. 사동과 피동

###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려따
40802	늘리다	부라"따
40802	늘리다	불"리따
40802	늘리다	늘"리따
40803	말리다1	말랴"따
40803	말리다1	말류"운다
40804	말리다2	말"기따
40805	열리다	어라"아따
40805	열리다	열"리따
40806	녹이다	노카"따
40806	녹이다	노"기따
40807	신기다	싱"기따
40808	보이다	보인"다

40809	알리다	알"린다
40810	입히다	이"핀다
40811	얹히다	안"친다
40812	벗기다	비"깁다
40813	웃기다	이"깁다
40814	씩히다	씩카"안다
40815	숨기다	숨캐"앤다
40816	굴기다	궁"긴다
40817	깨우다	깨"운다
40818	돌우다	도두"운다

#### 4.8.2. 피동

40819	잡히다	자피"따
40820	깎이다	까끼"따
40821	끼이다	끼"이따
40822	떼이다	떠"이"따
40823	채이다	채이"따
40824	단히다	다끼"따
40825	들리다	들린"다(+ 소)
40825	들리다	드깁"다(+ 다)
40826	업히다	어피"따
40827	바뀌다	바끼"따
40828	썩히다	씨피"따
40829	엎히다	언치"따
40830	찍히다	찌키"따
40831	눌리다	눌리"따
40832	실리다	실리" 가따
40833	끓기다	끓키"따
40834	끓히다	끓키"따

####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집"따
40902	싶다	시푸디~"이
40903	보다	보"이"소
40904	버리다	무" 뿌따(+ "먹어 버렸다"의 의미임.)
40905	대다	댄다
40906	-나/는가 보다	올"랑" 갑따
40907	-나/는가 보다	자"나"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	자"능갑"따
40908	-나/는가 보다	추"웅"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추"붕갑따

## 4.10. 부사

41001	실컷	실컷"
41002	많이	마~:이
41003	너무	너무
41004	조금	쪼"끔"
41005	자주	자"주
41006	빨리	빨"리
41007	얼른	얼른
41008	기어코	기어"코
41009	가끔	강:가~이
41010	먼저	먼저
41011	나중에	나:중"에
41012	가득	까:딱
41013	몽땅	멜카"
41014	모조리	멜가이"(+ "말끔히"의 의미임.)
41014	모조리	점"부
41014	모조리	썩:
41014	모조리	말카
41014	모조리	모조"리
41015	혼자	혼"처
41016	항상	느을"
41016	항상	장마"중
41016	항상	항상"
41016	항상	언제"나"
41017	똑똑히	똑뜨"기
41018	겨우	제:우"
41019	늘	느을"
41020	저절로	지절"로
41021	자꾸	자꾸"
41022	설마	설"마"
41023	하마터면	하:마트"면
41024	함께	함께"
41025	걸핏하면	자꾸"(+ 다)
41025	걸핏하면	걸핏하"면
41026	공연히	공년히"
41027	그냥	기~"양
41028	매우	아"주
41029	곧장	썩"기"
41029	곧장	퍼뜩
41029	곧장	고짱"
41030	벌써	벌써"
41031	가장	제"일"
41031	가장	가"장
41032	가만히	가마~이
41033	미리	미"리
41034	이따금	가끔"
41034	이따금	이따금"



## 4.11. 관용적 표현

### 4.11.1. 관용구

41101	여보	여"보"오
41102	여보세요	여"보"오(+ 나이가 비슷한 남자일 경우.)
41102	여보세요	아주무~"이
41102	여보세요	여보시"오
41103	들어가요	드가"입시더
41104	수고하세요	일 마"치고 감니더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아"주 너 오름마~"이다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방"갑"따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나오심"니꺼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아침 잡사"심니꺼(+ 때에 따라 인사를 한 것임.)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오름마"임니더
41108	여기 있습니다	여"게 이썸니"다
41109	예	마썸니"다
41109	예	예:, 마썸니"다
41109	예	야"아"
41110	아니	아님니"다
41110	아니	어언"제
41110	아니	어언"제예(+ "어언"제"를 높여서 대답할 경우.)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괜찬습니"더
41112	내버려 뒀	내"또"라"아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

### 4.11.2. 속담

41114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미 빠진 도"게 물 부"끼다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도두기 소도둑 켜다
41116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	아이 땡" 굴뜨게 영"기가 나"까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 원 장 이 기 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 영 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 무 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 봉 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 정 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 경 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 강 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 영 목 (충 남 대 학 교)
- ◆ 자문위원 최 명 옥 (서 울 대 학 교)
- ◆ 자문위원 홍 윤 표 (연 세 대 학 교)

